

# 망포동

태장면의 중심지에서  
수원 신흥 주거지로

2000년대 이후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망포동은 매우 '젊은 동네'로  
수원의 신흥 주거지로 부상하였다.

망포동

태장면의 중심지에서  
수원 신흥 주거지로



비매 품/무료

94300



9 791168 190436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망포동**

태장면의 중심지에서  
수원 신읍 주거지로



CONTENTS



1 망포동의  
지리와 역사

|                             |     |
|-----------------------------|-----|
| 01 망포동의 생활터전과 지리적 환경        | 007 |
| 02 『태장향토사』, 일제강점기 태장면을 기록하다 | 061 |
| 03 태장초등학교의 변천과 위상           | 087 |
| 04 국립잠종장과 양잠업               | 113 |



4 망포동의  
산업화와 도시개발

|                                 |     |
|---------------------------------|-----|
| 01 망포동의 산업화와 안성유리               | 273 |
| 02 망포동 최초의 공동주택,<br>망포연립과 청와아파트 | 297 |
| 03 망포동의 도시화와 도시개발               | 319 |

2 망포동이  
품은 마을

|                        |     |
|------------------------|-----|
| 01 망포동의 자연마을           | 137 |
| 02 망포동 사람들의 농사짓기       | 169 |
| 03 떠나지 않는 그리움, 망포동 친목회 | 191 |

5 '망포신도시'의  
형성과 문화

|                    |     |
|--------------------|-----|
| 01 망포동의 주거지 성격과 위상 | 343 |
| 02 망포동 아파트의 운영과 문화 | 367 |
| 03 망포동의 지역공동체 활동   | 401 |
| 04 망포동 상권의 형성과 변화  | 431 |

3 망포 마을  
사람들의 삶

|                             |     |
|-----------------------------|-----|
| 01 방죽머리의 변화와 함께한 인생 3막, 김형진 | 213 |
| 02 옛 태장의 그리움과 향수를 지닌 황종각    | 227 |
| 03 '망포'의 마을 일꾼, 이해창         | 241 |
| 04 농민과 함께한 태안농협 일꾼, 한광수     | 255 |



- 01 **망포동의 생활러전과 지리적 환경**
- 02 **『태장향토사』, 일제강점기 태장면을 기록하다**
- 03 **태장초등학교의 변천과 위상**
- 04 **국립잠중장과 양잠업**

- 01 **망포동의 생활러전과 지리적 환경**
- 02 **『태장향토사』, 일제강점기 태장면을 기록하다**
- 03 **태장초등학교의 변천과 위상**
- 04 **국립잠중장과 양잠업**





## 01

# 망포동의 생활터전과 지리적 환경

## 1. 수원의 남단에 자리한 마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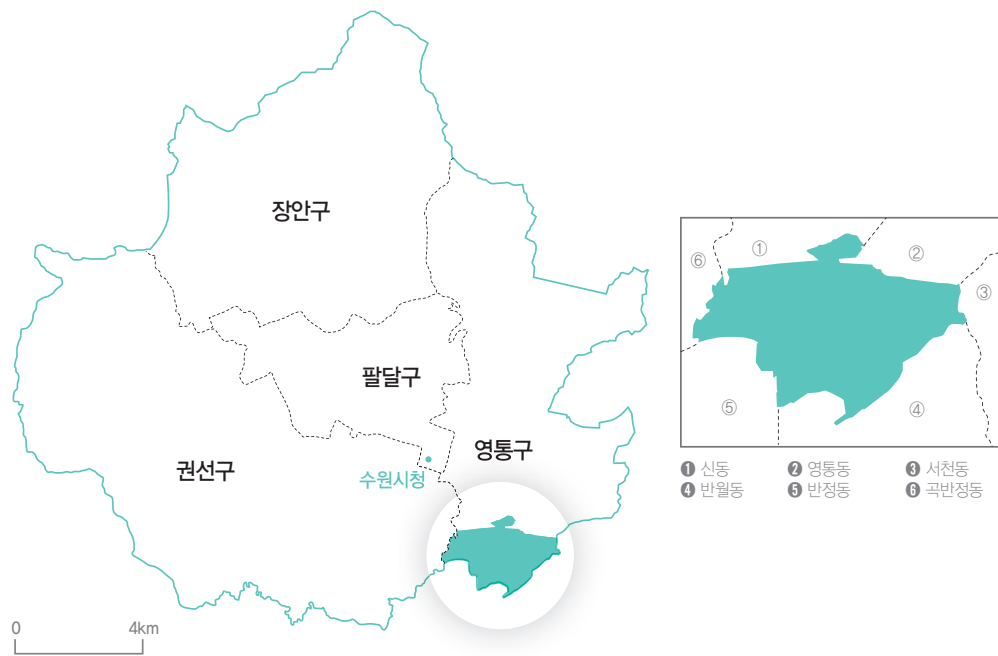
### 1)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지역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에 자리한 망포동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마을이다. 망포동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원을 찾기는 어렵지만, 근래 망포동 일대에서 실시된 유적 발굴 조사 결과<sup>1</sup>를 통해 화성시 기안동에서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기안동과 멀지 않은 망포동에서도 오래전부터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포동은 농경지가 풍부하고 지형이 평탄하여 일찍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좋은 장소였다. 용인시로 이어지는 동쪽에는 해발고도가 높지 않은 나지막한 산지가 펼쳐져 있고 서쪽으로는 원천천(원천리천이라고도 함) 주변에 형성된 넓은 충적지와 구릉지가 발달해 있어, 망포동은 취락이 형성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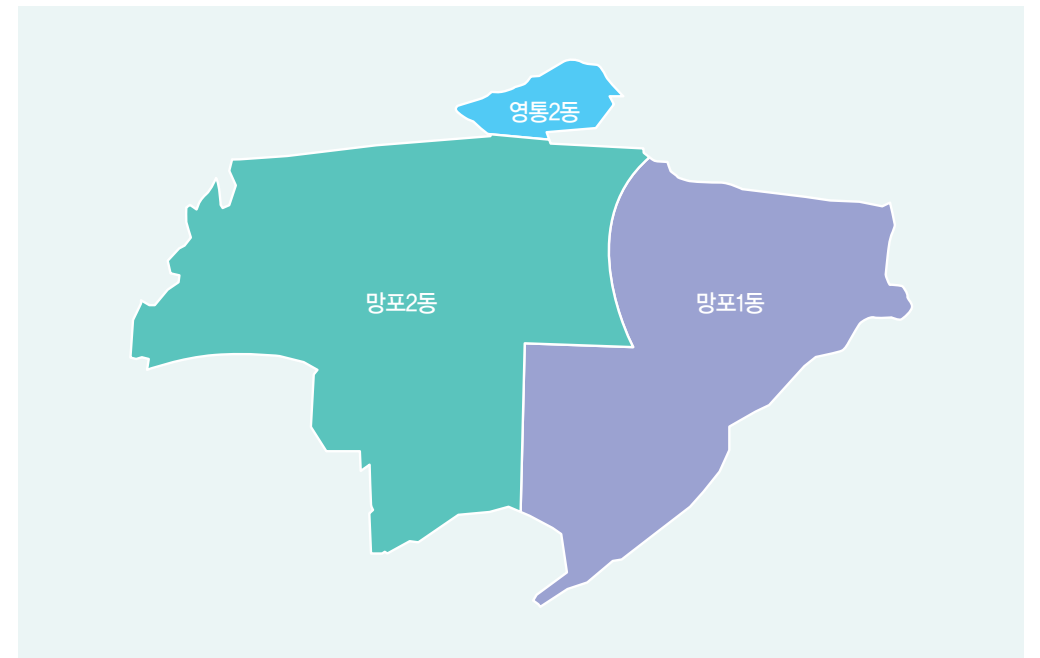
망포동은 수원시의 동남부에서 화성시 반정동과 반월동, 그리고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과 행정경계가 닿은 경계부에 자리한다. 망포동 동쪽의 용인시 서천동에는 청명산(191.9m)에서 매미산(157m)으로 이어지는 조그마한 산줄기가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다. 이 산줄기의 서사면은 완경사지를 이루고 있으며, 산줄기의 끝부분에서 평지와 접촉하는 지점에 망포동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망포동의 전체적인 지형적 특징은 하천과 평지로 이루어진 땅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평지는 농경활동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었고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수원시의 동남단에 위치한 망포동(법정동)



망포동(법정동)을 관할하는 3개의 행정동(망포1동, 망포2동, 영통2동)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논과 밭을 일구며 생계를 이어 올 수 있었다.

행정구역상 수원시 영통구에 속한 망포동의 서쪽은 화성시 반정동과 경계를 이룬다. 북쪽으로는 영통구 신동 및 영통동과 경계를 맞대고 있다. 동쪽과 남쪽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인시·화성시와 경계를 형성한다. 망포동은 역사적으로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마을이고, 인접한 용인시와 오래전에 행정경계가 설정됨에 따라, 현재의 망포동 신시가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이 일대를 가로지르던 조그마한 도로나 개울을 기준으로 마을의 경계가 형성되었다. 수원시 권역에서 망포동의 경계는 대체로 간선도로를 따라 설정되어 있지만, 망포동이 용인시 서천동과 화성시 반정동·반월동 등지와 이루는 경계선은 간선도로가 아닌 소로 또는 아주 폭이 좁은 하천을 기준으로 설정된 특징이 있다.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의 경계선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흐르던 개울이며, 개울의 물길이 그대로 행정경계에 적용된 것이다. 망포동의 동남쪽으로 국도 43호선(봉영로)이 통과하지만, 이 도로로부터 동쪽과 남쪽으로 벗어난 소로 및 하천이 용인시나 화성시와 행정경계인 셈이다. 망포동의 동남단은 용인시 서천동의 생태공원에서 흘러온 작은 하천인 반월천이 통과하면서 화성시 반월동과 경계가 형성되었다. 망포동에서 반월천의 구간은 대부분 자연하천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국도 43호선 구간의 망포지하차도와 지방도 315호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는 하천이 덮여 있어 물길의 형태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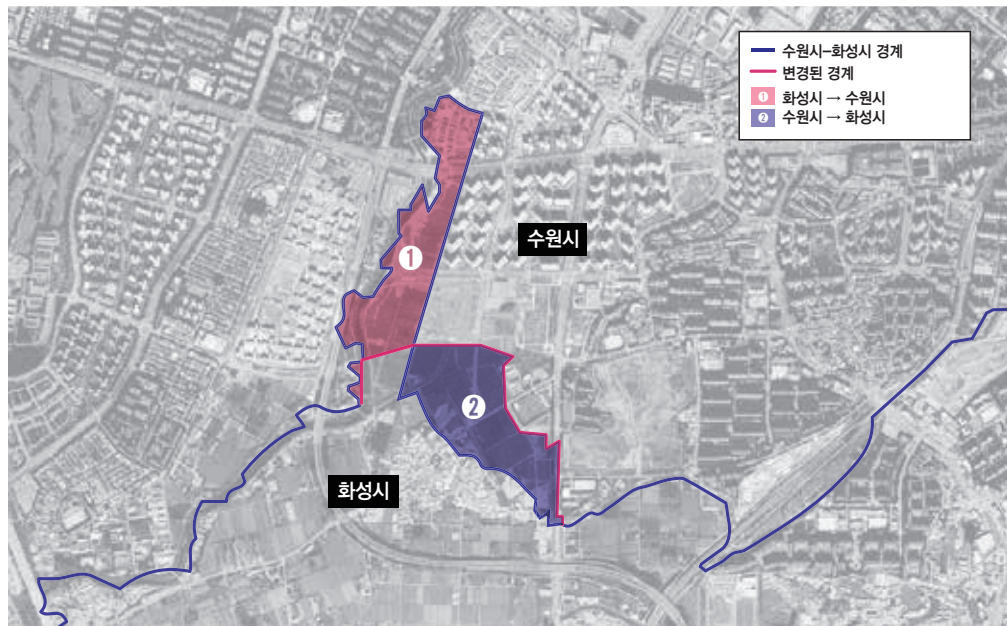
망포동의 북쪽으로는 덕영대로가 동서 방향으로 통과한다. 이 도로를 기준으로 영통구 신동과 망포동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다. 덕영대로와 권선로가 교차하는 망포역삼거리의 동북쪽 일부 구역은 덕영대로를 건너 망포동의 행정구역에 포함된다. 그 이유는 기존 망포동에 속했던 지역 가운데 일부가 영통동에 편제되면서 덕영대로 북쪽은 대부분 신시가지가 개발된 영통동에 편제되었지만 영통 신시가지 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구역은 그대로 망포동에 남아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망포동이라는 지명에서 유래한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의 망포역이 자리한 곳은 행정구역상 망포동이 아닌 영통동이다.

망포동과 영통동의 경계는 망포역이 자리한 망포역사거리의 동남쪽에서 동서 방향으로 뻗은 소로(영통로200번길)이다. 망포동의 동쪽 끝에 자리한 방죽마을영통트란채아파트 및 e편한세상영통2차아파트에 닿아 있는 아주 조그마한 도로는 수원시 망포동과 용인시 서천동의 경계선 역할을 한다. 이 경계선의 서쪽에는 망포동의 시가지가 자리하고 동쪽에는 용인시의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 망포동과 서천동은 서로 다른 도시의 행정구역이지만 시가지가 서로 붙어 있어 마치 하나의 도시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즉 두 도시의 시가지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달아 자리함으로써 시가지가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도시연담(코









수원시-화성시 행정경계 조정(2020년)

너베이션, conurbation)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망포동이다.

망포동의 서쪽은 최근 들어 택지개발이 본격화했다. 대부분 고층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단지가 건설되었으며, 일부 미개발지는 농경지의 형태로 남아 있기도 하다. 새로운 시가지가 만들어짐에 따라 망포동의 서쪽과 화성시 반정동을 구분하는 경계선은 도로를 따라 반듯하게 설정되었다. 그러나 2020년 7월 23일자로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망포동의 일부 구역이 맞교환 형식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면서 반정2지구가 수원시 구역으로 들어오게 되어 원천천 옛 물줄기를 따라 구불구불한 시경계선을 갖게 되었다. 또한 망포동 관할이었던 동탄지성로 박지성삼거리의 박지성축구센터 남서쪽 옛 경기도 잠종장 부지는 화성시 반정동 관할이 되었다. 화성시 반정동의 일부 구역 및 반월동에서 비도시적 특징을 가지는 지역과의 행정경계는 농경지를 사이에 두고 구불구불하게 설정되어 있다.

수원의 도시화가 진행되고 대단위 택지개발과 함께 주거단지와 시가지가 조성되면서, 망포동은 과거의 모습을 많이 상실했다. 망포동의 서쪽은 아직까지도 농경지가 일부 남아 있지만, 망포동의 동쪽은 계획적인 시가지로 개발되어 옛 모습을 대부분 잃어버렸다. 즉 도시적 경관과 농촌적 경관이 뚜렷한 형태로 공존하는 곳이 망포동이며, 이들 경관은 남북 방향으로 뻗은 동탄지성로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었다. 망포동은 농경지로 남아 있는 일부 구역도 새로운 용도로 개발될 계획이 수립되어 조만간 새로운 마을로 재탄생할 것이다.

망포동은 영통신도시에서부터 진행된 도시개발의 물결이 밀려오면서 2000년대 이후 아주 빠르게 도시화를 경험한 곳이다. 신규 택지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망포동은 도시경관이 변화한 것은 물론 거주하는 인구규모도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동이 두 개로 분리되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는 영통구 영통로90번길 4-16(망포동 484번지)에 있고, 망포2동 행정복지센터는 영통구 태장로54번길 10(망포동 234-43번지)에 자리한다. 행정동이 둘로 분동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는 임시청사에 있다.

## 2) 수원시와 화성시를 연결하는 길목

망포동이 속해 있던 태촌면은 용인에서 흘러오는 갈천에 의해 평택의 진위와 분리된 땅이었다. 갈천의 물줄기는 지금의 용인시 기흥구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내려 망포동의 남쪽을 지났지만, 신갈저수지가 축조되면서 물줄기의 규모가 축소되었다. 한편 진위에서 한양으로 향하던 길은 갈천을 건너 태촌면에 속한 지금의 망포동을 경유하여 원천천의 동쪽을 통과하는 경로가 하나 있었고, 다른 한 경로는 진위에서 태촌면의 서쪽을 지나 수원화성을 경유하여 통과하던 길이었다. 이들 두 길은 광교산의 남서사면에서 만난 후 지지대고개를 넘어 북쪽으로 연결되었는데, 길의 경중을 따지면 후자가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길이었다. 태촌면의 서쪽으로 통과하던 길은 조선시대에 한양에서 호남지방으로 연결되던 대로의 구간에 포함되는 도로였으며, 지금은 국도 1호선이 이 구간을 통과한다.

망포동은 수원시와 화성시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으로 뻗은 간선도로가 망포동의 시가지를 통과함에 따라, 교통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도로는 국도 43호선이다. 이 외에 지방도 315호선이 동의 중앙부를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며, 동탄지성로가 망포2동의 중앙을 통과한다. 망포동의 북쪽에서는 덕영대로가 동서 방향으로 통과한다. 그리고 이들 도로로부터 분기한 도로가 시가지를 사방으로 연결한다. 동탄지성로에서 분기한 도로에는 동탄지성로470번길이 있고, 태장로는 동탄지성로와 교차한다.

박지성삼거리에서 태장사거리까지 이어지는 태장로는 망포동을 동서 방향으로 통과하는 도로이며, 이로부터 태장로7번길, 태장로35번길, 태장로54번길, 태장로71번길, 태장로82번길이 분기했다. 지방도 315호선의 망포동 구간은 도로명 주소가 영통로이며, 이 도로에서 분기한 도로에는 영통로89번길, 영통로90번길, 영통로102번길, 영통로112번길, 영통로130번길, 영통로153번길, 영통로154번길, 영통로173번길, 영통로174번길, 영통로200번





망포동 주요 도로망

길 등이 있다. 덕영대로에서 분기한 도로에는 덕영대로1471번길, 덕영대로1483번길, 덕영대로1484번길, 덕영대로1499번길, 덕영대로1556번길이 있다. 한편 국도 43호선인 봉영로에서 분기한 도로명은 없다.

망포동을 경유하는 주요 도로의 명칭이 부여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덕영대로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의왕시와 용인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이므로, 의왕시와 수원시의 경계에 위치한 덕성산(163m)을 비롯하여 수원시의 영통 및 용인시의 영덕이라는 지명을 모두 포함하는 도로명을 붙였다. 동탄지성로는 도로가 시작하는 화성시의 행정구역 명칭인 동탄과, 수원의 세류초등학교 및 수원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세계적인 축구선수 박지성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로명이다.<sup>2</sup> 태장로는 망포동의 중앙을 동서 방향으로 관통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인 태장동을 이용하여 부여한 명칭이다. 영통로는 도로가 통과하는 장소의 명칭인 영통을 사용한 것이며, 국도 43호선의 구간인 봉영로는 화성시 봉담읍과 수원시 영통구의 머릿글자를 따서 붙인 도로명이다.

망포동은 여러 도시의 행정경계가 교차하는 곳인 만큼, 일찍부터 행정경계의 변화가 잦았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화성시 반정동의 일부와 수원시 망포동의 일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한 사례도 있다. 행정구역의 조정은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

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망포동 일대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답은 생활권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은 수원시이지만 그들이 거주하는 곳의 행정구역이 화성시로 편제되거나 또는 그 반대의 상황처럼 행정권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부적절한 행정 경계는 각 도시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망포동에서 이러한 일이 생겨난 것은 망포동과 그 일대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과거에 거주 인구가 적었던 시절, 또는 교통 여건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했던 시절에는 도보 생활권이었기 때문에 거리가 중요한 결정요소였지만, 자동차 교통이 보편화하고 도로가 잘 발달한 현대에는 거리가 생활권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망포동의 여러 인문환경이 빠르게 변화했고, 그로 인해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났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3) 화성군과 수원시를 넘나들었던 행정구역

망포동은 조선시대에 수원부 태촌면에 속했다가 1914년 일제가 단행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망포리와 우문리가 통합되어 수원군 태장면 망포리로 편제되었다. 1914년에 생겨난 태장면은 태촌면과 장주면을 비롯하여 남부면 2개 리 등 모두 13개의 리를 거느렸는데, 태장면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면사무소가 망포리에 설치되었다. 태장면(台章面)은 1914년에 태촌면(台村面)과 장주면(章州面)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서 생겨난 이름이며, 통합되기 전 이들 두 면은 모두 수원군에 속해 있었다.

1914년의 행정구역 통합 내용으로 보면 망포리가 우문리에 비해 규모가 컸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당시에 제작된 지도에서 망포리는 행정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문리는 괄호 안에 지명이 표기됨으로써 자연마을의 형태로 표기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따르면 태촌면(苔村面)의 지명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며, 1910년에 간행된 『민적통계표(民籍統計表)』에서는 태촌면이 태림면(台林面)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sup>3</sup> 즉 태촌면의 음은 같지만 한자 표기가 이후에 변경되었고, 태림면은 한자로의 표기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수원군의 성장과 더불어, 수원화성 일대를 관할하던 수원읍은 1949년에 수원시로 승격되었다. 수원읍이 기존 수원군에서 분리되어 시급 도시가 됨에 따라, 수원시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은 모두 화성군으로 편제가 변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읍이 시로 승격





1776년 수원부 지도에 나타난 태촌면(팔도지도,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태촌면 옆으로 현 국도 1호선이 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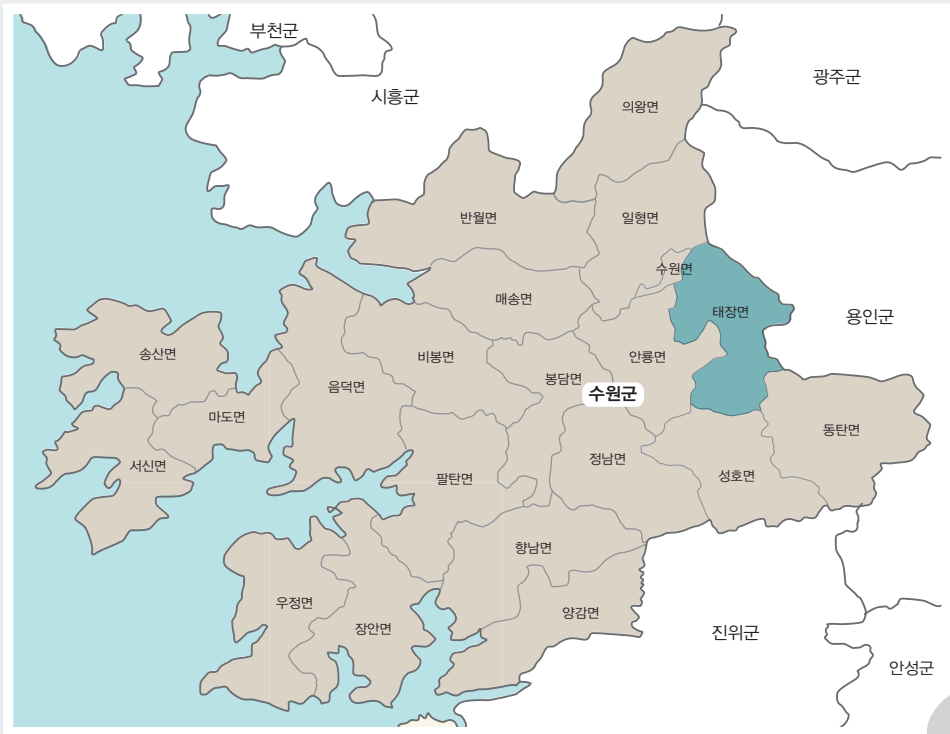
할 경우 새로 생겨난 시의 이름이 기존 군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군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수원읍은 수원시로 명칭이 부여되었고, 기존 수원군은 화성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에 태장면 역시 화성군에 편입되었다.

1963년 1월 1일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개편이 진행되면서 화성군 태장면의 3개 리(권선리, 매탄리, 원천리)가 수원시에 편입되었지만, 지금의 망포동은 여전히 화성군에 속해 있었다. 당시 화성군 태장면은 수원시에 6개의 리(평리, 장지리,



1872년 수원부 지도에 보이는 태촌면(수원박물관 제공)  
당시 태촌면에는 망포리, 반월리, 능리, 병점리, 진안리, 기산리가 속해 있었다.





1914년 수원군 태장면



1914년 태장면 소속 13개 리  
인계리, 지리, 권선리, 원천리, 매탄리, 영통리, 신리,  
망포리, 반월리, 기산리, 능리, 병점리, 진안리가  
태장면 소속이었다.



1936년 태장면  
인계리와 지리가 수원읍으로 편입되었다.



1963년 수원시 관할구역으로 편입된 지역  
태장면의 원천리, 매탄리, 권선리는 수원시로  
편입되었으나, 망포리는 화성군에 속해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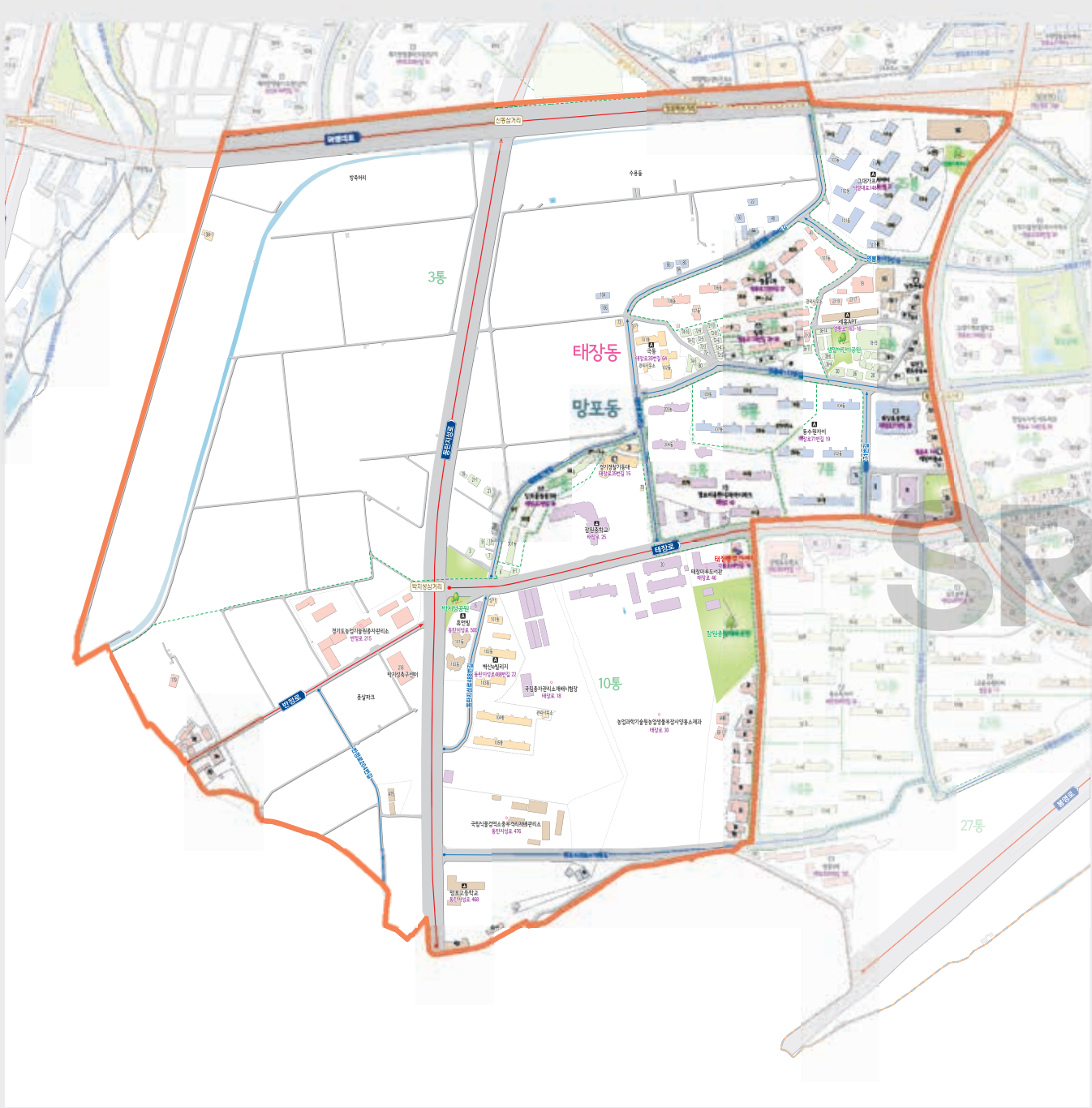


1994~1995년 수원시로 편입되어  
팔달구에 편제된 망포동









망포2동 관내도(2020년 경계조정령 시행 전)



망포1동 관내도





매탄3동 태장민원증계처리사무소 개소(1995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개청(2019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태장동 주민센터(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망포2동 행정복지센터(최인경 제공)



곡반정리, 대황교리, 고색리, 오목천리)를 넘겨준 안룡면(安龍面)의 나머지 지역과 통합되어 화성군 태안면(台安面)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태안면은 태장면과 안룡면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이름이며, 면사무소는 진안리(陣鴈里, 지금의 화성시 진안동)로 이전했다. 태안면은 1963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14개의 법정리로 편성되었다. 화성군 태안면은 1985년 10월 1일 태안읍으로 승격하여, 망포리는 태안읍 망포리로 편제되었다.

1994년 12월 26일 태안읍 망포리 일부가 수원시에 편입되어 팔달구 영통동 관할이 되었으며, 1995년 4월 20일에는 화성군 태안읍 망포리와 신리 전 지역이 수원시에 편입되면서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과 신동으로 신설되었다. 이들 두 동은 당시 법정동이었다. 팔달구 망포동은 이후 행정구역의 개편을 통해 2003년 11월에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이 되었다. 수원시에 영통신도시가 개발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03년 11월 24일 영통구가 설치될 때 팔달구에서 영통구로 관할이 변경된 것이다.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했던 1949년부터 다시 수원시에 편입된 1995년까지 망포동은 수원시가 아닌 화성군에 포함되었지만, 이 기간을 제외하면 망포동은 오래전부터 수원의 영역에 포함되었던 마을이다.

망포동은 수원시에 편입될 때 팔달구에 편제되었으며, 행정 업무는 매탄3동에서 관할했다. 도시화의 수준이 낮고 상주인구 및 경제활동의 입지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망포동은 당시 법정동으로만 존재했다. 2003년 2월 10일 매탄3동이 매탄3동과 태장동으로 분동되면서, 망포동의 행정업무는 태장동으로 이관되었다. 행정동 태장동은 법정동 망포동과 신동을 관할했다. 2017년 12월 26일에 영통1동과 영통2동이 3개의 행정동으로 분동되어 영통3동이 신설되면서 태장동 관할하에 있던 지역 가운데 덕영대로 북쪽의 법정동 신동이 영통2동에 편입되었다. 이때부터 행정동 태장동은 법정동 망포동만을 관할하기 시작했다.

태장동과 영통2동의 행정경계가 덕영대로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덕영대로에 접한 남쪽 구역 일부도 영통2동으로 편제됨에 따라, 망포동의 경계선이 대로를 따르지 않게 되었다. 수원시 동남부의 도시개발과 더불어 택지가 조성되고 상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망포동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동 태장동은 영통로와 태장로의 일부 구간을 기준으로 2019년 4월 15일 망포1동과 망포2동으로 분동되었다. 이로 인해 지금의 망포동에 100여 년 동안 투영되어 있던 태장이라는 지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꼴이다. 망포동과 신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의 명칭이 태장동으로 정해진 후, 일부 주민들은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망포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의 명칭도 망포동으로 정립되었다.

## 2. 마을 이름의 유래

### 1) 방죽에서 이름이 유래한 망포마을

망포(網浦)라는 지명은 과거 이 마을이 물과 관련된 곳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마을에 있던 방죽은 조선 중기에 축조되었으며, 커다란 방죽 근처에 생긴 마을의 이름이 망포였다. 방죽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가다가 망포마을 근처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이 모습이 마치 물길에 머리를 쳐들고 있는 형상이라는 데에서 방죽머리라는 마을 이름이 생겨났다. 이로부터 방죽머리, 방죽머리, 망개, 망포 등의 이름이 생겨났다.<sup>4</sup> 방죽이 만들어졌을 초기에는 마을 이름이 방축리(防築里)로 불리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방죽에서 그물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았으며, 고기를 잡던 마을의 이름은 원망포(元網浦)로도 알려져 있다.



1910년대 지형도에 보이는 망포리 지명





- 도로
- 옛길
- 태장동 경계
- 백년천
- 관공서
- 학교





2021년 방죽머리(김승일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망포마을의 위치는 현 영동중학교의 남서쪽으로 비정된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망포리 주민들은 그들이 살던 마을 이름을 망포 대신 방죽머리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불렀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방죽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의 망포역 근처를 흐르는 개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있고 그 곳에서도 일부 방죽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옛날 이 마을에 갯물이 들어와 포구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망포라는 명칭이 생겨났다고도 한다.

방죽머리는 현재 망포역삼거리 바로 북쪽의 디지털엠피아Ⅱ가 자리한 곳에 있던 지명이었으며, 방죽머리 근처에는 1921년 4월 28일 개교한 태장공립보통학교가 있었다. 태장공립보통학교는 태장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5년 3월 지금의 망포동 371번지로 이전하여 새롭게 문을 열었다. 옛 태장초등학교 자리는 영통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해 새롭게 생긴 영동중학교가 들어서 있다. 영동중학교의 운동장에 있는 고목만이 옛 태장초등학교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뿐이다.

삼성전자의 남쪽으로 통과하는 신원로 근처에는 지금도 방죽머리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있다. 망포동의 옛 이름인 방죽마을이라는 명칭은 도시화의 물결과 더불어 새롭게 재탄생

방죽마을영통뜨란채아파트 단지로 변한 당암마을

했다. 망포동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방죽마을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2005년 9월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된 방죽마을영통뜨란채아파트가 바로 그것이다.

## 2) 망포리에 포함된 마을

1914년 일제에 의해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망포리의 근간인 방죽머리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던 당암(堂岩)마을과 우문(牛門)마을을 병합해 망포리라 부르게 되었다. 당암마을은 1921년에 간행된 『조선지형도』 및 우리나라에서 1950년대 이후에 제작한 일부 지형도에 ‘광암(廣巖)’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암’과 ‘광암’이라는 명칭이 혼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망포리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들에게는 당암마을이 더 친숙한 명칭이다. 망포2리로 편제되었던 당암마을에는 상주 황씨가 많이 거주했다고 한다. 당암마을은 현 망포동의 동쪽 끝 지점에 있었던 마을로, 일찍이 이곳을 지나 영통 방면으로 이동하던 교통로가 개설되었다. 당암마을에는 사람들이 섬기던 신당이 있었는데 그



신당 주변에 바위가 많다는 데에서 명칭이 유래했고, 당염이라 불리기도 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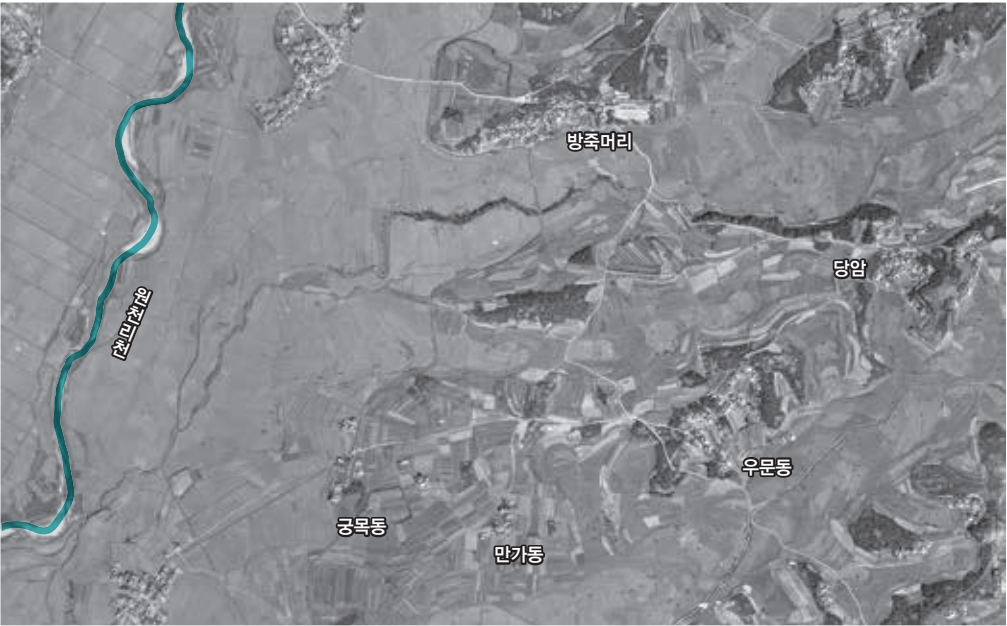
1914년에 망포리(網浦里)와 통합된 우문리(牛門里)는 마을 땅의 생김새가 암소와 비슷하다는 데에서 생겨난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지 주민들이 불렀던 마을 이름은 ‘소문이’였다. ‘소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유는 마을 주변에 농경지가 많아서 소를 끌고 논이나 밭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마을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소들이 자주 드나드는 길목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생겨났다고 전해진다. 우문리는 1831년에 간행된 『화성지(華城誌)』에 태춘면에 속한 망포동(望浦洞)으로 표기되었을 뿐이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따르면, 태춘면에는 22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지금의 망포동을 구성하는 마을 이름으로 망포와 우문리가 표기되어 있다.<sup>6</sup> 즉, 우문이라는 마을 이름은 일제강점기 순 우리말 지명을 일본인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망포리에는 여러 개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우문마을의 서쪽에 만가동과 구목동이 있었다. 그 가운데 만가동(萬家洞)이라는 마을은 ‘이 일대에 일만 가구가 들어설 만한 좋은 마을’이란 의미이며, 이로부터 ‘만호들’이라는 들판 이름도 만들어졌다. 만 가구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름 붙인 땅에 지금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으니, 과거 우리 조상들은 먼 훗날을 내다보고 예언하는 식으로 땅의 이름을 지은 것 같다. 지금의 생명샘교회 근처에 있던 구목동은 만가동의 서쪽에 자리했던 마을이며, 궁목동(宮木洞)으로도 불렸다. 일제강점기 ‘궁목흥작(宮木興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인이 이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궁목동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이후 구목동으로 변했다고 한다.<sup>7</sup> 만가동이나 구목동은 10여 가구가 살았을 정도로 마을 규모가 작았지만, 망포동 택지개발과 더불어 만가동이 있던 자리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한편 지금 태장초등학교가 있는 곳 주변에는 텃노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으며, 기와집이 많았던 양반 마을로 알려져 있다.<sup>8</sup>

### 3. 농촌에서 도시로 탈바꿈한 마을

#### 1) 원천천을 바라보며 구릉지를 끼고 있던 마을

우리 주변의 산줄기는 생활권이나 문화권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강하지만, 물줄기는 마주하는 마을을 서로 연계시켜 주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예로부터 산줄기를 마주



1966년 구릉지에 자리한 망포리 마을(수원시청 항공사진 서비스 제공)

한 마을 사람들은 생활권이 서로 다르게 형성시키기도 하고, 물줄기를 마주한 마을 사람들은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문화권 및 생활권을 형성시켜 왔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고지도에서 보면 망포동을 품고 있던 태춘면은 용인의 청명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에 의해 그 남쪽 지방과 지형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마을 앞쪽으로는 광교산에서 흘러내린 원천천을 마주하고 있다. 따라서 일찍이 태춘면 사람들이 어느 지방의 사람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해 왔는지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광교산의 동쪽 사면에서 발원하여 수원 시가지의 동쪽을 휘감으며 흘러내려 오는 원천천은 망포동을 직접적으로 관통하지는 않지만, 수원시의 4대 하천 정비구상에 따르면 망포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망포동 일대가 대단위 시가화 구역으로 개발됨에 따라, 원천천은 신개발지 주민들과 하천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이 하천은 휴식 기능뿐만 아니라 녹지 기능을 함께 구비함으로써 산책로, 운동놀이시설, 자전거도로, 휴게시설 등의 다양한 기능이 구비될 계획이다.<sup>9</sup> 근래 들어 원천천 하류에서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농경지가 잠식되기도 하고 수질오염의 문제가 우려되기도 한다.

망포동의 남쪽에 산줄기가 있었지만, 그 산줄기는 해발고도가 높거나 지형이 매우 험준한 산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다. 수원시를 비롯한 주



변 지역의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과거의 자연경관이 대부분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행되기 이전의 모습은 과거에 제작된 지도를 통해 간접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1920년에 간행된 지도에서 보면 과거 망포동은 전형적인 농촌이었다. 바닷가와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통항이 가능한 하천도 근처에 없었다.

지금의 망포동을 구성하는 자리에 있었던 자연마을은 방죽머리, 우문리, 당암리(광암리), 만가동, 구목동(궁목동) 등이 있었고,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마을은 방죽머리였다. 망포리는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신설된 태장면의 면사무소가 입지했던 마을이다. 망포리 북쪽에 자리한 야산의 해발고도는 약 47m에 달했고, 우문리 남쪽에 자리한 반월리의 해발고도가 35m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 일대는 일찍부터 평지와 다른 땅이었다.

그러나 시가지가 들어선 지금은 해발고도가 이보다 더 낮아져 30m에도 미치지 못한다. 마을 대부분이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평지로 이루어진 지형으로 논이 많았으며 일부 구릉지에는 밭과 과수원이 국지적으로 들어서 있었다. 주변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로는 망포리보다 우문리에서 잘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장면사무소는 수원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의 서측에 자리했었고 면사무소가 있던 망포마을의 가옥은 농경지 주변에 있던 조그만 소로를 따라 줄지어 분포했지만, 우문마을에서는 도로의 교차점 주변에 여러 취락이 모여 있는 형태였다. 광암마을과 그 주변에도 가옥이 산발적으로 분포했다.

일제강점기 태장면사무소가 망포리에 들어서면서 망포리는 면소재지로 발돋움하였고 태장면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면의 중심지에 있던 태장초등학교는 망포리뿐만 아니라 인근의 권선리와 매탄리에 거주하던 학생들이 다녔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태장초등학교는 1970년대에 화성군에 속했음에도 학군 배정은 수원시로 이루어진 유일한 학교였다. 이 때문에 당시 화성군 동탄면에 거주하던 학생들 가운데 수원시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태장초등학교로 전학을 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권선리와 매탄리 등지에서 태장초등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지나면서 수원시의 영역 확장과 함께 시내에 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더 이상 태장초등학교로 통학하지 않게 되었다.<sup>10</sup>

전체적인 지형이 동고서저의 형태를 보이던 망포리는 동쪽의 산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마을을 가로질러 흘렀다. 용인시 서천동에 있는 산자락에서 발원하여 흐르던 반월천은 지금도 그 물길이 일부 남아 있다. 그리고 청명산에서 발원하여 개나리가 많이 자랐다는 데서 신나무실로 불렸던 신리(莘里, 지금의 신동)를 지나 방죽머리 방향으로 흐르던 또 하나의 하천이 있었다. 이들 두 하천의 사이에서 뻗어 내린 나지막한 산줄기는 망포리에서 끝났다. 이 구릉성 산지는 경사가 매우 완만했으며 주변에는 원천천을 비롯한 크고 작은 여

러 물줄기가 통과했기에, 망포리에는 벼농사가 가능한 논이 많았다. 망포동에 있는 잠원초등학교의 교가에는 ‘만호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잠원중학교의 교가에는 ‘망포 들판’이라는 노랫말이 있다. 망포동 일대가 넓은 들판이었다는 사실이 망포동에 자리한 학교의 교가에 투영된 셈이다. 한편 역사가 가장 오래된 태장초등학교의 교가에서는 ‘백년천’이라는 하천의 명칭도 확인할 수 있다.

망포동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방죽머리(망포마을)에서 원천천을 향해 펼쳐져 있던 농경지의 중앙에는 여러 가옥이 모여 있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은 순 우리말로 된 벌터(신동)였다. 우리나라에서 논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을 가리켜 ‘벌’ 또는 ‘들’이라 했음을 고려하면, 망포리와 그 주변 지역의 지형적 특징과 경제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 마을 주변에 농경지가 아주 넓게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벌터는 일제강점기 들어 한자 지명인 평촌(坪村)으로 표기되기 시작했다.

## 2) 구릉지를 농경지로 개간한 마을

망포동은 일찍부터 농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마을이었다. 주민들은 주변의 넓은 농경지를 배경으로 벼농사를 주로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삶의 터전을 가꾸어 갔다.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망포동은 전형적인 농촌이었다.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거주해 왔던 자연마을은 가옥이 밀집한 집촌(集村)의 모습으로 형태를 유지해 왔다. 특히 망포동에는 집성촌을 중심으로 집촌이 탁월하게 발달했다. 우리나라에서 집촌이 탁월하게 형성된 이유는 집성촌의 탁월성,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음료수 문제 해결, 벼농사를 위한 관개용수 확보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민족이 지니고 있는 풍수지리사상은 가옥의 입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즉 북쪽에 산을 등지고 남쪽에 하천과 평지가 전개되는 지형 조건을 갖춘 곳이 가장 살기 좋은 장소로 간주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가옥이 남쪽을 향해 자리한 것은 아니다. 주변의 지형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가옥의 방향이 서쪽이나 북쪽을 향한 경우도 있다. 망포동에 일찍부터 자리했던 자연마을은 방죽머리와 우문동, 당암 등이 있었다. 이들 마을의 위치는 풍수사상의 입지 원리가 반영된 듯하다. 방죽머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망포마을은 높지 않은 구릉성 산지가 끝나는 남사면에 자리했으며, 당암마을과 우문동 마을은 산지가 만들어 놓은 아늑한 골짜기 형태의 장소에 입지했다. 이들 세 마을의 뒤쪽은 산줄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앞쪽에는 넓은 농경지가 전개되며 마을 앞으로는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이용이 가능한 개울이 흘렀다. 따라서 이들 세 마을의 형성 시기는 꽤 오래전으로 거





농경지가 풍부했던 망포리(1980년대)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한편 산사면에서 분리되어 농경지 사이에 입지한 구목동(궁목동)과 만가동은 상대적으로 마을의 형성 시기가 오래 되지 않았다.

1970~1980년대를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영농의 기계화가 진행되었고, 이에 발 맞추어 농경지는 경지정리 작업을 통해 반듯한 경계선을 가진 경작지로 탈바꿈했다. 망포동의 농경지 역시 마찬가지로 과정을 거쳤다.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화성시 반정동(당시 화성군 태안면 반정리) 일대에서는 대부분의 농경지가 직교형으로 정리되었지만, 망포리 일대의 농경지는 일부 고라실을 포함하여 경지정리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었다.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망포동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을 생업으로 유지했다.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76년에는 벚짚과 벼의 겹질인 왕겨를 가공하여 인체에 해가 없도록 만드는 왕겨연탄 공장이 망포리의 2만 3천여㎡ 부지에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되기도 했었다.<sup>11</sup>

1990년대 초반의 망포동 모습은 1970년대와 같지 않다. 1960년대에는 마을 주변의 구릉지가 그 모습을 거의 유지하고 있었지만, 1970년대 초반부터 구릉지가 개간되면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사라진 구릉지는 새로운 농경지로 탈바꿈했다. 구릉지 개간은 해발고도가 높지 않은 야산에서 많이 이루어진 사업으로, 구릉지는 밭으로 개간되는 경우가 많았다.<sup>12</sup> 그러나 망포동에서는 주변의 논과 연계하여 대부분 논으로 전용되었고, 그 결과 마을을 제외한 대부분 땅은 논으로 구성되었다. 들도 아니고 산도 아닌 야산은 우리나라의 서부 지방에 널리 분포하며,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행과 더불어 개간 촉진법이 공포되면서 전국적으로 야산개발이 활발하게 실시되었다. 개간촉진법은 농업생산력을 증강시키고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망포동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도 있지만, 망포동에는 농업과 관련한 국가기관이 여럿 자리했었다. 농촌진흥청에 속한 잠업시험장이 그 가운데 하나이다. 잠업시험장의 전신은 국립잠종장(國立蠶種場)이었다. 1973년 9월 26일 설치된 국립잠종장은 누에 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던 곳으로, 누에의 먹이인 뽕나무를 기르던 부지도 보유했었다. 국립잠종장은 1990년 3월 20일 국립생사검사소와 통합된 후 국립잠사소로 변경되어 농촌진흥청에 흡수되었고, 1991년에 잠사소의 기능은 농촌진흥청 잠업시험장으로 이관되었다. 2000년대 들어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도시 사업이 실시되면서 농촌진흥청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망포동에 있던 잠업시험장의 흔적도 대부분 사라져 버렸다. 잠업시험장은 잠원초교삼거리에 있는 망포2동주민센터와 태장마루도서관 일대에 있었으며, 망포국민체육센터가 2023년 12월 준공예정이다. 그 주변 부지는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 근처



에 있는 잠원초등학교와 잠원중학교의 명칭인 잠원(蠶園)도 잠업시험장과 관련이 있다.

이 외에 경기도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와 국립식물검역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가 망포동에 있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는 경기도 종자관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망포동의 반정로 215(망포동 123-1번지)에 있었으나 지금은 평택시로 이전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식량 작물인 벼, 보리, 콩 등의 품질이 우수한 종자를 직접 생산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도내의 농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옛 종자관리소 부지는 망포4지구 주택건설사업 대상지로 포함되었다. 국립식물검역소는 수출입 식물의 검역과 검사, 국내 식물의 검사와 이에 필요한 시험·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으로, 2007년 국립식물검역원으로 개편되었으며, 지금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통합되었다. 망포고등학교 북쪽의 동탄지성로470번길 건너편인 망포동 234-3번지에 있던 중부격리재배관리소는 1991년 8월에 설립되어 식물의 격리재배 검사와 검역기술 개발사업을 담당하다가 2011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로 변경되었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있는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망포마을현대아이파크2차아파트에서  
바라본 잠종장(김기서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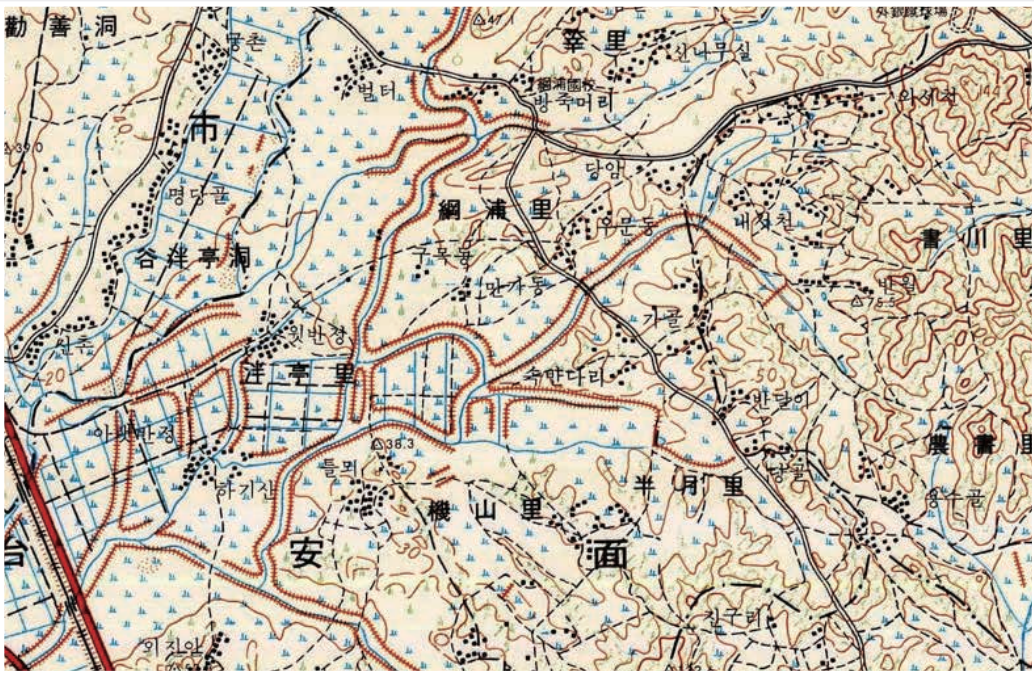
### 3) 농촌에서 도시로의 상전벽해

한 지역의 토지이용이 지목(地目)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지역의 특징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지목이란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해 놓은 용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목의 변화는 곧 그 지역의 장소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게 해 준다. 망포동의 주요 지목별 토지이용 변화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밭과 논 면적이 빠르게 감소한 동시에 건물이 들어선 대지의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밭과 논은 대표적인 농촌적 토지이용을 보여 주는 지표이고, 대지는 도시적 토지이용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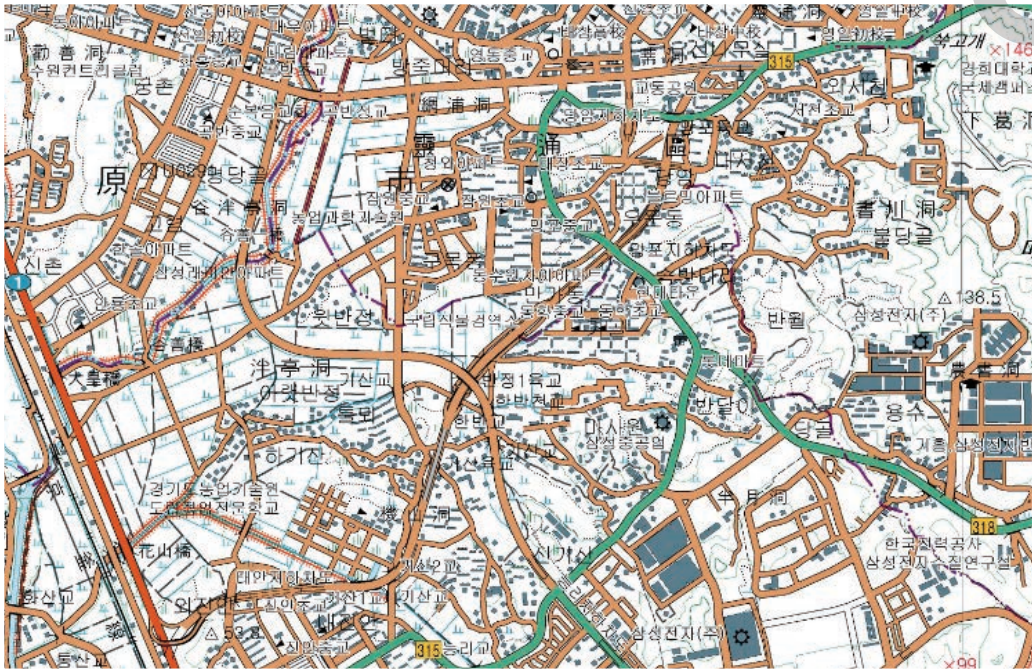
먼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수원군 태장면 망포리의 지목별 구성을 조사해 놓은 자료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다. 측량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910년에 설치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조사했다는 사실과 태장면이라는 지명이 기록된 것으로 고려하면 1914년 이후인 1910년대 중후반의 자료로 짐작된다. 당시 측량된 결과를 보면 망포리의 면적은 지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체 면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논으로 구성되었다. 논은 망포리의 면적에서 40.9%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임야 31.5%, 밭 25.9%, 대지 1.4% 등의 순이었다(표 1). 당시에는 구릉지가 개간되지 않은 자연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밭의 면적이 넓지 않았으며, 논 면적이 밭보다 넓었다는 사실은 망포동이 일찍부터 벼농사를 토대로 주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던 곳이었음을 보여준다.

망포동이 수원시에 편입된 이후 지목별 토지이용에 관한 자료는 1997년 이후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이 글에서는 1997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주요 지목의 변화 내역을 제시했다(표 2). 도시개발이 본격화하지 않았던 1997년에는 밭과 논이 망포동에서 차지한 비중이 각각 31.9%와 41.8%로 모두 73.7%에 달했으며, 여기에 임야까지 포함하면 동 전체면적의 80% 이상이 농경지와 임야로 이루어졌다. 망포동의 농촌적 성격은 2001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2년 들어서서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논 면적의 비율은 많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밭의 비율이 24.2%로 크게 줄었고 이와 더불어 임야의 비율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 대신 주택 및 건물이 들어선 대지의 비율은 21.2%로 증가했다. 즉 이 시기에 망포동에서는 동쪽의 임야 및 구릉지의 밭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신규의 시가지가 개발된 것이다.





1976년 망포동 일대(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농경지와 제방, 구릉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9년 망포동 일대(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복잡한 도로망과 다수의 아파트가 시가화 지역의 모습을 보여준다.

표 1 1910년대 중반 망포리의 지목별 구성

| 면적 | 지목             | 합계        | 밭       | 논         | 대지     | 임야      | 묘지    |
|----|----------------|-----------|---------|-----------|--------|---------|-------|
|    | 평              | 843,182   | 218,263 | 344,941   | 11,585 | 265,388 | 3,005 |
|    | m <sup>2</sup> | 2,782,501 | 720,268 | 1,138,305 | 38,231 | 875,780 | 9,9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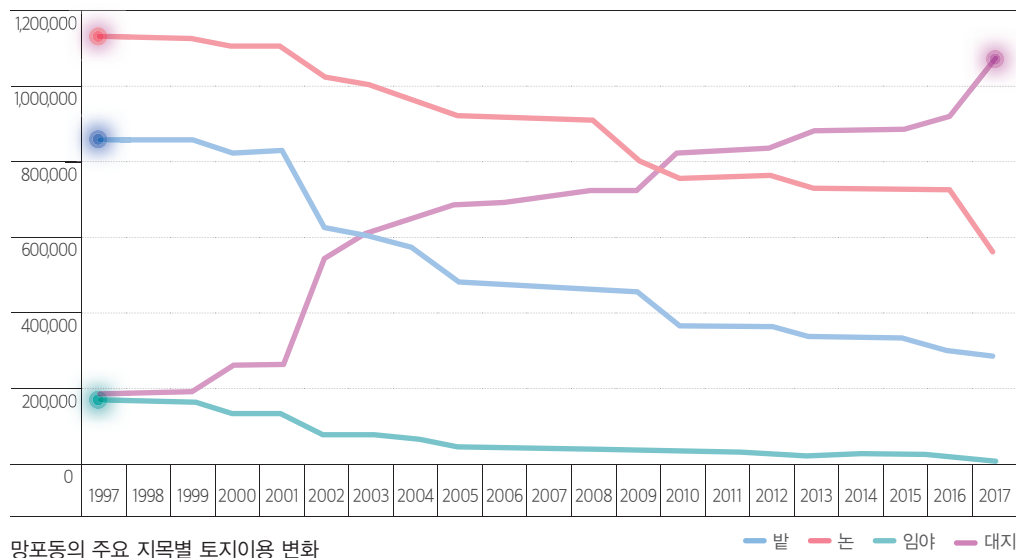
출처 : 『망포리 토지조사부』.

표 2 망포동의 주요 지목별 토지이용 변화

|      |           |         |           |         |           | 단위 : m <sup>2</sup> |
|------|-----------|---------|-----------|---------|-----------|---------------------|
| 연도   | 합계        | 밭       | 논         | 임야      | 대지        | 기타                  |
| 1997 | 2,706,880 | 862,739 | 1,131,524 | 174,234 | 187,486   | 350,897             |
| 1998 | 2,705,507 | 858,902 | 1,129,330 | 168,947 | 197,319   | 351,009             |
| 1999 | 2,704,026 | 857,937 | 1,125,272 | 168,820 | 200,005   | 351,992             |
| 2000 | 2,704,026 | 824,531 | 1,101,679 | 139,986 | 266,562   | 371,268             |
| 2001 | 2,704,026 | 824,531 | 1,101,679 | 139,986 | 266,562   | 371,268             |
| 2002 | 2,577,403 | 624,296 | 1,026,956 | 83,046  | 546,874   | 296,231             |
| 2003 | 2,703,775 | 605,028 | 1,002,025 | 80,649  | 618,211   | 397,862             |
| 2004 | 2,703,974 | 573,009 | 966,205   | 70,673  | 654,013   | 440,074             |
| 2005 | 2,704,954 | 486,539 | 921,954   | 49,995  | 689,488   | 556,977             |
| 2006 | 2,704,892 | 481,549 | 918,706   | 49,081  | 694,825   | 560,731             |
| 2007 | 2,705,283 | 470,861 | 911,929   | 46,075  | 713,535   | 562,883             |
| 2008 | 2,704,945 | 466,540 | 905,775   | 44,377  | 724,450   | 563,804             |
| 2009 | 2,627,694 | 459,628 | 810,183   | 40,439  | 724,240   | 593,205             |
| 2010 | 2,621,726 | 373,260 | 761,553   | 37,826  | 826,629   | 622,459             |
| 2011 | 2,621,726 | 366,731 | 761,553   | 37,798  | 832,970   | 622,674             |
| 2012 | 2,621,726 | 365,955 | 760,382   | 35,022  | 839,655   | 620,712             |
| 2013 | 2,621,986 | 337,513 | 733,967   | 29,238  | 879,956   | 641,312             |
| 2014 | 2,622,151 | 337,447 | 729,999   | 28,418  | 886,466   | 639,821             |
| 2015 | 2,622,465 | 337,346 | 729,998   | 28,418  | 887,334   | 639,369             |
| 2016 | 2,625,761 | 308,249 | 726,483   | 25,780  | 923,218   | 642,031             |
| 2017 | 2,625,682 | 283,628 | 564,733   | 16,017  | 1,069,020 | 692,284             |

출처 : 『수원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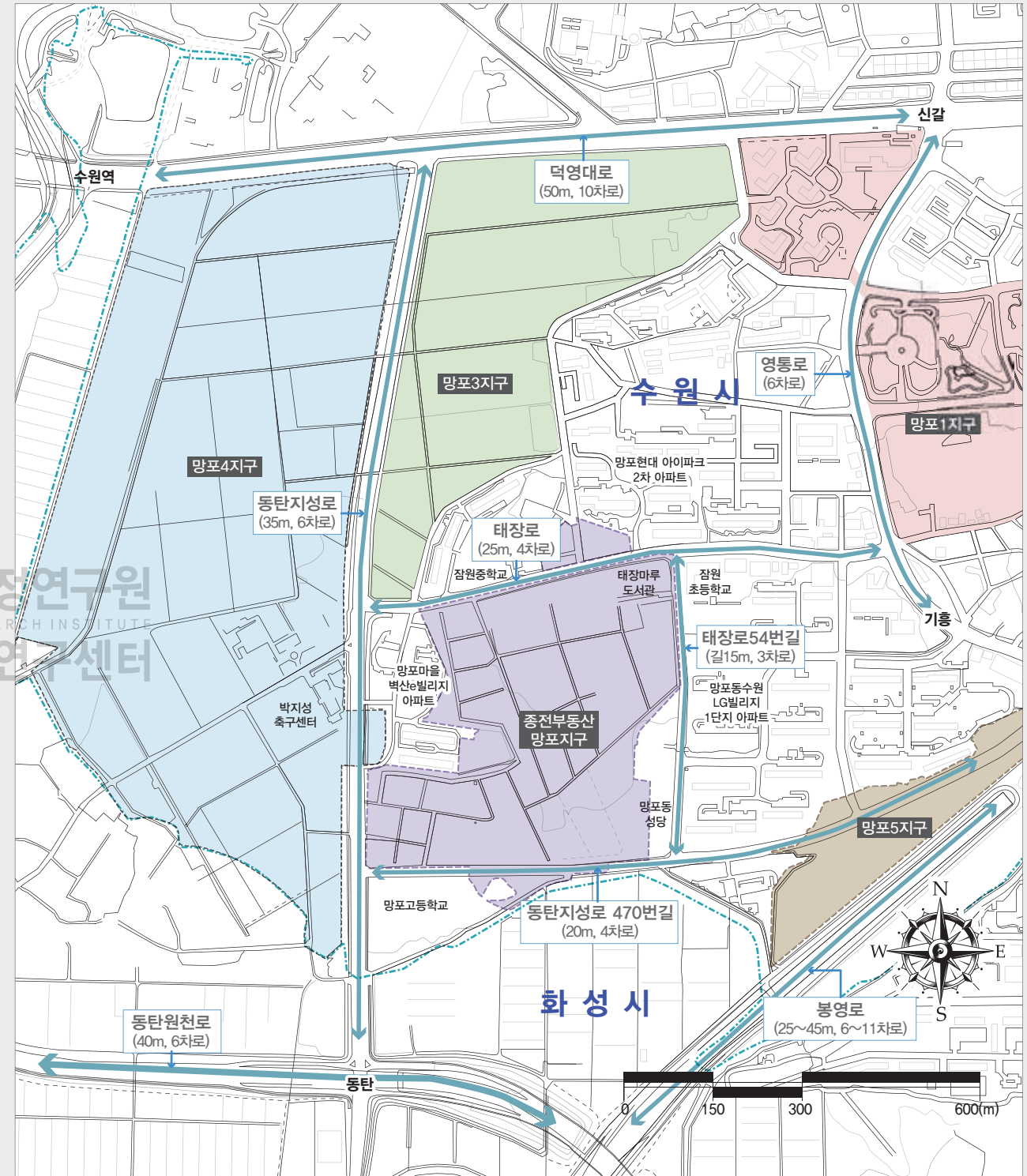


망포동의 주요 지목별 토지이용 변화

수원시에서는 1999년 3월 31일 기존의 도시계획 구역을 조정하여 신동과 망포동을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망포동은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원시에서 수립된 도시계획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당시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망포동과 신동 일대의 106만 7,000여 m²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 부지에 도시기반시설과 학교 및 공원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sup>13)</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망포동에서는 2000년 7월 처음으로 아파트 단지에 주민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2001년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 5개 부지에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했다.

대규모 신도시인 영통신도시와 덕영대로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망포동은 영통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이 부각되면서 ‘신영통’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신영통이란 표현은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었고, 당시 건설업체에서 주택 분양을 위한 홍보용 문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망포동(엄밀히 망포1동)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의 명칭에는 영통이라는 지명이 많이 사용되었다. 망포동에서 1999년의 주택 분양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영통신도시나 인접한 용인시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보다는 경부고속도로 수원나들목과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서울로의 출퇴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장점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망포동에서의 도시개발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망포동에서 지구단위 개발이 본격화했다.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도시 내 특정 구역을



망포지구 도시개발 현황(「종전부동산 망포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단위계획(2018)」)





덕영대로와 망포동 전경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기반시설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구역 내에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망포동은 망포1지구에서부터 망포6지구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으며, 망포5지구와 망포6지구 등지는 아직까지 개발이 완료되지 않고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수원시 외곽에 자리한 망포동은 농림지역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아 개발 가능 부지가 많았으며, 이는 최근의 급격한 도시 성장과 함께 망포동을 상전벽해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망포동의 상전벽해는 도시경관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지목별 토지이용의 변화와 같은 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도시공간의 급속한 변화는 망포동의 북쪽에 자리한 신동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와 2010년대를 거치면서 그 많던 농경지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시가화 구역으로 탈바꿈한 결과, 2019년 들어 망포동에서 주요 농촌적 토지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밭 10.2%, 논 14.2%, 임야 0.6%로, 이들 3개 지목의 합은 25.0%에 불과하다. 1997년에는 이들 3개 지목의 비중이 80.1%에 달했었다. 반면 도시적 토지이용을 대표하는 대지의 비중은 1997년의 6.9%에서 2019년에는 46.7%로 증가했다. 대지의 비중과 더불어 도시적 토지이용을 반영하는 도로, 학교부지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망포동뿐만 아니라 인접한 화성시 반월동 및 용인시 서천동에서도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수원시-화성시-용인시의 도시경계가 불분명한 도시연담 현상으로 귀결된다.

#### 4) 도로망 확충과 편리한 대중교통

과거 망포동을 통과하는 교통로는 서울을 충청남도 및 호남 지방으로 연결하던 대로에서 약간 빗겨나 있었다. 따라서 1960년대 이전까지 망포동의 교통여건은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제대로 구비되지 못했을 정도로 불량했다. 사람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수준의 소로가 개설되어 주변의 마을들이 연결된 수준이었다.

1960년대를 지나면서 지금의 화성시 반월동에서 우문동 마을의 서쪽을 지나 방죽머리를 경유하여 신동의 벌터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망포동에는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 서천동에서 당암마을을 지나 방죽머리로 연결되는 도로도 부설되었다. 우문동 마을과 당암마을을 지난 도로는 방죽머리에서 만났다. 벌터 마을을 지난 도로는 북쪽으로 뻗어 수원시로 이어졌지만, 이 도로가 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했다. 우문동 마을에서 방죽머리로 이어지는 도로는 망포동의 도시개발과 함께 현재 지방도 315호선으로 지정되었다. 1970년대 들어 망포동의 서쪽으로는 국도 1호선이 포장도로로 개설되었고 동쪽으로는 용인시를 남북으로 통과하는 경

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80년대에는 야산 개발과 함께 농경지가 증가하고 농지의 경지정리 작업이 진척됨에 따라 농지 사이를 통과하는 도로 및 주요 마을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확·포장되었다. 수원시에 편입된 1995년 이후 망포동의 교통여건은 매우 빠르게 개선되었는데, 이는 1994년부터 시작된 영통신도시 건설과 함께 진척된 도시화에 기인한다. 1990년대 말부터 망포지구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2000년대 초반에는 망포동에 시가지가 형성되었고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개설되기 시작했다. 망포동에 신규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면서 용인시 및 화성시는 물론 수원 시내로 유·출입되는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처럼 망포동 주민의 교통수요와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통과교통이 증가했지만, 2002년 기준 도로율이 7.3%에 불과했던 망포동에서는 교통문제가 대두되었다. 2002년 당시 수원시의 평균도로율이 20.5%를 기록했지만 망포동의 도로율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했고, 지방도 315호선의 전신인 지방도 343호선 역시 증가하는 통과교통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원시에서는 망포동과 그 주변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도를 확장하고 5개의 도시계획도로 및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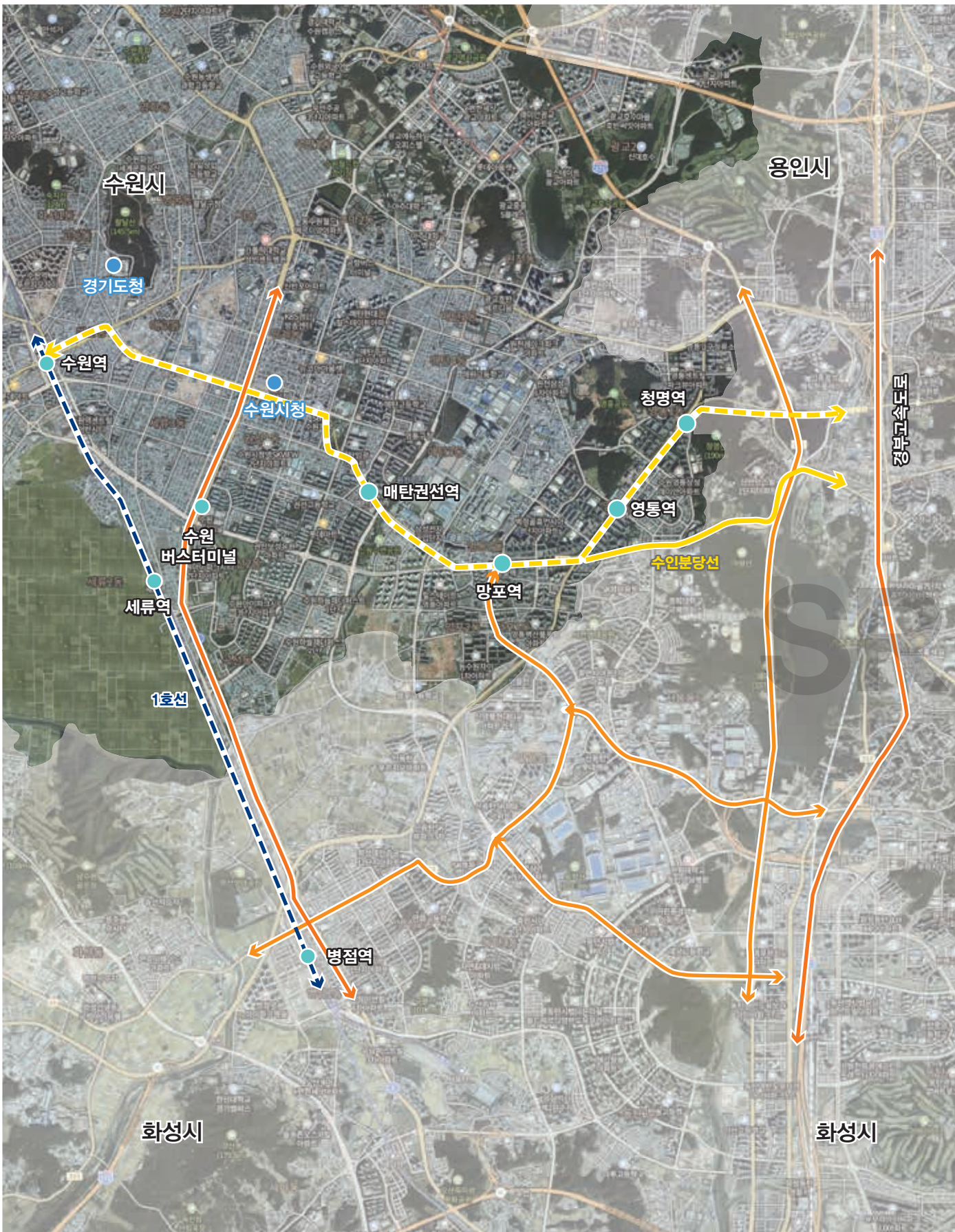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망포동의 도로망이 구축될 수 있게 되었다.

망포동의 주요 간선도로는 남북 방향으로 뻗은 동탄지성로 및 영통로(지방도 315호선)와 동서 방향으로 뻗은 봉영로(국도 43호선)·태장로·영통로153번길·덕영대로가 있다. 특히 영통로와 봉영로는 각각 지방도와 국도로 지정되어, 망포동을 수원 시내는 물론 수원 이외

2004년 방죽머리에서 당암으로 오던 길에 개통된 당암지하차도







망포동의 교통여건(「망포5지구단위계획」, 2017)

의 지방과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도 315호선은 평택시 팽성읍에서 화성시와 수원시를 지나 용인시로 이어지는 도로이며, 2005년 3월 현재의 노선으로 지정되었다. 지방도 315호선은 망포동에서 망포지하차도를 지나 태장사거리, 태장초교사거리, 당암사거리, 망포역사거리까지의 구간을 통과하여 영통동의 벽적골사거리 방면으로 연결된다. 망포동을 통과하는 지방도 315호선은 2005년 이전까지 지방도 343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부터 노선 번호가 변경되었다.

국도 43호선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부터 군사분계선 이북에 자리한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까지 이어지는 도로이다. 본래는 수원시 서쪽 오목천동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 대학 앞을 지나 오목천삼거리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고색동과 평동으로 이어졌다. 평동을 지난 도로는 수원역광장교차로에서 매산동과 도청오거리, 팔달문, 종로사거리, 창룡문 등을 통과해서 용인시로 이어졌다. 즉 국도 43호선은 본래 망포동을 통과하던 노선이 아니었다. 그러나 수원 도심부의 통과교통량을 줄이고자 2012년 9월 28일부터 수원 원도심을 통과하던 구간을 대신하여 화성시 반월동에서 수원시 망포동을 지나 영통동에 이르는 2.16km 구간에서 망포지하차도 상부도로와 연결로를 제외한 본선 및 지하차도를 임시로 개통했고,<sup>14</sup> 2016년 2월 당초의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망포교차로 연결로가 개통되었으며,<sup>15</sup> 2017년 7월 11일부로 화성시 반월동에서 수원시 망포동으로 진입하여 영통동을 지나 용인시로 이어지도록 노선이 지금과 같이 변경되었다.<sup>16</sup> 이 도로는 용인시 영덕동을 지나 다시 수원시 구간을 통과한 후 기존 국도 43호선의 구간으로 연결된다.

망포동을 주변 지역과 이어주는 대중교통은 덕영대로 및 영통로에서 잘 발달해 있다. 수원 시내를 연결하는 시내버스 및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덕영대로와 영통로의 도로변에 설치된 정류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시내버스 20여 개의 노선이 수원시 및 인접한 화성시 등지로 운행하고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시 내 이동이 불편하지는 않다. 다만 망포지구 개발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일부 구간에서는 운행 노선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망포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태장로를 통과하는 노선버스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영통신도시에서 망포동으로 이어지는 구간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청량리역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 인천역을 잇는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이 통과한다. 당초는 서울특별시 왕십리역 및 청량리역(주말 운행)에서 성남시와 용인시를 지나 수원시 수원역까지 운행하는 분당선이었다. 2012년 12월 1일 용인시 기흥역에서 망포역 구간이 개통되었으며, 2013년 11월 30일에는 망포역에서 수원역 구간이 개통하였고 이와 동시에 급행열차의 운행도 시작되었다. 분당선은 2020년 9월 12일 수원역에서 인천역으로 이어지는 수인선 전





망포역(최인경 제공)

구간 개통으로 인해 분당선과 수인선의 직결 운행을 시작하면서 수인분당선이 되었다.

망포동 주민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역은 망포역이다. 망포역은 엄격히 따지면, 망포동이 아닌 영통동에 설치된 역이고, 8개의 출입구 가운데 3번 출구만 망포동에 개설되었다. 망포역은 공사 당시 방죽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망포동의 지명 유래를 알려주는 방죽에서부터 방죽역이라는 역명이 생겨났지만, 최종적으로는 망포역으로 지정되었다. 망포역이 있는 망포역사거리의 이름이 본래 망포사거리였음을 고려하면 전철역의 이름이 망포역으로 불리는 것도 어색한 일만은 아니다. 또한 영통동에는 망포역의 앞 역 이름으로 이미 영통역이 설치되었으므로, 망포사거리에 생긴 역을 망포역이라 부르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익숙할지도 모른다.

망포역의 개통으로 망포동과 영통동 주민들의 교통여건은 크게 나아졌고 수원역은 물론 서울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었다. 수원역으로 이동하여 경부선 철도 및 수도권 전철 1호선에 접근하기 용이한 것은 물론 수인분당선 전철이 수원시청이 자리한 중심 시가지를 관통함에 따라 수원 시내로의 진출입도 훨씬 수월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용인시 및 성남시로 연결되는 교통여건도 개선되었다. 망포역의 일일평균 이용객은 개통 초기인 2013년에 1만 3,525명(승차 6,918명, 하차 6,607명)이었지만, 망포동의 인구가 증가하고 상업업무시설이 확충되면서 2019년에는 일일평균 이용객이 2만 7,171명(승차 1만 4,096명, 하차 1만

3,075명)으로 늘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는 일일평균 승차 인원이 1만 2,864명이고, 하차 인원은 1만 2,014명을 기록했다.<sup>17</sup> 망포역은 수인분당선이 통과하는 용인시와 수원시 구간에서 수원역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은 역이다.

## 4. 고밀 시가지로 개발된 현대의 망포동

### 1) 젊은 연령층이 많고 서비스업이 발달한 마을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했던 망포동의 지리적 환경은 크게 변화했으며, 그 변화는 망포동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망포동에 살고 있는 인구의 규모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오랜 거주 역사를 가진 망포동이지만, 망포동의 인구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수원시에서는 법정동 단위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행정동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1995년 수원시에 편입된 이후 여러 차례 행정동의 변화를 경험한 법정동 망포동의 인구자료는 어느 곳에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글에서는 태장동이라는 행정동이 처음 설치된 2003년 이후부터 살펴볼 것이다. 태장동에는 법정동 망포동과 신동이 함께 포함되기에 태장동의 인구가 망포동의 인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신동의 인구규모가 크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태장동 인구의 대부분은 망포동의 인구라고 간주할 수 있다. 망포동의 인구규모 변화를 보여주는 표에서 2017년부터의 인구는 순전히 망포동에 거주하는 사람만을 포함하고 있다<표 3>.

망포동의 인구는 2000년대 들어 매년 증가했다. 연도에 따라 증가폭의 차이는 있지만, 도시화의 진행과 더불어 인구 역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법정동 신동이 태장동에서 영통2동으로 이속되었던 2017년의 인구가 전년에 비해 2,800여 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신동의 인구규모는 2,500명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동의 인구규모를 2,500명 내외로 추정한 이유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망포동의 인구증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고 주민 입주가 이루어진 해는 2013년이다. 인구규모의 변화를 나타낸 <표 3>에서 보면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인구규모가 4,000여 명이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망포동에서의 증가분과 신동에서의 증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망포동만의 인구는 2017년 말에 5만 2,257명을 기록했다. 2019년 1월에는 동의 서북쪽 경계부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함에 따라 인구가 크게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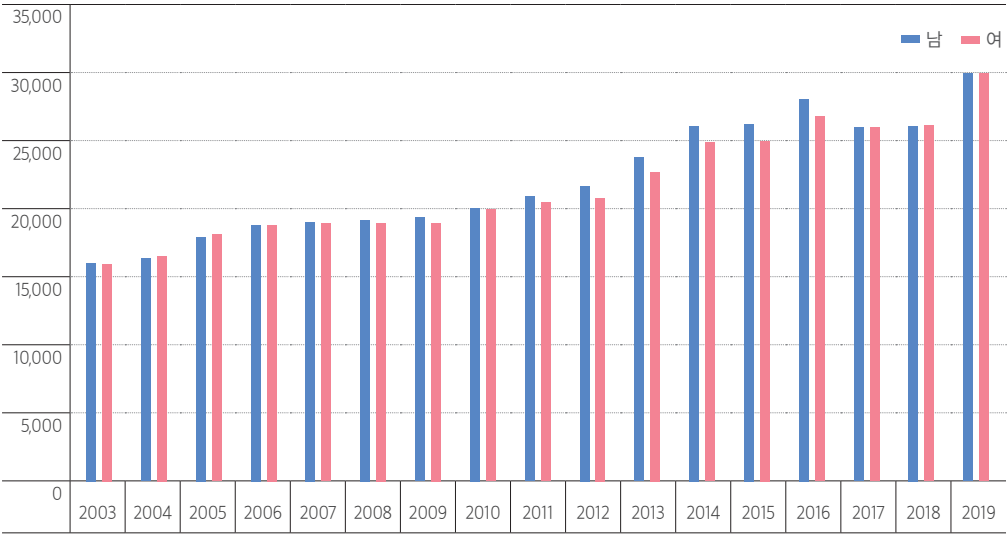


표 3 망포동의 인구규모 변화

단위: 명

| 연도   | 합계     | 남자     | 여자     | 비고                     |
|------|--------|--------|--------|------------------------|
| 2003 | 32,102 | 16,124 | 15,978 | 행정동 태장동 설치(망포동과 신동 관할) |
| 2004 | 33,131 | 16,545 | 16,586 |                        |
| 2005 | 36,220 | 18,052 | 18,168 |                        |
| 2006 | 37,869 | 18,955 | 18,914 |                        |
| 2007 | 38,233 | 19,154 | 19,079 |                        |
| 2008 | 38,488 | 19,357 | 19,131 |                        |
| 2009 | 38,795 | 19,528 | 19,267 |                        |
| 2010 | 40,449 | 20,335 | 20,114 |                        |
| 2011 | 41,712 | 21,038 | 20,674 |                        |
| 2012 | 42,764 | 21,818 | 20,946 |                        |
| 2013 | 46,721 | 23,949 | 22,772 |                        |
| 2014 | 51,033 | 26,214 | 24,819 |                        |
| 2015 | 51,467 | 26,443 | 25,024 |                        |
| 2016 | 55,094 | 28,197 | 26,897 |                        |
| 2017 | 52,257 | 26,165 | 26,092 | 법정동 신동은 영통2동으로 이속      |
| 2018 | 52,497 | 26,225 | 26,272 |                        |
| 2019 | 60,251 | 30,145 | 30,106 | 망포1동과 망포2동으로 분동        |

출처 : 『수원통계연보』



망포동의 인구규모 변화





가했으며, 이로 인해 망포동을 관할하던 태장동은 망포1동과 망포2동으로 분동되기에 이르렀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망포1동 인구는 3만 2,002명이고 망포2동의 인구는 2만 8,249명이다. 향후 진행될 지구단위사업이 마무리되면 망포동의 인구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행정동의 분동은 불가피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 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연령층에 따라 살펴보면, 도시 외곽으로 향할 수록 그리고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일수록 젊은 연령층의 거주 비율이 높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동성이 낮은 고령의 연령층일수록 도시 중심부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현상은 수원시의 외곽에 자리한 망포동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019년 기준으로 망포동에 거주하는 0~14세 유소년층 인구는 1만 1,799명으로 전체 인구의 19.6%를 차지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099명으로 전체인구의 5.1%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는 15~64세에 해당하는 청장년층 인구는 4만 5,353명으로 전체인구의 75.3%를 차지했다. 같은 시기 수원시 전체에서 유소년층 인구비중은 13.5%, 청장년층 인구비중은 76.1%, 노인 인구비중은 10.4%를 각각 기록했다. 유소년층의 인구비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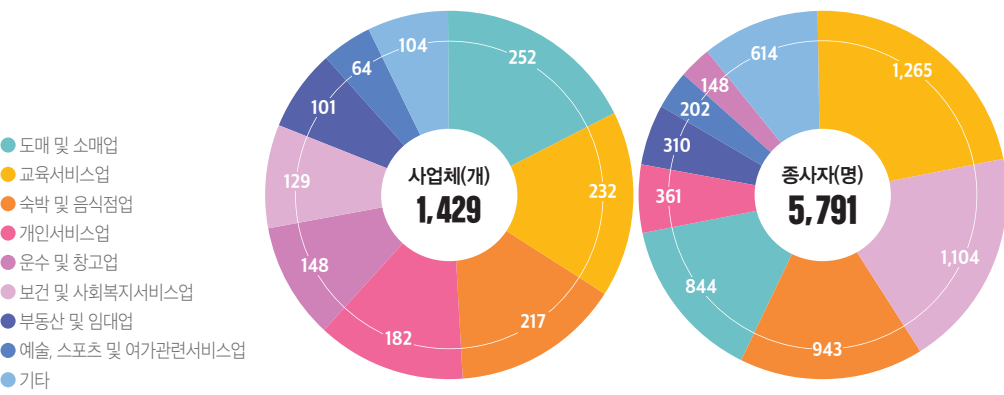
공원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최인경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구 전체의 16.3% 보다 높은 수치이다. 즉 망포동은 노인인구의 비중이 낮은 만큼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고, 청장년층의 비중은 수원시 전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마을이다. 망포동에 젊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평균연령에서도 볼 수 있다. 2017년 기준 망포동 거주자의 평균연령은 34.5세를 기록했지만, 수원시 전체의 평균연령은 38.4세에 달했다. 수원을 구성하는 구 단위로 보면, 망포동이 포함된 영통구가 35.4세로 가장 낮고, 권선구 38.5세, 장안구 39.6세, 팔달구 41.6세이다. 즉 수원시의 원도심이 자리한 팔달구 거주자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셈이다.

도시화의 진행과 더불어 망포동의 경제활동도 다양한 산업 부문에 걸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농촌 마을에서 벗어나 도시 지역으로 발돋움한 이후 경제활동은 도시적 성격을 가지는 산업 활동으로 대체되었다. 즉 제1차 산업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데 반해 도시적 산업인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망포동은 주거지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인구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입지가 탁월하다. 2018년 말 기준 망포동에 자리한 사업체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소매업을 비롯하여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업체들이 많이 입지해 있다.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체가 전체의 17.6%로 가장 많으며, 뒤를 이어 교육서비스업 16.2%, 숙박 및 음식점업 15.2% 등으로 많은 업체가 있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수가 전체의 21.8%로 가장 많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9.1%, 숙박 및 음식점업 16.3%, 도매 및 소매업 14.6% 등의 순이다.



망포동의 산업 구성(수원시, 2019,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





망포3지구와 망포4지구 개발 전 동탄지성로 암거 주변(김기서 제공)

## 2)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시화의 프론티어

망포동은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도시화의 역사가 짧은 마을이다. 1995년 수원시에 편입된 이후 농촌적 색채를 버리기 시작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다.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는 점진적인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공간 변화가 진행되지만, 망포동은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매우 짧은 기간 인위적으로 시가화 구역으로 조성된 곳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을 전체가 도시 지역으로 변모한 것은 아니다. 도시개발이 본격화하기 이전부터 해 오던 방죽머리·만가동·당암·우문동·구목동 등의 자연마을은 이제 대부분 사라져 버렸지만, 아직까지도 농촌적 경관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남아 있다. 망포동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을의 정체성 또는 장소성의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현대의 망포동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을이 아닐 수도 있으며,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은 곳일 수도 있다. 또한 향촌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예로부터 전해지는 관성에 의해 망포동보다는 망포리라는 마을 이름으로 기억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방죽공원

도시 성장과 함께 인구가 증가하면 여러 부문에 걸쳐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일 것이다. 미개발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마을의 장소성을 순식간에 바꾸어 버린다. 말 그대로 상전벽해이다. 망포동에 시가지 개발이 진행된 후 망포동의 장소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러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도시 내에 새롭게 만들어진 시설물의 명칭에 옛 이름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경우 또는 옛 시설물로부터 파생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는 공원이나 아파트의 이름에 ‘방죽’ 또는 ‘방죽마을’을 사용하거나 학교의 이름에 누에와 관련된 ‘잠원’을 사용한 사례를 통해 미래에도 망포동의 장소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의 교가에 등장하는 옛 지명들도 망포동의 장소성을 길이 간직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잠원초등학교 교가의 ‘만호들’, 태장초등학교 교가의 ‘백년천’, 잠원중학교 교가의 ‘망포 들판’ 등을 비롯하여 공원 이름에 포함된 ‘방죽’, ‘소문’ 등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을 통해, 오래전에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 넓은 들판을 배경으로 자연과 더불어 생활했음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명은 역사성을 지니며 그 땅을 공유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반영해 주기 때문이다.

도시와 농촌은 공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도시 외곽에 자리한 농촌 지역을 향해 시가지가 확장됨에 따라 농촌은 서서히 도시라는 공간으로 변모해 왔다. 망포동도 마찬가지이다. 농촌이 도시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농촌과 도시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기기도 한다. 대도시 주변의 농촌은 시가지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면서 서로 긴장관계를 형성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화시대에는 농촌이 보다 쉽게 해체되고 있다. 농촌의 해체는 도시 주변부에서 보다 빠르게 진행되므로, 망포동의 농촌 해체도 순식간에 진행된 듯하다. 망포동은 수원시의 도시화 구역을 외연적으로 확장시키는 전선(frontier)에 자리한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마을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애매하게 도시화된 장소로 변화해 버렸으며 농촌 공동체가 있던 과거와 달리 삭막한 공간이 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망포동의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는 삭막한 도시공간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그 이유는 망포동에서 주민참여로 진행된 마을르네상스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르네상스 추진협의회를 결성하여 사람들이 찾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사업을 통해 가로망 정비, 꽃길 조성, 둘레길 조성, 마을지도 만들기, 배수로 정비, 벽화골목 조성 등이 가능했으며, 망포동이 살고 싶은 마을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망포동이 살고 싶은 마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 註

1. 기전문화재단, 『수원 망포동 유적』, 2009, 20~21쪽.
2. 박지성의 고향은 전라남도 고흥군이다.
3.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1:수원의 지리적 환경』, 2014, 233쪽.
4.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2008, 217쪽.
5. 수원시, 『수원의 지명과 그 유래』, 2011, 99쪽.
6. 수원시, 『수원지명총람』, 1999, 474쪽.
7.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의 지명유래』, 1997, 716쪽.
8. 수원시, 『수원지명총람』, 1999, 476쪽.
9. 수원시,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2014, 373쪽.
10. 「목포일기3-동창야화: 추억을 추억하다」(<https://blog.naver.com/ijangzip/221618085573>).
11. 「무해무독...인조연탄」, 『동아일보』, 1976년 3월 29일.
12. 권혁재, 『한국지리-총론편』, 2005, 194~195쪽.
13. 「수원시 신동-망포동 일원 주거지역으로 개발」, 『연합뉴스』, 1999년 5월 27일.
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2-71호』(2012년 10월 4일).
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6-10호』(2016년 2월 2일).
1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65호』(2017년 7월 11일).
17.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사업 수송통계 자료실.





## 『태장향토사』, 일제강점기 태장면을 기록하다

### 1. 일제강점기 수원 지역사 발간 현황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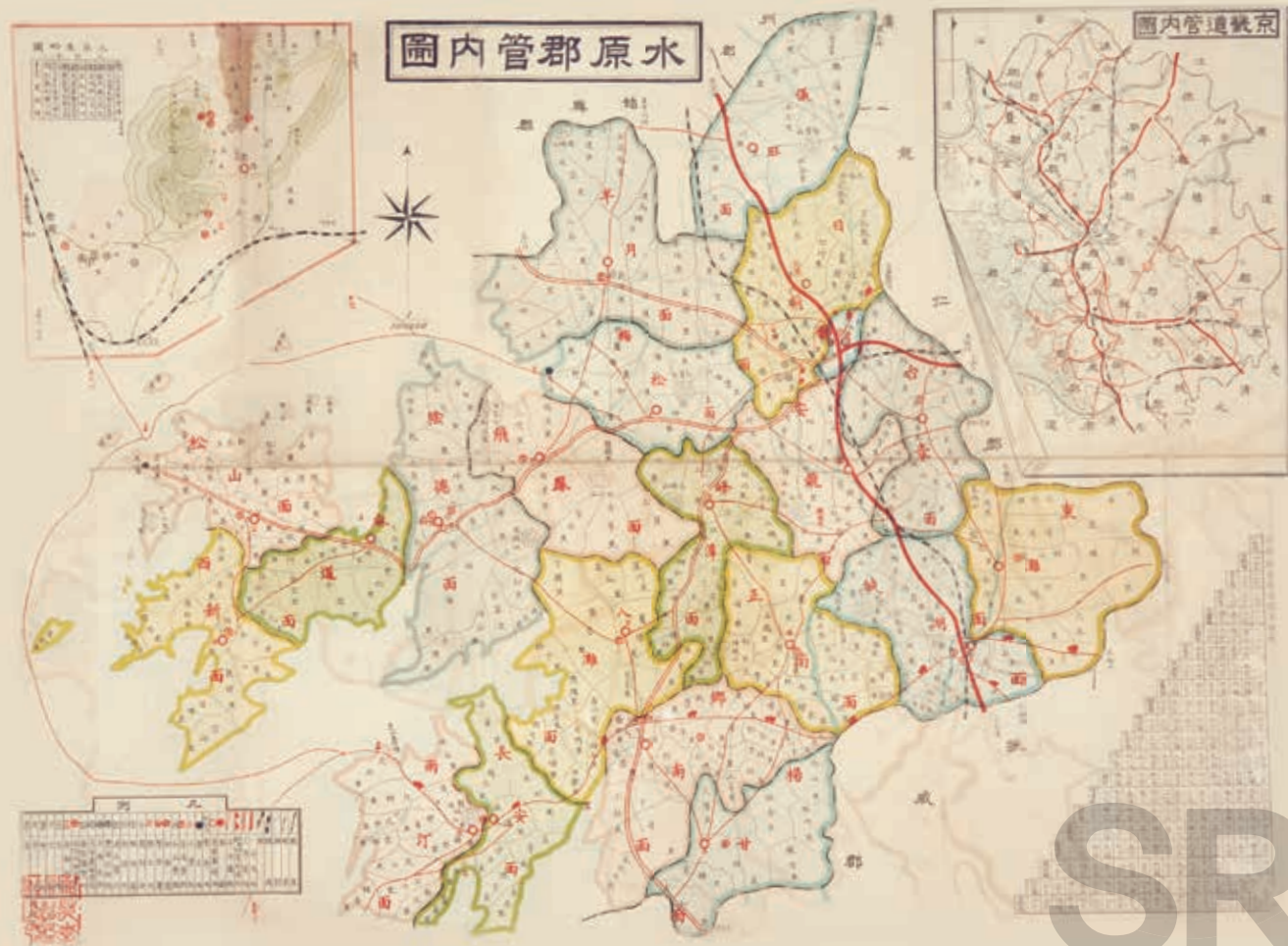
태장면은 수원군 동쪽에 위치하여 북쪽은 용인군 수지면, 수원군 수원읍·일형면, 동쪽은 용인군 기흥면, 남쪽은 수원군 동탄면·성호면, 서쪽은 수원군 안룡면과 접해 있다. 태장면의 둘레는 290km, 남북으로 최장 거리는 약 80km, 동서의 최단 거리는 약 2km이다. 동쪽은 청명산맥과 맞닿아 있고 그 밖의 땅은 대체로 평야가 많고 비옥해서 농사짓기에 좋은 전형적인 농촌이었다.

태장면은 1914년 4월 1일 종래의 장주면(章州面) 9개 동과 태촌면(台村面) 17개 동을 합하여 태장면으로 바꾸고 면사무소를 망포리에 두었다. 1920년 1월 29일 동·리를 폐합하여 망포리를 비롯하여 기산리, 진안리, 병점리, 능리, 반월리, 신리, 영통리, 매탄리, 원천리, 지리, 인계리, 권선리 등 13개 마을로 개편하였다.

망포리는 일제강점기 태장면 면소재지로 그 위상이 높았다. 태장면 지역 가운데 현재 수원시로 편입된 곳은 망포리, 신리, 영통리, 매탄리, 원천리, 지리, 인계리, 권선리 등 8개 마을이다. 즉 수원시 망포동, 신동, 영통동, 매탄동, 원천동, 지동, 인계동, 권선동이 되었고, 나머지 기산리, 진안리, 병점리, 능리, 반월리 등 5개 마을은 화성시 관할이 되었다. 태장면 자체가 수원시와 화성시로 분리되면서 더욱 파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2년 태장면을 대상으로 한 『태장향토사(台章郷土史)』가 발간되었다. 이 책은 태장면 13개 마을별 경작지와 산림 면적 등 각종 조사를 통해 태장면 지역을 입체





일제시기 수원군 관내도

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태장이라는 이름이 거의 잊힌 현실에서 『태장향토사』의 존재는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셈이다. 태장면의 실체를 온전히 보여 주는 역사적 자료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수원 지역사 관련 책자는 대부분 일본인들에 의해 편찬되고 발간되었다.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 1885~?)가 개인적으로 발간한 『발전하는 수원(發展せる水原)』(1914)과 『수원(水原)』(1923)이 대표적이다. 『화성의 그림자(華城之影)』(1915)도 사카이 마사노스케가 편찬하였지만 조선물산공진회(朝鮮物産共進會) 수원협찬회의 의뢰로 이루어진 것이다. 1915년 조선총독부 시정(施政) 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수원 관광을 위해 수원과 인근 지역을 알리고자 한 화보집 성격의 소책자가 『화성의 그림자』였다.



조선물산공진회(朝鮮物産共進會) 수원협찬회의 의뢰로 사카이 마사노스케가 편찬한 『화성의 그림자(華城之影)』(1915)

일제강점기 수원 지역사 관련 책자들의 편찬 동기와 목적은 일본의 조선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면서 수원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이는 일본의 시혜적 근대화론에 입각한 것이다. 이에 책 제목도 『발전하는 수원(發展せる水原)』이라 명명한 것이다. 이를 증보한 것이 『수원(水原)』으로 대중적으로 일제강점기 수원을 대표하는 책자로 알려졌다.

수원 지역사 3부작을 쓴 일본인 사카이 마사노스케는 1885년 8월 일본 니가타현(新潟縣) 출신으로 1908년 일본 주오(中央)대학을 졸업하고, 1910년 9월 조선으로 들어와 수원에 정착하였다. 사카이는 1928년까지 수원 남창리에서 ‘사카이 마사노스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즉 소송대리업에 종사하면서 1913년 조선신문사 수원지국장, 1916년 수원전기주식회사 감사, 수원실업협회 법률고문, 수원전기주식회사 감사, 니가타현인회장, 수원독서회 주사, 1920~1926년 수원학교조합회 의원, 수원식림종묘(水原殖林種苗) 및 기타 3~4개 회사의 중역(중앙물산주식회사 상무취체역, 수원상사주식회사 감사, 수원인쇄주식회사 감사)을 겸직하면서 수원 일본인사회의 중추적 인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28년 서울로 이사하여 수원을 떠남으로써 이후 후속 저술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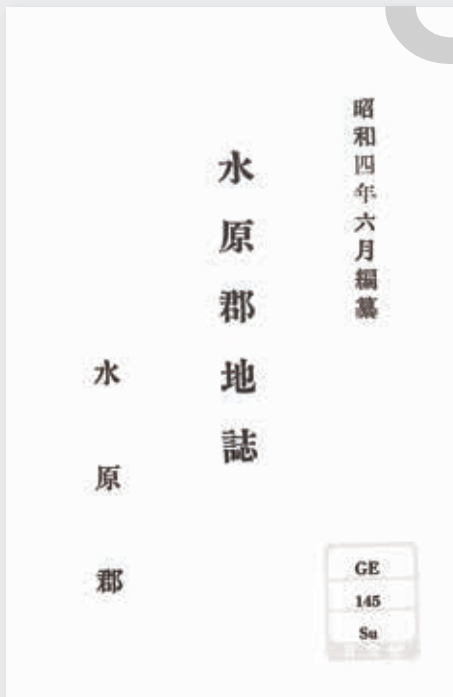
『발전하는 수원(發展せる水原)』(1914)



『수원(水原)』(1923)



『생활상태조사(生活狀態調査) 1-수원군』(1929)



『수원군지』(1929)

일본인 사카이는 1910년 수원에 정착한 지 4년 만에 『발전하는 수원』을 발간한 것이다. 그가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님에도 식민지 조선에서 자신이 정착한 수원의 역사서를 발간한 것은 주목할 일이다. 이는 일제강점기 수원군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인의 저작물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인근 지역인 안성군의 경우 김태영(金台榮, 1895~1978)의 『안성기략(安城記略)』(1925)이 발간된 것과 비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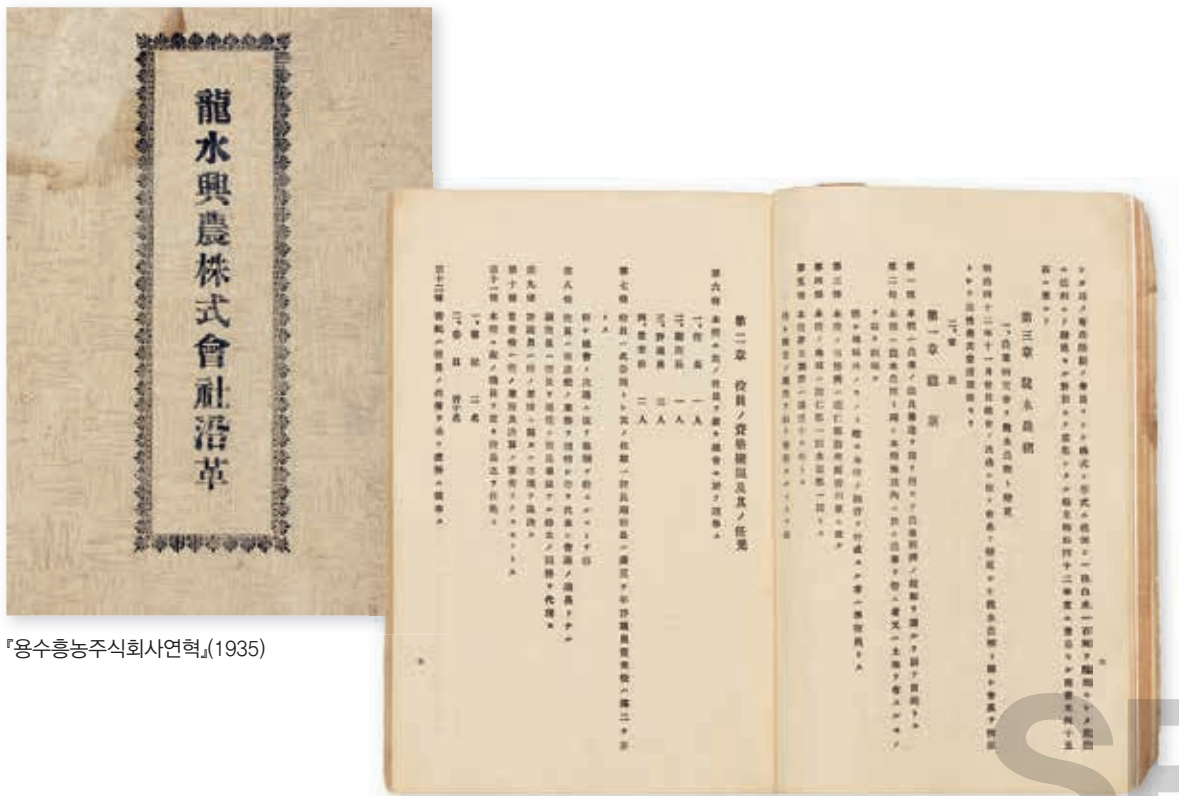
한편 1929년 수원군에서 『수원군지』를 발간하였다. 수원군청의 의뢰로 수원공립보통학교 교사(藤好, 武田, 有坂)들이 편찬한 것이다. 사진 한 장 신지 않은 50쪽의 소책자 『수원군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지역사 연구에서 이에 대한 언급과 인용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2000년 일본 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学) 도서관에 이 책이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의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를 통해 복사본을 확보한 후, 2014년 수원박물관에서 번역 발간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29년 조선총독부에서 『생활상태조사(生活狀態調査) 1-수원군』을 발간하였다. 조선총독부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생활상태조사』 시리즈의 첫 번째 대상이 수원이었다. 수원을 필두로 제주, 강릉, 평양, 경주 등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 및 조선의 취락 등 전반적인 조선인의 생활상태를 조사, 발간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수원지역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경기도의 대표 도시이자 경부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농업과 농학의 중심지인 수원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1930년대에는 『수원-풍광명미의 땅(水原-風光明媚の地)』(1933)이 발간되었다. 이는 1933년 경기도 주류품평회가 수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수원군이 에구치 모리오(江口守夫)에게 의뢰하여 발간한 소책자였다. 에구치 모리오는 성 안에서 청광당(淸光堂)이라는 서점 및 운동기기 전문점을 운영하였다. 아마도 사카이가 수원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그에게 의뢰하였을 것이지만 서울로 이주한 이후에 수원 관광과 관련한 사진엽서 등을 발간한 청광당의 주인 에구치에게 급하게 맡겨 발간되었다. 주류품평회에 맞춰 나온 소책자였던 만큼 수원군 지역 양조장과 대표 상품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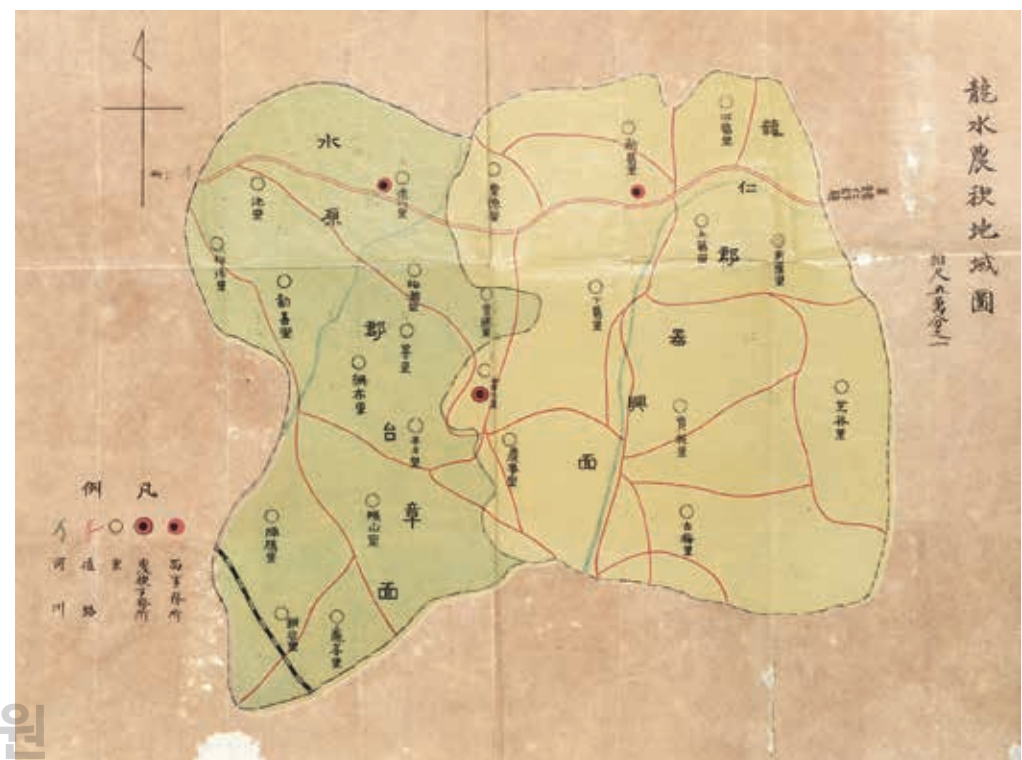
한편 일제강점기 수원지역에서 한국인이 편찬한 지역사 관련 책자는 용수흥농주식회사에서 편찬한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龍水興農株式會社二十年誌)』(1929)가 최초이다. 그리고 몇 년 뒤 태장공립보통학교 교장 박성근이 편찬한 『태장향토사』가 편찬되어 나온 것이다. 따라서 1929년 8월에 발간한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가 직접적이지는 않겠지만 1932년 『태장향토사』를 발간하는 데 자극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를 일반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발간한 소책자가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연혁』(1935)

『용수흥농주식회사연혁』에 소개된 용수농계(수원박물관 제공)



용수농계지역도(『용수농계요람』, 1915, 수원박물관 제공)

연혁(龍水興農株式會社沿革)』(1935)인 셈이다. 『용수흥농주식회사연혁』은 세로 24cm, 가로 16.7cm, 전체 82쪽에 불과한 소책자이다. 이들 한국인이 편찬한 세 책 모두 일본어로 저술되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나마 이후 수원 지역에서 한국인에 의해서 더 이상 지역 관련 책자가 발간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용수흥농주식회사가 편찬한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와 『용수흥농주식회사연혁』 두 책과 박성근의 『태장향토사』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태장향토사』는 여타의 군(郡) 단위 지역사와 달리 면(面) 단위를 대상으로 한 향토사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일제강점기 수원군 20개 읍면 가운데 유일하게 태장면을 대상으로 하는 향토사가 발간되었다는 점과 동시에 태장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향토지의 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해방 이후 가장 먼저 『태장면지(台章面誌)』가 발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방 후 오득영(吳得泳)이 태장면의 의뢰로 『태장면지』를 발간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태장

면지』의 발간은 『태장향토사』의 성과를 잇는 사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태장향토사』와 『태장면지』를 서로 비교해 본다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향후 『태장면지』의 발굴을 기대해 본다.

## 2. 『태장향토사』의 발간자 박성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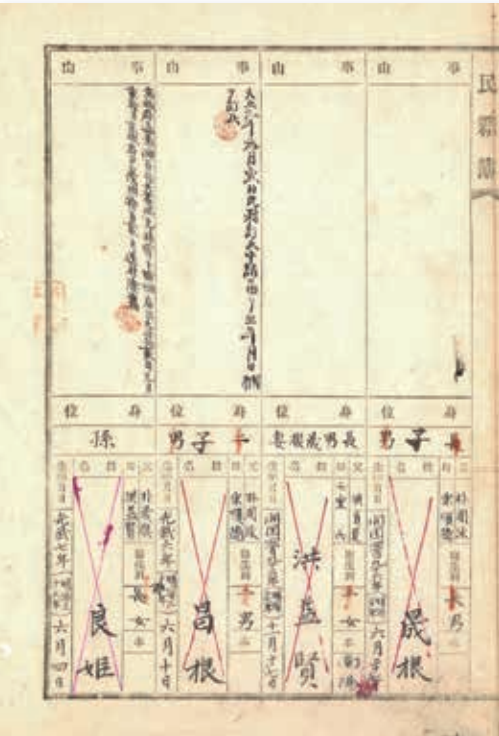
『태장향토사』는 1932년 1월 30일 태장공립보통학교에서 발간하였다. 지역 관련 자료를 보통학교에서 발간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일이다. 발간 목적은 태장면을 중심으로 아동 교양에 필요한 향토자료를 조사 편찬한 것이다. 『태장향토사』는 태장공립보통학교 교장 박성근(朴晟根)의 이름으로 발간되었다. 이는 교장 박성근의 의지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발간사에 해당하는 「서언」에 따르면, 『태장향토사』는 1931년 10월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12월에 조사를 완료하였고, 이듬해 1932년 1월 20일 인쇄를 마치고 1월 30일 발간하였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조사를 마치고 성 안 남수리 중앙인쇄소에서 발간하였다.

1) 안녕리 밀양 박씨



박성근 민적부

『태장향토사』의 발간 주체인 박성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성근(1887~?)은 밀양 박씨 박주영(朴周泳)과 여산 송씨 송순덕(宋順德)의 장남으로 안룡면 안녕리 14통 3호(111-1번지)에서 태어났다. 박성근은 성 안 신평리의 사립 화성학교(華城學校)를 졸업하였는데, 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안녕리에서 태어났지만, 수원 읍내로 유학하여 근대 학문을 공부한 셈이다.

박성근은 1902년 3월 사립 화성학교에 입학하여 1905년 4월 졸업하였다.<sup>2</sup> 16세 늦은 나이로 화성학교에 입학한 박성근은 이즈음에 남양 홍씨 홍정하(洪貞夏)의 2녀 홍익현(洪益賢)과 결혼한 상태였다. 1903년 큰딸 양희를

낳았고 이후 흥렬(興烈), 정렬(政烈), 중렬(重烈) 등 5남 3녀를 두었다. 결혼을 한 16살 나이에 화성학교에 입학하여 아이 아버지로 19살 나이에 졸업한 만학도였던 셈이다.

1911년 『토지조사부』를 보면, 박성근은 신평리 79번지의 424평 규모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이곳은 현재 성 안 장안동 79-1번지로 제일감리교회 주차장 자리이다.<sup>1</sup> 1950년대에 대한전선그룹 창업주인 설경동(薛卿東)이 살았다고 하여 ‘설경동 가옥’으로 알려진 커다란 한옥이 있었던 곳이다. 따라서 성 안에 박성근이 소유한 400평이 넘는 주택의 존재는 집안이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평리 주택은 아마도 1902년쯤 결혼과 함께 신흠 살림집으로 장만한 것으로 보인다. 즉 1911년 23세의 나이에 아버지 박주영의 이름이 아니라 본인 박성근 명의로 성 안에 커다란 기와집을 소유할 정도라면 아버지 박주영은

안녕리에 거주하면서도 상당한 토지를 소유했던 지주로 볼 수 있다. 안녕리의 지주로 자녀 교육을 위해 성 안 신평리로 이주해 화성학교에 다니게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성근이 수원공립보통학교 훈도(1908년 9월~1919년 10월)로 재직할 때 주소지 역시 신평리 79번지였다. 1917년 넷째 아들 박광렬(朴光烈)의 출생지가 신평리 79번지였고, 1927년 6월 아버지 박주영도 안녕리에서 신평리 79번지로 이사와 함께 살았다. 박성근은 성 안 신평동 79번지 집을 매입한 후 계속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버지 박주영은 안녕리에 근거를 두고 살았고, 아들 박성근을 위해 성 안 신평리에 집을 사서 수원으로 유학을 보냈고, 이후 수원으로 이주한 셈이다.

2) 성 안 화성학교를 졸업하다

사립 화성학교는 1900년대 초반 성 안 신평리에 위치하였다. 초기에는 ‘일어 화성학교(日語華城學校)’로 불리다가 점차 ‘사립 화성학교’로 통칭되었다. 일어 화성학교는 기독교 계통의 종로교회 ‘영어 삼일학당(英語三一學堂)’에 대비되는 이름이었다. 수원상업회의소가 개설한 수원상업강습소를 이은 남수리 화성학원(華城學院)과도 다른 것이다.

사립 화성학교 출신으로는 독립운동가 임면수(林冕洙)와 나혜석의 오빠인 나홍석(羅弘錫)·나경석(羅景錫) 형제를 꼽을 수 있다. 또한 대한제국 관헌 이력서 등을 통해 살펴보면, 화성학교 졸업생으로 박성근을 비롯하여 변홍식, 최규완, 이정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부 북부 보시동(普施洞)의 변홍식(卞鴻植, 1882년생)은 1900년 3월 수원부 일어 화성학교에 입학, 1904년 4월 졸업하였다. 박성근은 1902년 3월 사립 화성학교에 입학하여 1905년 4월 졸업하였다.<sup>2</sup> 역시 보시동 17통 2호 최규완(崔奎完, 1886년생)도 1905년 4월 1일 수원군 신평리 일어 화성학교를 졸업하였다. 수원면 남수리 출신의 이정상(李政相, 1884년생)도 1905년 3월 9일 일어 화성학교를 졸업하였다. 1919년 3·1운동 당시 수원군 장안면 면장이었던 김현묵(金賢默)도 어려서 수원군 장안면 금의리(錦衣里)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한 뒤에 수원 사립 화성학교에서 7개월, 수원 사립 측량학교(測量學校)에서 4개월 공부하고, 야학으로 간단한 일본어 회화를 할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다.<sup>3</sup> 화성학교는 조선인 유지의 자제들을 위해서 한문과 일어를 가르치는 개량 서당에서 시작하였다. 이후 일본인의 이름을 빌려 학부(學部)에 ‘화성학교’로 청원하여 인가받았다. 이에 ‘일어 화성학교’로 불리면서 명성을 얻었는데, 일본인 교사에 의해 운영되면서 한국인에 대하여 일어 교육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담당하였다.

화성학교는 100명 정도로 학생 수가 많은 곳 가운데 하나였다. 화성학교가 처음 개설



된 1900년 학생 수는 10여 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고, 1904년 러일전쟁의 승리 이후 학생 수가 100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결국 일어 화성학교의 명성은 일본의 세력 확대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어를 공부한 졸업생들은 일제의 침략에 활용될 소지가 컸으며, 실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친일의 길로 들어섰다. 즉 군용철도 감독부 통역, 자혜병원 통역, 재판소 서기 등으로 활용되면서 일제의 식민통치 기구의 말단 관리로 입신하면서 성장해 갔다. 당시 일어의 필요성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궤를 같이하며 한국에 대한 침탈의 현실적 도구로 활용되었던 셈이다.

이러한 사립 화성학교는 “한인의 교육은 생도에 한하지 않고 그 지방 일반 한인을 교화하여 일본의 정책 및 일본인을 위하는 것에 대하여 방해하지 않으며, 또한 악감정을 갖지 않도록 하여 오로지 좋은 감정으로 이를 환영하여 만사를 주선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함으로써 일어 화성학교의 진정한 설립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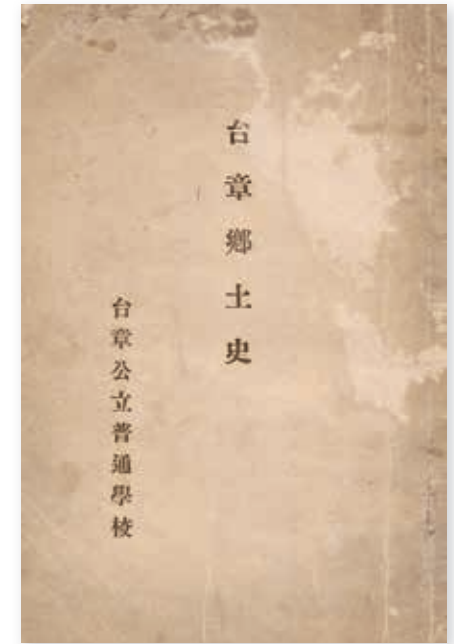
### 3) 태장공립보통학교 교장 박성근

박성근은 사립 화성학교를 졸업한 이듬해인 1906년 5월 29일 관립소학교 교원으로 임명되었다. 이력사항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립 화성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서울에서 사범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1906년 9월 1일 관립 주동(鑄洞)보통학교 교원이 됨으로써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07년 1월 인현(仁峴)보통학교 교원, 인현보통학교 훈도(1907년 11월), 수원공립보통학교 훈도(1908년 9월~1919년 10월), 남한산(南漢山)공립보통학교 교장(1919년 10월~1928년), 그리고 1929년 3월 31일부터 태장공립보통학교 교장으로 복무하다가 1937년 4월 4일 퇴임하였다. 따라서 수원에서는 1908년부터 3·1운동이 펼쳐진 1919년 10월까지 12년간 수원공립보통학교에서 훈도로 근무하였고, 10년 뒤 다시 수원으로 돌아와 1929년부터 태장공립보통학교 교장으로 8년간 근무하고 1937년 은퇴하여 수원에서 살았다.

박성근은 일제강점기 1919년 10월 한국인 교원으로 보통학교 교장에 처음 임명된 18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이는 사이토(齋藤) 총독이 문화통치의 미명 아래 한국인 관리의 차별대우를 철폐한다는 발표 1주일 만의 일이었다.<sup>4</sup> 박성근은 수원공립보통학교를 떠나 1919년 10월 남한산공립보통학교 교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이후 박성근은 1937년 태장공립보통학교 교장으로 퇴직함으로써 32년간 교직에 봉사하였다.

태장공립보통학교장 박성근 씨는 교육계에 32년간 근속하여 헌신적으로 수많은 자녀를 교양하여 왔으며 전기 학교에서도 9년간 교장의 임무로 많은 공헌이 있었던바 이번에 교장을 사임하였음으로 태장면민은 씨의 떠남을 애석히 여겨 지난 4일에 면민 유지 200여 명이 당시 백운정(白雲亭)에서 송별연을 성대히 거행하였다.<sup>5</sup>



『태장향토사』(1932)

박성근은 1934년 2월 교육 공적자로 공로표창을 받았다. 교육자로서 역할에 대한 표창이지만 지역사회 측면에서 본다면 박성근이 태장공립보통학교 교장으로 8년 동안 재직하면서 가장 값진 업적은 『태장향토사』 발간이라 할 수 있다. 태장공립보통학교 교장 박성근이 왜 『태장향토사』를 발간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려 주는 언급이 없지만, 수원군청에서 발간한 『수원군지(水原郡地誌)』(1929)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수원군지』의 목차 앞 글상자에는 발간 취지와 집필자를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이 책은 국민교육 참고자료로 수원군 일반 및 최근의 군세(郡勢)를 조사 편찬한 것으로 후지요시(藤好, 다케다(武田), 아리사카(有坂) 세 사람의 집필로 이루어진 것이다.<sup>6</sup>

3명의 일본인 편찬자들은 『조선총독부관보』 등의 기록을 통해 1927~1929년 수원공립보통학교에서 근무한 후지요시 토라히데(藤好虎秀), 다케다 테이조(武田貞三), 아리사카 소마츠(有坂惣松)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29년 소책자로 발간된 『수원군지』는 수원군청의 의뢰로 수원공립보통학교 교사들이 편찬한 것이다.

수원공립보통학교 교사를 역임했던 박성근의 처지에서 보면 일본인 교사들에 의해 편찬된 『수원군지』는 주목의 대상일 수 있다. 특히 ‘국민교육 참고자료’로 ‘수원군 일반’을 담고 있는 『수원군지』의 방식이 ‘교육 참고자료’로 ‘태장면 일반’을 내용으로 한 『태장향토사』의 편찬과 발간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태장향토사』의 인쇄는 수원 읍내 남수리 중앙인쇄소(中央印刷所)에서 진행했고,



인쇄인은 박일룡(朴一龍, ?~1937)이다. 남수리에 자리 잡은 중앙인쇄소는 합자회사로 1924년 자본금 2만 원으로 설립되었다. 중앙인쇄소를 운영한 박일룡은 송탄면 서정리 출신으로 수원공립보통학교후원회 평의원(1931년 6월), 수원금융조합 평의원(1933년 4월), 삼일학교후원회 이사(1933년 9월) 등을 역임하며 지역유지로 활동하였다. 박일룡이 1934년 병으로 사망하자,<sup>7</sup> 중앙인쇄소는 대표의 죽음으로 영업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세계 공황의 여파로 재료비 폭등과 불경기 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1937년 7월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3.『태장향토사』에 담긴 일제강점기 태안면

1) 구성

『태장향토사』는 본문 52쪽, 부록 8쪽으로 전체 60쪽 분량의 소책자이다. 아쉬운 점은 내용이 소략하다는 점과 일반인이 쉽게 읽기 어려운 일본어와 한문 혼용이라는 것이다. 전체 20장의 목차로 구성되어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내용은 지극히 간략하게 다루고 있으며, 부록으로 4개 마을을 조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실었다. 목차에서 비교적 중요하게 서술된 부분은 주민, 교통, 행정(면 일반행정, 경찰행정), 교육, 농장, 주류 제조 및 풍속 등이다. 이를 살펴보면 <표 1> 같다.

책에서는 마을별 조사표를 수록하여 태장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즉 태장면의 전체 인구는 7,639명으로 조선인 7,487명(남 3,750명, 여 3,737명), 일본인 152명(남 77명, 여자 75명)이다. 생활상태는 태장면 전체 농가 1,210호 가운데 자작농은 겨우 132호이고, 나머지 1,078호는 소작농이다. 소작농이 전체 89%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시 조선의 현실이기도 하였다. 또한 생활 정도는 상등 62호, 중등 416호, 하등 1,066호로 태장면 주민의 절대 다수가 빈곤 상태라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태장면에서 200호 이상의 마을은 인계리(219호), 지리(217호) 등 2개 마을이고, 100호 이상은 능리(176호), 병점리(140호), 진안리(123호), 원천리(128호) 등 4개 마을이다. 따라서 수원 읍내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인계리와 지리가 200호가 넘는 마을로 성장하였고, 경부선 병점역 인근의 능리·병점리·진안리와 수려선 원천역이 있는 원천리가 100호 이상의 마을로 성장한 것은 교통의 편리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 『태장향토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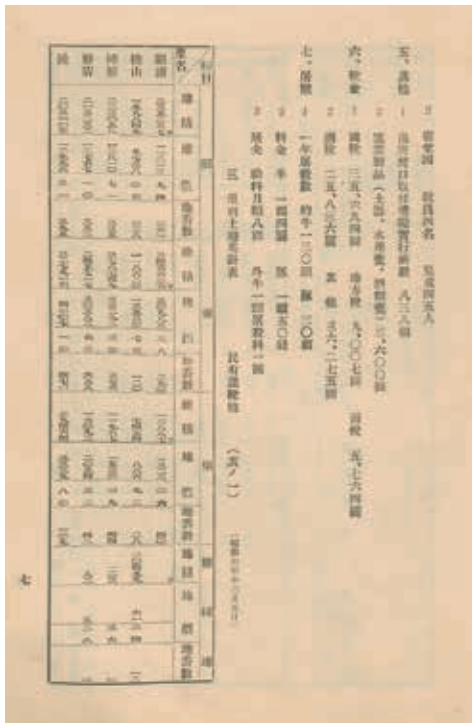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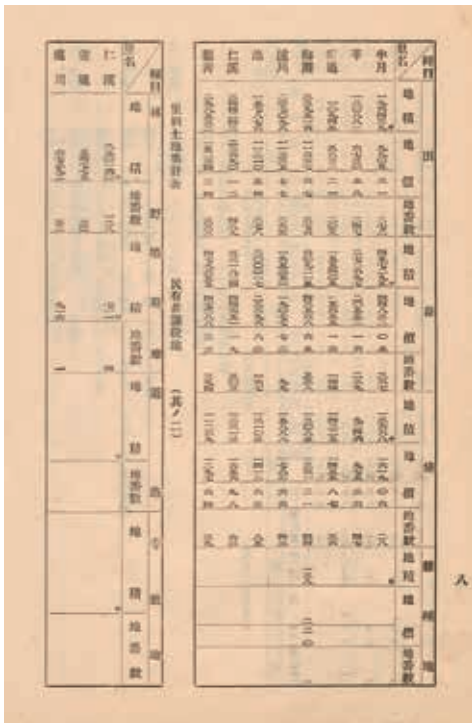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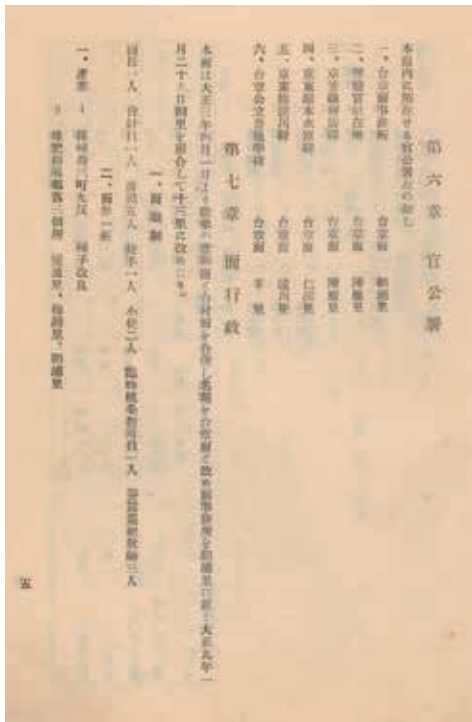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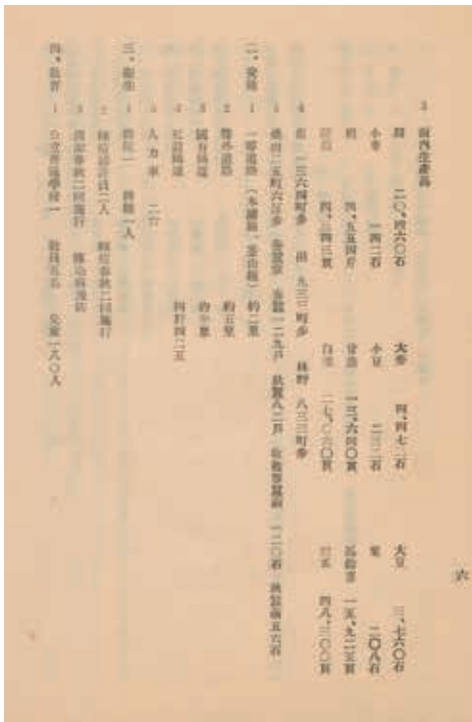
| 목차   |          | 내용                                                                           |
|------|----------|------------------------------------------------------------------------------|
| 제1장  | 지세(地勢)   |                                                                              |
| 제2장  | 연혁       |                                                                              |
| 제3장  | 주민       | 1. 인구, 2. 생활상태, 3. 산업                                                        |
| 제4장  | 교통       | 1. 경부선 병점역, 2. 경동선 본수원역, 3. 경동선 원천역, 4. 도로                                   |
| 제5장  | 통신       |                                                                              |
| 제6장  | 관공서      |                                                                              |
| 제7장  | 면 행정     | 1. 면 직제, 2. 면세 일반, 3. 마을별 토지집계표, 4. 마을별 조사표, 5. 주민 성씨별                       |
| 제8장  | 경찰 행정    | 1. 화재예방, 2. 도난예방, 3. 전염병 예방, 4. 중두실행, 5. 정기 청결, 6. 범죄, 7. 구타 치상, 8. 강도 및 사상범 |
| 제9장  | 교육       | 1. 태장공립보통학교, 2. 서당                                                           |
| 제10장 | 농장       | 1.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2. 국무합명회사 수원지점, 3. 동양척식회사 수원지점                             |
| 제11장 | 수리조합     |                                                                              |
| 제12장 | 주류 제조    | 1. 권선양조장, 2. 원천양조장, 3. 화산양조장                                                 |
| 제13장 | 누룩[麴子]조합 |                                                                              |
| 제14장 | 사찰       |                                                                              |
| 제15장 | 고적       |                                                                              |
| 제16장 | 산천 교량    |                                                                              |
| 제17장 | 효행       |                                                                              |
| 제18장 | 인물       |                                                                              |
| 제19장 | 전설       |                                                                              |
| 제20장 | 풍속       | 1. 연중행사, 2. 유희, 3. 미신, 4. 결혼, 5. 장례식, 6. 이발, 7. 인견(人絹)                       |
| 부록   |          |                                                                              |

또한 태장면의 일본인은 6개 마을에 39호가 거주하고 있다. 즉 진안리(20호), 원천리(10호), 인계리(3호), 병점리(3호), 매탄(2호), 권선리(1호) 등이다. 대부분 진안리와 원천리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병점역과 원천역 주변의 철도역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들은 넓은 과수원을 경영하기도 했다.

태장면의 산업으로 영통의 담뱃잎과 병점의 요업제품이 특산물이었고, 사과와 배를 생산하는 과수원 경영도 주목되는데 대부분은 일본인 소유였다. 철도교통으로는 경부철도의 병점역과 경동철도의 수려선이 지나는 본수원역과 원천역이 있다.

이 책의 특징점은 망포·기산·진안·병점·능·반월·신·영통·매탄·원천·지·인계·권선 등 13





『태강향토사』 관공서와 면행정 부분

개 리를 단위로 한 풍부한 마을 조사에 있다. 마을별 토지(민유지, 국유지)를 비롯하여 인구·호수와 직업, 생활수준, 농작물(벼, 보리, 콩)의 생산 규모, 교육 수준과 일본어 해득 정도, 가축 수, 종교, 구독하는 신문과 잡지, 마을별 성씨에 대한 조사는 태장면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조사 내용이 표로 정리되어 일목요연한 이해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2) 교육

『태강향토사』의 서술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이다. 발간 주체가 태장공립보통학교인 만큼 태장공립보통학교에 대해 연혁, 설비, 교수(敎授), 훈련, 양호(養護), 가정연락, 직업과, 후원회 회칙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였다. 특히 후원회 회칙은 1929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 태장공립보통학교 아동교육후원회에 대한 내용이다. 전체 제6장 33조로 이루어진 「태장공립보통학교 아동교육후원회 회칙」은 학교와 아동 가정의 상호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교육사업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후원회 사무실은 학교에 두었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3년이였다.

학교 차원에서 발간한 책자였던 만큼 서당을 조사하여 소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인가 서당으로 지리에 있는 신온서당(新溫書堂)과 벽천서당(碧千書堂)을, 미인가 서당으로 능리에 있는 문명서당(文明書堂)과 송곡서당(松谷書堂)을 소개하고 있다.

표 2 태장면 서당 현황

| 서당   | 위치     | 설립일         | 설립자 | 교사  | 아동수 | 월사금                       | 인가 |
|------|--------|-------------|-----|-----|-----|---------------------------|----|
| 신온서당 | 지리 539 | 1928. 4. 5. | 배성순 | 정규한 | 7명  | 월 1원                      | ○  |
| 벽천서당 | 지리 148 | 1918. 1.30. | 김정익 | 김사원 | 8명  | 월 70전                     | ○  |
| 문명서당 | 능리 629 | 1929.12.30. | 임명규 | 채규학 | 10명 | 월 50전                     | ×  |
| 송곡서당 | 능리 948 | 1882. 1.15. | 김재구 | 김재구 | 20명 | 봄 - 보리 2말 반<br>가을 - 나락 5말 | ×  |

태장면의 서당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는데, 이 책을 통해 태장면에 공·사립 보통학교와 별도로 전통적인 서당이 당시 광범하게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식민지 교육 현실을 보여 주는 자료라 할 수 있어 1910년대 수원의 교육 현황과 비교해 볼 수 있다.





1929년 태장공림보통학교 졸업기념(수원박물관 제공)

1913년 말 수원군에는 서당 150개소가 존재하였다. 서당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이 1,144명이었고, 공·사립 보통학교 학생은 692명으로, 전체 학생 1,836명 가운데 서당에 다니는 학생이 일반 보통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두 배가 넘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1915년 현재 수원군의 서당은 170개소로 더욱 증가하였다.<sup>8</sup> 이는 1910년대 전통 서당이 당시 교육의 주체였음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서당의 문제점은 여학생이 1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가부장적 인식의 공고함은 점차 여성 교육의 필요성과 근대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교육기관으로서 서당의 역할은 1919년 3·1운동을 지나면서 점차 축소되었다.

1927년 수원군 교육기관 일람을 보면, 1920년대 말 서당에서 교육받는 학생(1,983명)이 보통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4,047명)의 1/2 수준으로 역전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의 조선인이 서당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리의 신온서당과 벽천서당, 능리의 문명서당과 송곡서당의 존재는 당시 태장면 교육환경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표 3 수원군 교육기관 일람(1927년)

| 종류    | 일인 교육  |         | 조선인 교육  |       |     |        | 합계      |
|-------|--------|---------|---------|-------|-----|--------|---------|
|       | 소학교    | 보통학교    | 간이 실업학교 | 종교학교  | 유치원 | 서당     |         |
| 구분    | 공립     | 4       | 11      | 1     | —   | —      | 16      |
|       | 사립     | —       | 1       | —     | 2   | 199    | 203     |
|       | 계      | 4       | 12      | 1     | 2   | 199    | 219     |
| 학급 수  | 14     | 73      | 2       | 11    | 1   | —      | 101     |
| 교원 수  | 16     | 76      | 3       | 9     | 1   | 204    | 309     |
| 아동    | 남      | 299     | 3,234   | 25    | 262 | 20     | 5,781   |
|       | 여      | 185     | 813     | —     | —   | 20     | 1,060   |
|       | 계      | 484     | 4,047   | 25    | 262 | 40     | 6,841   |
| 졸업자   | 81     | 518     | 10      | 18    | —   | —      | 627     |
| 경비(円) | 31,035 | 106,729 | 5,662   | 6,058 | 528 | 28,905 | 178,917 |

출처 : 조선총독부, 『生活狀態調査(其一) 水原郡』, 1929, 109~110쪽.

### 3) 산업

『태장향토사』의 주요한 특징은 산업에 대한 관심이다. 산업 관련 내용은 제10장 농장, 제11장 수리조합, 제12장 주류 제조, 제13장 누룩조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10장 농장에서는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국무합명회사 수원지점, 동양척식주식회사 수원지점을 다루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조사 내용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소유지 면적 단위는 무(畝)와 정보(町步)가 혼용되어 있고, 동산농장의 경우 소작인조합 수가 조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항목에서 「소작인조합 규약(小作人組合規約)」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표 4 일본인 회사 농장 현황

| 구분    |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 국무합명회사 수원지점 | 동양척식주식회사 수원지점 |
|-------|---------------|-------------|---------------|
| 소유지   | 논             | 203,65무 16  | 18정보          |
|       | 밭             | 44,86무 09   | 16정보          |
|       | 대지            | —           | —             |
|       | 임야            | 14,78무 15   | —             |
| 소작인   | 117명          | 35명         | 250명          |
| 소작인조합 | —             | 3개          | —             |
| 소작료   | 병작(50%)       | 병작(50%)     | 병작(50%)       |



제11장 수리조합은 수룡수리조합(水龍水利組合)을 다루고 있다. 수룡수리조합은 수원군 태장면·안릉면과 용인군 수지면·기흥면을 물리구역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수원과 용인의 앞 글자를 따서 수룡수리조합으로 명명하였다. 이에 저수지를 축조하였는데, 1927년 8월 27일 인가를 받아 조선토지개발주식회사를 대행사로 하고 청부업자 시바타구미(柴田組)를 건설사로 하여 1928년 3월 19일 공사에 착수하여 138년 12월 10일 준공되었다. 사업비는 42만 8,938원 90전이 소요되었고, 원천저수지(여천저수지, 신대저수지)의 관개면적은 749정보, 조합원 500명이었다. 이러한 산업적 관심은 제12장 주류 제조 항목에서 태장면의 양조장들을 자세히 다루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지역의 양조장을 조사하여 게재한 것은 교육과 관련 없는 것이지만 지역사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태장면 양조장(주류 제조장) 현황

| 구분    | 위치      | 양조업자 | 양조 종류  | 양조 수량                   | 판매 범위              | 1년 주세                  |
|-------|---------|------|--------|-------------------------|--------------------|------------------------|
| 권선양조장 | 권선리 550 | 윤원성  | 약주, 탁주 | 약주 7석 5두<br>탁주 268석     | 태장면, 안릉면           | 약주 100원<br>탁주 925원 60전 |
| 원천양조장 | 원천리     | 이명서  | 약주, 탁주 | 약주 22석 3두<br>탁주 568석 9두 | 태장면, 수원읍, 용인군 일부   | 2,590원                 |
| 화산양조장 | 진안리     | 임인규  | 약주, 탁주 | 700석                    | 태장면, 성호면, 안릉면, 정남면 | 2,300원                 |

수원의 양조장 등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수원-풍광명미의 땅(水原-風光明媚の地)』(1933)이다. 이는 1933년 3월 제3회 경기도 주류품평회가 수원에서 개최될 때 수원 안내 팸플릿으로 제작된 소책자였다. 이를 통해 태장면 지역의 양조장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1931년 태장면 양조업자 현황

| 구분    | 종류       | 술 이름        | 제조장 위치  | 창업 연월    | 제조사      |
|-------|----------|-------------|---------|----------|----------|
| 권선양조장 | 약주<br>탁주 | 권군(勸君)<br>— | 태장면 권선리 | 1925. 1. | 윤원성(尹元成) |
| 화산양조장 | 약주<br>탁주 | 화향(花香)<br>— | 태장면 병점리 | 1929. 2. | 임인규(林寅圭) |
| 원천양조장 | 약주<br>탁주 | 방향(訪香)<br>— | 태장면 원천리 | 1930. 9. | 이명서(李明西) |

출처 : 『水原-風光明媚の地』, 1933, 48~50쪽.

이 두 책자를 종합하여 태장면 지역 양조장의 실태를 좀 더 정확히 재구성할 수 있다. 태장면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것은 권선리 권선양조장이다. 권선양조장은 1925년 1월 윤원성이 설립하였는데, 약주와 탁주를 생산 판매하였다. 권선양조장의 대표 약주의 상표명은 ‘권군(勸君)’이었다.

윤원성은 대한제국 군관 출신으로 무관학교 2회 졸업생이다. 1902년 육군 부위를 거쳐 1907년 군대해산 당시 육군 참위로 제대한 뒤 수원으로 낙향하였다. 이후 수원에서 활동하면서 1908년 기호흥학회 수원지회 평의원,<sup>9</sup> 1916년 수원면장을 역임하였다.<sup>10</sup> 윤원성은 권선리에서 정미소 겸 잡화점도 운영하였고,<sup>11</sup> 1927년 이전에 설립된 수원군양조합동조합 조합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유지로 성장하였다.

권선양조장은 1931년 안성군에서 개최된 안성·용인·진위·수원 4군 연합 주류품평회 탁주 부문에서 우등상을 수상하며 그 명성을 이어 갔다.<sup>12</sup> 윤원성은 마을 사람들에게 검은색 포목 2필을 무료로 배부하고, 마을 야경꾼에게는 검은색 두루마기[周衣]를 만들어 입히고 야경(夜警) 도구 일체를 제공하였다.<sup>13</sup> 일제의 색의(色衣), 즉 흰옷 대신 색깔 있는 옷을 장려하는 식민통치에도 적극 동참하였다. 이에 별 탈 없이 운영되던 권선양조장은 1936년 7월 4살짜리 손녀가 술독에 빠져 익사하는 사건으로 타격을 입게 되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권선양조장은 3년 뒤인 1939년 2월 수원양조주식회사로 흡수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화산양조장은 1929년 1월 임인규가 설립하였다. 화산양조장은 ‘화향(花香)’이라는 약주가 대표 상품이었다. 화산양조장은 진안리에서 교통이 편리한 병점리로 양조장을 이전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화산양조장은 진안리에 있던 1930년 10월 조선주조합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주류품평회에서 2등 상을 수상하였다. 이때 약주 부문 1등 상은 수원군 오산리 한필호(韓弼昊)의 ‘장안(長安)’, 수원군 김교익(金敎益), 2등 상은 화산양조장의 ‘화향’과 수원군 정남주조주식회사의 ‘홍로(虹露)’가 수상하였다.<sup>14</sup> 임인규(1887~1954)는 나주 임씨 임병선(林炳善)과 신명선(申明善)의 4남으로 태장면 능리 417번지(병점리 11통 8호) 출신이다. 김해 김씨 김용서(金龍瑞)의 장녀 김인명(金仁明)과 혼인하여 종순(鍾順), 중복(鍾福), 중남(鍾南) 3형제를 두었다.

1930년 9월 이명서가 개업한 원천리 원천양조장은 가장 늦게 개업한 양조장 가운데 하나였지만 대표 약주 ‘방향(訪香)’을 중심으로 수원을 대표하는 양조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는 원천의 물맛이 좋았기 때문이다. 독립운동가 백농 이영선 선생이 남긴 『백농일지』 1950년 2월 7일 내용에는 세교리 사는 이정운과 나눈 대화에서 원천양조장이 언급되었다.



수원 태장면 원천리 양조업 하는 이모 청년이 자기 동리 주민 60호 중 빈궁한 28호를 선출하여 매호에 현금 3천 원을 지급하고 10세 미만 아동을 골라 1인당 바지저고리 한 벌씩을 제공하고 또 세궁민 18호에는 주박(酒粕, 술지게미)을 배급하여 호구생활케 한다고 함.<sup>15</sup>

원천리 양조업을 하는 이모씨는 이명서이거나 그 뒤를 이어 원천양조장을 운영한 아들 이덕운일 가능성이 크다. 가난한 지역민의 처지를 이해하고 고통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4) 인물

제17장 효행 항목에서는 능리의 김두현(金斗鉉, 1861~1922)과 같은 마을의 김기행 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김두현은 1890년 아버지 김재승(59세)이 중병이 걸리자 침식을 잇고 기도하고 의사를 찾아 약을 구해 극진히 50여 일을 간병하였다. 꿈에 노인이 나타나 뒷산의 풀뿌리를 알려 주자 이를 캐서 달인 후 아버지를 먹였더니 병이 나아 74세까지 장수했다고 한다. 이에 김두현은 1910년 효행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을 적고 있다. 김두현은 아버지 광산 김씨 김재승(金在昇)과 어머니 이숙량(李淑良)의 2남으로 태어났다. 김두현의 출생지인 병점리 12통 7호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능리 189번지가 되었다. 능리는 광산 김씨 동족마을이다. 김두현의 동생인 3남 최현(最鉉)은 능리 501번지로 분가하였다. 김두현은 전주 이씨 이성모(李性慕)와 결혼하여 영목(永穆), 영렬(永烈), 영혁(永赫) 등을 두었다. 2남 영렬은 능리 191번지로 분가하였고, 3남 영혁은 능리 190번지로 분가하였다.

또한 같은 마을의 능리 김기행의 처 이옥경(李玉卿)의 효행을 기술하고 있다. 효순근검한 이씨는 밤낮으로 농사일과 누에치기와 샛바느질로 시부모를 봉양하였다. 늙은 시어머니가 병에 걸려 간병에 힘쓸 때 어느 노인이 나타나 뒷마당에 제단을 만들고 기도하라고 해 이를 시행하였다. 며칠 뒤 제단 위에 약이 놓여 있어 이 약으로 시어머니 병을 낫게 하였고 십수년 뒤에 돌아가셨다고 전한다. 지극한 효성에 하늘이 감동해 이적(異蹟)이 나타난 사실을 전하고 있는 셈이다.

『태장향토사』는 제18장에서 태장면의 인물로 유일하게 유기환(俞箕煥, 1858~1902)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기환은 본면 영통리 출생으로 인천 감리서 주사로 관직에 올라 외부 참서관, 일본 전권공사를 거

쳐 일약 법무대신으로 승진했고, 그 후 육군 참장, 군부대신, 농상공부대신 등을 역임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죽었다.

유기환은 기계 유씨 단성군파로 대한제국기 철도원 총재, 조선 전권대신, 주일 한국대리공사 등을 역임한 관료이다. 영통리에서 출생하지 않았으나 영통리 출생으로 기록되어 있고, 집과 묘가 영통리에 있었다. 영통 개발로 유기환의 묘는 안성으로 이장되었다. 현재 후손들이 수원에 살고 있으며, 나혜석기념사업회 유동준 회장이 증손이다. 『기계유씨대동보(杞溪俞氏大同譜)』에는 유기환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유기환(유동준 제공)

字敬範 號汕圃 戊午生 官資憲大夫 議政府贊政 外部大臣 陸軍副將 軍部大臣 法部大臣 癸丑七月二十三日卒 ○墓在華城台安面靈通里杏村午向<sup>16</sup>

유기환의 자는 경범(敬範)이고 호는 산한(汕圃)이며, 무오생(1858년)이다. 관직은 자헌대부로 의정부 찬정, 외부대신, 육군 부장, 군부대신, 법무대신을 역임하였고, 계축(1913년) 7월 23일 사망하였다. 묘는 화성군 태안면 영통리 은행나무골[杏村] 남향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족보의 유기환 사망 연도는 계축(1913년)으로 오기되어 있다. 『기계유씨대종회보』의 「구한말 수구파의 거목 유기환 선생의 생애」에도 몰년을 1903년으로 잘못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된 「유공기환시장(俞公箕煥諡狀)」은 유기환 몰년을 '광무 6년 임인(壬寅) 7월 23일'로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 1902년 7월 23일은 음력이고, 양력으로는 8월 26일이다. 유기환에 대한 최초의 단독논문인 「대한제국기 유기환의 정치활동과 비밀외교」에 몰년을 1902년 8월 26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양력 적용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sup>17</sup>

호주 유기환이 1902년 사망함에 따라 장남 유치설(俞致高)이 1902년 7월 29일 호주 상속하였다. 유치설은 1914년 경성부 관석방 허정동에서 태장면 영통리 110번지로 이주하였다. 1916년 영통리 92번지를 거쳐 1917년 수원면 북수리 91번지로 호적을 옮겼다. 유치설은 1899년 영회원(永懷園) 참봉을 시작으로 내부 참서관, 외부 주사, 탁지부 기사를 역임하



고 1914년 수원군 서기를 거쳐 1919년부터 1924년까지 태장면장을 지낸 인물이다.

유기환의 선대는 충북을 근거로 세거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할아버지 유한량(俞漢良)의 묘가 충북 진천에 있고, 아버지와 형제들의 묘는 단양에 있다. 따라서 충북 진천을 거쳐 단양에서 거주하였다고 한다.<sup>18</sup> 유기환은 1858년(철종 9) 유봉주(俞峰柱)의 4남 1녀 중 4남으로 태어났다. 어머니 밀양 손씨와 사이에 막내아들로 충북 단양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봉주의 묘는 단양에 있지만, 어머니 밀양 손씨의 묘는 수원 원천 역말 앞에 있다. 따라서 유기환의 묘가 태장면 영통 행촌에 있는 것은 어머니 밀양 손씨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기환은 1881년(고종 18) 조사시찰단의 조병직(趙秉稷) 수행원으로 일본을 시찰하였다. 조사시찰단으로 일본을 다녀온 경험은 유기환의 삶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후 해관 업무와 외교관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즉 부산항 방관(幫辦), 일본 주재 공사관 서기관, 인천항 감리서 방관, 일본 주재 서기관(대리공사) 등을 거쳐 1895년 외사과장(外事課長)을 역임하였다.

수원과 관련한 유기환의 행적은, 영통 집을 비적(匪賊)들이 습격한 사건과 철도원 총재 당시 경부철도 노선을 지금과 같이 변경 확정된 일이다. 한성부 관찰사 재임 시절인 1896년 5월 10일 영통리 유기환의 집에 비적들이 들어와서 ‘개화한 사람’의 집이라며 그 형님을 무수히 때리고 집 안의 돈과 양식을 탈취해 가는 사건이 일어났다.<sup>19</sup> 당시 지역에서는 유기환이 개화파로 인식된 듯하다. 실제 유기환은 독립협회 간사를 지낸 적도 있지만 군부대신 서리 때는 독립협회 등 개화 세력을 탄압하였다. 이에 유기환은 조병식, 민종묵, 이기동, 김정근과 함께 독립협회로부터 ‘5홍(五紅)’으로 규탄되었다. 1899년 의정부 찬정 겸 법무대신이 되었고, 1897년 5월 특명전권공사로 대일 비밀외교 채널로서 고종의 측근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1898년 외부대신 서리 등을 역임하였다.

유기환은 철도원 총재 재직 당시 경부철도 노선을 수원부민의 민원을 수용하여 지금의 수원역 노선으로 변경하였다. 원래 일본의 계획은 부곡에서 지지대고개를 터널로 뚫어 화서문 옆 팔달산을 치고 대항교로 빠져나가는 노선이었다. 수원 사정을 잘 아는 유기환이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수원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지지대고개와 팔달산을 건드리지 않는 노선으로 변경된 것이다.

## 5) 풍속과 인근 마을 조사

제20장 풍속 편은 지역의 연중행사와 각종 놀이 등을 서술하였다. 연중행사 가운데 특

히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에 대한 내용은 역사적 가치가 높다.

며칠 전부터 길거리에는 각종 등롱(燈籠)이나 어린이들의 장난감을 진열 판매하여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사람들의 구경거리였다. 8일과 9일 양일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등불을 달거나 혹은 썰매의 꼬리를 쫓은 남색 깃발을 게양했다. 등걸이 막대 위에는 집안 아이들의 숫자와 같은 수의 등을 걸고, 혹은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를 막대 끝에 걸어 조종하거나 내걸린 등 아래서 음악을 연주하고 집 밖에서는 불꽃과 폭죽을 터트리는 놀이를 하였는데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다.<sup>20</sup>

1930년대 이래 사월 초파일의 연등행사가 점차 위축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해방 후 미군정 때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부터 국가 공휴일에 크리스마스가 지정되었다. 그러나 석가탄신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사월 초파일 연등행사는 민간에서 전승되지 않는 연중행사가 되었다. 그러다가 1974년 석가탄신일이 공휴일이 된 이후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화되면서 연등행사는 조계종단 차원의 행사가 되었다.

한편 ‘부록’에서는 수원군 안룡면 곡반정리, 용인군 수지면 하리,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용인군 기흥면 농서리 등 4개 마을을 조사한 내용을 싣고 있다. 곡반정리와 하리는 수원군 태장면 소속 마을이 아니었으나 후에 수원시 곡반정동, 이의동(하동)으로 편입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마을조사 내용은 현재 수원시의 중요한 역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가운데 곡반정리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당시 곡반정리는 남자 246명, 여자 256명, 전체 74호인데, 일본인과 중국인은 한 명도 살지 않는다. 이들의 직업은 자작농 5호, 소작농 66호, 관공서 3호로 조사되어 절대적으로 소작농이 대다수인 조선의 농촌 현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대출이 있는 가구는 50호이고, 대출이 없는 가구가 24호이다. 이는 곡반정리에 소작인이 많아도 먼내[遠川]의 물길이 만드는 ‘반쟁이뜰’이라 불리는 넓은 평야 때문에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마을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마을의 우차(牛車) 소유자가 1~2명인 것에 비해 곡반정리는 우차 소유자가 12명에 이르고 있어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소유자는 4명에 불과하였다.

마을 사람들의 신분은 양반 43호, 평민 31호로 조사되었는데, 거주 성씨는 박(30호), 정(7호), 최·윤(각 6호), 김(5호), 이(4호), 문(3호), 한·연(각 2호) 등의 순서이다. 반정리는 반남 박씨 30호와 온양 정씨 7호 등이 양반으로 마을의 주요한 성씨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곡반정리 반남 박씨로는 진달래꽃을 읊은 시인 박팔양(朴八陽)과 백범 김구 동상을 만든 조각가 박승구(朴勝龜)가 있다. 이들은 해방과 전쟁 이후 북쪽을 선택한 인물들이다.



곡반정리의 교육 정도는 보통학교 입학자 5명(남 4, 여 1), 서당 입학자 6명(남), 중등학교 입학자 4명(남), 보통학교 졸업자 27명(남 25, 여 2)이고 현재까지 중등학교 및 전문학교, 대학교 졸업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박팔양과 박승구 가족이 일찍 서울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조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편 마을 전체 인구 가운데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3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보통학교 졸업자와 중등학교 입학자를 합친 숫자와 비슷하다. 재미있는 것은, 양복 착용자와 신식 부인, 미단발자를 조사 항목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마을 가운데 서천리에 신식 부인 2명이 조사되고 있다. 또한 상투를 자르지 않은 미단발자가 하리 36명, 서천리 43명, 농서리 12명인 것에 비해 곡반정리는 한 명도 없었다. 곡반정리는 사람들이 모두 상투를 자르고 개화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마을들이 모두 무당 1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에 비해 곡반정리는 무당이 3명이나 되었다. 단발을 통한 개화와 무당을 통한 전통의 고수가 혼재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곡반정리는 술집은 하나도 없고 음식점만 두 곳 있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이렇듯 『태장향토사』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귀중한 지역자료인 것이다.



1. 기존 책자(이창식·한동민, 「주차장으로 사라진 장안동 설경동 가옥」, 『수원아사』, 2017, 447쪽)에서 장안동 79-1번지 제일감리교회 주차장 자리를 신봉리 73번지(394평) 한상봉 집으로 추정했는데, 이번 기회에 신봉리 79번지(424평) 박성근 집으로 바로잡는다.
2. 『대한제국관원이력서』 41책, 869쪽; 『대한제국관원이력서』 42책, 922쪽; 『대한제국관원이력서』 30책, 711쪽.
3. 한동민, 「근대 수원의 일본인 사회와 일본인학교 - 일어 화성학교와 수원소학교를 중심으로」, 『지배문화와 민중의식』, 2008, 한신대학교 출판부.
4. 「鮮人교원 보통학교장 임명, 위선 18명」, 『매일신보』, 1919년 10월 31일.
5. 「朴晟根氏의 送別宴」, 『매일신보』, 1937년 4월 8일.
6. 수원군, 『水原郡地誌』, 1929.
7. 「水原金組總會」, 『매일신보』, 1934년 4월 26일.
8. 酒井政之助, 『華城之影』, 1915, 3쪽(이창식 역, 『화성지영』, 2011, 수원박물관, 15쪽).
9. 「本會紀事」, 『畿湖興學會月報』 2호, 1908, 61~62쪽.
10. 「수원에서」, 『매일신보』, 1916년 10월 21일.
11. 「食刀强盜」, 『동아일보』, 1926년 5월 19일; 「自稱專賣員强盜」, 『조선일보』, 1926년 5월 29일.
12. 「四郡聯合啤酒品評會」, 『조선일보』, 1931년 4월 14일; 「四郡聯合啤酒會」, 『동아일보』, 1931년 4월 14일.
13. 「尹元成氏의 美舉」, 『매일신보』, 1933년 2월 24일.
14. 「酒類品評會, 藥酒之部受賞者」, 『조선일보』, 1930년 10월 22일.
15. 이영선, 『백농일지』, 204~205쪽.
16. 기계유씨대종회, 『杞溪俞氏大同譜』 6, 2017, 304쪽.
17. 민회수, 「대한제국기 俞箕煥의 정치활동과 비밀외교」, 『史林』 64, 2018, 수선사학회, 89쪽.
18. 「구한말 수구파의 거목 유기환 선생의 생애」, 『富雲』 11호, 1989, 202쪽.
19. 「이돌 열흘날 수원 영통리에 지금 한성관찰사」, 『독립신문』, 1896년 5월 16일.
20. 박성근, 『태장향토사』, 1932, 50쪽.





## 03

# 태장초등학교의 변천과 위상

### 1. ‘태장’이라는 이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너네는 바보 아니냐. 학교까지 다 뺏기고 말이야.”

“뺏긴 게 아니라 태장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길 건너서 산다는데 뭐.”

태장초등학교 동문들은 외부인의 이야기를 말하며 불멘소리를 했다. 2021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태장초등학교는 개교 당시와 다른 곳에 자리하고 있다. 영동중학교 자리(신동)에 설립되었던 태장초등학교는 2005년에 현재의 위치인 망포2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래서 옛 학교의 장소성은 사라지고 이름만 가져간 낯선 학교라 여겨서인지 태장초등학교 동문들은 100주년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어쩌면 폐교를 하고 새 학교로 개교했어도 됐을 거라는 아쉬움도 내비쳤다.

옛 태장면사무소와 태장초등학교가 자리하였던 방죽머리는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까지 수원으로 나가는 버스 종점이자 동탄과 병점, 신갈로 버스가 오고 나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화성, 용인, 수원 세 도시의 경계지점에 맞닿은 지리적 요인 탓에 중간 길목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행정구역상 1914년에 망포동은 수원군 태장면에 속했고, 특히 면사무소와 태장초등학교, 주재소가 있었던 방죽머리는 태장면의 행정 중심지였다. 해방 후 1949년 수원읍이 시

김형아  
설날 대표





태장면의 유일한 학교인 태장국민학교(『경기도관내제학교분포도』, 1938)

로 분리되고 방죽머리가 편제되어 있던 망포리와 신리는 화성군에 속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도 면사무소와 초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이라는 느낌은 없었다. 그러나 1963년에 권선리·매탄리·원천리 등이 수원시로 편입되고, 태장면과 안룡면을 합쳐 태안면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태안면사무소가 진안리로 이동하고 태장초등학교만 남게 되었다. 그 당시에 망포리에 살았던 황종각은 행정기능이 사라지면서 오지가 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태장면의 중심이었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이어졌다. 주변의 작은 마을들은 이발소, 문방구, 잡화점, 약국 등의 작은 가게들과 큰 행사에 꼭 필요한 방앗간과 술도가를 가기 위해서 방죽머리까지 나왔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오래된 학교는 한적한 농촌 마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 역할도 해냈다. 수원 시내까지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순회 영화 상영을 하고 서커스단이 들어온 곳도 태장초등학교이기 때문이다.

황종각의 말처럼 오지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태장’이라는 명칭이 학교에 남아 있듯이, 이미 면사무소와 주재소가 사라지고 행정구역명이 바뀌어도 이들에게는 태장면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남아 있었다. 망포리를 종점으로 오가던 버스의 행선지도 망포리가 아닌 태장면행으로 계속해서 사용되었다. 또한 학교가 많지 않았던 시대에 그 근방의 여러 마을 사람들이 모두 태장이라는 이름의 초등학교를 나왔다. 새로운 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인 1970년대 초반까지도 인계리와 권선리, 매탄리 아이들도 태장초등학교에 입학했으며 용인 서천리에서도 통학을 했다. 그래서 태안면이라는 이름은 문서로만 쓰일 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다. 수원에서 망포리로 들어오는 버스가 넘곤 했던 매탄동의 ‘태장면고개’라는 명칭은 권선리와 매탄리가 태장면이었던 흔적을 알려준다. 지금도 태장면고개로 불리고 있다.

태장면은 행정구역상 변방으로 밀려나면서 화성에서도 외곽이고 수원과 용인의 경계지역에 있는 마을로 인식하게 됐다. 수원 사람들에게 망포리는 엄청 멀고 오지에 있는 시골로 여기곤 했다고 한다. 심지어 토굴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망포리 토박이들은 도리어 성 안 사람이 아니면 다 똑같다고 말한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호매실동이나 똑같지. 당수동이나. 옛날에 파장동은 안 그랬나.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북문이 젤 끝이여. 송죽동 논이나마나 우리 동창들도 모이면 “망포리나 거기나 거기지 뭘.” 우리는 중학교 다닐 때가까워. 그런데 개들은 진짜 먼 애들이야. 우리는 여기서 중학교까지 4km뿐이 안 가. 개들은 북문까지 와서도 또 한참 내려와야 되잖아.

수원중학교뿐만 아니라 수원북중학교도 걸어 다녔다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망포리는 화성군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했다. 화성군이지만 수원시와 더 가깝기 때문에 근방의 망포리, 신리, 영통리 사람들은 수원으로 중학교를 배정받았다. 그래서 동탄에 사는 학생들이 수원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일부러 태장초등학교로 전학하기도 했다고 한다.

태장면의 중심에 있는 학교라는 위상이 흔들린 건 하나의 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영통리가 먼저 개발되면서부터였다. 토박이들은 학군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태장초등학교로 더 이상 학생들이 다니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영통학군이 생기는데 당연히 학생이 없는데 뭘. 방법이 없지. 학생은 적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옮기고 싶지 않아. 아파트에 온 사람들은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잖아. 그 젊은 얼마 아빠들이 이걸(투표) 해





1966년 태장초등학교 일대



1995년 태장초등학교 일대



2006년 태장초등학교와 영동중학교 일대



2021년 태장초등학교와 영동중학교 일대

너까 그냥 간 거여. 동문회도 다 졸업해서 딴 세상에서 사는 걸 뭐. 하긴 뭐, 태장구가 돼야 되는데 영동이 됐으니. 거기서 투표해니까 안 되잖아.

1990년대 영통신도시에 들어선 아파트 위치와 구획에 따라 새로운 학교가 개교를 하게 됐고 태장초등학교는 더 이상 중심에 있지 않고 외곽에 있는 학교가 되었다.

2003년 2월 10일 매탄3동이 관할했던 신동과 망포동이 행정동인 태장동으로 분동되면서 토박이들이 바랐던 태장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개발된 망포동 안의 초등학교도 새로운 이름으로 개교하지 않고 태장초등학교가 태장로71번길로 이사한다. 당시 동문회에서도 태장초등학교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 오자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한다.

토박이들은 태장동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한편으론 같은 해에 영통구라는 이름으로 분구되면서 새로 들어온 주민들이 신도시로만 인지하는 상황이 못내 속상하였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수원의 첫 신도시라는 상징성에다 영통리가 수원시에 먼저 편입됐기 때문에,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화성군에 속했고 태안 이전에 쓰였던 태장을 지명으로 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얹혀 있는지도 관심 밖이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각 도시의 경계에 입지한 마을의 숙명인지도 모르겠다.

옛 태장면 지역은 1980년, 경희대학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외지인이 올 기회가 없었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제조공장이 속속 들어왔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도 버스가 빨리 끊겨서 교통이 불편했던 곳이다. 특히 망포동과 신동은 2010년 무렵에도 논이 남아 있던 동네였다. 한적한 시골이라 여겼던 동네는 빠른 시간 안에 도시로 변모했다. 그리고 기억 속의 마을은 이름으로나마 남길 바랐고 그 이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장소는 태장초등학교였다.

## 2. 태장초등학교의 설립과 변천

태장공립보통학교는 해주 오씨의 오득영 형제와 송기동의 발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안우중이 10원을 기부한 것을 기반으로 설립된다. 1921년 11월 24일 설치인가를 받았으며 1922년 3월 19일 4교실 1동을 태장면 신리에 신축 낙성한 후 같은 해 4월 28일 개교한다. 1922년 개교 당시 1학년, 2학년 학생 각 80명씩 수용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신식 초등기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리고 일본인 학생을 위한 학





태장공립보통학교 추계운동회 기념사진(1922년, 태장100주년 한마당큰잔치 추진위원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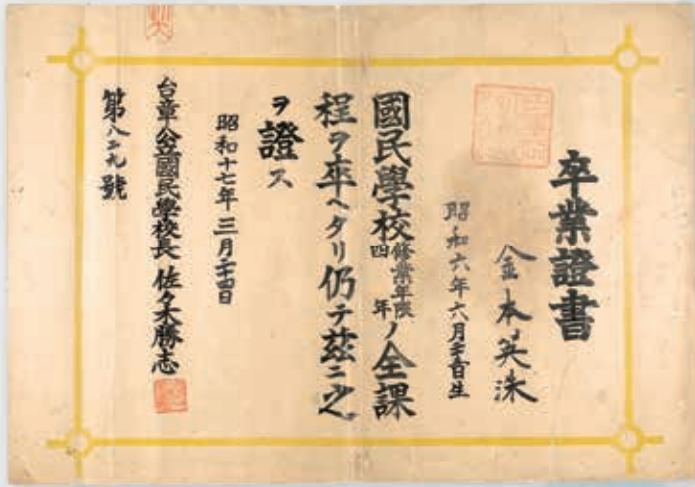


태장공립보통학교 3회 졸업 기념사진(1927년, 수원박물관 제공)



- |   |   |
|---|---|
| 1 | 3 |
| 2 | 4 |

1. 1944년 태장공립국민학교 상장
2. 1946년 태장공립국민학교 상장
3. 1942년 태장공립국민학교 졸업장
4. 1949년 태장공립국민학교 졸업장  
(김형진 제공)





교들이 우선적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또한 차별을 두었다. 하지만 1919년 3·1운동 이후, 한국인 교장 임명과 보통학교 확장을 위한 3면 1교 등의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조선교육령」의 개정을 단행한다. 그럼에도 1면의 크기가 작지 않으므로 학교는 턱없이 부족했고 조선인들은 학교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태장공립보통학교도 마을 사람들의 기여로 세워질 수 있었다. 하지만 1929년까지도 조선인의 보통학교 취학률은 18.6%에 불과했다.

1938년 3차 교육령으로 바뀌기 전까지 일본인 학교가 소학교라면 한국인이 다니는 학교는 보통학교로 불리었다. 1922년 2차 교육령에 의해 이전의 보통학교가 3~4년의 짧은 과정이었다면 이후 기존의 소학교와 똑같이 수업 연한을 6년 과정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수업 연한을 4~5년으로 하고 2년의 고등과를 둘 수 있게 하기도 했다. 태장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할 당시 6년제로 바뀐 인근 공립보통학교로는 수원·남양·오산이 있었다. 태장은 1942년 4월에 6년제로 인가받는다. 태장공립보통학교는 1941년 태장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1932년에 발행된 『태장향토사』에 따르면, 태장면의 초등교육기관으로 태장공립보통학교가 유일했으며, 남자가 150명, 여자가 37명의 4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한 학년당 한 반으로 보인다. 설비 기록에 학교림 3,726평, 실습 논 644평, 실습 밭으로 뽕밭 591.4평, 채소밭 591.69평이 기록되어 있다. 꽃밭을 담당하는 학년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나온다. 농업에 필요한 실습 과정 위주로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직업과에 채소밭, 논, 뽕밭, 수공, 퇴비로 나누어져 있으며 담당학년은 3~4학년으로 나온다.

직업과는 1929년부터 보통학교에 도입된 과목이다. 하지만 세계대공황 이후 곡물가격이 급락하면서 농가 부채에 더해 남부 지방에서 연달아 일어난 가뭄의 충격으로 몰락한 농가가 늘어났고, 조선총독부는 1932년부터 1940년까지 관제 농촌진흥운동을 벌였다. 그 영향으로 집단농장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 또한 양성된다. 태장공립보통학교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학제를 편성했다. 이는 초등교육이지만 최종 학력으로 여기고 학제를 편성한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의 교육열은 엄청났다. 한국전쟁으로 1951년 태장국민학교 9개 교실이 전소되었지만 그 해 12월 교실 4개를 준공했으며 미뤄진 27회 졸업식도 해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학교에 나가 공부를 했다. 1952년에 의무교육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한국전쟁이 끝나자, 1954년 국민학교 취학률은 82.5%에 달하게 된다. 태장국민학교도 의무교육과 전후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학생들이 늘어났고 여학생 비율 또한 남학생과 비슷해졌다.

매탄리 말통골에서 살았던 안광국의 집안은 형, 누나, 동생 모두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태장국민학교를 다녔다. 태장면을 지나면 나오는 큰 동네가 신갈이었고 원천리 먼내나 말통골 아이들이 신갈까지 학교를 가기에는 청명산을 넘어야 하는 험난한 길이었다. 안광국의 큰누님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학교를 다녔으며 전쟁을 피해 늦게 진학한 학생들이 많았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기록상 한국전쟁 속에서도 태장국민학교는 매년 졸업식을 했다. 이는 전쟁을 피해서 늦게 입학했다기보다는 1954년 국민학교 의무교육 실시로 학교 갈 시기를 한참 지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진학하면서 비롯된 결과로 보여진다. 실제로 태장국민학교는 1954년 4월 16학급을 편성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65년에 입학한 안광국은 한 학년당 두 반이 있었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같은 반 친구들이 함께 올라갔다고 했다. 남녀합반이었으며 한 반의 인원이 70여 명이었다고 기억한다. 특이한 일이라면, 4학년 때 남녀학생끼리 싸우면서 담임선생님께 호되게 혼나고 5학년 때 잠깐 남녀분반이 됐다고 했다. 그리고 6학년 때 다시 예전의 남녀합반으로 돌아왔다. 1970년에 입학한 53회 졸업생들은 예외적으로 한 반만 있었다. 1975년에 입학해서 1981년에 졸업한 황찬옥은 학교 다니는 내내 두 반이었다고 기억했다. 실제로 태장초등학교 졸업생 수를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100명으로 비슷했으며 1981~1999년 19년 동안 졸업생 수가 2,633명으로 약간 늘었을 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안광국은 1960년대 말에 매원국민학교가 생기면서 태장국민학교에 다녔던 말통골 아이들이 전학을 많이 갔다고 했다. 부족했던 국민학교가 하나둘 개교하면서 원천리와 매탄리 학생들은 가까운 위치의 학교로 전학을 갔다. 학교 증가로 인한 학생 분산과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까지 더해 1990년대 영통이 개발되기 전까지 비슷한 학생 수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 3. 학교 생활

1971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태장국민학교 47회 졸업생부터 중학교 입시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안광국은 4학년 때 중학교 입시제도 폐지를 전해 듣고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반 친구들과 함께 책을 던진 기억이 난다고 했다. 그 전까지는 5~6학년이 되면 중학교 입시를 보는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서 촛불을 켜고 입시 공부를 했다는 것이다. 현대 46회 졸업생 강래선은 따로 입시반이 있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수원 시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만큼 좋은 학교를 가려는 생각도 별로 없었고 시골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중학교 입시를 치르거나 치르지 않거나 그 당시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도가 없었고 매달 시험을 봤기 때문에 늘 시험의 연속이었다. 한 달에 한 번 보는 시험 외에도 자유교양 시험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따로 시험공부란 걸 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기억의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 사는 곳이 달랐는데 안광국은 매탄리 말통골이었고, 강래선은 망포리 방죽머리에 살았다. 말통골 사는 안광국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나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방죽머리로 향했다. 그에 반해 방죽머리에 살던 강래선은 수원 시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 마을은 낙후된 시골이라고 여겼다. 입시공부를 했을 수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기억을 달리한 요인이 됐다. 그럼에도 면사무소가 있었던 중심가라는 자부심은 공유하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전소된 후 다시 지은 교사는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1960년대 말에 한 차례 증축을 한다. 그리고 기존의 나무로 지은 본관 건물을 시멘트 건물로 새롭게 단장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교 뒷산 나무 아래서 수업을 들었는데 꽤 기분 좋았던 경험이라고 이야기했다. 본관 건축재로 쓰였던 나무는 망포리에서 목장을 경영하는 친구네 집으로 팔려 갔다.

학교 정문 앞에는 작은 이발소가 있었다. 남학생들은 거기서 머리를 깎곤 했는데 이발소 주인아저씨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연탄가스를 마시고 돌아가신 일은 크게 놀랐던 일이었다. 이발소를 지나 서쪽을 보면 옛 면사무소가 있다. 면사무소가 병점으로 이동하면서 비어 있는 건물에는 잠시 제지공장이 들어왔지만 이내 건물을 떠났다. 옆 공터에는 우문리와 반달이 사람들이 수확철이 되면 농산물을 잔뜩 쌓아 놓았다. 좁은 길은 우마차로 윙크고 공터에는 한국전쟁 때 쓰였을 것만 같은 커다란 차가 들어왔다. 고구마, 수박, 참외 등의 농산물은 종로 도매상인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틈에 아이들은 학교 점심 시간에 나가 작물들을 몰래 빼먹었다.

옛날 초등학교 거기를 마차가 싣고 온 거야. 거기다 놓고 큰 트럭이 오면 거기서 싣고 온 거야. 태장초등학교 거기 옆에 싸놓고 그걸 거야. 그전에 대한통운만한 거 그걸 차가 싣대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망포리 방죽머리는 태장학구 내에서 제일 발달된 동네야. 면사무소, 지서, 초등학교까지 있었으니까. 그래서 버스도 여까지 온 거야.

근동 4~5리에 여기밖에 없었다는 문방구는 독특하게도 학교 담 바로 옆 소사가 운영하는 곳과 동네 주민이 운영하는 한 곳이 더 있었다.



교내전시회(1956년, 김형진 제공)



화단 심사(1956년, 김형진 제공)





대한방직 수원공장 견학  
(1950년대, 김형진 제공)



원천저수지 소풍(1950년대, 김형진 제공)



하교시간  
(『제36회 졸업기념(1960)』,  
김형진 제공)

#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려선을 타고 가는 여주 수학여행(『제44회 졸업기념(1968)』, 김형진 제공)



태장국민학교동문회(1960년, 오우근 제공)





농업 실습 중인 태장국민학교 학생들(『제41회 졸업기념(1965)』, 김형진 제공)



운동장 조희(『제42회 졸업기념(1966)』, 김형진 제공)

거기가 황톳길인데, 비 오면 맨발 벗고 뛰어다니던 맨질맨질한 그게 고갯길인데. 고갯길 들어가는 고기에 바로 친구네가 하던 문방구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소사 아저씨가 하던 문방구가 하나 있었고. 학교 옆에.

소사 아저씨가 하는 문구점의 공책 한 권은 계란 하나 값이었다. 그래서 벋짚에 꾸린 계란 5~6개를 가져가면 공책 5~6권을 받는다. 어떨 때는 소중한 계란을 고사리손으로 가져가다 깨트려 버려서 엄마한테 혼나곤 했다. 정문 앞으로 논이 펼쳐져 있다면 후문으로 통하는 길에는 문방구, 방앗간, 약국, 점방, 정류장으로 이어진다. 간호사 출신이 운영하는 약국 건너편에는 1960년대에 잠깐 동안 유치원이 있었는데, 약국을 운영하는 분이 원장님이었다. 안광국은 보조교사로 들어간 큰누님 덕분에 6살 때 유치를 다닐 수 있었다. 그 당시 흔치 않던 온실이 있었고 처음 보는 바나나 나무가 있었다고 기억했다. 태장국민학교 운동회 때는 유치원 아이들도 함께 달리고 도시락을 먹었다. 유치원 원장님은 초등학교를 들어간 후에도 예방접종을 하는 날이면 보건소 사람들과 함께 주사를 놔주러 학교로 오셨다.

원천방죽에서 내려오는 물은 붓도랑을 타고 망포리를 휘감고 돌아간다. 붓도랑에서 아낙들은 빨래를 하고 개구쟁이 아이들은 첨병첨병 물놀이를 했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 놓은 수리시설은 너른 들판을 넉넉하게 적신다. 농산물은 상회에서 대량으로 사가기도 했지만 농가에서 직접 지동시장에 나가서 조금씩 내다팔기도 했다.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수려선을 타고 마촌말을 거쳐 매탄리 말통골, 망포리 방죽머리까지 내려왔다. 그 길을 따라서 방물장수, 생선장수들이 들어왔고 서커스단은 필립스 공장 터로 덮여진 삼거리 성황당 앞에서 조그맣게 차력 쇼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남쪽으로 더 내려와서는 태장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천막을 펼쳤다. 입으로 불꽃을 크게 일으키는 곡예사에게 마을 사람들은 큰 박수갈채를 보냈다. 한여름 밤에 찾아온 순회상영단도 태장국민학교에서 영화 상영을 하며 사람들을 울리고 웃겼다.

#### 4. 마을에서 가장 큰 축제, 태장국민학교 운동회와 태장면 체육대회

황종각은 1971년 면서기로 있으면서 망포리, 신리를 돌아다녔지만 당산제나 단오제 등의 큰 행사는 없었다고 했다. 1970년대 중반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우물용 펌프가 개발되면서 마을우물이 더러워지자 이장이었던 최양석이 우물고사를 부활시킨다. 당시 마을 호수가 얼마 되지 않고 먹고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크게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마을 사람 몇몇이 모여 간단하게 제를 지내고 먹고 노는 행사를 치렀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행사는 사라



마을잔치였던  
1950년대 태장국민학교 운동회  
(김형진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1
- 2

1. 준비체조  
2. 공 들고 달리기



- 3
- 4
- 5

3. 가마 태우고 달리기  
4. 기마전  
5. 어머니 달리기





**SRI** 수원시정연구원  
S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6. 조부모 달리기
- 7. 장애물 달리기
- 8. 짝체조
- 9~10. 여학생 단체 무용





매스게임

#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태장면체육대회에서 우승한 망포리 선수단(김형진 제공)

지거나 반대로 부활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현대적인 마을 쿵쿨 대회, 노래자랑 등의 축제가 있었고 마을총회 형식의 대동회가 4H운동의 영향으로 생겨난 축제로 보였다.

지속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했던 축제는 오히려 태장국민학교에서 했던 체육 대회였다. 우리가 아는 가을 운동회가 아니라 8월 15일, 뜨거운 한여름에 여러 마을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치렀다. 1973년부터 1996년까지 했다는 체육대회는 마을에서 가장 큰 행사였다.

그전에는 배구대회라고 있었어. 체육대회. 단일 종목은 아니야. 체육대회 안에 배구대회가 커진 거지. 반월 1·2, 명동 1·2, 서천리, 신나무실은 신리, 벌터는 신2리, 망포1·2·3. 진안이나 기산은 옛날에는 했대는데 우리는 모르겠어. 하여튼 했다고 하더라고. 그날이 특별히 기리고 하는 건 아니고 학교 방학 때고 엄청 더웠지. 동네에서 텐트 치고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한마음체육대회. 명목상은 그랬어.

체육대회 종목 중에서도 배구대회가 가장 큰 행사로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초등학교를 다녔던 토박이 박제환도 학교의 가장 큰 행사이자 마을의 축제로 기억했



다. 토박이 최영수도 활성화되고 단합이 잘 됐던 태장면이었다는 말을 하며 리 대항을 했던 엄청 큰 축제로 기억하고 있었다. 태장국민학교가 마을 단위의 축제가 아닌 면 단위의 축제로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 동네마다 전부 다 나와서 배구, 달리기 다 했으니까. 각 동네마다 해서 상품을 정하고 하니까, 동네 시간에 서로 연성이 높아진 적도 있고 심판을 잘못 봤다고 한 적도 있고. 보면은 한 마을 전체 면 단위를 해서 하는 거니까 체육대회를 해더라도 거의 다 태장초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해기 때문에 선수배 시간이 다 돼 있으니까 단합이 잘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빠들은 다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상품이 메달 같은 거. 상패를 전달해주고 각자 자기의 마을의 마을회관에다가 다 비치해놓고. 그런 걸 타면은 두레 같은 거 뽕과리 치면서 초등학교부터 동네까지 가면서 전부 다 춤을 추면서 입성을 하고 그랬죠. 각 동네 두레가 있으니까.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배구도 아침에 마을에다가 쳐 놓고 연습도 많이 하고 두레 연습도 많이 하고. 한 달 정도는 해야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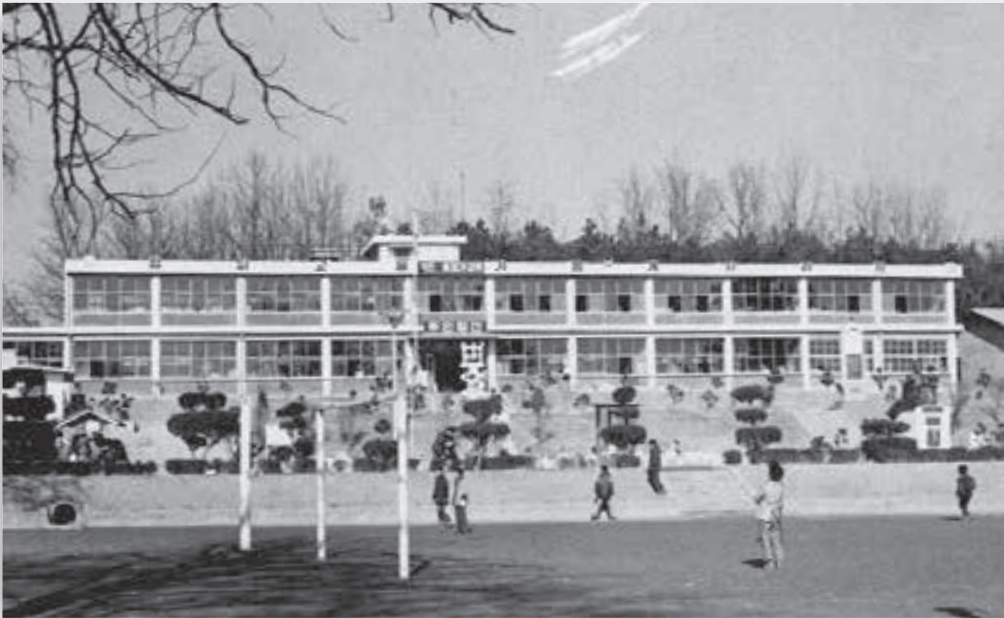
개발로 사라지는 마을 축제와 간헐적으로 열렸던 기념행사 대신에 오래된 초등학교 덕분에 모두가 가족 동문이 되어 버린 태장면 사람들은 흔쾌히 학교 운동회를 면 축제로 바꿔 버렸다. 그래서 태안면보다는 태장면이라는 말에 더 익숙함을 느끼고 사라져 버린 옛 면사무소를 대신한 학교를 통해 정체성을 이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태장초등학교의 옛 창고  
(1970년대, 태장100주년 한마당  
큰잔치 추진위원회 제공)



1981년 태장초등학교(태장100주년 한마당 큰잔치 추진위원회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층 건물로 신축한 태장초등학교(제58회 졸업기념(1981년)), 김형진 제공



## 5. 개발 이후의 태장초등학교

태장국민학교는 나무로 지은 옛 본관 건물의 일부만 남겨 놓고 1982년 학교 뒤에 있는 숲을 밀어낸 후 본관 자리에서 후퇴해 새로운 건물을 세운다. 이때 태장병설유치원도 함께 개원한다.

1990년대 중반에 영통이 개발되면서 1997년 12월에 영통2동에만 3곳의 초등학교가 개교했고 계획에서부터 아파트 단지구획에 맞춰서 지어진 학교들은 단지에 병풍처럼 둘러싸여 가운데 위치지어진다. 하지만 태장초등학교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통지구 경계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새로 개교한 학교로 입학한다. 1995년 망포리와 신리가 수원시로 편입된 후 옛 망포3리 지역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6,034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차례대로 진행되면서 덕영대로를 건너 많은 수의 아이들이 입학하게 된다. 이때 태장초등학교 학생 수가 갑자기 2배로 늘어난 원인이기도 했다. 1999년에서 2010년까지 2,419명의 학생이 졸업했다.

영통과 마찬가지로 망포동 아파트 단지 가까이에 초등학교는 예정대로 개교할 부지가 마련되어 있었고 태장초등학교는 계획된 아파트 단지들에서 모두 비껴나 있었다. 문제는 태장초등학교가 덕영대로 위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통학하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거리도 멀었다. 폐교보다는 이전을 선택했고 2005년 태장초등학교가 지금의 자리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태장초등학교 자리에는 영동중학교가 새로 개교한다.

태장초등학교는 현재 주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60~1970년대 한 반에 70명에 가까운 학생 수는 현재 25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두 반에서 다섯 반으로 늘어났다. 또한 학교 공지사항과 특별활동 및 급식 메뉴가 홈페이지에 손쉽게 공유된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달라진 직업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저소득층 및 소외가정을 위한 공공성의 증대로 초등학교는 돌봄 기관의 성격을 짙게 가지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교육에 대한 열망은 초등교육의 의무화가 이뤄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또한 배움이라는 갈증을 해소하는 데 맞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의 존재는 지역사회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냈으며 계몽의 역할도 해냈다. 100년을 맞이한 태장초등학교는 태장면 사람들에게 각별한 기억을 남겼고 부여받은 역할도 넉넉히 해낸 공간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학교의 공간과 역할은 변화했다. 옛 태장국민학교가 태장면 사람들의 중심이 되었다면 현재의 태장초등학교는 망포동 아이들의 배움과 함께 가족이 해 줬던 돌봄의 역할까지 해낸다. 중앙의 자리가 아닌 가장자리에서 사람들을

챙겨 준다.

그럼에도 토박이들은 여전히 아쉬울 것이다. 공간이 바뀐 학교는 옛 장소를 상실하면서 더 이상 기억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 어찌 보면 토박이들의 서운함은 다른 데 있다. 시대의 변화로 초래된 태장초등학교의 역할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마치 흰 도화지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개발해 버린 신도시 개발자들을 탓하는 것이다. 연속성이 사라진 공간은 태장이라는 이름을 잃게 했고 역사는 잊게 하며 기억은 사라진다. 어쩌면 옛 태장초등학교 동문들이 가족으로 끈끈하게 연결됐고 축제를 통한 화합의 경험이 쉽게 놓아 주지 않는 원인일 수도 있다. 학교가 중심이었던 탓이다.

어정쩡하게 남겨진 과거의 공간임을 말해 주듯 영동중학교가 다시금 개교했지만, 신도시 구획에서 벗어난 위치로 인해 2021년에 다시 통폐합 또는 이전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장소로서 태장초등학교의 흔적 대신에 먼 옛날 지명으로만 이야기를 전하듯, 한때 이름 지어진 태장면을 공유한 사람들에게 태장초등학교가 마지막 남은 기억의 조각이 됐다.

기억을 공유하는 태장초등학교 동문회는 도시화로 와해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도 태장초등학교라는 끈끈함을 이어 가려 한다. 태장 100주년 기념행사를 마련하고 태장초등학교 메드민턴부의 창단에 기여한 태장초등학교 동문회는 태장의 이름을 간직한 학교와 후배들을 챙긴다. 그리고 공간이라는 범위까지 넓혀 기회가 될 때마다 선후회에서는 독립적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도 한다.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태장초등학교의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새로운 기억을 차곡차곡 쌓아 가고 있다.



현재의 태장초등학교





## 국립잠종장과 양잠업

### 1. 망포동에 국립잠종장이 들어서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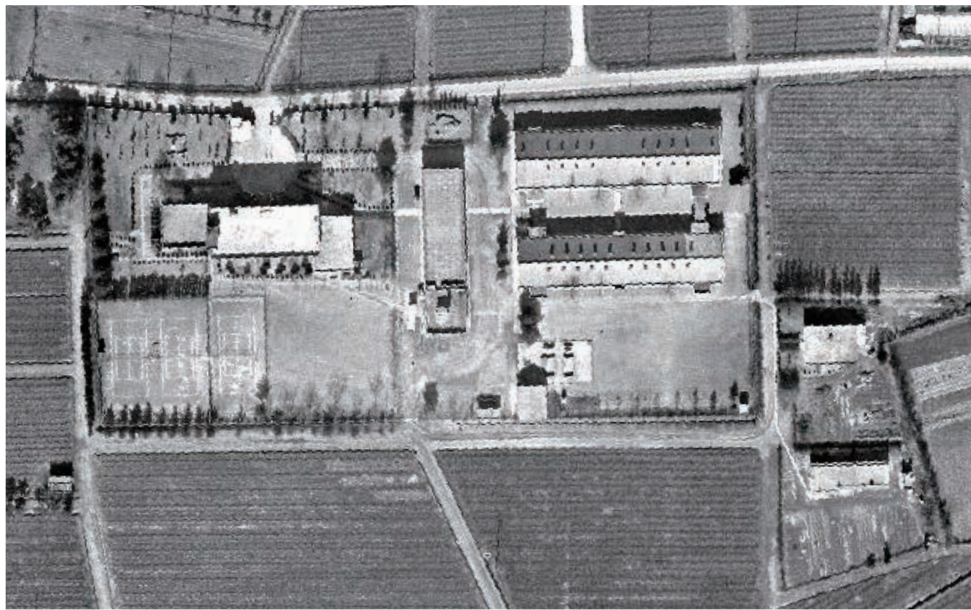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왕비가 직접 누에를 치는 본을 보여 주는 ‘친잠례’를 행할 정도로 양잠을 권장하여 왔다. 근대에 들어서는 1900년 한성부 부동(현 중구 필동)에 농상공부 잠업시험장이 설치되었다가 1905년 기능을 상실하였다. 1906년 수원에 권업모범장이 설치되고 산하 기관인 원잠종제조소에서 원잠종 제조와 잠업기술자 양성을 하다가 1917년 잠업시험소로 개편되어 본격적인 잠업연구사업이 이루어지다가 1929년 농사시험장 잠사부로 개편되었다.<sup>1</sup>

해방 후인 1946년 2월 미군정청 중앙농사시험장 잠사부로 개편, 1949년 1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통령령으로 중앙농업기술원 잠사과, 1957년 농사원 잠업시험장, 1962년 농촌진흥청 잠업시험장으로 개편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까지 약 15년 이상 잠사업은 활기를 찾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잠사업이 발전하게 된 것은 제1차 잠업증산5개년계획(1962~1966)이 추진된 1962년부터이다. 이후 제2차 잠업증산5개년계획(1967~1971), 제3차 잠업증산계획(1972~1976)까지 3차에 걸친 잠업증산계획의 추진으로 우리나라 잠사업은 근대 산업의 면모를 갖추며 최전성기를 맞게 된다.<sup>2</sup> 1969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밭 면적 중에서 10%가 뽕밭이었고, 양잠농가는 약 20%를 차지할 정도였다. 당시 잠업증산정책은 농민의 소득 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생산된 생사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수출되면서 산업적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90년 국립감자소 건물 배치

인 성과도 이루었다. 1970년대 전반기에는 견직물을 포함한 생사 수출량이 5,000M/T을 넘었고 수출액도 3억 달러에 육박하였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약 4%, 농림수산물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감사업의 산업적 성과에 힘입어 1973년 7월 대통령령으로 「국립감종장직제」가 공포되었고, 이를 근거로 그해 9월 26일자로 국립감종장이 농촌진흥청 잠업시험장에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잠업시험장은 뽕나무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누에 품종개량 및 사육법 연구, 누에 및 뽕나무 병충해 방제 연구, 제사기술 개선 및 견사 가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었다.

1973년 농수산부 산하에 국립감종장이 설립되어 농촌진흥청 산하 잠업시험장 업무 중 원원감종 생산과 감종에 대한 병독(病毒) 검사 업무를 맡게 되었다.<sup>3</sup> 1974년 망포동에 연 1,054㎡ 규모의 국립감종장 잠실 신축공사가 이루어졌다.<sup>4</sup> 당시 국립감종장의 행정구역상 주소지는 화성군 태안면 망포리 221번지였다. 1975년 2층 건물의 국립감종장 잠실이 완공되었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망포동 사람들이 감종장에 일용직으로 채용되거나 양잠을 시작하는 농가가 생기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sup>5</sup>



망포동의 국립감자소 감종관리소(국립식량과학원 제공)

1990년 3월 20일 대통령령에 따라 국립생사검사소와 국립감종장을 통합하여 국립감자소를 설립하였다.

##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2. 양잠을 하게 된 망포동 사람들

망포동에 국립감종장 잠실이 들어온 후 감사업과 관련된 마을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기 위해 2020년 10월 이해운을 면담하였다. 이해운은 7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망포동에 씨족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전주 이씨 후손으로, 1948년 망포동 526번지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토박이이다. 함께 구술을 한 부인 김복희는 1953년 충남 공주 출생으로 1974년에 결혼과 함께 망포동에 오게 되었다. 결혼 전 이해운은 부모님 집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해운의 집안을 포함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농사를 지었다. 자기 땅이 있으면 논일이나 밭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품앗이를 할 때는 같이 돌아가면서 모심기를 같이 하였다. 밭작물은 주로 고구마를 많이 심었다. 그 외에 달리 돈 벌 일이 없던 시절이었다. 논밭 가운데 집 2채와 황지학원이 있던 곳에 감종장이 들어섰다. 감종장이 들어오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이 생긴 것이었다. 뽕나무를 관리하는 일이었다. 사람을 모집하는 벽보나 게시물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감종장에서 나온 농감이 직접 와서 알려주는 식이었다.

**김복희** 감종장에 농감이라고 총책임자를 한 번 두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사람들이) 밖에서 일을 하잖아. 그러면 “사람이 몇 명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렇게 해 가지고 동네에서 이제 돈 벌러 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돈벌이가 없으니까 어지간하면 서로 간 거야.





1990년 국립잠사소와 잠종장

마을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은 뽕밭의 풀을 매거나 누에를 키우는 것이었다. 3월이 되면 월요일에 농감이 와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가면 알음알음으로 연락을 받아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 방식이었다. 주로 자기 밭이 없거나 따로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일을 다니던 사람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이 있어 덕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한다.

**이해운**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오는 가서, 내일 와라 그러면 또 가서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바쁠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고정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다 한 거지. 그리고 아줌마들은 누에 키우려 다니고. 지금도

거기 다니면서 일했던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들어놔서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 연금 타는 사람도 있어.  
**김복희** 저에게 만났는데, 그때 그렇게 해 봤더니 지금은 한 달에 20만 원 넘게 타니까 너무 좋은 거라고.

당시 일반인이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도 부담이 되어 국민연금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잠종장이 이전한 후에도 연금을 수령하면서 그 인연을 기억하는 듯했다. 일품 나가는 사람들은 오전 9시까지 출근해 12시까지 일한 후 집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1시에 다시 들어가 일을 했다. 김복희는 그 시절이 달리 돈벌이가 없던 때여서 일품을 판 사람들이 ‘솔찬히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까지는 잠종장에 일품 팔러 가는 사람 외에 누에를 키우는 집은 없었다. 그러다가 잠종장 직원인 김영배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양잠을 권하면서 이해운도 누에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해운** 김영배라는 사람이 동네에 들어와서 홍보를 한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가르쳐 줬지. 50대 중반쯤 됐을라나. 그 양반이 누에알 까는 것도 가르쳐 주고, 어떻게 키우는지, 잡박 만드는 법, 다 가르쳐 줬지. 고구마나 콩 심는 것보다 수확이 나오니까 이것을 해 봐라 그래서 하게 됐지. 그때도 밭이 크게 있었으니까. 밭 없는 사람은 못 했지. 농사는 짓고 있는데, 제대로 돈이 안 되고 하나씩 하게 됐지. 망포고리에서 6~7농가가 시작했어. 자기 밭이 있어서 뽕나무를 기를 수 있는 농가만 할 수 있는 거야. 옛날에는 퇴비나 비료가 필요 없으니까.

뽕나무 심고 누에 키우면 고구마나 콩보다 나을 것이라는 말에 설득이 되어 양잠을 시작하였다. 당시 양잠을 하는 농가가 많지는 않았고 6~7농가가 참여했다. 자기 밭이 있어서 뽕나무를 키울 수 있는 농가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양잠을 시작하게 되자 김영배가 자주 와서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 주고, 누에치는 방법, 잡박 만드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이해운** 그 양반이 누에 알 까는 것도 가르쳐 주고, 기르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잡박 만드는 거. 다 와서 그렇게 가르쳐 줬어. 그때는 그런 식으로 했지.

양잠을 시작하면서 이해운은 고구마를 키우던 600여 평 밭을 뽕밭으로 바꾸었다. 이해운 농가의 누에고치가 다른 농가의 고치에 비해 품질이 좋았던 것도 이 뽕나무 덕분이었다.







### 3. 뽕나무 재배

양잠에서 뽕나무는 중요한 부분이다. 뽕나무 잎이 누에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이해윤의 농가도 뽕나무 생육 시기에 맞춰 봄과 가을 2번 사육을 하였다. 뽕나무밭은 현재 동수원자이2차아파트가 들어선 곳이었다. 뽕나무를 심기 전에는 고구마를 심었던 밭이었다. 뽕나무를 키울 때는 퇴비를 주는 정도였는데 집에서 키우던 소의 배설물로 퇴비를 만들었다. 당시 농사짓는 집에는 소 한두 마리는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돈이 드는 것은 아니었다. 묘목은 잠종장에서 보급하는 것을 심었다.

**이해윤** 묘목도 잠종장에서 많이 보급을 해 줬기 때문에 크게 돈이 안 들어갔어. 돈을 줬어도 저렴하게 사다 심었던 것 같아.

잠종장에서 보급하는 뽕나무 묘목은 육종한 품종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시기부터 뽕나무 품종개량사업을 시작하였다.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보고 제 3~4호:1908~1909」에 수록된 ‘가잠(家蠶)’에는 재래뽕나무와 재래뽕나무의 비교시험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재래뽕과 일본 재래뽕의 엽질 비교가 이루어졌다.<sup>6</sup>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원잠중제조소가 수원에 설치되던 1914년부터 1922년까지 8년간 178개 일본 재배품종에 대한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1924년부터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적응하는 종을 선출하기 위해 34개 품종에 대한 재배시험을 수행하고 1926년 교잡육종을 착수하여 1942년에 처음으로 ‘수원대엽(현 수원뽕)’을 발표하였다.<sup>7</sup>

광복과 6·25전쟁 등으로 중단되었던 육종사업은 1962년 이후 재개되어 교잡육종, 배수성육종, 도입육종<sup>8</sup> 등의 육종법을 끊임없이 수행하여 1972년 이후에 검설뽕, 청운뽕, 신일뽕, 수봉뽕, 신광뽕, 청운뽕, 상일뽕, 밀성뽕 등을 선발하여 장려품종으로 내놓았다.<sup>9</sup> 이해윤이 심은 묘목도 이 중 하나였을 것이다.

**이해윤** 나무를 심어 놓으면, 봄에는 잎이 많잖아. 그러면은 그걸 처음에는 누에가 작고 조금 먹으니까 손으로 이절게 따서 주다가 나중에는 나무를 싹 베어버려, 나무까지 싹 베어서 주는 거야. 나무를 베면 거기서 또 움이 나와. 거기서 이파리가 나면 그걸 따다가 가을에 먹이고, 또 봄이 되면 큰 나무가 돼 갖고, 봄에는 좀 더 먹이고. 가을에는 적게 먹이고, 뽕이 적으니까.

600평 규모의 밭에 뽕나무를 심으면 누에알은 2장 반 정도가 적당했다. 뽕이 모자란 농가에서는 잠종장에 가서 따오기도 했지만 이해윤은 600평의 뽕밭이 있어 넉넉하게 먹일 수 있었다.

뽕밭 면적을 통계적으로 조사한 기록은 1908년부터이다. 그때 면적은 731ha이었고 그 후 일제의 증산시책에 의해 점차 증가하여 1940년에는 약 8만 4,000ha에 이르렀으나 광복과 6·25전쟁 등으로 크게 감소되었다. 1962년부터 3차에 걸친 잠업증산5개년계획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와 수출산업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1975년에는 약 9만ha에 이르러 우리나라 전체 밭 면적의 약 10%까지 확대되었다.<sup>10</sup> 이 규모에는 이해윤을 비롯해 당시 양잠을 시작한 망포동 양잠농가의 밭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망포동 잠원 전경(국립농업과학원 제공)



뽕잎 따는 사람들(1978년, 화성시 포토갤러리 제공)



## 4. 누에알 받기

누에치기는 누에알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이해윤의 농가에서는 봄과 가을, 두 차례 누에알을 받았다. A4 크기의 판 두 장에서 두 장 반까지 받았는데, 한 장에 2만 마리 정도 누에알이 들어 있었다. 이해윤은 당시 망포동에서 누에를 ‘제일 많이 먹인 것 같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들깨보다 작은 누에알을 받아서 두면 알을 깨고 부화를 한다. 그 위에 뽕나무를 얹어 놓으면 먹으면서 자랐다.

*이해윤* 우리가 두 장 받다가 두 장 반까지 받았지. 한 장에 2만 마리야. (누에알이) 들깨보다 더 작은데, 그걸 개수를 못 세니까, 그깃(값)으로 재서 줬어. 알을 갖고 와서 우리가 까는 거야. 따뜻한 곳에 두면 까잖아. 알인 때는 이렇게 막 굴러다녀. 굴러다니다가 뽕나무 같은 걸 이렇게 갖다 얹어 놓으면은, 그거 이제 벌레니까 뽕나무 위에 이제 전부 다 붙지. 그걸 잠박에다 이렇게 옮기는 거지.

당시 망포동 농가에서 받은 누에 품종이 무엇이었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육종된 장려품종을 받았을 것이라 짐작될 뿐이다. 우리나라 누에 품종 발전 단계는 1화성(化性) 3면잠을 이용하던 재래종에서 도입 순수종, 도입 교잡종 시대로 발전하면서 독자적인 품종을 만들어갔다. 누에 품종은 인공부화기술이 개발되면서 크게 발전하게 된다. 누에의 화성은 알 깨기 중의 온도 및 광선 조건에 의하여 2화성이 1화성으로 변화된다.<sup>11</sup> 우리나라 재래종은 1화성 품종으로 1년에 1번밖에 누에가 부화되지 않기 때문에 봄누에[春蠶] 때 외에는 누에를 칠 수가 없었다. 여름가을누에[夏秋蠶] 때를 위해서는 2화성의 2화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본래 1화성은 고치의 질과 양이 우수한 반면 유충의 저항성이 약하고, 2화성은 1화성에 비해 고치 질은 떨어지지만 유충의 저항성이 강하다. 이때 2화성 품종을 1화성으로 일시 변화시키면 2화성의 유충 저항성에 1화성의 고치 질이 보완된 소위 강건 다사량의 품종이 된다. 이를 인공부화법과 접목시킨 것이 오늘날 잠종 기술의 중추적 기능이다.<sup>12</sup>

1962년부터 시작된 잠업증산5개년계획의 추진에 힘입어 농가의 누에고치 생산이 증가하면서 수원잠101×수원잠102가 1966년도에 봄가을 겸용 장려품종으로 지정되었다. 수원잠101×수원잠102 품종은 1만두 당 고치수량이 18.5kg이나 되고 생사량 비율이 20.1%인 대표적인 다사량 품종이었다. 하지만 원종의 산란성이 좋지 않아 5년 만에 폐기되고, 1968년 잠103×잠104이 장려품종으로 지정되어 1970년대 후반까지 잠업전성기를 이끌어간 주요 품종이 되었다. 이 외에도 1969년 봄가을 겸용 품종으로 육종된 잠105×잠106, 1971년도



누에 키우기(1968년, 화성시 포토갤러리 제공)

봄누에용 품종으로 지정된 잠107×잠108, 1974년도에 가을 누에품종으로 지정된 잠113×잠114 등이 있었다.<sup>13</sup> 이해윤이 받은 누에알도 이들 장려품종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 5. 누에 키우기

양잠을 할 때 사용한 도구는 잠박 정도였다. 잠박은 누에를 누에자리(잠석)에 올려 기르는 데 받침으로 쓰는 채반 같은 것으로, 누에틀·잠틀·잠바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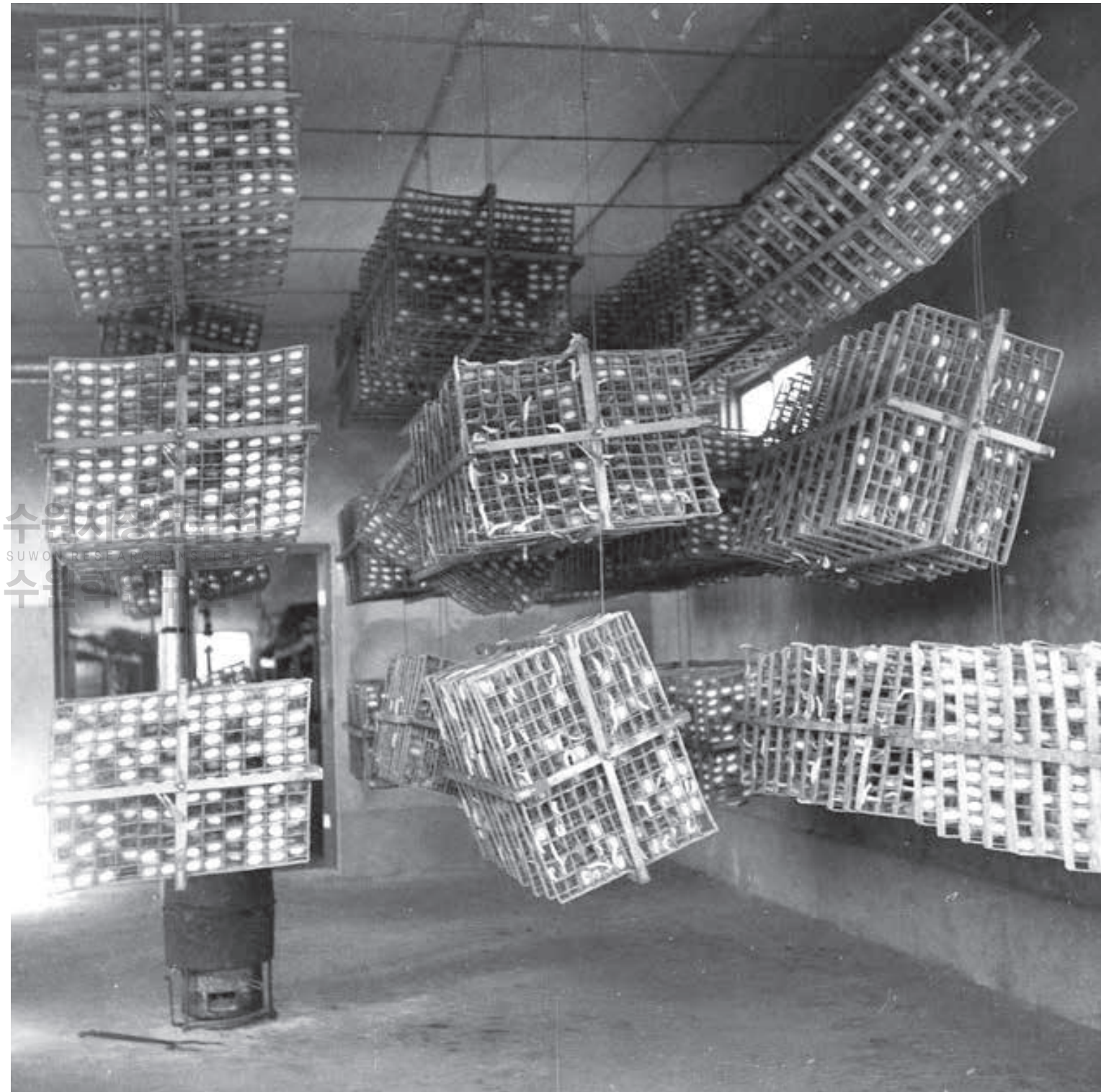


누에(1970년, 화성시 포토갤러리 제공)

다. 싸리나무·대나무·소나무·잡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해 가로 60~70cm, 세로 90cm 정도의 크기로 짠 장방형의 틀이다.<sup>14</sup> 잠박은 통풍을 위해 나무를 엮어 만들었기 때문에 비용은 크게 들어가는 것이 없었다. 잠실도 따로 짓는 것이 아니라 헛간이나 외양간, 나뭇간, 또는 비어 있는 방에 받침을 놓고 잠박을 층층이 올려놓으면 그곳이 곧 잠실이었다.

**김복희** 옛날에 방으로 쓰던가 아니면 헛간. 옛날에 헛간이 있었잖아요. 시골에 그려면 거기에다 다이를 짝 매 가지고 이렇게 착착 착착, 고추 건조기 같은 거 그거 보셨죠. 그렇게 그냥 집에서 막 엮어 매 가지고.

이해운의 농가는 5월 초에 누에알을 받았는데, 알에서 실을 뽑아내는 고치가 되기까지 25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4일을 1령으로 보는데, 총 5령이 될 때까지 뽕잎을 먹고 잠을 자는 과정을 반복한다. 알을 받고 3일이 지나면 부화를 하는데, 부화한 누에들은 잠박에 나눠 4일간 뽕을 먹이면 허물을 벗는다. 허물을 벗으면 잠박을 늘려서 놓고 또 3일을 먹이면 누에가 커져서 잠박을 늘린다. 옮기고 또 옮기면서 4번을 반복하면 5령이 된다. 5령이 되면 실컷 먹인다.



회전실(1968년, 경기도청 제공)



**김복희** 5월 초에 누에알을 가져와 가지고 3일, 3일이면 이제 완전히 다 까는 거야. 그럴 이제 (잠박에) 나뉘 놓잖아요. 나뉘 넣어 놓으면은 또 이제 4일 먹나?

**이해운** 4일 먹고 하면 허물 벗는다고 그러지. 허물을 벗으면 커지잖아. 그러면 또 잠막을 늘려야지. 그때 또 3일인가 또 먹으면은 잠을 또 자. 그럴 더 커져.

**김복희** 그럴 잠박을 옮기고 또 옮기고.

**이해운** 그렇게 네 번을 자고 나면 5경인데, 5경이 되면은 실컷 많이 먹여. 일주일 동안은 그냥 뭐, 잠잠 시간도 없어. 하루에 7~8번 지게 지고 가서 뽕을 해 날랐어.

누에들이 뽕잎을 먹을 때는 소나기 오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잠박에서 ‘씩씩씩’ 하면서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그 때는 귀찮았다. 잠을 설치가며 아이도 키우면서 누에도 키우던 시절이었다. 뽕잎을 떨어지지 않게 대 주어야 해서 꺾아먹는 소리가 무섭게까지 들렸다. 대청마루에 뽕나무를 베어 놓으면 수시로 옮겨다 놓았다.

**김복희** 개네들이 먹을 때 이렇게 소나기 오는 소리가 나. 막 그냥 싹싹싹싹. 이런 소리가 나지. 그런 지금 듣으면 엄청 사랑스럽고 예뻐졌죠. 돈이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애들 잤으니까 귀찮은 생각만 드는 거야.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잤이나 실컷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지. 언제나 이거 안 해나 이런 생각만 했어.

이양선의 수필집 『잠박』에는 누에들이 뽕을 꺾아먹는 소리를 ‘파도소리, 비 오는 소리’에 비유하기도 하였다.<sup>15</sup> 다음은 이양선의 수필 『잠박』의 일부분이다.

마지막 잠에서 일어난 누에가 부지기수로 늘어난다. 안방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남새밭에 새로 지은 잠실로 이사했다. 이제는 뽕을 따는 것으로도 부족해 뽕나무를 가지째 꺾어와 줄 정도로 누에의 식욕이 왕성했다. 떨어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누에의 똥을 갈아 주는 일이 나는 여간 귀찮지 않았다. 어머니는 바쁜 나머지 끼니도 걸렀다. 밤잠이 모자란 나에게는 그만 자라고 하면서도, 그럴 때면 공판 날 반게 될 주름치마와 분홍색 운동화를 꿈꾸며 부지런히 거들었다.

겨울이 없는 중에도 나는 종종 누에들이 뽕을 꺾아먹는 소리에 취하곤 했다. 먼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소리 같았다. 아니 솔바람 소리 같기도 했고 비 오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 청량한 소리에 젖노



누에실에서 누에고치 꺼내기(1968년, 경기도청 제공)

라면 노곤이 잠시 사라지곤 했다. 누에는 제 몸길이의 십만 배가 넘는 실을 끊임없이 토해내다 끝내 고치 속으로 사라진다.

양잠은 뽕나무를 키우고, 그것을 누에에게 먹이로 대 주는 것이 주요한 일이었다. 봄누에는 뽕잎이 많아 가을누에보다 작황이 더 좋은 편이었다. 누에를 잘 치려면 막잠 자는 일주일 동안 충분히 먹을 정도로 먹이를 잘 주어야 한다. 그래야 굶은 고치가 나왔다. 잘 먹이는 것이 관건이었다. 비가 와도 뽕잎을 따서 줘야 했다. 5령 이후에는 먹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뽕을 계속 쌓아 주어야 한다. 뽕나무를 가지를 베서 그대로 넣어 주면 줄기만 남기고 있는 다 갇아먹었다. 뽕나무는 심어 놓으면 봄에 크게 자라고 뽕잎이 많이 열린다. 처음에 조금 먹을 때는 잎만 따다 주다가 나중에는 줄기를 꺾어서 다 넣어 주었다. 봄고치는 가을고치보다 많이 먹일 수 있었다.

**이해운** 우리는 꼬치를 그래도 잘 기른 거야. 잘 잘 거 다 잤으면은 그렇게 못 길러. 먹다 말다 먹다 하면 (누에가) 작어지잖아. 우리는 음식을 떨어지지 않게 줬다고. 내가 뽕을 며칠씩 비어다가 놓고 하면, 또 그 주는 사값은 따로 갖다 (잠박에) 놔주고, 그런 식으로 했지.

**김복희** 뽕 비어다 놓으면 뽕이파리를 막 앉아서 따고 서서 따고. 또 이제 뽕 줄 때 되면 다 같이 가서 또 이렇게 주고. 주고서는 또 따서 해 놓고 막 그랬어요. 엄청 힘들어 그거.

잠박을 늘리면서 힘든 일 중 하나는 누에뽕을 치워 주는 일이었다. 누에들이 습기를 싫어해서 뽕갈이를 자주 해 주어야 했다. 뽕갈이 하는 것도 모두 잠종장에서 알려 주었다. 뽕갈이를 할 때는 누에를 다른 잠박에 옮긴 후에 뽕갈이를 해 주었다. 누에 키우는 곳은 청결과 습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독약도 잠종장에서 보급해 주었다. 씨를 받기 전에 소독을 미리 하고 누에알을 받았고 습도 관리도 잘 해 주어야 했다. 보통 2장 반을 기르면 10kg이 나와야 하지만, 병에 걸리면 7~8kg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해운 농가에서는 한 번도 병충해를 입은 적이 없었다. 가족들이 모두 덤벼들어 돌본 덕분이었다. 가족 중에서 여동생이 가장 잘 돌보았다.

5령이 지나면 잠종장에서 누에고치 집을 보급하였다. 100마리 정도가 들어가는 통이었다. 누에가 알아서 한 마리씩 한 칸에 들어가서 고치를 지었다. 집을 지을 때는 잠박에서 집 짓는 곳으로 옮겨 주었다. 그곳에서 누에는 고치를 만들었다.

**김복희** 집 짓는 때는 또 막이 있어. 잠박에다 짓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잠박에다가 이제 그리로 옮겨 주면 지가 찾아들어 가서 고치를 만드는 거야. 그거. 하염튼 무슨 집, 집 짓는 거를 이렇게 짝 펴놓잖아. 잠박에다 이렇게 지들이 기어들어 가게 해 놓은 거야. 이제 만약에 100마리 들어갈 수 있으면, 지들이 다 2마리가 기어들어 가면 서로 오줌 싸고 그러면 망가져서.

**이해운** 망가지면 값이 떨어지니까, 둘이 한 군데 들어가면 빼다가 그 옆에다 넣어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누에고치 수매(1968년, 화성시 포토갤러리 제공)

김복희가 언급한 ‘집 짓는 막’은 회전섶을 의미한다. 구획된 공간에 한 개의 누에고치가 만들어지도록 井자 모양으로 만든 판을 ‘회전 섶’이라 한다.<sup>16</sup> 고치가 만들어지면 손으로 따서 출하를 했다. 춘잠은 5월에 알을 들여와 한 달을 키워 6월에 납품을 했다. 모내기 할 때와 겹쳐서 더 힘들었다. 모를 낼 때는 가족들이 분업으로 모내기 하러 나가는 사람과 양잠을 하는 사람이 나뉘어서 일을 했다. 추잠은 8월에 시작해서 추석 전에 고치를 팔았다.

## 6. 누에고치 출하

누에고치가 만들어지면 출하를 한다. 이해운은 누에고치를 부대에 담아 리어카에 싣고서 수매 장소인 병점의 면사무소 마당까지 운반하였다. 안현리, 송산리 등 인근의 양잠 농가에서도 모두 그곳으로 왔다. 갈 때는 마을에서 양잠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다. 당시 병점 행 버스가 없어서 리어카에 싣고 한 사람은 밀고 한 사람은 끌었다. 4km 정도 되는 거리였다. 춘잠은 6월 초, 추잠은 추석 전에 갔다.

면사무소에 가면 등급을 매긴다. 등급은 특등, 1등, 2등, 등외 이렇게 4등급으로 나뉘었



다. 이해운의 농가는 특등을 주로 받았다. 고치는 육안으로 검사한다. 검사원이 고치 육안 검사의 규격규칙에 따라 고치의 색깔과 촉감 등을 감정한 후, 고치의 생사량 비율을 추정하여 고치의 등급을 매기는 방법이다.<sup>17</sup>

**이해운** 거기서, 해 가면서, 검사원이 나와서 등급을 정해 줘. 등급을 정하면 등급별로 돈이 틀리니까. 그 사람들은 쌀 수매 할 때 보는 거 모양,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만져 보면 알아.

돈은 현금으로 받아 왔다. 상당히 목돈이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렇게 하던 것을 ‘세간나면서’ 그만두었다. 양잠을 시작하고 5~6년 정도 지나서이다. 마을 사람들도 그 즈음에 다 같이 안 하게 되었다. 정확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지만 ‘힘들어서’ 그만했을 거라고 하였다.

**김복희** 뽕잎 따서 주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잤어. 1시, 2시에 뽕갈이를 해 줘야 하잖아. 낮에는 일하고 먹이 주느라 바빴고 밤에 뽕갈이를 한다고 잠도 못 자고. 잤이나 한번 싹껏 자면 소원이라고 그랬어. 뽕도 이렇게 위에다 얹어 주는데,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 그걸 어디는 줄 쌀아 놓고, 어디는 저거 하면, 시아버지가 그걸 어디는 푹푹 쌀아 놓고 어디는 없다, 베기도 어렵고 따기도 어려운 것을 그랬다고 쿠사리를 막 먹고. 막내 시누는 또 직장 다니면서 그걸 봐 주는데 저녁에 뭐 1시, 2시까지 막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아침에 5시 되면 또 나와서 뽕 줘요.

온 가족이 나서야 할 만큼 일이 많고 힘들었다. 분가를 하면서 그만두고 뽕나무를 캐내 버린 밭에는 들깨를 심었다. 우리나라 잠사업은 1970년대 중반이 최전성기였다. 누에고치 생산량은 1976년도에 4만 1,700t으로 정점에 오른 후, 1970년대 후반부터 수출 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잠사업이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산업구조 개편으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농가 소득원과 재배 작물이 다양화되면서 뽕밭도 차츰 사라졌다.

국립잠종장은 1990년 3월 20일 대통령령에 따라 국립생사검사소와 통합되어 국립잠사소로 바뀌었고 이후 1998년 농업과학기술원 소속의 잠사곤충연구소로 편입되었다가 1999년 6월 29일 잠사과학박물관으로 개관하여 운영되었다. 2014년부터 농촌진흥청이 전북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망포동 잠종장 부지에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해운** 그래도 그때가 지금보다는 동네가 살아가면서 정이 있었어. 그때가 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누에고치 수매(1978년, 화성시 포토갤러리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풍잠기원제(2014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풍잠기원제(2011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그냥 그때는 고생을 했어도 마을 같은데. 친척, 친구들 우정이라는 게 있었고. 키울 때도 서로 알려 주고. “왜 우리는 막잠이 안 올라가.” 그래서 가서 보면은 “이거 한 거니만 더 먹으면 올라오겠네.” 이려고. 이제 알잖아요. 누에를 이렇게 딱 보면은 한 번만 더 먹으면 되겠다는 걸 알아.

1970년대 초중반 잠사업이 전성기를 맞아 망포동에 국립잠종장이 별도의 기관으로 조직되어 들어오면서 망포동 사람들도 양잠을 경험하게 되었다. 뽕나무를 관리하거나 누에를 키우는 일로 잠종장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밭에 뽕나무를 심고 직접 누에를 키우는 농가도 생겼다. 일거리가 없고 농작물 외에 별다른 소득원도 없던 시절, 봄가을로 한 달씩 품을 들여 키우는 누에는 농가의 쓸쓸한 소득원이 되었다. 하지만 모내기와 추수철에 온 가족이 나서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중노동이기도 했다. 생육 기간만큼이나 짧은 양잠의 경험이었지만, 국립잠종장과 망포동 사람들의 양잠의 흔적과 기억은 인근의 잠원공원, 잠원중학교 등의 명칭으로 남아 있다.

##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註

1.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잠업시험장', '잠사곤충연구소'(https://encykorea.aks.ac.kr).
2.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잠사업'(https://encykorea.aks.ac.kr).
3. 「국립잠종장 신설」, 『조선일보』, 1973년 6월 23일
4. 「조달청에 계약요청 국립잠종장 신축」, 『매일경제』, 1974년 7월 16일
5. 국가기록원, 「국립잠종장 본관신축공사 설계도」(https://archives.go.kr).
6. 농촌진흥청,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보고, 제3~4호:1908~1909」 국역본, 2009.
7. 농사로 홈페이지(https://www.nongsaro.go.kr).
8. 품종개량에 사용되는 육종법은 여러 가지로, 교잡육종법(交雜育種法)은 서로 다른 품종을 교잡하여 유전적 변이를 만들어 그중에서 우량한 계통을 선발하는 육종법이다. 배수성 육종법(倍數性育種法)은 인위적으로 염색체의 배수체를 만들어서 품종을 육성하는 방법으로 돌연변이육종법과 함께 비멘델식육종법이라고 한다. 도입육종법(導入育種法)은 다른 나라로부터 기성 품종을 도입하여 실제 재배에 쓰거나 육종의 재료로 이용하는 것이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 '육종')
9. 농사로 홈페이지(https://www.nongsaro.go.kr)
10. 농사로 홈페이지(https://www.nongsaro.go.kr)
11. 누에는 알로 월동하여 연 1회, 봄에 발생하는 1화성과 여름, 가을에 발생하는 2화성으로 구분하여 각각 봄누에, 여름누에, 가을누에라고 부른다.
12. 『한국 잠사기술 발달 100년사』, 2000(농사로 홈페이지).
13. 『한국 잠사기술 발달 100년사』, 2000(농사로 홈페이지).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잠박'(https://encykorea.aks.ac.kr).
15. 이양선, 『잠박』, 북나비, 2013.
16. 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회전섬' 참조. 17. 잠사곤충연구소, 『누에고치 기계검사 교재』, 1996.
17. 잠사곤충연구소, 『누에고치 기계검사 교재』, 1996.



# 망포동이 품은 마을

- 01 망포동의 자연마을
- 02 망포동 사람들의 농사짓기
- 03 떠나지 않는 그리움, 망포동 친목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





## 망포동의 자연마을

1899년에 제작된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에는 망포, 당암, 우문리가 태춘면에 소속된 마을로 나온다. 일제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망포리와 우문리를 ‘망포리’라 하고 태장면 관할하에 두었다. 당암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정황상 당암도 이때 망포리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화성군에 속해 있던 망포리는 1994년과 1995년 2차례에 걸쳐 수원시로 편입되어 지금의 망포동이 되었다.

수원시 편입 이전의 망포리는 1·2·3리로 분리되어 있었고 각 리마다 중심이 되는 마을이 있었다. 1리는 방죽머리, 2리는 당암, 3리는 우문리가 중심 마을로, 『수원군읍지』의 지명이 그대로 이어졌다.

### 1. 태장면의 중심지 방죽머리 : 망포1리

방죽머리는 방죽 근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은 지명이라고 한다. 토박이들의 기억에 의하면, 1900년대 초반까지도 서해안에서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 보였고 그래서 여기가 방죽의 머리에 해당된다고 해서 방죽머리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예전에 논에 경운기가 들어가면 흙이 질어서 못 나오는 바람에 여럿이 도와서 꺼내기도 했고, 논이 물고 같은 데서 시키면 바닷게를 잡은 기억이 있다고도 한다. 2006년에 착공한 수인분당선 건설 당시 공사 기간 동안 망포역의 임시 역명을 방죽역으로 한 것도 마을 이름에 기인한 것이다.

김현미  
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유선영  
이천문화원 이천학연구소 연구원





1966년 방죽머리(수원시 항공사진 서비스 제공)

2012년 전철 개통을 앞두고 역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포역으로 확정되었다. 방죽머리는 망포리의 다른 마을보다 신리의 별터와 거리가 더 가까웠기 때문에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마을금고를 함께 운영하는 등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였다.

#### 1) 태장면의 중심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수원부 남부면의 지리·인계리와 장주면, 태춘면이 합쳐져 태장면이 만들어질 때 망포리가 태장면의 면소재지가 되었다. 태장면사무소는 방죽머리의 태장초등학교 옆에 설치되었다. 행정구역상으로 면사무소는 망포리, 초등학교는 신리에 속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방죽머리로 인지하였다. 방죽머리는 명실상부한 태장면의 중심지였고 변화가였다.

망포1리가 망포2·3리에 비해 농지면적과 농업인구가 적었고 직업이 다양한 편이었다고 하지만, 망포리의 다른 지역보다 농업인구 비율이 조금 낮은 수준이었을 뿐 태장면의 면소



망포1리 마을회관과 망포리유치원(1960년대, 김형진 제공)

재지였음에도 시골 동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방죽머리 사람들은 태장면에서 가장 발전된 동네라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한다.

망포1리의 첫 마을회관은 버스 종점 근처에 있었다. 마을 주민이 빌려준 땅에 새마을사업으로 받은 시멘트를 가지고 지었는데 건물등기를 내지 못하는 바람에 고대감집 맞은편에다 신축하였다. 첫 번째 마을회관 옆에는 포탄 껍데기를 주어다가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사용하던 마을 비상종이 있었다. 마을에 큰일이 있을 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치던 것인데, 주로 마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했다. 태장면사무소 담장 옆, 고대감집 근처, 현재 디지털엠플라이어2 빌딩 근처 등에 마을우물이 있었고 우물고사를 지냈다. 수원 시내에서 망포리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던 버스 종점 근처에는 서낭당이 있었다. 망포리는 물론이고 동탄에서도 수원을 왕래하려면 이 길을 지나다녔다. 마을 어귀나 고갯마루에 조성되었던 서낭당이 이곳에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방죽머리에는 대동계, 쌀계 등이 있었고 상조회와 친목회도 있었으나 영통지구 개발 당시 토박이들이 외지인에게 땅을 팔고 대부분 이주하면서 이러한 마을조직들은 해체되거나



유명무실해졌다. 마을조직이 활발하게 운영되던 시절 방죽머리 사람들은 무서울 정도로 단합이 잘 되었다고 말한다. 수원 시내 건달들이 방죽머리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술 마시고 행패부린 적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혼내 준 일도 있었다는 것이다.

## 2) 버스 종점

1960년대 초반 수원 시내에서 망포리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개설되었다. 망포동 주민은 12번 시내버스였다고 기억한다. 이 버스는 신원로에서 덕영대로 1499번길이 갈라지는 곳이 망포리 종점이었다. 12번 버스는 연무동의 원호원 근처 수원여객 차고지를 출발하여 장안문과 팔달문을 지나 매교를 건너고 태장면고개를 넘어서 권선동 지금의 현대아파트를 지나면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였던 원천리천에 다다르게 되고 백년교를 건너 벌터를 지나서 방죽머리 종점에 이르는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이었다. 현재 수원 시내버스 12, 12-1, 12-2, 12-3 노선으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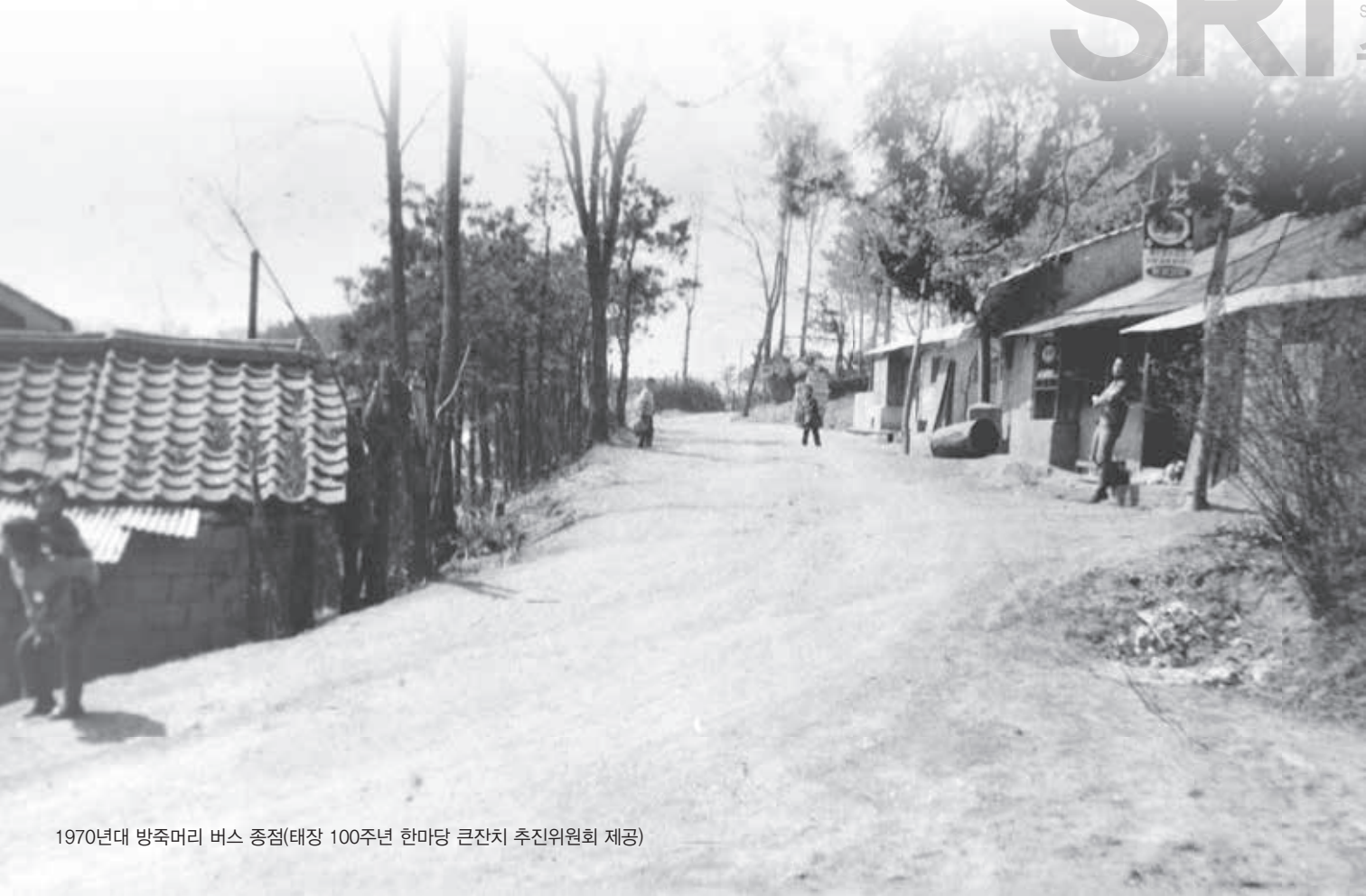
버스가 처음 운행했을 때는 오전·오후 2차례씩 운행하였다. 오전 8시 무렵 방죽머리에서 출발하는 첫차는 수원 시내 중·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주요 고객이었다. 태장초

등학교 학군에 해당하는 인근의 11개 리 거주 통학생들이 모두 나왔으므로 버스는 종점부터 항상 만원이었다. 승객이 너무 많아서 버스를 못 타면 걸어서 등교할 수밖에 없었다. 버스를 타지 않으면 수원 시내까지 1시간 정도씩 걸어 다녀야 했다. 벌터를 거쳐 권선동을 지나 인계동 땡나무고개로 해서 성 안으로 다니는 노선이었다. 방죽머리에서 인계동 장다리로 가면 태장면고개와 땡나무고개 가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태장면고개 옆에 화장터가 있어서 땡나무고개 길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하교하는 학생들을 태우고 들어온 버스는 방죽머리 종점에서 출발하는 막차가 되었다.

1980년대 중반 방죽머리에서 동탄 지역까지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확장한 후에는 방죽머리를 거쳐 동탄까지 운행하는 43번 버스 노선이 추가로 개설되었다. 이로써 수원 시내에서 망포동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2개가 되었고, 12번 버스는 하루 운행 횟수도 늘어나서 망포리의 대중교통이 조금 편리해졌다.

방죽머리를 제외한 마을에서는 버스를 타려면 방죽머리 종점까지 걸어 나와야 했는데 동탄까지 운

방죽머리 새마을사업  
(태장 100주년 한마당 큰잔치 추진위원회 제공)



1970년대 방죽머리 버스 종점(태장 100주년 한마당 큰잔치 추진위원회 제공)



행하는 43번 버스가 운행하기 시작한 후로는 버스 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졌다. 그러나 배차 간격이 1시간이었으므로 43번 버스는 항상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만원이었다. 반월리와 붙어 있는 망포3리 우문리에서는 43번을 타기보다 방죽머리까지 걸어가서 12번 버스를 타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었다.

1970년대 후반 도로가 포장되기 전에는 매탄동 용화출고개를 지날 때 버스가 고개를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승객이 많이 타거나, 비 내린 후 도로가 질퍽거려서 바퀴가 빠지거나 하면 승객들이 내려서 버스를 밀어야 했다고 한다.

### 3) 아랫말은 고씨네 땅, 웃말은 임씨네 땅

방죽머리는 임씨, 이씨, 강씨, 고씨 등의 성씨가 있었는데 임씨가 대성이었다. 방죽머리에서는 자기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보다 임씨네 땅에 집을 짓고 도지를 내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정도였다고 한다. 임씨네 더불어 방죽머리 제일 부잣집으로 꼽던 고씨네는 ‘고대감집’ 또는 ‘고소령네’라고 불렸다. 태장면사무소 터와 망포1리 마을회관 터를 희사한 마을의 유지였다. 방죽머리에서는 아랫말은 고씨네 땅, 웃말은 임씨네 땅이라고 했다.

용인시 농서동에 집성촌을 이루었던 제주 고씨와 한 집안으로 보이는 고대감집은 안채와 행랑채가 있었고 정원이 잘 꾸며진 큰 규모의 한옥이어서 동네 사람들은 큰 집의 대명사로 통용되는 99칸 집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일꾼들의 방이 있던 행랑채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방죽머리에서는 고대감집 마당이 가장 넓어서 마을에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고색동과 오목천동 쪽에도 땅이 많았다고 하는데, 고색동 부잣집 박씨 집안과 사돈을 맺었다. 국회의원 박지원이 고씨네 사위이다. 고대감집은 후손이 모두 방죽머리를 떠나서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

고대감집 고광업의 3남인 고원용은 공군 소령이었는데 1963년 7월 26일 긴급 합동임무를 수행 중에 충북 청원군 가덕면 상공에서 제트기 추락사고로 순직했다.<sup>1</sup> 고원용 소령은 1966년 4월에 순직 조종사 방위포상으로 중령에 추서되었다.<sup>2</sup>



고광업(고숙자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CENTER  
수원학연구센터  
비행복 차림의 고원용 소령(김형진 제공)



고씨네 맏손녀 고숙자(고숙자 제공)  
고씨네 대문 앞에서 찍었다.



안채에 모여 있는 고씨네 아이들(고숙자 제공)





- 1
- 2

1 고광업 부인의 회갑연 때 찍은 고씨네 가족사진(고숙자 제공)  
앞줄 가운데는 고광업의 어머니 한씨와 부인이 앉아 있다.  
2 회갑을 맞은 고광업의 부인(고숙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4) 삼성이 바뀌 놓은 마을

1960년대 후반 삼성이 일본 산요와 기술 제휴하여 삼성전자공업을 설립하였다. 1969년 6월 19일 개토식이 거행되었고 매탄동 허허벌판 논들이 갈아엎어졌다. 그렇게 1970년대 초반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삼성전관, 삼성코닝, 삼성전자부품 등이 들어섰고, 매탄동과 접해 있는 벌터와 방죽머리에도 삼성의 하청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삼성 계열사와 하청업체에 취직한 직원들은 대부분 젊은 생산직이었고 이들은 회사 근처에 거처를 마련하고자 했다. 방을 임대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공장 인근의 마을에서는 이들을 수용할 주거공간을 마련하려는 광풍이 불었다.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은 방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작은 부엌이 딸린 방을 만들어서 월세를 놓았다. 방죽머리와 벌터는 마을 경관이 바뀌기 시작했다.

**임승득** 방죽머리는 삼성전자 들어오고 나서 사람을 많이 뽑고 그걸 때 자기네 소 키우던 외양간에도 방을 들이면 세가 나갔으니까. 방만 잔뜩 들이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매월 월세가 들어오니 경제적으로 수입이 늘어나서 좋았지만 외지인의 급증으로 인해 전통적인 마을공동체 문화는 점차 사라졌다.

**임승득** 옛날 인심이 없어. 처음에는 누가 잔치한다고 그러면 사흘씩 서로가 일 봐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걸 게 자꾸 없어지더라고.

삼성전자가 들어온 곳은 원래 논이었다. 논을 소유자가 여러 명이었는데 당시 평당 가격을 270~280원 정도로 거래했다. 농사짓던 땅에 공장이 들어오면서 이주하게 된 토박이들은 보상을 받아서 외지로 많이 나갔다. 그중에는 다른 지역에 농지를 다시 산 사람,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 등 경우가 다양한데, 시세보다 비싸게 받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근처에 다른 농지를 장만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죽머리는 35가구 정도 살았는데 그동안 꾸준히 외지로 이주하면서 현재 2~3인의 토박이만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방죽머리 주민들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삼성 계열사에 일용직으로 일하러 다녔다. 삼성과 근접한 벌터는 삼성전관·삼성코닝에 다녔고 방죽머리는 주로 삼성코닝에 다녔다. 당시 논에서 삼성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전업농의 소득이 삼성의 생산직 월급에 비할 바가 못 되는 상황이 되자 자신의 농사를 남에게 주



방죽머리 마을 앞에 있던 수리조합 수로에서 천렵을 즐기는 주민들(1960년대, 김형진 제공)  
이 수로는 덕영대로 개설 때 복개되었다.

고 아예 직장인으로 전업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삼성으로 인해 농가의 소득은 늘어났으나 환경오염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현재의 덕영대로를 따라서 농수로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어른들이 빨래도 하던 곳이었다. 그런데 공장이 들어온 후에는 수질오염으로 인해 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논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리에 발진이 생겼고 벼가 새카맣게 타기도 했다. 공업지역 내에 폐수처리 공장이 있었으나 비 오는 날이면 폐수를 몰래 농수로에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장에서는 실수였다고 변명했다. 농수로는 복개되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 2. 상주 황씨 집성촌 당암: 망포 2리

망포 1~3리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은 망포2리는 ‘당암’이라 불렸다. 마을에서 섬기던 신당 주변에 바위가 많아서 당암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당염’이라 불렸다고도 한다.<sup>3</sup> 1914년 제작된 지형도에는 ‘광암리(廣巖里)’로 표기되어 있는데 1912년에 나온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 ‘당암(堂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기(誤記)로 짐작된다. 상주 황씨 집성촌으로 40여 가구가 거주하였다고 한다. 2000년대 초반 마을 전체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면서 당암은 사라지고 현재 방죽마을영통트란채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 1) 양달말과 응달말

당암은 작은 길을 중심으로 양달말과 응달말로 나뉘어 있었다. 길의 위쪽이 응달말, 아래쪽이 양달말이었다. 응달말은 신1리에 속하는 지역이었지만, 신1리의 중심마을인 신나무실과 농경지를 사이에 두고 1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망포2리의 당암은 좁은 길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응달말과 양달말은 한 동네처럼 지내면서 응달말 사람들은 망포2리 당암 사람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양달말과 응달말을 가로지르던 지금의 영통로200번길은 논두렁길이던 것이 새마을사업으로 확장하여 경운기가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차로로 확장되었다. 두 마을로 나뉘기는 했지만 마을의 리더들이 리드를 잘 하고 사람들이 단합도 좋은 편이었다. 새마을지도자, 이장, 반장 같은 리더들이 역할을 잘 해서 단합이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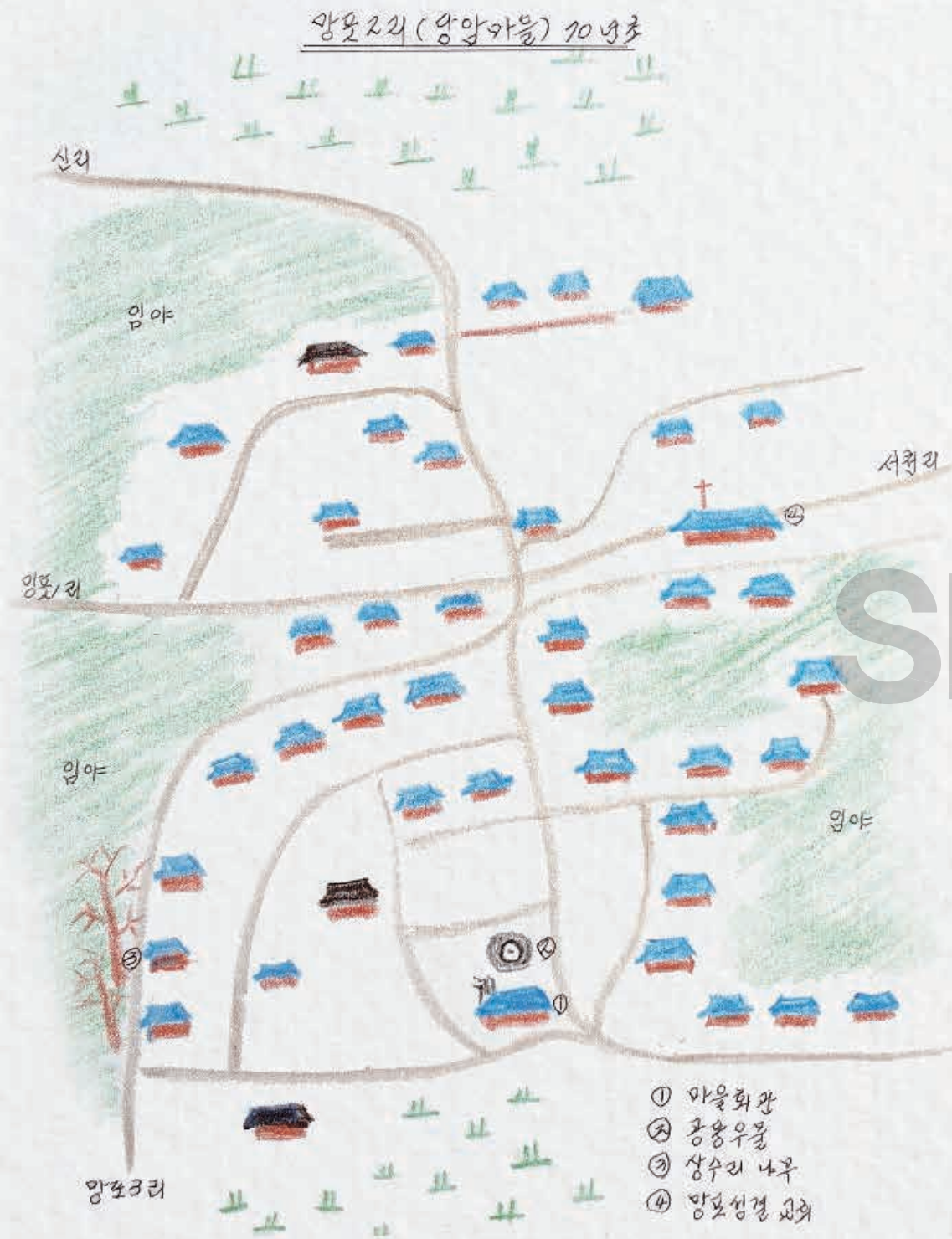
아무리 한 동네로 인식하고 생활한다지만 다른 행정구역에 속한 두 마을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우편물 배송이었다. 신리와 망포리는 담당 집배원이 달랐는데 신리 담당 집배원은 신나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응달말을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오히려 망포리를 담당하는 집배원이 망포2리에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응달말의 것도 함께 갖다주었다고 한다. 참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였다. 1932년에 발행된 『태장향토사』에도 망포리는 수원우편국 배달구역, 신리는 안녕리우편소 배달구역으로 되어 있다.

**이원동** 대동회를 하면 아무 혜택도 못 받는 신동의 떨어져 나온 동네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8세대인지 살았어요. 길을 중심으로 길을 넘으면 신리. 우리 집이 150번지였는데, 혜택도 없는데 추곡 때는 쌀 한 말을 갖다줘야 하고 하곡 때는 보리쌀 한 말을 갖다 줘야 하나까 억울하다 이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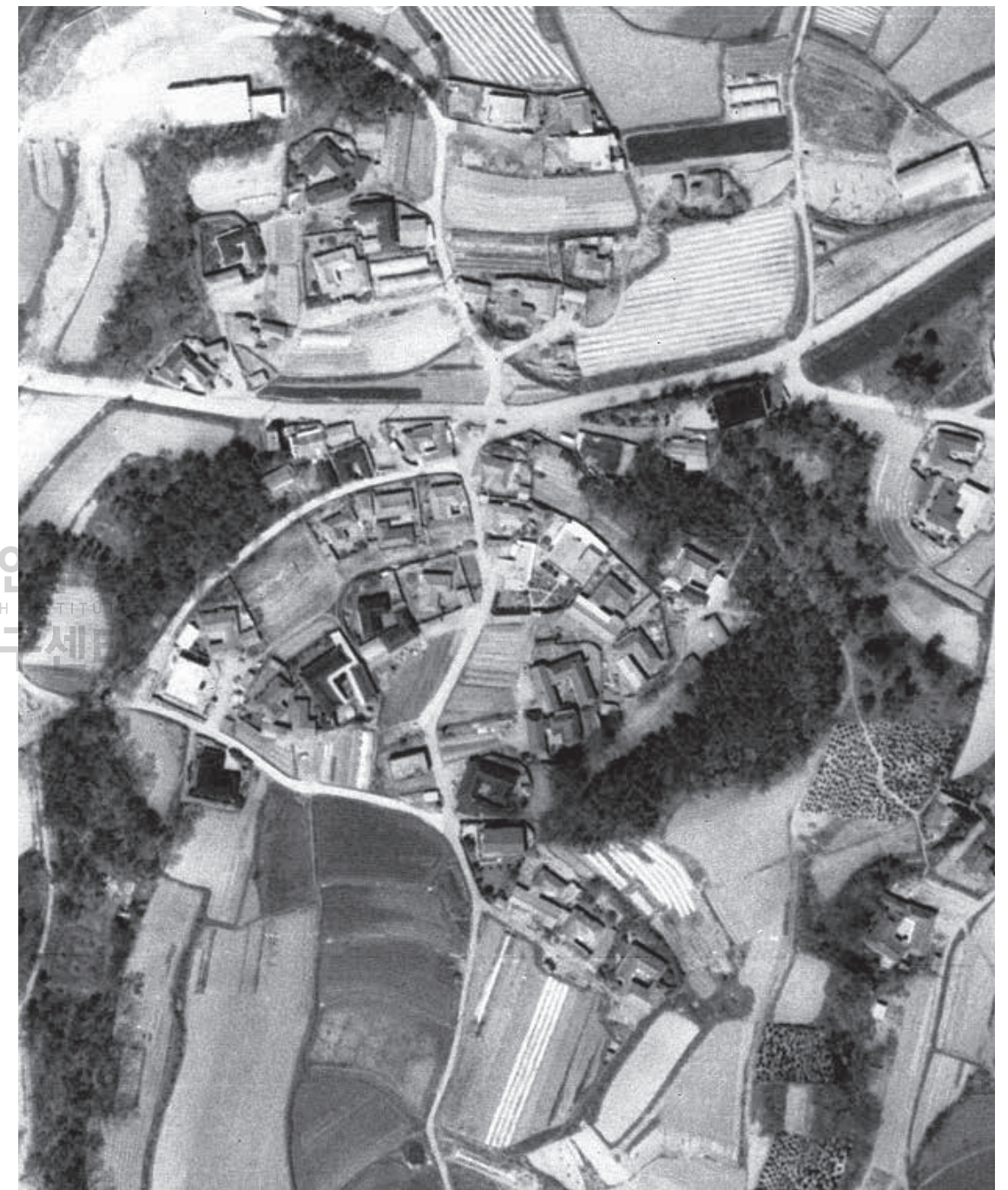


1966년 망포2리 당암마을 양달말과 신1리 당암마을 응달말(수원시 항공사진 서비스 제공)  
행정구역상 신리에 속하는 응달말이 망포2리와 소로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다.





당암 주민이 그린 1970년대 마을지도(황종용 제공)



1987년 당암마을(수원시청 항공사진 서비스 제공)



당암에서 우문리로 가는 길(황중각 제공)  
아이들 뒤로 보이는 참나무는 당암 개발 당시 수원시어린이교통공원으로 옮겼다.



당암 마을 앞길(1975년, 오우근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너네들끼리 하는데 왜 우리가 갖다 내야 하느냐 그래가지고 왜정 때 몇 집이 못 가져가겠다고 반기를  
들었대요. 우리는 망포동으로 살겠다. 그때는 참 불편했어요. 편지를 망포리로 하면 안 들어와요. 또  
신리로 하면 우체부가 못 찾아요. 그래서 대략 망포리로 사용하긴 했어요. 그래서 망포리 우체부가  
와서 돌려주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관공서에서 오는 서류는 신리 몇 번지로 와요. 그런데 이게 못 찾  
아오는 거야.

## 2) 황씨 집성촌

당암은 상주 황씨 집성촌이다. 용인 서천동의 상주 황씨와 같은 직산공파이다. 서천동  
의 상주 황씨는 중시조인 상산군 황효원이 셋째 아들인 직산공 윤충과 함께 내서천(안서그  
내)에 이주하면서 세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암의 황씨 집안에는 망포리와  
인근 지역에서 글 선생으로 유명했던 황영기가 있다. “사방 30리 안에 제자가 많다.”는 말  
이 있을 정도로 근방에서는 꽤 학식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당시 글을 배우던 학생들  
은 황 훈장에게 뽕나무 가지로 만든 매로 무섭게 맞았다고 한다. 황씨는 양달말에 거주했





망포교회 초창기 교인들(영통교회 제공)

고 응달말은 오씨, 강씨, 이씨 등 각성바지였는데 강씨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1970년대 공장이 들어와서 마을의 경제구조에 변화를 일으킨 망포리의 다른 마을과 달리 당암은 산업화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화의 물결은 당암에도 흘러들었다. 신갈에 다나무역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용 가발 공장이 있었는데 당암에서 신갈까지 걸어서 통근하는 처녀들이 있었다. 법원사거리에서 인조 속눈썹 제작업체인 씨벨에 다니는 처녀들도 있었다. 다나무역이 명절에 노동자를 위한 위문공연을 하면 당암에서도 구경을 하러 가곤 했다고 한다. 출퇴근할 수 없는 여자들은 집에서 실로 모자 뜨는 부업을 했다. 1960년대는 미국산 종이를 가져와서 봉투를 만들어 팔았다. 이런 부업거리는 농촌에서 현금을 만질 수 있는 수단이었다. 인근의 건설 현장에 일용직 노동자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1977년 2월에 공장 가동을 시작한 방죽머리의 송원산업을 지을 때도, 1979년 5월에 기공식을 한 경희대 수원 캠퍼스 건설 현장에도 일을 하러 다녔다. 특히 경희대 캠퍼스 조성공사 당시에는 집에서 노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당암에는 성결교단 소속의 망포교회가 있었다. 망포리 사람들은 1949년 별터에 세워진

태장감리교회에 다녔다. 망포리와 신리를 비롯하여 매탄리와 영통리, 반정리 등지에서 태장감리교회를 다녔다. 그 이전에는 수원 시내의 종로감리교회로 다녔다. 망포교회는 반정교회에서 분리 개척하여 우문리 전주 이씨 종가의 사랑방을 빌려서 예배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해 12월에 이씨 집안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당암으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망포교회는 1965년 당암의 초가집을 사서 교회를 이전하였다. 1975년경에 현 영통성령성당 옆으로 옮겨서 교회를 건축하였다. 당암에 교회가 있었지만 당암 사람들 중에 망포교회에 다니는 교인은 드물었다고 한다. 아마 집성촌의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히려 우문리 사람들이 다녔다고 한다.

당암 사람들은 교회보다는 매교동의 무당 오수복과 인연을 맺고 지냈다. 당암의 많은 집에서 자식의 무병장수를 위해 오수복의 신당에 명다리를 올리고 수양아들로 삼게 했다. 설 무렵이면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오수복의 신당으로 명다리를 갱신하러 갔는데, 이것을 ‘마디 드리러 간다’고 했다. 명다리를 올린 집에서는 가을 추수 때 쌀을 보냈다. 마을의 한 집에 쌀을 모아 두면 오수복의 아들이 와서 가져갔다고 한다.

##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3) 사라져 버린 마을

영통이 개발되기 훨씬 전인 1980년대에 외지, 특히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야금야금 땅을 사기 시작했다. 영통지구 개발은 1992년에 시작되었으니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한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다. 당시는 수요가 많아서 땅값이 계속 올랐다. 먼저 매도한 사람들은 땅값이 계속 오르니까 억울해 하기도 했다.

**황현택** 그 당시에는 우스웠어요. 누구네 땅 팔렸다고 하면 며칠 있으면 금방 5,000원 올라가요.(평당)

한 열흘만 지나면 금방 올라가요.

15년 정도 지나면서 땅이 거의 외지인들에게 넘어가서 영통리와 신리 신나무실 쪽 땅의 80% 정도가 외지인 소유가 되었다. 외지인 매수자들은 땅값을 잘 쳐주었고 당시는 자경 8년이던 양도세 면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땅을 파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다.

**황현택** 여기서 한 평을 팔아서 정남 같은 데만 가도 3평, 4평을 산다고 했어요. 나가서 산 사람들은

지금 그쪽 땅값이 올랐으니까 돈을 번 셈이에요.





1990년대 중반 당암마을

2000년대 초반 방죽마을영통프란체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당암도 마을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다. 바로 옆에서 영통지구 개발이 진행될 때도 마을이 유지되었는데 개발의 바람은 당암을 비껴가지 않았다. 응달말은 도로에 수용되면서 양달말보다 몇 년 먼저 개발이 진행되었다. 마을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주거를 찾아야 했던 당암 사람들은 대부분 망포동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농사를 짓던 당암 사람들은 토지보상금으로 인근 화성시의 남양·양감·서신, 평택시 등지에 농지를 매입하여 계속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다. 망포동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출퇴근 영농을 하는 것이다. 농지를 매도한 후 대체 농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야 하므로 대부분의 당암 사람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서 대체 농지를 구입했다고 한다. 대체 농지에 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우는 창고를 짓거나 소규모 공장을 지어서 임대업을 병행하기도 한다.

당암 사람들은 마을이 개발되기 전까지 아파트 생활을 해 본 적이 없었다. 옛날 한옥에서 양옥으로 주거 형식이 변하기는 했어도 단독주택에서만 살아왔다. 아파트가 생활에 편



수원시 어린이교통공원에 옮겨진 당암마을 참나무



리하다고 하지만, 특히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여성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하지만, 당암 남자들은 아파트 생활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농사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려면 옛날과 달리 반드시 흙을 털고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기 때문이다. 다시 단독주택을 지어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망포동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땅값이 비교적 싼 곳에 주택을 지으면 가능하겠으나 그러려면 망포동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선뜻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당암 사람들의 농경지는 용인시 서천동과 수원시의 영통·신동·망포동, 화성시의 반월동·반정동에 분포되어 마을을 중심으로 빙 둘러 있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이 점진적으로 개발되면서 논밭이 택지로 바뀌었다. 망포리가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태안농협 조합원 자격이 애매해졌음에도 당암 사람들은 여전히 태안농협 조합원이지만 이제는 농경지도 마을도 모두 사라진 것이 너무 서운하다고들 한다.

**황현택** 우문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어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개박이 됐어도. 그런데 우리는 마을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서운함이 많죠. 뽕밭이 흩어지다 보니까 아침에 만나던 사람이 한참 가야 만나니까 이런 점이 아쉽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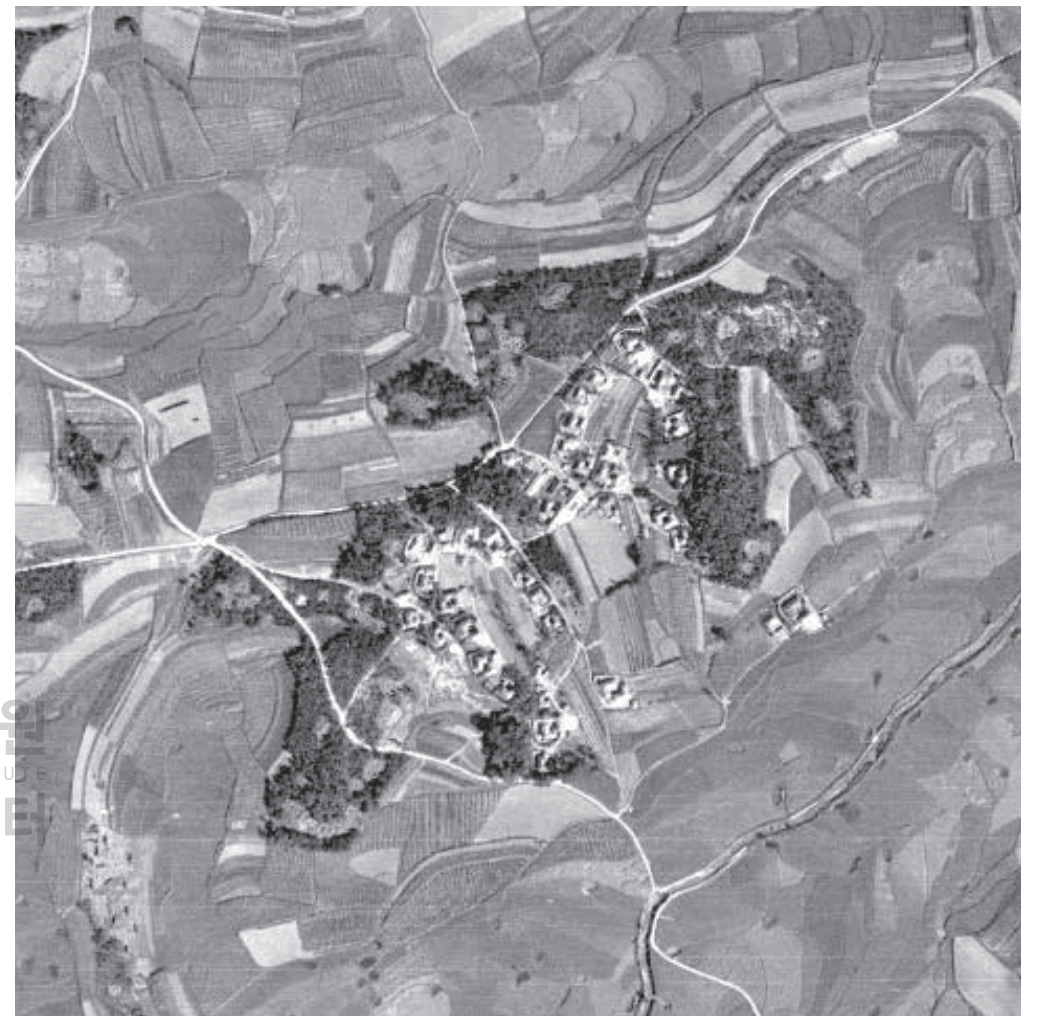


당암마을 참나무의 이력을 소개하는 안내판

당암에는 큰 참나무가 있었다. 우문리에서 당암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었는데 가을이면 도토리를 많이 주웠다. 아파트 건설 공사 당시 참나무를 없애야 할 상황이 되자 당암 사람들은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다. 참나무는 수원시 어린이교통공원에 옮겨 심고 안내판을 설치해 놓았다.

### 3. 소처럼 생긴 마을 우문리 : 망포3리

망포3리는 망포1~3리 가운데 마을의 규모가 가장 컸다. 우문리, 궁목동, 시마, 만가동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으며 60~70세대 정도 거주했다고 한다. 망포3리의 중심되는 마을은 40여 세대 규모의 우문리였다. 마을의 지형이 소를 닮았다고 하여 우문동, 우문리, 소문이



1966년 망포3리(수원시 항공사진 서비스 제공)  
소의 모양을 닮은 지형에서 우문리, 소문이 등의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등으로 불렸는데 주민들은 대부분 우문리라고 한다. 마을 주변에 농토가 많아서 소를 끌고 일하러 나가려면 반드시 이 마을을 거쳐 나가야 하므로 ‘소들이 자주 지나가는 길목’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라는 유래도 있다.<sup>4</sup> 궁목동은 잠종장 아래쪽 10여 세대가 살았던 마을로, 일제 때 ‘궁목’이라는 일본인이 살던 곳이라 하여 이름 붙은 곳이라 한다. 시마동 역시 일본인 ‘시마’가 살았던 곳이라 한다. 앞으로 만 호가 살 동네라고 해서 이름 붙였다는 만가동은 이름과 달리 10세대 정도 살았다는데 동수원자이1차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름처럼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동네가 되었다.



궁목·시마·만가동 주민들은 망포4리로 분리하기를 원했다. 망포3리의 중심 마을인 우문리와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다가 각 마을의 규모가 작아서 우문리에 치인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망포4리를 만들어 분리하려고 시도했는데 하나의 리를 구성하기에는 주민 수가 너무 적어서 실현되지 못했다고 한다.

#### 1) 전주 이씨 집성촌 우문리

우문리는 전주 이씨 집성촌이다. 300년 전 경기도 광주에 살던 전주 이씨 제한공파 집안의 며느리 박씨가 두 아들을 데리고 우문리로 이주하여 정착하면서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전주 이씨보다 적은 수이긴 하나 우문리에는 청송 심씨도 여러 세대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화성군 안룡면 황계리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일제가 수원비행장을 건설하면서 강제 이주시킬 때 3가구가 진외가인 우문리로 들어왔다고 한다. 1990년대 이후 우문리가 개발되기 시작되면서 전주 이씨 사람들이 빌라 건설업자들에게 땅을 팔고 가는 바람에 2020년 현재는 청송 심씨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한다. 옛날 집터에 다시 집을 지어서 거주하거나 옛날 그대로 집이 있는 경우는 몇 집 안 된다. 예전에는 늘푸른벽산아파트 앞 공원 터(망포동 527-6번지 일대)에 30~40가구가 거주했다고 한다.

망포3리는 상조회가 조직되어 있고, 우문리를 중심으로 원주민 친목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1940년대 이전 출생자 모임인 한마음친목회, 1940~1950년대 출생자 모임인 우정회가 있고 연령대의 차이가 큰 우정회 회원 가운데 일부 연령대의 토래 모임인 우복회와 우문회가 있다.

망포3리에는 만호고등공민학교가 있었다. 신리 별터 경주 최씨 집안의 최진영이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처음에는 별터에 황무지라는 의미의 황지학원을 세웠다. 대학생들이 와서 학생들에게 중학교 과정을 가르쳤다. 3년 정도 별터에 있다가 망포3리에 건물을 지어서 이전한 것이다. 망포3리로 이전한 후에는 학교 이름을 만호고등공민학교로 바꾸었는데 입학생 수가 줄고 대학생 교사도 구하기 힘들어서 2년 정도 운영하다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망포3리 사람들도 철마다 나오는 농산물을 매교시장이나 남문시장에 내다팔았다. 주로 여자들이 팔러 나갔는데 아침 첫차에 커다란 보파리를 가지고 타거나 집안 남자들이 시장까지 실어다 주었다. 시장에 나가면 한 바퀴 돌면서 그날의 시세를 확인해보고 가격을 정했다고 하는데, 싸게 팔면 일찍 털고 비싸게 팔면 늦게까지 있어야 했다. 농촌에서는 그렇게 해야 돈을 만져볼 수 있었다.

#### 2) 변화의 바람

한적한 농촌이던 망포3리에는 1970년대 새로운 바람이 불어 왔다. 마을 곳곳에 외지에서 유입된 변화가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는 잠종장이 들어선 것이다. 1973년 7월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국립잠종장직제」를 근거로 농촌진흥청 잠업시험장에서 분리되어 그해 9월 26일자로 국립잠종장이 설립되었다. 잠종장이 조성된 땅은 나무가 없는 야산이었다. 망포3리에서는 잠종장 부지가 원래 삼성이 매입했던 땅인데 너무 질어서 정부에 팔고 매탄동 부지를 다시 매입했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한다.

잠종장은 망포3리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잠종장 건물을 지을 때 공사장에 흙을 팔러 다녔고, 뽕밭을 조성할 때는 가래로 밭을 갈고 곡괭이로 땅을 파서 뽕나무를 심었다. 이후에도 뽕밭의 김을 매거나 뽕나무 관리 작업을 할 때마다 일을 하러 다녔다. 농사가 주업인 농촌에서 잠종장의 품일은 현금을 손에 짚 수 있는 기회였다. 뽕잎을 따고 나면 뽕나무의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때 잘라낸 가지는 고춧대로 쓰기에 적당해서 마을 사람들은 잠종장 직원을 통해서 얻어다 사용했다. 잠종장에서는 초가지붕을 새로 할 때 걷어내는 묶은 이엉을 가져다가 뽕나무밭의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망포3리에서는 잠종장에 일품을 팔러 가기는 했지만 누에를 키우는 집은 없었다. 그러다가 잠종장의 직원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양잠 기술을 가르치면서 잠업을 권장하자 자기 소유의 밭이 있어서 뽕나무를 키울 수 있는 6~7가구 정도가 참여했다. 김동구는 1,000여 평에 뽕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봄가을로 양잠을 하면 돈벌이가 괜찮다는 것을 알고서는 잠업 농가가 늘어났다. 1980년대 저렴한 중국산 실크가 수입되면서 망포3리의 잠업은 중단되었다.

1978년 만가동의 넓은 밭에 커다란 공장이 들어섰다. 서울 구로에 있던 안성유리가 서울 시내 공장들의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망포리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였다. 공장 가동은 1979년 후반에 시작되었다. 공장을 따라 내려온 직원들은 회사 근처에 방을 마련하였다. 삼성과 그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세를 놓기 위해 공간이 허락하는 대로 방을 만들었던 방죽머리처럼 망포3리 사람들도 방을 만들어서 임대하게 되었다. 망포3리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안성유리의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아예 취직을 하기도 했다.

안성유리가 망포3리에 좋은 영향만 준 것은 아니다. 공장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일이 있어서 농수로에 기름이 등등 뜨고 농사에 피해를 주었다. 안성유리 바로 위쪽에 집이 있던 주민은 안성유리 측과 많이 싸웠다고 한다. 화학물질이 나와서 농사짓는 데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안성유리가 농수로를 매입했다고 한다.





우문리 마을 사람들(1980년대, 심상열 제공)



잠종장 잠실에서 일하는 망포리 사람들(국립농업과학원 제공)

1990년대 초에 안성유리가 천안으로 이전한 후 그 자리에는 동수원엘지자이3차아파트가 들어왔다. 안성유리가 나가면서 세입자들도 우르르 빠져나갔으나, 곧이어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이 들어서면서 다시 채워졌다. 안성유리나 삼성반도체 모두 대기업이어서 월급 날이면 월세가 빠짐없이 잘 들어 왔다고 한다.

잠종장과 안성유리 이전에도 외지인이 망포3리에 들어와 화분공장을 세운 일이 있었다. 밭을 임대해서 공장을 지었는데 500~700평 규모의 공장들이 4곳이나 되었다. 여기서 생산한 화분은 서울 화훼시장에 공급했다. 화분을 만드는 흙은 공장 주변의 논에서 가져다 사용했다. 망포3리와 붙어 있는 반월리에는 ‘배산’이 있는데 그 앞들의 일부 논바닥을 파면 개흙이 나왔다. 개흙이 나오는 논을 소유한 사람은 5명이었다. 화분공장 운영자는 논을 파서 사용하는 대신 나중에 원상 복구해 주기로 계약하고 논을 임대하였다. 3~7년 정도 임대했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1년 임대료가 농업 소득보다 많았고 일을 하지 않아서 좋기도 했다. 게다가 나중에 원상 복구할 때 여러 개의 작은 논배미를 한 배미로 크게 합쳐 준다는 조건도 좋았다.

망포3리에는 규모가 큰 양계장도 여러 곳 있었다. 처음 시작한 곳은 ‘동순양계장’으로, 1970년대에 외지인이 밭을 사서 양계장을 지었는데 10년 넘게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문리 사람들이 양계장에 달걀 고르는 일을 하러 다니기도 하고 곤달걀을 얻어다 먹기도 했다고 한다. 반면에 양계장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 피해를 보기도 했다. 동순양계장 이후 원주민이 운영하는 양계장도 생겼다.

### 3) 망포동 최초의 고층 아파트, 늘푸른벽산아파트

2000년 입주한 늘푸른벽산아파트는 망포동 최초의 고층 아파트이며 19개 동 1,38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이다. 벽산아파트가 들어선 곳은 옆 동네인 반월리의 반남 박씨 문중 소유지였다. 이곳에는 외지에서 들어와 집을 짓고 살며 박씨 문중에 도지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반남 박씨 문중에게 땅을 매입한 건설사는 이 사람들에게 2,000만 원의 이주비를 지급했다고 한다. 저렴한 도지를 내고 살던 사람들은 2,000만 원으로 이주할 곳을 찾기 어려워하기에 나가지 않고 버티려 했으나 결국은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시행사가 부지를 매입할 때 망포3리 사람들이 중개를 하기도 했다.

**김동구** 그때는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나가면 야 오늘은 100만 원 벌었다 그래. 그 때는 몇 군데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준 거야.





망포3리에 들어선 늘푸른벽산아파트  
(2002년, 수원박물관 제공)

벽산아파트는 분양 초기에 미분양 물량이 많았다고 한다. 영통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동 간 거리는 가깝고 아파트 단지 주변의 생활 인프라가 미비했던 탓이다. 초등학교는 덕영대로 건너에 위치한 태장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했는데 도로에 인도도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태장초등학교는 결국 2005년에 망포동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다. 영통지구의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자 그제서야 벽산아파트도 분양이 완료되었다.

**유승모** 벽산은 구조상 안 들어간 사람이 많았어. 건물도 딱딱 붙어 있고, 엘리차는 처음에 분양할 때 터미널에서 분양하러 왔다가 다 그냥 갔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비가 많이 왔어요. 땅이 질퍽질퍽거려가지고.

원래는 건설사에서 반남 박씨 문중 소유지 옆에 있던 50세대 규모의 삼일빌라를 아파트 건설 부지에 포함하려고 했는데 삼일빌라 주민들과 협상이 성사되지 않아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삼일빌라는 현재 그대로 남아 있다. 우문리 사람들은 삼일빌라가 수용이 안 되는 바람에 우문리가 지금처럼이라도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건설사는 벽산아파트 건설 후 남은 부지를 팔았고 그 땅에 우문리 빌라촌의 대명사인 조은빌이 들어섰다. 조은빌이 들어선 곳은 주택과 야산과 밭이 혼재되어 있던 곳이다.

우문리는 벽산아파트가 들어서기 훨씬 전인 1980년대에 이미 주택이 외곽으로 빌라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롯데·기린·금강빌라 등을 시작으로 그 수가 점점 확대되었다. 건축업자들이 우문리의 밭을 매입하고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한 것이다. 많은 우문리 사람들이 빌라 건축업자에게 땅과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註

1. 「제트기 추락」, 『조선일보』 1963년 7월 28일.
2. 「순직조종사 12명 방위포상 추서」, 『경향신문』 1966년 4월 25일.
3. 수원시 토지정보과, 『수원의 지명과 도로명 총람』, 2015.
4. 수원시 토지정보과, 『수원의 지명과 도로명 총람』, 2015.





## 망포동 사람들의 농사짓기

### 1. 망포동의 두 농삿꾼, 김동구와 이원동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구에 속해 있는 망포동은 현재 행정적으로 망포1동과 망포2동으로 분동되어 있다. 하지만 1995년 수원으로 편입되기 전, 화성군 망포리에 편제되어 있을 당시에는 망포1리, 망포2리, 망포3리의 행정리로 나뉘어 있었다. 망포1리에는 방죽머리, 망포2리에는 당암, 망포3리에는 우문리(소문이)라는 자연마을이 속해 있었다.

망포3리 출신인 김동구(1952년생)의 선조는 오산 내삼미에서 터를 잡고 살았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농지가 많지 않아 생활하기가 여의치 않았던 할머니는 연고가 있는 반정리 근처 망포리로 이주하게 되었다. 김동구의 부친은 10대 후반에 망포리로 이주해 온 후 평생 이곳에서 살면서 8남매를 키웠다. 김동구는 8남매 중 둘째로,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시고 남자로는 첫째여서 장남이다. 폐교되기 직전까지 만호고등공민학교를 다녔고, 신식학문을 배우는 것이 여의치 않아 기산동에 있는 서당에 다니면서 한학을 배웠다. 김동구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풀 베기, 모내기 등을 배우며 농사일을 하게 되었다.

**김동구**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도 농사일 했어. 그때는 이제 뒷바라지 좀 하는 건데 소를 먹이고 그럭저럭 야. 그걸 풀망태를 지고 풀 베러 다리고 그랬지. 풀 베러 동네 주변 다 다녀. 그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하고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풀도 없어. 너무 다 베려 다니니까. 그 풀 한 망태기 비려면 진짜 몇 시간을

유선영  
이천문화원 이천학연구소 연구원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1960년대 초 구목동 집 부근에서 김동구와 가족(김동구 제공)  
수리조합에서 수로를 조성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였다.

헤매고 다니고 그랬어. 주로 저 망포2동 쪽, 그 지금 힐스테이트라든지 롯데캐슬 지은 자리가 거기 ‘고상개 뜰’이라고 해. 거기가 독이 많아. 거기 풀이 있고 그랬으니까 그리 주로 갔지. 거기 왜 독이 많았냐면 수리조합 독이 있었어. 원천저수지에서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 수로를 만들어 놔다구. 그걸 글리 물을 내려보내서 그 물루다 농사를 짓고 그랬지. 그걸 그 또랑에서도 물을 좀 많이 비었고. 또 옛날에는 경지 정리하기 전에는 논독이 컸어요. 독이 크니까 풀도 많이 있지, 논둑 넓이가 넓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비구 그런 거야.

**김동구** 옛날에 모를 다 찌(보내기를 하기 위해 모판에서 기른 모를 한 모술씩 뽑아내는 일) 가지고 묶어서 논에다 던져 줬어. 옛날에는 모를 다 손으로 심은 거야. 그걸 그거를 모자란 데 갖다가 던져 주고 남으먼 뒤로 밀고. 그렇게 하는 거를 모칠 정리한다고 그러지. 어릴 때 그런 거 돕는 거지 뭐.

집안의 농사를 배우며 한학 공부를 하던 김동구는 수제화 만드는 기술을 배워 1978년부터 1981년까지 수원 종로에서 양화점을 운영하였다. 그 후 1982년부터 호프집을 운영하였는데 1983년에는 아주대학교 앞으로 자리를 옮겨 1990년경까지 운영하였다. 김동구의 가족은 망포리에서 농사를 계속 지었기 때문에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김동구는 집안 농사에 간여를 하였고 가게를 접은 후에는 전업으로 농사를 지어 왔다.

망포3리는 우문리(소문이), 만가동, 구목동(궁목), 시마동이라는 4개의 마을로 이루어졌는데, 소문이는 50여 세대가 사는 제법 큰 마을이었고 나머지 마을은 각각 10여 세대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다.

**김동구** 망포동도 이제 옛날 지명으로 해서 여기는 소문이, 우문동이라고도 했어요. 한글로 하면 소문이, 한자로 하면 우문리라고 했어요. 여기는 60세대가 채 안 됐지, 한 50여 세대 있었고. 저 아래 동네에 10세대, 저 아래 동네에 몇 몇 세대 이렇게 있어서 여기는 소문이 저 중간에 있는 걸 만가동, 저 아래쪽에 있는 걸 구목동. 거기도 궁목동, 시마동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자연 부락으로는 크게 소문이, 만가동, 궁목동, 시마동 4개였지. (...) 그제 왜 이름이 그렇게 됐냐면 일본 왜정 때 궁목동 이라는 데는 궁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인제 궁목이 아니고 궁목이야 궁목. 원래는 궁목동이야. 그리고 시마동은 시마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일본 사람이. 그래서 인제 시마동, 궁목동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4개의 자연부락이 원래 다 한 동네예요.

당암 응달말 출신인 이원동은 1958년에 태어나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이원동 집안은 원래 망포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에 살았으나 이원동의 조부 대에 망포리 440번지로 이거하였다. 그 후 할아버지는 거리가 불과 몇 십 미터밖에 안 되는 당암 응달말(신리 150번지)에 집을 마련하였으며, 이때부터 할아버지·아버지와 이원동까지 3대가 계속 거주하였다. 1980년대까지 당암마을은 30호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외지인이 꾸준히 유입되다가 1990년대쯤 다세대 주택에 200세대 정도가 들어오면서 인구수가 많아졌다.

그러나 1990년대 영통지구 개발에 이어, 2000년대 초반 망포동이 개발되면서 마을이 사라지고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되어 이원동은 마흔네 살이 되던 2002년에 망포동을 떠나



평택으로 이주하였다. 망포동 개발이 끝나고 마을이 없어진 것은 2005년 정도이지만 이원동의 집 쪽으로 영통대로가 나는 바람에 다른 주민들보다 일찍 떠나게 되었다.

이원동이 살았던 당암 응달말은 행정구역으로는 신리에 속하였다. 망포2리와 신리는 들판을 사이에 두고 맞붙어 있었는데, 당암마을 중 양달말은 망포2리에, 응달말은 신리에 편제된 것이다. 이에 당암 응달말은 신리에 속했지만, 1km나 떨어져 있는 신리의 신나무실보다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망포2리 당암마을과 같은 생활권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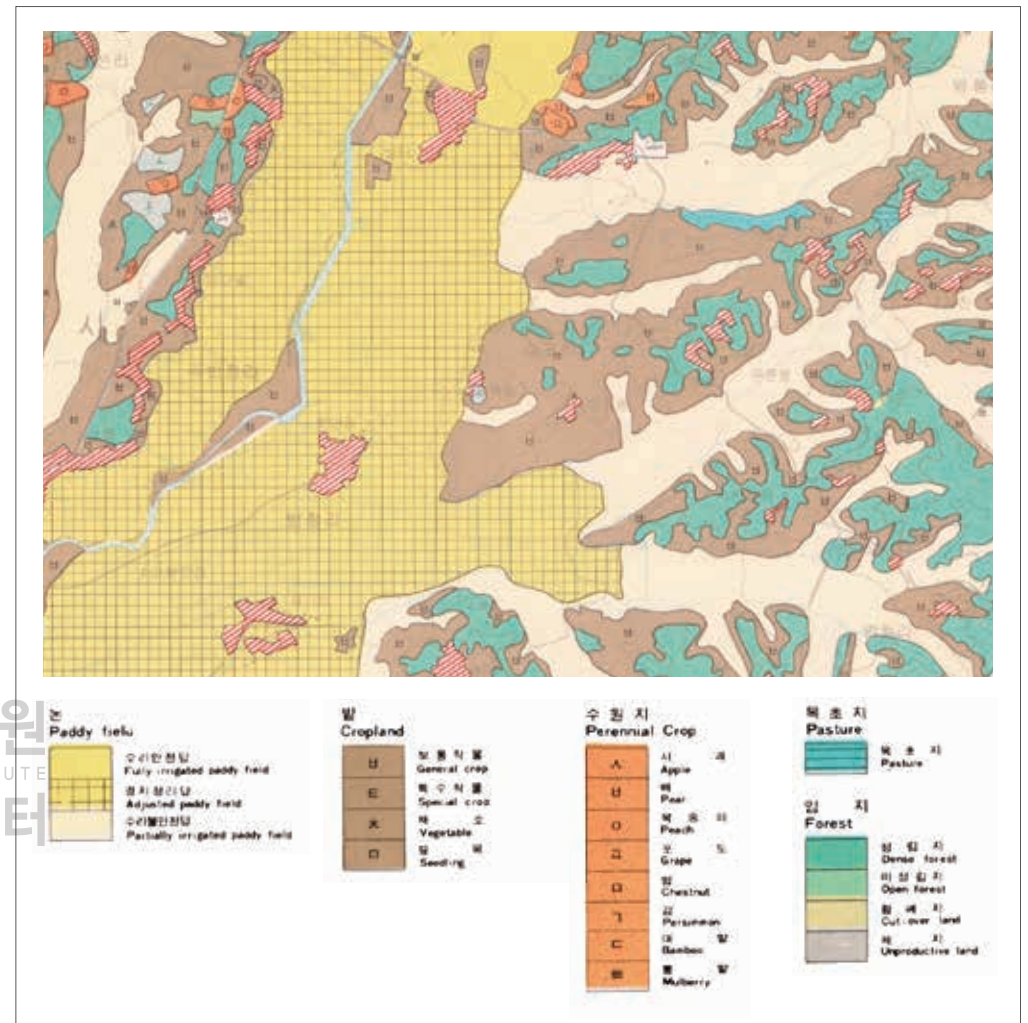
**이원동** 그게 묘하게 됐어요. 같은 신리인데 본 신리마을하고 우리 마을까지 오려면 한 시간 남짓 되게 걸어야 해요. 그래서 왜정시대 때 면장을 지내신 분이 우리 동네에 사셨는데 이세를 신리에 안 내고 망포리로 내고, 여기서 따로 독립해서 살겠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망포리 사람과 신리 사람이 서로 가리지 않고 이장도 보고 그렇게 알콩달콩 살았죠. 근데 그러니까 행정우편이 안 와요. 그래서 그런 게 불편했죠. 계속 우체부들한테 얘기해 주고 하나씩 그걸 나중에는 가져오더라고요.

## 2. 망포2동은 논농사, 망포1동은 밭농사

망포동은 망포1동과 망포2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망포1동에는 옛 망포2리와 망포3리(우문리와 만가동)가 속해 있고, 망포2동에는 옛 망포1리와 망포3리 일부(궁목동과 시마동)가 속해 있다.

일반적으로 망포2동은 논농사가 많았지만 망포1동은 밭농사가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농사에 차이가 나는 것은 지형 때문이었는데, 망포2동은 원천리천(백년천)이 흐르고 있어 농업용수가 풍부하였기 때문에 논농사가 발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수용수리조합이 축조한 원천저수지에서 농업용수가 공급되던 망포2동 지역에 비해 망포1동은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망포3리 우문리 지역은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이었기 때문에 서로 물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도 많았다. 망포3리 궁목동은 그나마 원천저수지 물이 마을로 흘러들어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어서 사정이 나았다.

**김동구** 망포동, 망포3리 쪽에는 밭농사가 많았어. 여기는 물이 큰물이 없어. 망포2동 백년천 쪽에 그쪽에 조금 있어서 거기까 농민사가 많이 발달이 됐고. 요기도 앞 개천이 있었고. 근데 1동은 이 위쪽으로는 다 밭이었지. (...) 여긴 농업용수 때문에 다 고생했지. 비가 많이 오는 해는 괜찮았지만 가우는 해가 많았어. 그때는 물 때문에 싸움도 하고 그랬었지, 서로 차지하려고. 고상개뜰이라는 데는 물이 공급돼서 나왔



1972년 망포동 토지이용현황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망포2동 지역은 원천리천을 따라 수리안전답이 조성되어 있고, 망포1동 지역은 주로 수리불안전답과 밭·임야로 이루어져 있다. 밭의 경우 주로 보통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과수원에서 배와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다.

던 데고, 수리조합물이. 그래서 거기서 뭐 그렇게 물 때문에 고생은 많이 안 했어. 근데 이쪽은 물이 없었다고. 지금 한양수자인 같은 데 그리고 중앙하이츠 있는 데, 거기서 물이 없었어. 소문이 쪽. 그걸 갖다 천수답이라고 해. 하늘에서. (...) 근데 내가 살던 궁목동은 좀 나았어. 바로 원천저수지 물이 바로 우리 집 앞에 흘러 내려갔으니까. 옛날엔 물이 깨끗했으니까. 빨래하기도 좋고 그래서 동네에 아낙네들이 다 와서 빨래하고 그랬어.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그냥 다리에든 앉아서 뭐 명석도 깔아 놓고 잠도 자고 그랬었지.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망포2리 당암마을은 실개천이 흐르고 있었지만 농업용수가 풍부하지 않아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그 물로 논농사를 지었다. 지하수가 개발되기 전에는 장마 때나 모를 심을 수 있어서 다른 마을보다 모심기가 늦어지기 일쑤였다. 장맛비가 오면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개천에 물 푸는 기계를 설치하여 물을 끌어다가 논에 댔다.

**이원동** 지하수 개발하기 전까지는 천수답이라 농사짓기가 어려웠죠. 물이 없어서 장마 때나 돼야 모를 심을 수 있었어요. 다른 동네는 이미 6월 초까지는 얼추 심는데 못 심는 데가 있어요, 더러 물이 부족해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인제 장맛비가 오면 기계를 몇 대씩 설치해 놓고. 그 물을 논에 대는 건데 개울에서부터 거리가 1km 남짓 될 거예요. 6월 말경에 장마 저서 물을 갖다가 기계를 한 3대 정도 퍼서 넘겼어요. 물 푸는 기계를 세 대씩 연결해서 퍼서 심고 그랬어요. 그 참 힘든 일이었죠. (...) 그리고 밭은 논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사지으려고. 지하수를 파니까 지하수가, 그 재수 없는 놈은 그런가 봐. 왜 논을 만들어 봤는데 물이 안 나오냐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세상 여기저기 이 귀퉁이 저 귀퉁이 돌아다니면서 파는 거야. 우리 아저씨별 되는 분 논이 한 180미터 정도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거길 파 봤지. 아, 근데 거기서 물이 나와. 그래서 거기다가 전기를 달아서 호스를 연결해 가지구 모를 심었어요.

김매기는 모의 싹이 나온 후 10~15일 정도 되면 시작되었다. 10일 간격으로 3번을 매주어야 풀이 없고 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된다. 벼는 꽃이 피기 시작하면 옆으로 급격하게 퍼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벼 주변에 그늘이 저서 풀이 못 나오게 된다. 논바닥에 햇빛이 들어오거나 비가 내려 땅이 촉촉하면 풀은 잘 자랐는데, 곡식보다 먼저 자라기 때문에 적기에 잘 뽑아 줘야 한다.

**이원동** 김매는 거는 처음에 심어서 싹이 나오고 자라면 15일 정도 되면, 10일 정도 되면 매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10일 간격으로 3번 정도 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풀이 없고 이제 벼는 어느 정도 자라요. 벼가 자라면,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러면 옆으로 많이 퍼져서 그늘이 지고 그러니까 이제 풀이 못 나와. 근데 이게 바닥에서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 자리에서는 이게 풀이 나와요. 비 내려서 촉촉하면 풀이 나오고, 풀과 같이 자라니까 제거를 해 줘야만 곡식이 잘 자라지요. 아, 근데 풀이 많이 나면 곡식보다 풀이 먼저 자라요, 바락지 않는 게 먼저 자란다니까.

망포동은 일반적으로 논 150평을 한 마지기로 보았는데, 한 마지기에서 쌀 2가마가 수확되면 농사를 잘 지은 것으로 여겼다. 가물거나 농사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1가마도 수확



신품종 벼씨 담그기(1980년, 경기도청 제공)

하지 못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가 나온 이후 보통 3~4가마씩 생산하게 되었다. 통일벼는 비록 찰기가 적고 밥맛은 부족하였지만 식량 부족으로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던 시기에 정부의 강제적 정책으로 많은 농가에서 재배되었다. 그 후 쌀 부족 문제가 해소되면서 밥맛이 떨어지는 통일벼보다 아키바레(秋晴) 재배가 늘어났는데, ‘아끼바리’라고 부르는 구어가 더 익숙한 아키바레는 밥맛 좋은 쌀의 대명사이다. 이 품종은 1962년 일본에서 탄생해 1969년 국내에 도입된 뒤 수도권과 중부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며 토착화되었다.

**김동구** 보통 일반 벼인데, 일반 벼는 벼 수확이 옛날에는 한 마지기가 150평인데, 한 마지기에서 쌀 두 가마가 나면 아주 농사 잘 지은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가마도 못 먹은 데도 있고 그랬지. 왜냐면 가물거나 제대로 농사 관리를 못 하면 수확이 안 나는 거야. 근데 통일벼가 나오면서 이게 다수확 품종인데 보통 세 가마 이상씩 막, 한 마지기에서, 뭐 네 가마도 먹고 그런 거야. 근데 그건 밥맛이 없어. (...) 한참 보릿고개다 뭐다 굶어서 허덕이는 시절이니까 정부에서 쌀을 많이 생산하게 하는 때니까 통일벼를 많이 심었어. 수확을 많이 해서 밥만 배불리 먹으면 되니까. 밥맛이 없건 없건 따지진 않았고. 아, 보리도 없어서 못 먹는데. 쌀밥인데. (...) 그렇게 해다가



인제 쌀이 너무 남아도는 거야. 뭐 다른 곡식들은 부족하지만 쌀은 인제 자급자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질로 가자. 양이 아니라 질로 가자 그래서 이제 바꾼 거지. 그 후에는 주로 이쪽에는 추청, 그건 이제 일본에서 개발된 건데 아끼바리라고 하는 거로 이제 대체가 됐지.

이원동은 벼를 키울 때 다른 사람보다 비료를 덜 사용하였다. 비료를 많이 주면 벼가 잘 자라지만 도열병에 걸리거나 잘 쓰러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원동** 저는 도열병 걸리고 쓰러지고 그러는 게 싫으니까 비료를 좀 덜 줘요. 비료를 너무 과하게 주면 그 병이 생겨요. 도열병 외에 다른 병도 있지만 제일 무서운 게 그 벼 도열병이에요. 그게 걸리면 눈에 전체적으로 퍼져요.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남들보다 비료를 덜 뿌리니까 잘 여물어요, 노랄게.

망포동의 경우 1970년대부터 농사에 기계가 도입되었다. 소를 대신하여 경운기가 논과 밭을 갈았고, 벼 터는 기계가 들어와 ‘궁글통’이라 부르던 호룽기를 대신하였다. 곡식을 베던 낫 대신 바인더가 사용되다가 콤바인으로 대체되었다. 트랙터처럼 고가의 기계는 두 사람 이상이 같이 사서 사용하였다. 트랙터는 엔진이 달린 몸체에 여러 가지 부속 기구를 갈아 끼우면 논이나 밭을 갈고 씨리며, 씨앗을 뿌리거나 복돋우고 곡식을 거둬들일 수도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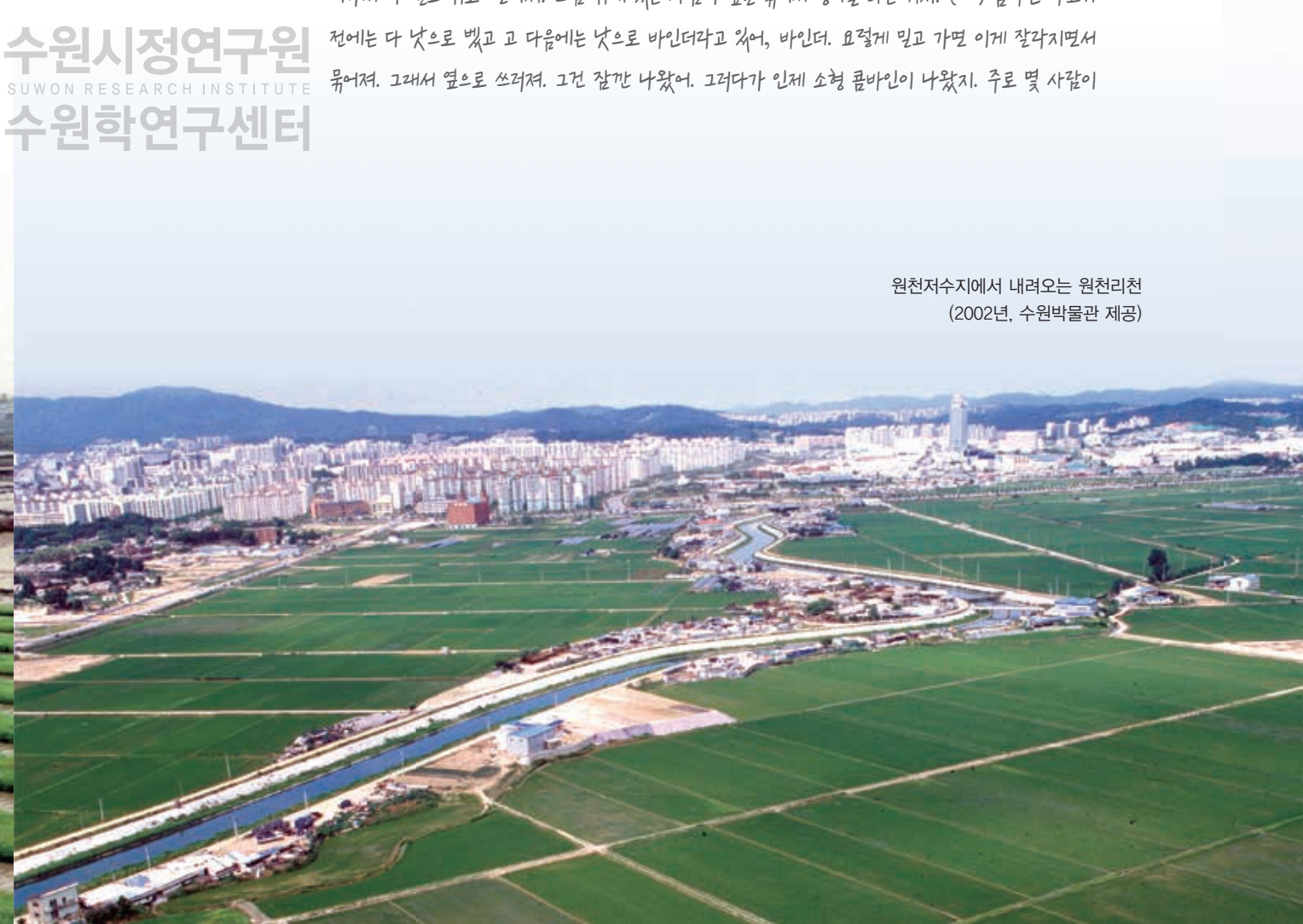
1980년대 망포리 모내기 모판  
(이음창 제공)



다. 또 목장에서 목초를 베거나 거두는 데도 쓰이고, 과수원의 일에도 쓰이며, 토지를 개간하거나 도로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공사에도 쓰인다. 모를 심는 기계인 이앙기는 보행용 이앙기와 승용 이앙기가 있다. 보행용 이앙기는 4줄, 승용 이앙기는 6줄을 동시에 심는데, 현재는 8줄 심는 8조가 이용되고 있다.

**김동구** 경운기 들어온 것이 아마 내가 20대 되기 전에 들어왔을 거야. 경운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몇 대를 동네에서 산 거지. 그 전에는 다 소로다가 논 갈고 밭 갈고 다 했었지. 그런 다음에 인제 벼 타작도 손으로 다 궁글통이라고 있어. 궁글통을 반로다 밟아서 돌리면서 이걸 이렇게 털었어. 궁글통을 반로 밟아서 돌리면서 벼를 그 돌아가는 틈에다 대면 흩어지지 인제. 그렇게 해서 털고 그랬어. 그러다가 인제 그 때는 한 20대 초반쯤 돼서 뭐가 들어왔냐면 벼 터는 기계가 들어왔는데 이게 벼를 단으로 묶어 가지고 기계가 돌아가면 털고 들어가는 거야, 한 사람 하면 그 뒷사람이 또 털고 들어가구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기계가 있어.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건데 사람이 맥이는 거지. 그런 사람이 반로 밟고 이르지 않아도 되지. 그거로 하다가 또 나중에는 기계가 자동으로 문고 들어가는 게 있어. 사람이 넣어 주면 문고 들어가서 다 털고 뒤로 떨어져. 그걸 뒤에 있는 사람이 짚을 묶어서 정리를 하는 거지. (...) 콤바인 나오기 전에는 다 낫으로 베고 그 다음에는 낫으로 바인더라고 있어, 바인더. 요렇게 밀고 가면 이게 잘라지면서 묶어져. 그래서 옆으로 쓰러져. 그건 잠깐 나왔어. 그러다가 인제 소형 콤바인이 나왔지. 주로 몇 사람이

원천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원천리천  
(2002년, 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80년대 벼 베기(심상열 제공)  
현재 망포역아이파크아파트 일대에 있던 논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같이 열려서 사거나 그렇지. 그 다음에 트랙터 같은 것도 그렇고. 트랙터는 한 두 사람이 같이 사서 농사를 짓고 그랬어.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 (···)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기계가 이앙기. 보통 이앙기, 모 심는 거가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보행 이앙기라고 믿고 가는 거야. 지가 굴러가긴 가는데 붙들어 줘야지. 그러면 지가 가면서 심어 주지. 그 다음에 이제 승용 이앙기라고 있어. 이건 사람이 타고 해. 그 달에 승용이앙기는 또 몇 개가 심어지냐 그게 있지. 그 당시에는 보통 4줄씩 심어지고 이랬는데 지금 뭐 8줄씩 심어지고 그렇지.

1970년까지 벼 증산은 국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기 때문에, 벼의 수확을 늘리기 위해 농사를 잘 지어 벼 수확을 많이 한 농민들에게 표창하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6,000평 정도 논농사를 지었던 김동구도 다수확상을 수상한 적이 있다.

**김동구** 수도작(水稻作). 벼에 대해서는 이제 옛날에 다수확상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 그랬어. 나도 다 수확상 났었지. 그때 이제 통일벼를 심어 가지고 누가 많이 수확을 하나 이걸 평가를 해구 그랬어. 그래서 이제 잘 된 집, 보면 동네에 누구네가 잘 땀다 그럴 평떼기를 해서 비어 가. 비어서 이제 벼를 손으로

훑는 기계가 있어. 그럴 그걸 평떼기로 딱 떼서 훑어서 누구네 거 몇 키로, 누구네 거 몇 키로. 동네에서 서너 집 걸 갖다 해. 동네에서 누구네 집 농사가 잘 땀다 그럴 그걸 동네에서 다 알잖아. 그럴 그 집 걸 추려서 하는 거야. 추수하기 전에도 누구네 벼가 잘 땀는지 보면 다 아니까.

추수가 끝나면 정부에서 농협을 통해 벼를 수매하였는데,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좋은 벼를 선별하여 잘 말린 후 공판장으로 가져갔다. 검사원들이 가마니를 찢어서 벼를 검사한 후 1등, 2등, 3등, 등외로 등급을 매겼는데 등급에 따라 벼의 가격에 차이가 났다. 정부에서 수매하지 않은 벼는 정미소에서 탈곡한 후 쌀로 만들어 일반 시장에 내다 팔았다. 망포동에는 우문리에 정미소가 있었는데, 이 정미소는 30년 전까지 운영되었다.

**이원동** 판로는 이제 정부에 수매를 좀 해고. 그럴 그거 이제 수매하고 나머지는 쌀로, 방아 찧어서 쌀로 판매하는 거예요. 정부 수매는 벼로 가고요. 옛날에는 뭐 군량미를 한 3년씩 보관한다고 했잖아요. 석지 않게 하기 위해서, 14프로로 수분량을 낮춰요. 거기에 맞춰서 말리고 또 선별을 해야 돼요. 또 등급을 매기니까, 등급을 잘 받으면 선별을 잘 해서 쪽쟁이는 날려 버리고 좋은 튼실한 알곡으로 달아서 가지고 나가죠. 며칠날 공판이다 그러면 가지고 가서 착착 쌀아 뉘요. 그러면 검사원이 샅대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니면서 가마니를 찢어서 벼를 검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등, 2등, 3등, 등외 그렇게 매겨요. 그럴 이제 돈 차이가 거기에 따라서 나는 거죠. 한 번은 원천서 공판이 있어 가지구 큰루 이제 차에 싣고서 갔는데. 거기에 꼬리표를 붙이잖아요. 누구네 건지. 근데 검사를 해길래 하나 보다 그러구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꼬리표를 골려 보더니 “이원동 씨” 하고 불러요. 그래서 “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전 벼를 왜 가지고 나오셨냐.”구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전 수매를 안 해도 잘 여물었니까 쌀이 수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딴 데 비싸게 팔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등급은 1등을 받았죠. 그 참 검사원들도 보면 기가 막혀요. 쌀다 보면 벼를 이사갈 저사갈 내려놓다 보면 이제 내 거가 여기 있고 또 저만큼 가서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그 벼를 다 알아요.

검사하면서 눈으로 다 식별하는데 그럴 다 알려주요. 원래 수량이 많게 하려면 2등급 정도 돼야 좋죠. 1등은 벼가 잘 여물고 품질은 좋은데 양이 좀 덜하고, 2등은 1등보다 품질은 떨어지더라도 양이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질은 1등이 좋은 건데,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수량이 많이 나와야 하니까 2등이 차라리 나은 거죠.

한편 농지를 소유하였지만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다른 농민에게 도지(賭地)를 주기도 하였다. 도지세는 보통 150평에 쌀 1가마였으나 부재지주의 경우 이보다 적은 200평에 쌀 1가마를 받기도 하였다.





1969년 추곡수매(화성시 포토갤러리 제공)

**이원동** 어느 날 이제 점잖게 생기시고 덕망 있어 보이는 그 아주머니가 서울에서 왔어요. 시골집을 찾아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나.”고 하나까 토지 땀에 왔다고 그래요. 여기 내가 농사짓는 그 양반 토지가 1,697평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200평에 한 가마씩만 주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는 남의 토지에 농사를 지으려면 150평에 쌀 한 가마씩 줘야 됐어요. 근데 200평에 한 가마면 훨씬 싼 거죠. 토지를 1,697평인데 “그냥 8가마만 주시오.” 그러더라고요. 97평은 그냥. 그러니까 외지 사람이 훨씬 편해요. 땅주인이 서울 사람이니까, 자기가 농사를 못 지으니까.



1984년 추곡수매(화성시 포토갤러리 제공)

농사지를 사람을 찾아서 짓게 하고 도지만 받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위탁을 주니까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래도 농사짓기만 하면 또 도지를 받으러 와요. 차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쌀을 싣고 오는데 쌀이 한 차야. 1.5톤 트럭으로 한 차더라구.

### 3. ‘고생바가지’ 밭농사

이원동은 ‘고생바가지’라고 표현할 만큼 밭농사가 힘들었다고 한다. 재배도 어렵지만 수확하여 지게에다 일일이 실어 와 집 마당에서 털고 말리고 손질해서 시장에 저다 파는 과정이 너무 번거로웠다고 한다. 특히 밭에서 찰벼를 재배하는 일이 힘들었는데, 잡초가 너무 많아 풀을 제거하는 것이 “지긋지긋할” 만큼 고생스러웠다.

**이원동** 밭작물은 그거 참 고생바가지예요. 집으로다 저든이구 그랬었죠. 아버지 세대에는. 지게에다 지고 뭐 콩 이런 거를 그 시대는 집으로 다 어떻게든 약착같이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집에서 마당에서 털





방죽머리 밭에서(김형진 제공)

구 해가지구 장에 가져가서 파는 거죠. 고추, 콩, 깨, 고구마 이런 걸 다 따서 집으로 가져와서 다 털고 말리고 손질해서 또 그걸 시장까지 이고 지고 가져가서 파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말리다 비가 오기라도 하면 막을까 봐 지키고 있어야 하고. (...) 농사가 다 힘든죠. 근데 밭벼가 있어요. 밭에다가 인제 찰벼라고 하는데 그걸 심으면. 원래 이게 논에서도 되는데 논이 얼마 안 되니까 밭에다 하는 거예요. 하도 풀 땀에 고생을 하니까 이제 제초제, 마세트라는 게 나왔어요. 마세트만 끼었으면 풀이 안 난대니까 그걸 심어 놓아서 이제 마세트를 끼었어요. 그걸 풀이 좀 뜸 나오기는 하겠지만 같이 나와서 같이 자라요, 그냥. 그래니까 이걸 뭐 벼 사이에서 풀 뽑아내랴 뭐 이게 젤 힘든 거 같애. 그대 나중 에 7월쯤 되면 아주 풀밭이야. 아주 풀이 잘 자라 있어. 그걸 이제 소 풀도 뜯어다 맥이고. 남이 또 안 보는 사이에 베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젤 힘든것던 거 같아요. 양도 얼마 안 나오고. 논뉘 같이 수확이 많지도 안 나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풀 지킴지킴하게 나는 밭들을 논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불 도저 대서 논을 만들었어.

밭에는 고추, 콩, 팥, 밀, 보리, 깨, 고구마, 마늘, 무, 배추, 파, 수박, 토마토, 참외 등을 심었는데, 시장에 내다팔기도 하였지만, 자금용으로 재배하였다. ‘없는 집’의 경우 수박,



밭작물을 머리에 이고 가는 아낙들(김형진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토마토, 참외와 같은 작물의 재배는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이원동** 밭에 이제 고구마도 심고 찰깨도 심고 수박, 토마토 이런 채소도 좀 했어요. 무, 배추. 시골에서 심는 거 거의 다 심었어요. 마늘도 심고 뭐. (...) 밭작물은 팔기도 하지만 일반 콩, 보리, 팥, 밀 이런 거 심어서 밀은 밀가루 해서 빵아서 칼국수 해 먹고 일부는 국수도 내려서 오죠. 그걸 갖다가 쌀아 놓고서 겨우에 이제 국수 삶아서 먹고 무쳐도 먹고 그렇게 생활한 거죠.

망포리는 1994년 이전까지 화성군에 속했지만 생활권은 수원시와 더 밀접했기 때문에 재배한 작물을 팔 때도 수원의 시장을 이용하였다. 수려선이 다니던 시기에는 화성역까지 가서 지동시장(못골시장)과 그 바로 옆에 있던 영동시장에다 팔았다. 또한 버스가 운행되자 영동중학교 위쪽 언덕에 있던 버스 종점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원동** 그렇게 밭농사 지은 건 수원 시장에 가서 팔아요. 옛날에는 수원에 화성역이라고 있었어요. 그 언저리에 가면 벌써 버스 서는 데서 아주머니들이 곡식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그 사람들이 곡식 팔려 온 걸 알아요. 차에서 내리는 걸 붙잡아서 자기들이 듣고 가며. 둔구 가서 이제 흥정을 하는 거예요. 뭐 이제 골려보고 콩이다, 팥이다 그럴 공 시세가 얼마나 그러면 어머니들이 조금 더 달라고 어짜라. 이렇게 흥정을 하시죠. (...) 화성역 근처에는 또 지동시장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영동시장하고 이어진 건데 물건을 가지고 가기 좋은 장소예요. 갖구 가서 거기서 이제 팔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시골에서 들어오는 버스니까 마구잡이로 덤벼요. 봐서 무척해 보이면 이건 쌀이다 알아요. 고추 같은 것도 따서 가져가면 벌써 차에서 내리면 붙잡고 얼마라고 얼마 주께, 얼마 주께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가족들 뭐 양말도 사 주고 학비도 주고 그러죠.

**김동구** 옛날에 고구마를 캐면 큰 트럭으로 태장초등학교, 옛날에 태장초등학교가 저쪽에 지금 영동중학교 있는 쪽이거든. 거기 운동장에다가 야적을 해. 그럴 거기서 계근을 해서 장사치한테 다 넘어가는 거야. (...) 이제 야채를 해 가지고 할머니들이 이고 가서 팔고 그랬지. 주로 여기서 하는 게 파, 무, 배추 그런 거지 뭐, 종류가. 주로 영동시장에 갔다가 팔어. 그때 버스가 들어온 지가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땐가 4학년 때 들어왔다고. 그것도 지금 어디냐면 영동중학교 그 위쪽에 언덕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그 종점

이 있었다고. 거기가 이제 서남당 고개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만 버스가 왔던 거야. 거기까지 이구 가구 그랬어. 여기서 서남당고개까지 가는 데 30분은 걸려.

수박과 참외와 같은 청과물은 우마차에 실어 북수동에 있던 청과물도매시장에 가져다주었다. 청과물도매시장 내 도매업소에서는 청과물을 판 후 수수료를 떼고 후 판매금액을 생산자에게 주었다.

**이원동** 수박, 참외 정도 심어서 파는데 그것도 밭에서 따서 우마차 달는 데로 전해요. 거기다가 또 싹어요. 쪽으로다가 아주 깨끗하게. 쪽을 꺾어다가 죄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70~80개 정도 따서 새벽 2시에 어른들이 소마차에다 싣고 그걸 이제 수원 종로라고 그러죠, 화홍문 근처인데. 그 근처에 청과물 시장이 크게 있었어요. 거기두다가 곧고 가서서 상에다 놓으면 그걸 팔아 줘요. 팔아 가지고 수수료를 떼요. 뭐 얼마 떼고 그런 거는 모르겠습시다. 수수료를 떼고 주지요.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그러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왔다갔다해야만 돼요.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만에 찾으러 가면 이제 돈을 찾아 가지구서 참 요긴하게 쓰는 거죠. (...) 그 당시 동네에 소가 3마리 정도. 부잣집이나 이제 소가 있죠. 그 집에다가 이제 운송료를 줘야죠. 근데 농촌 사람들이 돈이 귀하니까 운송료를 그 인제 돈으로 주는 거보다 일로 해 주죠. 농사일 가서 도와주는 거죠. 한 번 실어 가면 그 인제 사람이 와서 싣고 가는 거 한 풀, 또 저 소가 한 풀, 마차도 한 풀 해서 사를 가서 일해 줘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심을 업두를 못 내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69년 수원 북수동 청과물도매시장(경기도청 제공)

## 4. 누에 키우기

국립잠종장이 망포동에 설립되면서 이 지역에서는 양잠, 즉 누에를 키우는 농가가 늘어났다. 밭이 좀 있는 농가에서는 농촌진흥청 잠업과에서 주는 뽕나무 종자를 받아다 심었는데, 60가구 정도 되는 마을에서 10여 가구가 뽕나무를 재배하였다. 뽕잎을 따거나 누에판을 갈아 주는 일은 일손이 많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동네 부녀자들이 와서 일을 도왔다.

**김동구** 그전에는 여기 국립잠종장이 있을 때는 주로 뽕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누에를 기르고 했어. 우리도 뽕나무를 천여 평 했어요. 지금은 안 해. 우리 어머니는 지금 89세인데, 1932년생. 예전에 집에서 누에 다 기르고 해줬지. (...) 농촌진흥청 잠업과에서 종자를 줘요. 근데 종자 줘도 너도 나도 다 하지는 못해. 밭이 좀 있는 사람들이 했지. 우선 밭이 있고, 뽕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밭이 없는 사람은 못



했어. 그래서 뭐 동네 호수는 60가구 이렇게 되도 키우는 집은 아마 20가구도 안 됐을 거야. 내가 보기에 는 스무 가구도 안 돼. 한 십여 가구 된다고 봐야지. 대신에 누에 키우는 집에서 손이 부족하면 동네 사갈 들이 와서 일도 하고 그러지. 주로 여자 분들이 오셔. 오셔서 뽕잎 따는 거야. (...) 인제 한잔 자고 나면 누에가 크잖아. 그걸 그 바닥에 똥이락든지 찌꺼기가 있잖아. 그걸 그걸 이제 옮겨 줘야지. 이렇게 판이 있단 말야. 누에판. 그러면 새로운 판에다가 뽕잎을 넣고 그걸 이제 옮겨 주는 거지. 그니까 자꾸 자라나 까 처음에는 뭐 요만큼이었다가 나중에는 이만해져. 처음에는 집이 작아도 되는데 나중에는 점점 집도 커 져야지. 그래서 나중에는 계단식으로 놔. 그러니까 창고식으로다가 밖에 행랑채 같은 걸 창고식으로 짓 지. 그러니까 그래도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나 하지 없는 사람들은 하지도 못해.

김동구는 18~19세 때부터 7~8년 정도 양잠을 하였는데 뽕나무에는 벌레가 많이 생기 지 않아 농약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누에는 일 번에 두 번 봄·가을에 1~2개월 키우기 때문에 이를 춘잠과 추잠이라 부른다. 봄에는 양력 4월부터 1~2개월을 키웠고, 가을에는 8월부터 키워 추석에 수확을 하였다. 춘잠 때에는 뽕나무가 자라면 이파리만 일일이 따서 먹이는데, 이는 추잠 때 한 번 더 누에를 먹이려면 가지가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

다. 추잠 때에는 가지까지 잘라서 먹이는데, 이는 가지를 한 번 잘라 줘야 봄에 새 가지가 나기 때문이다. 이에 누에에게 줄 뽕잎을 따는 일은 춘잠에 비해 추잠이 더 수월하다고 한다.

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잠을 자고, 잠을 잘 때는 먹지 않는다. 네 번째 잠이 마지막 잠 인데, 네 잠을 자고 나면 엄청 먹기 때문에 몸집이 급격히 커지면서 이때부터 고치를 만든 다. 즉 누에 스스로 실을 뽑아서 자기 집을 짓는 것이다. 고치가 나오면 동그랗게 해서 그 걸 다 떼서 자루에 담는다. 양잠은 정부에서 전량을 수매하였는데, 고치의 무게와 질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겼다.

**김동구** 양잠, 그건 다 정부에서 수매를 해요. 이제 고치가 이렇게 나온다고. 동그랗게 해서. 그걸 그걸 다 떼서 자루에 담아서 갖다 수매를 시키는 거지. 그거는 kg으로 달지. 무게로 평가해. 등급이 있어서 질 도 평가를 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물이 들었단. 뭘, 오줌을 싸서 누렇게 물이 들었단든지 그걸 그건 건 등외품으로 넘기고 좀 깨끗하고 고치가 단단하면 특등이구 이래. 그때 내가 등급이 잘 나왔어. 등급이 좋 게 나오려면 누에가 고치를 크게 잘 지어야지. 먹이를 잘 먹여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지. 이거 알아주는 것도 제때 제때 딱딱 갈아 줘서 누에가 새로운 자리로 옮겨 가서 잘 먹게 해 줘야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춘잠 뽕잎 따기  
(1978년, 화성시 포토갤러리 제공)







## 떠나지 않는 그리움, 망포동 친목회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던 마을이 도시로 개발이 되면, 마을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타지로 떠나기도 하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새롭게 유입되면서 마을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도시화된 마을에 살게 되면서 주민들은 생활에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이웃간의 정이 점차 사라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마련이다. 그렇기에 마을이 해체되기 이전부터 함께 활동했던 친목회를 통해서 혹은 새롭게 친목회를 조직하여 서로 간의 정서적 유대를 이어 가고자 한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된 망포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주민들은 마을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마을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주민들끼리 친목회 모임을 가지며 이웃간의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예전 망포리 각 마을의 주민들이 조직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망포동 친목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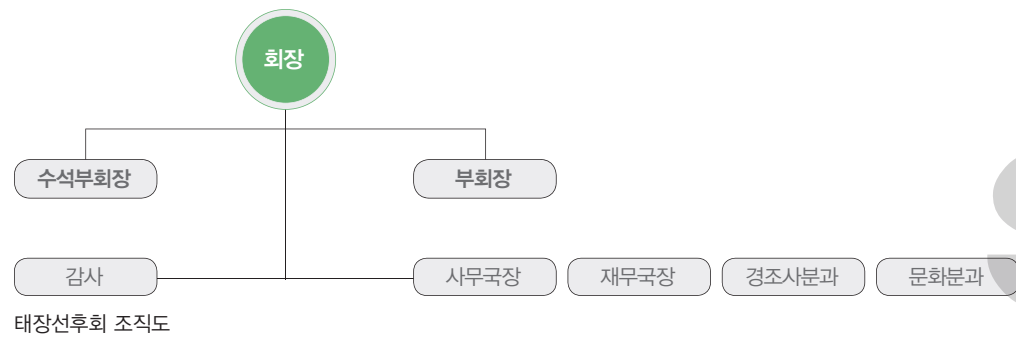
### 1. 태장초등학교 선후배 모임, 태장선후회

태장선후회는 태장초등학교 졸업생 선배와 후배가 모여서 만든 모임이다. 마을이 개발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다른 친목회들과는 달리, 태장선후회는 2010년에 강래선을 초대 회장으로 하여 태장초등학교 46회에서 55회 졸업생 50여 명이 모여 “우리 고향이니까, 우리 친목회를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강래선 태장초등학교 나온 원토박이들만 해서 201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원토박이들하고 태장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이니까 태장선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 맨 처음에 한 50명(이 모여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2~3년 전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회원을 추가로 모집하였는데, 회원들 간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자칫 세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태장초등학교 60회 졸업생까지만을 모임의 가입대상으로 정하였다. 회원들은 망포리와 인근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사무공간을 두어 평상시에도 회원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도록 하였다. 사무실에는 태장초등학교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었으며, 조직도를 별도로 갖추어 놓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장선후회 임원은 회장과 그 아래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재무국장이 있으며, 경조사분과와 문화분과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회장은 총회에서 인준하고 취임식은 영통에 있는 호텔을 대관해서 이루어진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은 하지 않는다.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태장선후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맡는 등 사전에 다른 일들을 맡아 보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한다. 그 외의 임원은 졸업 기수를 기준으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임원이라는 직책을 맡는다고 해서 별도의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특별회비를 내기도 하기에 회원들은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고 한다.

회원들은 매월 5만 원씩 회비를 내고 월례 모임을 갖는다. 식당을 하는 회원이 몇몇 있어 회원의 가게에 가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일 년에 한두 번씩 여행을 다니고 있다. 부부 동반으로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회원들끼리만 여행을 다녀온다고 한다. 버스를 대절해서 1박 2일로 국내 여행을 다녀오곤 하는데 서해안 올레길로 여행을 가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



태장선후회 창단(2011년, 태장선후회 제공)



태장선후회 척사대회(2013년, 태장선후회 제공)



고 왔던 것을 인상 깊었던 추억으로 뽑았다. 또한 골프나 등산을 취미로 하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월례 모임과는 별도로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연말 총회나 회원의 회갑 때 별도의 장소를 대관하여 행사를 진행한다.

원래의 마을은 도시로 변화하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도 흩어졌지만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리고 같은 학교에 다녔다는 유대감이 이들을 하나로 묶어 주어서 새로운 모임을 만들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모임을 이어나가고 있다.

**강래선** 저 당시에는 태장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옆 동네니까 우리 동네 너네 동네 그랬는데 지금은 전체가 통틀어서 태장면이라고 해서 그게 다 학군이 같으니까 한 동네처럼 친목회도 하고 그런 거야. 이사 가도 계속 와요. 그러니까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이사를 갔든 어디 가서 살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보는 거야.

## 2. 부부가 함께해 온 망포2리 친목회

### 1) 당암마을 친목회

망포2리 당암마을에는 40여 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친목 모임이 있다. 바로 ‘당암마을 친목회’이다. 윗세대부터 마을에서 이어져 오던 소규모 친목 모임은 있었지만, 정식으로 ‘당암마을 친목회’라는 명칭을 가지게 된 것은 1975년경부터다. 마을에 상을 당한 집이 있으면 주민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 집마다 장자들이 대표로 가입한 것에서 친목회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한상길** 부모가 상을 당하면 내 집안 일처럼 서로 도왔어요.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다 해 주지만 아주 옛날에는 동네에 상을 당하면 머리도 안 깎았다는 거야. 손톱, 발톱도 안 자르고. 그런 식으로 서로 도왔던 거야, 그런 풍습이 여기가 있었고. 그 친목회로 인해서 동네에서 상을 당하면 초상을 치러 준다든지 산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매장을 해야 하니까. 그때는 화장 문화가 별로 없었고 그런 일을 동네 청년들이 친목회에서 다 도맡아서 했었던 거야.

그러다 마을에 새롭게 공장과 경희대학교가 들어서고 다세대주택이 생겨나면서 외지인의 유입이 증가하게 되자 이들도 친목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외지인 중에서도 마



당암마을 해주 오씨 집안 장례(1965년, 오우근 제공)  
예전에는 마을에서 상이 나면 주민들이 모두 힘을 보탰다.

을에 집을 짓고 살면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은 이들에 한하여 친목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비록 외지인이었지만 친목회에 가입하면서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마을의 대소사에도 여러 번 참여하였다고 한다.

**황현택** 처음에 시초는 상 당했을 때가 원취지고. 그 이후에 마을에 경희대가 들어오고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주변에 외부 사람이 집을 사 가지고 오던가 이럴 경우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우리가 편해서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오히려 나중에 와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목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었다고 보기도 하고.

마을의 상례를 돕기 위해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의 청년 30여 명이 모여 조직한 당암마을 친목회는 현재 3기까지 운영되고 있다. 가장 먼저 조직된 1기 친목회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결성된 모임이라면, 2기는 태장초등학교 졸업생을 기준으로 회원을 구성한 모임이다. 2기 친목회는 1기 친목회 회원 동생들을 위한 별도의 모임을 조직할 필요성을 느껴 만



당암마을 해주 오씨 집안 장례

(1965년 1월 5일, 오우근 제공)



상여와 상여꾼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장지로 가는 상여 행렬



들었으며, 1기 친목회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이원동을 비롯한 1기 친목회원 몇 명을 보내어 모임이 운영되는 것을 도왔다.

이원동 외부에서 들어왔어도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졸업하면 토박이다 그런 개념이더각구요.



2020년 당암 마을잔치(황현택 제공)

3기 친목회의 경우는 1기 회원의 자녀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으나 현재 서로의 생업이 바빠 1기·2기 친목회보다는 자주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모임의 횟수를 보면 1기는 매월 1회, 2기는 명절·복날·연말 등 1년에 4회, 3기는 1년에 1~2회 정도이다.

당암 친목회의 임원은 회장과 총무로 구성된다. 임원은 2년에 한 번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능하다. 이전에는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회장과 총무를 맡았지만, 회원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임원 선출 방식에도 변화를 주게 되었다. 1기의 경우 회장은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가 많은 순에서 적은 순으로, 총무는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많은 순서대로 뽑는다. 다만 연장자가 평소에 회원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등 많은 일을 담당해야 하는 총무를 맡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회장을 선발하고 있다. 2기는 회원들 서로의 의견에 따라 임의로 회장과 총무가 선발되며 별도의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듯 회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그래야 회원 모두가 친목회라는 모임을 운영하면서 겪는 고충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친목회 회원은 처음 1기가 조직되고 나서 2년 정도 회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지금까지 문

호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친목회 회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일을 담당하는 총무를 맡아 줄 회원이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회원을 추가로 모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친목회를 신규 회원에게 개방하기 위해서는 신규 회원이 친목회 자금의 1/n을 내야 하는 등의 문제도 있기에 총회를 열어 회원들끼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2기 친목회는 기존 회원 전체가 동의해야만 모임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기 역시 처음에는 회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가입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대다수의 동의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친목회 회원이 되면 회비로 매월 3만 원씩을 내야 한다. 이전까지 2만 원을 받았지만 3만 원으로 올린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 회비는 주로 회원들이 모여 식사하는 비용으로 쓰이며, 집안에 상을 당하거나 경사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찬조를 하는 데 사용된다. 그 밖에도 1년에 두어 차례 회원들이 부부 동반으로 꽃놀이나 단풍놀이 여행을 가는 데 회비가 쓰이고 있다. 1990년대 경기가 좋았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여행을 다니게 되었는데 원래는 회원들끼리만 모여서 갔었으나 나중에는 부인들도 함께 가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외국까지도 다녀왔다고 한다.

당암마을 1기 친목회 회원인 황현택을 통해 40여 년의 당암 친목회 역사에서 잊지 못하는 몇 가지 추억들을 들을 수 있었다.

황현택 에피소드라고 하긴 이상하지만 그 생각이 내 머리 속에서는 지금도 생생해. 동네 사람들이 관광 버스를 타고 파주 쪽으로 한번은 관광을 가다가 동네 최고 고찰인 ○○○씨가 평상시에 물이 안 좋았는지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병원으로 급히 후송돼서 큰 수술을 받았죠. 그 뒤로 이 양반이 나오셔서 가지고 고맙다는 뜻으로 또 한 번 관광을 갔을 때 점심인가 저녁인가 회를 전체 다 쏘 적이 있어요.

이 외에도 마을 어르신들 몸보신을 위해서 회원들끼리 다 같이 고기리(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로 놀러 갔었는데 마을 주민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회원들 모두 마을로 돌아오기도 했다고 한다. 서로를 생각하는 회원들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일화이다.

회원들의 마을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던 일화는 또 있다. 비록 마을은 사라졌지만 기존의 친목회 회원뿐만 아니라 전체 마을 사람들끼리 얼굴 좀 보자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황현택의 망포동 창고에서 10년 전쯤 척사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플래카드를 붙이고 마을 사람들의 주소를 인편으로 확인해서 초청장을 발송하자 1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몇십 년 만에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척사대회는 매년 개최하지는 못하고 2년에 한번 꼴로 1기가 책임을 지고 개최하였다. 2기 친목회가 상품을 준비하고 찬



조를 하는 등의 지원을 하는데 척사대회를 주도한 적도 있다. 2020년에는 해외여행을 가는 대신 1기 친목회가 주도하여 척사대회를 열었는데 친목회 자금에 여유가 있어 한우를 준비해서 배불리 먹었다고 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 들끼리 서로의 얼굴을 보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상길** 일을 벌일 때는 옛날 사람들 얼굴 보기 위해서 한 자리 갖는 거지. 뭐 먹으려고 그전 건 아닌 거지. 보면 또 반갑고 하나까 그전 모임을 갖는 거지.

당암 친목회는 4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갈등 없이 모임이 이어져 왔다고 하며, 그 이유로 회원들끼리 서로를 위하고 생각하는 배려심을 꼽았다. 마을 행사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누군가 적극적으로 모임을 이끌면 반대하지 않고 동조해 주는 식으로 모임이 끈 끈하게 이어져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내 고향이다. 내 정을 쏟았던 마을이다.”라는 뿌리에 대한 생각이 희박해지고, 젊은 세대들의 경우는 외지로 나가 생활을 하고 있기에 자신들끼리 모임을 결성하고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기에, 앞으로 친목회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한다. 황현택은 “현재가 행복 하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하며 현재 당암 친목회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2) 당암마을 부인들의 모임, 일심회

망포2리 남성들이 모여 ‘당암마을 1기 친목회’ 활동을 하는 동안 부인들은 ‘일심회’라는 친목 모임을 만들어 참여하고 있다. 이전에는 당암마을이 화성군에 속했었기 때문에 화성군 부녀회로 모임을 시작하였으나, 당암마을이 없어지게 되면서 부녀회도 함께 사라지게 되자 동네 부녀자들이 모여 일심회라는 친목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마을이 없어지면서 뽕뽕이 흩어져 자칫 서로 간의 연락이 끊길 수 있었으나 일심회라는 모임으로 서로 만나면서 지난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일심회의 회원은 총무를 비롯하여 12명이다. 원래는 13명이었지만 1명이 탈퇴를 하여 현재는 12명이라고 한다. 이전까지는 회장과 총무가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는 회비를 모으는 일을 맡는 총무만이 모임의 임원을 맡고 있다. 회비로 한 달에 2만 원씩 내고 있으며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에 모여 식사를 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모인 회비로 회원들끼리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망포리 부녀회 야유회(1970년대, 임승득 제공)

경조사에 일정 비용을 찬조하고 있다. 당암마을 친목회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1년에 1~2회 여행을 갈 때에도 번갈아가면서 여행을 주도한다고 한다.

이 밖에도 일심회는 당암마을 친목회와 함께 마을의 많은 대소사에 참여하고 있다. 마을에 상을 당한 집이 있거나 척사대회를 하게 되면 음식 마련을 하는 등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4. 다양한 모임이 공존하는 망포3리 친목회

### 1) 망포3리 상조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마을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지만, 주택도 일부 남아 있어 원주민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망포3리에는 여러 친목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상조회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대대로 정미소를 운영했던 이해창에게 부모님 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상조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들어볼 수 있었다.





태안면 새마을체육대회에 참가한 망포3리 부녀회(심상열 제공)

망포3리의 상조회는 이해창의 윗세대부터 이어져 온 오랜 역사를 지닌 마을 조직이다. 보릿고개 시절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때 마을에 초상이 나면 주민들이 모두 모여 너나 할 것 없이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이해창** 옛날에는 보릿고개. 굶이 살았을 적에는 초상이 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지. 돌아가시면 어떤 집은 팔죽도 끓여 오고 두부도 해 오고 떡도 해 오고 그런 것들을 했었고 이 동네가.

여성들은 각자의 집에서 팔죽도 끓여 오고 두부와 떡을 만들어 오는 등 음식을 준비하고, 지금처럼 수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직접 수의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남성들은 마을에 초상이 난 것을 알리는 부고장을 친지나 주변에 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마을을 나서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하였다. 이해창은 젊었을 때 비봉면까지 가서 부고를 전하고 오기도 했다고 한다.

장례가 진행되는 3일 동안 마을 사람들 모두 ‘비상대기’를 해야 했다. 장례 기간에 밤샘도 함께 하였는데 이때 마을 사람들은 돈 대신에 필요한 빨감을 가져 오기도 하였다. 3일

이 지나 장지(葬地)로 가게 되면 마을의 장정들이 상여를 땀다. 흔히 상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금기들이 있듯이, 망포3리에서도 상여를 매고 갈 적에는 상여가 집 뒤로 가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만 가게 하였다. 그렇게 해야 집이 부정을 타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게 상여를 매고 장지로 가서 관을 땅에 묻고 회방아소리를 하였다. 봉분을 만들고 나서 떼를 입히는 데, 지금은 잔디를 사다가 쓰지만 예전에는 들판에서 직접 떼어다가 사용했다고 한다.

장례를 마치고 나면 상을 당한 집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조금을 배분하였다. 예를 들어, 부잣집일 경우에는 부조금 전체를 마을의 기금으로 사용하였고 아주 살림이 어려운 집의 경우는 상주에게 부조금을 전부 주었다. 그 밖의 경우는 마을과 상주가 3:7 혹은 4:6 정도의 일정 비율로 나누었다.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상을 당한 집을 돕는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직접 필요한 음식이나 물건들을 준비하였다면 이제는 장례식장이나 상조업체에서 대부분을 준비하기에 절차가 전반적으로 간편화되었다. 대신 상조회에서는 장지까지 이동하는 차를 대절하는 비용, 선산에 매장을 할 경우 소리꾼과 봉분을 만든 포클레인 업자에게 주는 비용을 지불한다. 또한 봉분을 만들고 주변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밥차를 불러 식사를 준비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마을 상례의 많은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상조회의 임원은 회장과 총무로 구성되며, 회장과 총무의 나이를 고려하여 회원들이 임의로 돌아가면서 맡는다. 요즘에 와서는 50대 회원들이 총무를 맡는데 주요 업무는 회원들에게 부고를 보내는 일이다. 회장은 명예직이라고 할 수 있다. 회장 임기는 정해진 규정이 따로 없고 일을 건실하게 한다고 생각되면 계속 맡아서 지낸다고 한다. 총회는 연말에 하게 되는데 만약 그 해에 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총회를 개최하지 않기도 한다. 총회에서는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곤 하는데 예전에는 마을에서 청년들이 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망포3리에 거주하는 토박이들은 나이 제한 없이 상조회에 가입할 수 있었다. 외지인의 경우에는 마을에서 10년 넘게 살았더라도 건실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가입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다. 회원들은 별도의 회비를 내지 않는 대신, 모임을 가질 때만 회비를 걷는 방식으로 상조회를 운영하였다.

회원들끼리 교류를 하는 차원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다니곤 하였다. 동해안의 영덕으로 대게를 먹으러 다녀오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여행을 통한 교류가 바탕이 되어 회원들이 상을 당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모임을 가지는 것이 어려워 여행을 다녀온 지도 여러 해가 지났다고 한다.





망포리 상여 행렬(태장 100주년 한마음 큰잔치 추진위원회 제공)

이렇듯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온 마을 주민들이 모여 함께 슬픔을 나누고 도움을 주었던 상호 모임으로 서로를 챙기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주민의 친목을 위한 모임도 생겨나게 되었다.

## 2) 우정친목회

아주 예전에는 망포3리에 대동회라는 모임이 있었지만, 마을 주민들의 친목을 다지는 모임으로 우정친목회가 기능을 해 왔다. 1980년대에 마을에 경로당을 새롭게 지으면서 모임이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당시에 나이가 60대 이상이면 한마음친목회에 그 아래 나이대의 주민들은 우정친목회에 속하게 되었다. 기존 회원들 간의 나이 차이가 나자 나이에 따라 모임을 나누게 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의 ‘우애와 정’을 위해 만들어진 우정친목회는 망포3리에 거주하던 원토박이만을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마을에 공장이 들어오고 방들을 세놓으면서 동네에 외지인이 많아지자 이들도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외지인 모두에게 문을 개방한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친목회의 분위기를 흐리지 않을 ‘건실한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였으며, 기존 회원들이 모두 찬성해야만 친목회에 가입할 수 있었다.

모임의 임원은 회장과 총무가 있는데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모임 회원들 가운데 연장자가 회장을 맡고, 젊은 연령대의 회원이 총무를 맡아 회비를 관리하는 일을 맡는다. 20명 정도의 부부가 함께하는 우정친목회는 가족 단위로 회원들끼리 만날 때마다 5만원씩 회비를 내야 한다.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가졌으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임이 많아지다 보니 4~5년 전부터 두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회원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주로 마을회관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농사와 관련된 대화를 자주 나누었으나, 요즘에 와서는 식당에서 모여 동네 이야기 혹은 자녀와 관련된 소소한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정기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우정친목회에서는 회원들끼리 여행을 자주 다녔었다고 한다. 매년 봄·가을마다 40여 명의 회원이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전국 방방곡곡으로 꽃놀이와 단풍놀이를 다녀왔다. 회비를 건어서 여행을 다녀오는데 경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특별회비를 걷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정친목회에서 가는 여행이 일 하느라 고단했던 회원들의 일상에 큰 즐거움을 주었다.

*이해창* 관광버스 타고 시골 사람들 노래 부르고 추억 많지. (여행) 가면 기다려지지 잘도 안 오고.

지금은 마을이 도시화되면서 원토박이들과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기존 회원들끼리만 모임을 갖고 만나는 정도이다. 회원들의 나이가 대부분 70대가 넘었기에 앞으로 우정친목회의 회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해창은 원래 마을이 계속 남아 있었다면 외지로 이사를 간 사람들도 마을로 찾아와서 주민들과 만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이해창* 여기도 도시화 안 되고 원부락 그대로 살았으면 그 사람들이 와. 도시화로 집도 없어지고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망포3리 우복회(이해창 제공)

### 3) 우복회

우복회는 이해창이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1975년에 만든 친목 모임으로, 1951년~1952년에 망포3리에서 태어난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던 포레 모임이다. 모임의 임원으로는 회장과 총무가 있으며,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일을 맡았으나, 회원들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여 1년에 한 번씩 이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임원을 맡는 것으로 바뀌었다.

우복회는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만든 모임이었기에 예전 마을에서 체육대회나 노래자랑, 윷놀이대회를 하게 되면 주축이 되어 행사를 후원하였다고 한다. 망포리가 수원시로 편입되기 전 화성군 태안읍에 속해 있을 때 망포3리가 태안읍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다. 줄다리기, 씨름, 줄넘기, 계주 등에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뽕과리를 치면서 마을로 돌아왔었다고 한다. 또한 수원시에서 진행하였던 ‘온고지신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태장사거리의 마을 입구에 소 동상을 설치할 때도 일정 금액을 지원하였다. 마을의 지형이 소가 누워 있는 형상과 닮았다고 하여 소문이 또는 우문리로 부르는데 마을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적극 지원을 한 것이다.

우복회 회원들은 마을의 일뿐 아니라 회원들 간의 교류가 있을 때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이기에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부부 동반으로 송년회를 열기도 하였다. 3년 전에는 중국 귀주 만봉(萬峰)으로 4박 5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많이 걸을 수 있었고 경치도 좋았으며 여행을 기념하는 사진 앨범을 만들어서 회원들끼리 나누어 갖기도 하였다. 2020년에는 회원들의 칠순을 기념하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 않아 2021년으로 미루었다. 그러나 우복회 모임은 지속하고 있다.

### 4) 우문회

우복회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마을 일에 참여하고 교류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래 연령대의 주민들이 모여 1990년대 중반 우문회라는 친목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마을 이름 우문리에서 모임의 이름을 따서 지은 우문회는 1955~1968년에 망포3리에서 태어난 남성들이 모여 조직한 친목회이기에 포레 모임인 우복회와는 달리 회원들 간 나이 차이가 나는 편이다.

임원은 회장과 총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2년마다 연말 총회를 거쳐 회원들끼리 번갈아가면서 임원을 맡는다고 한다. 회원은 현재 16명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만날 때마다 3만 원씩 회비를 걷는다. 애乡심을 가지고 만든 모임이기에 회원들끼리 만나면 옛날 동네에서 살면서 있었던 이야기나 부모님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목을 이어가고 있다.

망포동 친목회 회원들은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의 단합력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마을이 단합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친목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면서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유대감을 쌓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옛날의 마을은 사라졌지만, 주민을 하나로 묶어 주었던 친목회는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옛 마을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자그마한 위안을 주고 있다. 회원들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모임이 앞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안타까움을 남기지만, 오늘날 이웃간의 소통이 사라져 가는 도시의 삶 속에서 이들의 친목회는 마을공동체가 가졌던 따뜻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 망포 마을 사람들의 삶

- 01 방죽머리의 변화와 함께한 인생 3막, 김형진
- 02 옛 태장의 그리움과 향수를 지닌 황종각
- 03 '망포'의 마을 일꾼, 이해창
- 04 농민과 함께한 태안농협 일꾼, 한광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





01

## 방죽머리의 변화와 함께한 인생 3막, 김형진

### 1. 가족과 유년생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김형진은 1955년 화성군 태장면 망포리 방죽머리에서 김영수와 이임선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김형진의 가족은 증조부 때부터 방죽머리에서 살았고 김형진 역시 군복무와 직장 일로 잠시 외지에서 생활했을 뿐 지금까지 그 터에 살고 있다.

6·25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절에 태어났지만 다행히 그가 태어난 망포리는 전쟁 피해를 크게 입지 않은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을 하었는데 집집마다 식구들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못했다. 지금도 망포역 주변이 교통과 상업이 발달한 변화가이지만 예전에도 망포리는 큰 마을이었다. 교육열이 높아 1960년대에 마을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였는데 김형진의 동생도 망포유치원에 다녔다.

김형진의 집도 농사를 지었는데 할아버지는 특별히 참외를 많이 심었다. 초등학교 시절 여름이면 방과 후에 참외 밭에 나가 할아버지의 일손을 도와 드리곤 하였다. 40여 년간 교직생활을 하신 아버지는 방죽머리에 있던 태장초등학교에서만 30여 년을 근무하셨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덕분에 경제적 형편은 농사만 짓는 다른 집보다 조금 나았지만 당시 교사 월급은 많은 편이 아니어서 춘궁기에는 보리밥이나 수제비를 많이 먹고 자랐다. 그 때문인지 김형진은 지금도 보리밥을 먹지 않는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였던 김형진이 태장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한 학급에 학생수가 60명 이상이어서 교실도 부족하고 교사도 부족했다. 그 당시 태장초등학교는 지금의 영통, 원천

류현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





김형진의 조부모와 부친(1936년, 김형진 제공)



김영수 김형진 부자(1958년, 김형진 제공)  
태장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찍은 사진이다.



태장초등학교 봄소풍 때 원천저수지에서 찍은 가족사진(1966년, 김형진 제공)

등을 포함해 용인시 서천동과 화성시 반월동 등에서도 학생들이 통학을 했다. 지금의 방죽  
공원과 그 일대는 개발 이전에 전부 논밭이었다. 어른들은 겨울이면 눈에 물을 대서 얼음  
썰매장을 만들어 주었고 아이들은 겨우내 썰매와 스케이트를 타면서 놀았다.

## 2. 태장면 촌놈의 수원 통학기

김형진이 중학교에 진학하던 때는 입학시험이 있었다. 초등학교 5~6학년 때는 중학교  
입시를 위해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공부하던 시절이었다. 잠은 늘 부족했고 잠을 자면서  
도 공부에 대한 부담과 입시에 대한 불안감이 많았다. 김형진은 태장초등학교 44회 졸업  
생으로서 수원중학교에 진학했다. 수원중학교는 성적이 우수해야 갈 수 있는 학교였다. 당  
시 태장초등학교에서는 김형진을 포함해 2명이 수원중학교에 진학했고, 수원여자중학교 5  
명, 매향여자중학교 2~3명, 북중학교 3~4명 정도 진학한 것으로 기억한다. 44회 졸업생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방죽머리 수로에서 물고기 잡는 김형진 부자(김형진 제공)  
이 수로는 덕영대로에 포함되어 복개되었다.







수원중학교 재학 당시 방죽머리 집에서 동생과 함께(김형진 제공)



수원고등학교 시절 원천리천 백년교에서(김형진)



태장초등학교 동문인 김형진 형제(1960년대, 김형진 제공)

##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 120여 명이었는데 20여 명 정도만 중학교에 진학했다. 당시는 수원시에 중학교가 몇 개 안 되던 시절로 현재 수원시 소재 대학교 수보다 적었다. 참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가난해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입학시험에 떨어져서 못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았을 정도였다.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공부 대신 일을 배워야 했다.

수원중학교는 대부분 수원 시내 초등학교 출신들이 입학하였고, 화성군에서는 태장·병점·반월초등학교 등에서 몇 명씩 입학하는 정도였다. 그래서 김형진은 수원중학교에 다닐 때 수원 시내 아이들도 많이 떨어지는데 태장면 촌놈이 어떻게 수원중학교에 왔냐는 우스갯소리를 듣기도 했다. 당시 수원중학교 학생들은 서울로 진학을 한 최상위권 학생이나 취업을 위해 공고를 지원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중상위권 졸업생 대부분이 수원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다. 김형진 역시 수원고등학교 입학을 했다.

수원중·고등학교를 다니는 6년 동안 망포리에서 수원 시내로 통학을 해야 했다. 버스는 8시 이전에 첫차를 타야 했고, 학교까지 20~30분 정도 걸렸다. 첫차는 통학생들로 인해 항상 만원이었다. 김형진은 비 오는 날 버스가 제시간에 오지 않아서 학교까지 걸어갔다가 교복이 온통 비에 젖어서 선생님이 그냥 집에 보내 주신 기억이 있다. 당시 버스는 하루에 4~5번 정도 운행했는데 이마저도 고장이 부지기수였고 용화출고개를 넘어갈 때 힘에



부쳐서 못 올라가면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서 고개를 넘어간 때도 있었다. 버스가 안 오거나 늦으면 학교까지 걸어서 등교하였다. 다행히 방죽머리 집에서 수원중학교는 빠른 걸음으로 40~50분 정도 걸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 지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비나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지각을 하기도 했지만 선생님들이 사정을 봐주셔서 별 문제는 없었다. 김형진은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했다. 초·중·고교 12년 동안 개근을 했고, 고등학교 성적도 우수한 편이었다.

### 3. 인생 1막, 지역사회를 지키는 삶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수원 시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시내에 학원이 있어서 학원에 다니고 집안 형편이 좋은 학생들은 과외를 해서 진학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학원을 한 번도 다닌 경험이 없는 김형진은 학교 성적이 좋은 편이었음에도 지원한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 친구분의 회사에 다니다가 방송통신대학교가 설립되어 1974년과 1975년에 경영학과와 행정학과에 지원했으나 낙방하여 1976년 5월에 육군에 입대하였다. 개교 초기에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서울대학교 부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라서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였고 경쟁률도 높았다.

34개월 17일의 군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한 후 다시 방송통신대학교에 지원하여 농학과 80학번으로 입학하였다. 무조건 합격을 하고자 농학과에 지원한 것이다. 새벽 5~6시, 오전 11~12시에 방송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공부했고 재학 중에는 수원오산화성지역 학우회장으로 봉사했다. 1980년 입학 당시 방송통신대학교 등록금이 1만 8,000원이었는데 2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전국 10위 안에 들어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재학 중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아버지께서 교직생활을 하시고 주변에 공무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준비하게 된 것이다. 김형진은 전공이 농학과라서 농업직 공무원을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화성군청으로 발령받았는데 첫 근무지는 태안면사무소였다. 1980년대인데도 망포리에서 태안면사무소가 있는 병점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방죽머리에서 권선동으로 나가서 병점행 버스로 갈아타고 출근을 해야 했다. 새벽부터 담당부락인 반월리에 가서 퇴비생산을 독려하거나 새마을청소 지도하는 일도 많이 했다. 토요일에는 점심을 먹고 용주사 앞에 모여서 청소를 했는데, 처음에는 친구들이라도 마주치면 창피해서 어쩌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공무원이니까 할 수 있



김형진과 이기은의 결혼식(김형진 제공)

는 일이라는 자부심이 생기며 적응을 하게 되었다.

김형진은 10년간 화성군 공무원으로 근무했는데 그 중 2년만 군청에 근무하고 나머지는 화성군 태안면(읍)에서 일했다. 태안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읍 승격이 이루어져서 근무지가 태안읍사무소가 되었다. 당시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인구 3만 명이 넘어야 했는데 그 상주인구조사 업무를 김형진이 담당했다.

화성군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30세에 결혼을 하였다. 1984년 9월에 이웃에 살던 어머니 친구의 중매로 열흘 늦게 태어난 동갑내기 아내를 만났다. 여성의 결혼 적령기를 23~25세 정도로 생각하던 시절이어서 선을 보라는 어머니의 권유에 김형진은 선뜻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미 어른들끼리 약속이 잡혀 있었다. 결혼 안 해도 좋으니 한 번 만나 보라는 어머니의 설득이 있기도 했지만, 두 살 터울로 남동생들이 셋이나 있었고, 연로하신 할머니를 모시고 있던 터라 장남의 결혼을 서두르는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는 되었다.

1984년 9월 16일 주말 오후에 인계동 청자다방에서 맞선을 보았다. 김형진은 부모님이 동석을 하였고, 아내는 중매를 한 분과 언니와 함께 나왔다. 어른들은 먼저 가시고 김형진



과 아내는 남문에 있는 경양식집 ‘가무’로 자리를 옮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고 호감을 갖게 되었다. 아내는 당시 여주여고를 졸업하고 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으로 서울 여의도 MBC TV 제작국에 근무하고 있었다. 김형진은 주중에도 아내를 만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기도 했는데 귀가시간 때문에 늘 긴장을 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내고 김형진은 자신의 생일에 아내와 함께 망포리 집에 가서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다. 그날 김형진의 어머니는 결혼식 날을 잡자고 하셨다.

만나면 헤어지기 아쉬울 만큼 좋은 시절이었지만 교통이 불편해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데이트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연애기간을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컸으나 만난 지 3개월 만인 그해 12월 15일에 종로감리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매교동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김형진은 결혼 후 동갑내기 아내에게 노처녀를 구제했다는 농담을 종종 하곤 했다. 슬하의 두 아들은 잘 자라서 훌륭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예쁜 손녀가 세 명이 되었다. 아내 이기은은 방송통신대학 졸업 후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가정교육전공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에 세종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쳤다.

김형진은 화성군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옛날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지금의 건물을 지었다. 방죽머리는 1970년대 매탄동에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공장 건물만 지을 수 있게 되는 바람에 집과 땅을 팔고 떠나는 원주민들이 많았다. 김형진은 땅을 팔지 않고 아버지의 퇴직금 일부로 건축비를 충당해서 3층 공장 건물을 지었다. 1층과 2층은 공장으로, 3층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부모님이 3층에 거주하시면서 1층과 2층의 임대료를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시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공장 임대료가 잘 되었다.

화성군청 농업직으로 근무하면서 김형진은 전직시험을 통해 행정직으로 바꾸었고, 다시 경기도청 전입시험을 거쳐 경기도청에서 10년간 근무하였다. 경기도청에서는 총무과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강의하는 것을 좋아해 공무원 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겨 6년간 강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때의 강의경험이 나중에 대학교수로 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동안 매교동에서 인계동의 한신아파트로 옮겨서 몇 년간 살다가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김형진은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 방죽머리로 돌아올 무렵 큰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작은아들은 초등학교 입학 앞둔 상태였다. 큰아들은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고 갤러리를 경영하며 김형진의 갤러리 사업을 돕고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던 시절(김형진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수원고등학교에 입학한 작은아들은 1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미시건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돌아왔다. 유수의 외국계 회사에 다니던 작은아들은 결혼 후에 다시 미국에서 빅데이터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마치고 국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 4. 인생 2막, 가르치는 삶

김형진은 방송통신대학교 졸업 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덕분에 공무원 교육원에서 도시행정 관련 내용을 강의했고, 오산대학교 겸임교수로도 활동할 수 있었다. 특히 공무원 실무 경험이 있어서 이론뿐만 아니라 행정실무 강의도 맡았다. 공무원 생활과 교수 생활을 병행하다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자 경기도 공무원직을 그만두었다. 오산대학교에서 6년을 강의하는 동안 수원과학대학에도 출강하면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 전업이 되었다.

오산대학교에서는 산업체 특별반 강의를 주로 맡아서 했다. 당시 수원시청사거리 한





김형진이 받은 녹조근정훈장



김형진의 인생 2막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삶이었다.(김형진 제공)

독전설 건물에서 강의를 하며 학생 모집을 많이 했는데,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던 국제사이버대학교의 교무처장이 오산대학교에서 편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김형진을 스카우트 하면서 국제사이버대학 전임교수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개교 이듬해인 2005년부터 강의를 시작하여 18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2021년 2월 28일자로 정년퇴임을 하였다.

김형진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 저소득층과 탈북민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에게 교육의 길을 열어 주고자 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탈북 새터민 100여 명이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동아리를 만들어 자격증 취득 등을 적극 지원하였다. 특히 운동선수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김형진은 우리나라 여자 프로배구단 소속 선수 30여 명을 스포츠학과에 입학하도록 독려하여 학업의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었다. 현역 국가대표인 박정아, 김희진, 표승주 등과 은퇴한 전 국가대표 리베로 남지연이 여기에 포함된다.

40여 년 교직생활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동백장을 받은 아버지 김영수의 뒤를 이어 아들 김형진은 2021년 2월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공무원 경력을 포함하여 38년간 근무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국제사이버대학에서도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퇴임 후에도 명예교수로 후학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 5. 인생 3막, 누리고 나누는 삶

김형진은 2015년에 갤러리를 열었다. 영선갤러리이다. 삼성전자가 가전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연구단지로 바꾸면서 많은 공장들이 빠져나갔고, 공장으로 임대했던 1, 2층이 비어 있었다. 마침 서울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던 지인이 비어 있는 공간을 보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 갤러리를 해보라는 제안을 하였다. 그동안 소장하고 있던 그림 20여 점과 지인의 서울 갤러리에 있던 그림 5점을 구입하여 2016년 영선갤러리를 열게 되었다. 25점에서 시작했던 그림은 현재 김창열·전광영·김태호·박인숙·서수영·홍일화 작가의 작품 등 300여 점으로 늘어났다.

김형진은 작가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려 한다. 작품 선정과 전시기획에 대해서도 홍익대 미술대학원과 숙명여대 평생교육원 등에서 많은 공부를 했다. 영선갤러리에서 유명 강사의 초청 특강도 여러 차례 열었다. 그림을 소장하고 싶지만 갖고 싶





방죽머리 김형진의 집과 영선갤러리

어도 믿고 구입할 용기와 자신이 없는 지인들에게 좋은 작품을 소개해 주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영선갤러리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갤러리가 되고자 지역의 문화에 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2020년에는 수원문화재단 협찬으로 수원아트뱅크 전시회를 열어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널리 홍보하였고, 영통구청 갤러리 오픈에 많은 작품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김형진은 자신의 인생을 3막으로 나눈다. 1막은 공무원 생활, 2막은 대학교수 생활, 3막은 갤러리를 열고 재능을 기부하는 삶으로 구분한다. 직접 특강도 하고 있는데 특강의 제목도 ‘인생 3막, 우리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이다. 최근에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나이 들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면서기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수에 오르기까지 김형진은 열심히 살았다. 마지막으로 인생 3막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가까이 하면서 그동안 축적한 삶의 노하우들을 남에게 알려주고 봉사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의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김형진이 강조한 자신의 “well aging, well dying”이다.





## 옛 태장의 그리움과 향수를 지닌 황종각

### 1. 용한 무당에게 ‘시영 걸었던’ 막내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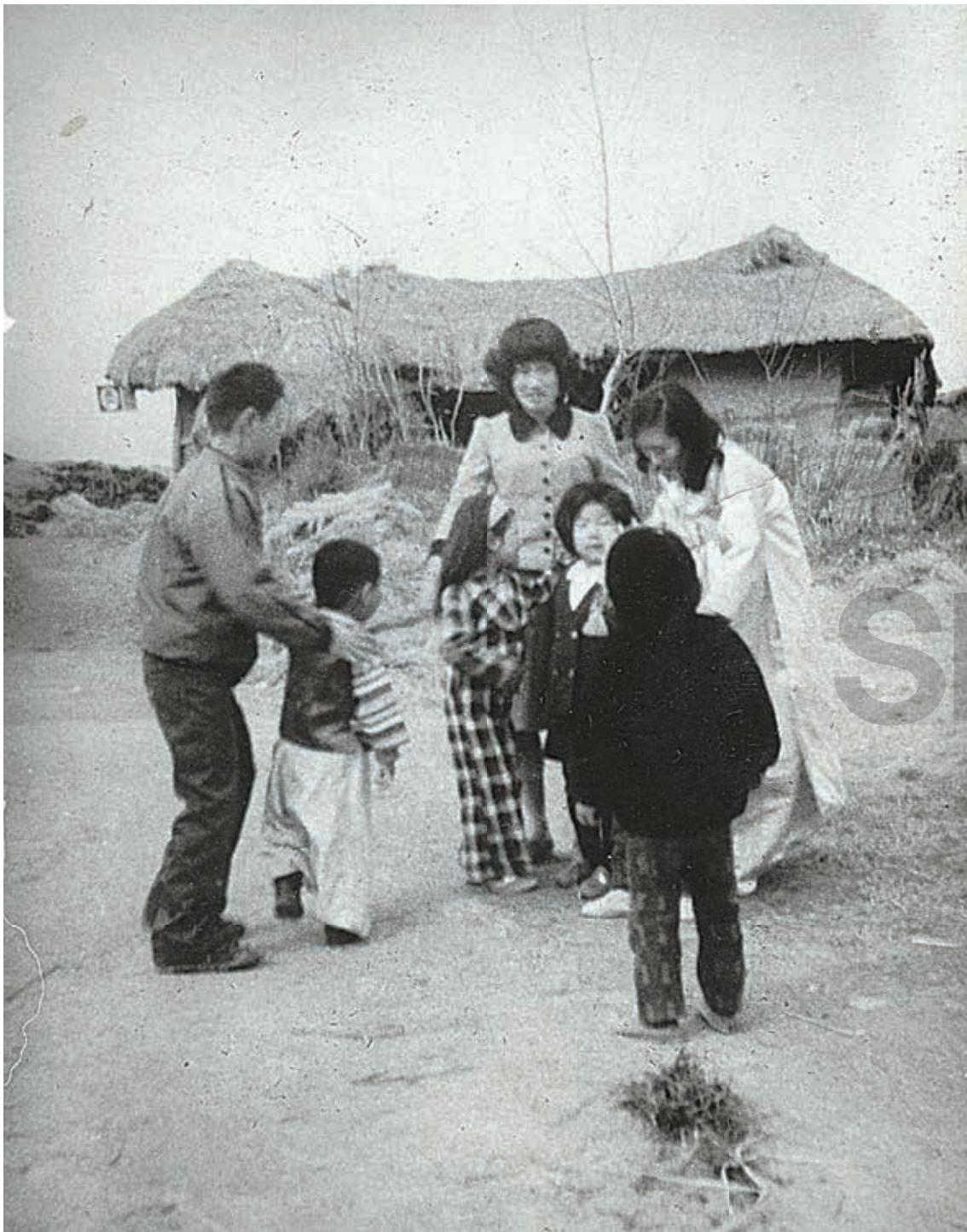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2년생인 황종각은 1973년까지 망포리 당암에서 거주하였다. 당시 거주했던 집은 노자 형태의 초가집이었는데 지을 때 잘못 지어서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1973년에 용인 서천리의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하였다. 황종각의 고향인 당암은 상주 황씨 집성촌이었는데 본가는 서천리에 있었다. ‘진사댁’으로 불렸던 서천리 본가는 500석 농사를 짓는 부농이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 마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 주변에 바다나 산이 없다 보니 농사 말고는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었다. 춘궁기 때는 더욱 궁핍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봄에 부잣집에 한 가마의 쌀을 꾸고 가을에 반 가마 이자를 쳐서 갚는 식의 장리쌀을 많이 먹었다. 쌀 계와 같은 계를 조직하고 경조사 때 쌀 한 말씩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다. 칠월 칠석에는 마을회관 앞에 있던 대동우물을 청소하고 돼지를 잡아 우물고사를 지냈다.

서천리 본가의 할머니는 인력거를 타고 북수동성당에 다니셨다. 황종각의 어머니도 영세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되었으니 천주교 집안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황종각이 어렸을 때는 매교다리 근처의 유명한 무당 오수복을 수양어머니로 삼았다. 예전에는 아이의 명이 짧거나 사주가 좋지 않을 경우 신이나 자연물 또는 사람을 수양부모로 정하여 아이의 무병장수를 비는 무속신앙이 있었다. 홍역으로 어린 자식 여럿을 잃어버렸던 황종각의 어머니는 9남매의 막내아들 황종각을 유명한 무당의 수양아들로 보낸 것이다. 이것을 망포리에서는





당암마을 황종각의 집(1975년, 오우근 제공)  
초가지붕 아래 '담배' 간판이 달려 있다.

##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 당암마을 우등생

“시영 건다.”고 했다. 망포리는 물론 인근의 여러 동네에서 오수복의 수양아들로 보내는 집이 많아서 오수복의 신당에는 수양자녀들의 명다리가 많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황종각은 설 때면 어머니를 따라 ‘마디 드리러’ 오수복의 신당에 다녀오곤 했다. 자식의 무병장수를 빌어 주는 대가로 사람들은 가을 추수 때 쌀 한 말 정도씩을 냈다. 영세를 받은 후 어머니가 무당을 찾는 일은 없어졌다.

황종각의 집에서 담배를 판매한 적이 있다. 원래 있던 담배 가게가 없어지니까 전매청 직원이 황종각의 부친에게 담배 가게를 하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집의 위치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옆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적합한 조건이었던 것이다. 당시 가장 값이 싼 새마을담배가 한 갑에 20원이었다. 현금이 별로 없던 시골에서 담배는 외상 거래가 많았다. 겨우내 외상으로 담배를 사 피고 봄에 농사를 시작할 때 품을 팔아서 갚는 식이었다. 명절에 자식들이 좋은 담배를 사 오면,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받은 담배를 가져와서 싼 담배로 바꾸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황종각의 아버지는 제 아버지보다 비싼 담배를 사러 오는 아들에게는 절대 담배를 팔지 않았다고 한다.

황종각은 1959년 태장초등학교에 입학에서 1965년 졸업을 했다. 당시 학년마다 한 반에 60명씩 두 반이 존재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전쟁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형, 누나들이 같은 학년에 다니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바로 후에는 학생 수가 늘어나서 책상이 부족해 교실 바닥에 엎드려서 수업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학생들 중에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도시락을 못 싸오는 경우가 많았다. 다행히 미국의 원조로 노란 강냉이죽을 학교에서 끓여 주기도 했고 우유가루도 받았다. 황종각은 점심 도시락을 싸지 못한 날이면 집에 가서 가마솥에 찌 둔 고구마를 먹고 오기도 했다고 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원 시내에 있는 수원중학교와 수원고등학교를 다녔다. 중학교를 다닐 때 처음 시내버스가 생겼는데 망포리에 사는 학생들은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이라 늘 사람이 많았다. 버스를 놓치면 학교와 집을 1~2시간 걸어가는 방법뿐이었다. 버스를 놓치고 걸어가는 길에는 송화가루, 아카시아꽃을 먹으며 갔다고 한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이 망포1리와 가까워 황종각은 버스에서 내려도 집까지 꽤 걸어야 했다. 그리고 옛 태장면사무소와 태장초등학교가 있는 망포1리만 전기가 들어오고,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망포2리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등잔불 밑에서 공부를 했다. 당시에는 망포1리에 사는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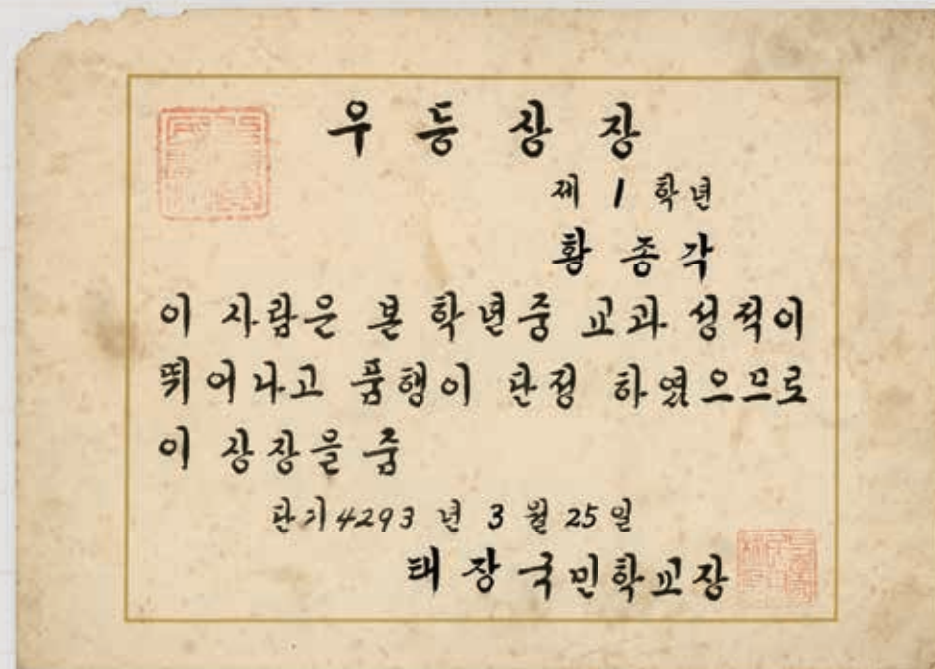
유년의 황종각(황종각 제공)



태장초교 6학년 때  
(황종각 제공)



수원중학교 졸업사진(황종각 제공)



태장초교 우등상장(황종각 제공)



수원고등학교 졸업(황종각 제공)



들을 부러워했다.

당암에서 수원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황종각뿐이었다. 아침에 버스종점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등교했다. 그 당시 수원 시내버스는 원호원이 차고지여서 모든 노선이 원호원으로 들어왔다가 진흥청, 수원역 등 노선별로 나갔다. 초창기는 수원 시내버스가 10대 정도여서 운전사와 차장의 얼굴을 다 알 정도였다고 한다. 경희대 수원캠퍼스가 들어와서 대중교통이 좀 나아지기는 했으나 망포리의 교통은 여전히 불편했다.

1966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수원중학교 학생들이 태극기 들고 화성군 안녕리에 있는 안용중학교 뒷산까지 걸어갔다. 대통령을 보려고 모여드는 학생들을 제지하기 위해 교사가 막대기를 휘두르자 존슨 대통령의 경호원이 막았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주민 대표로 존슨 대통령을 영접한 신리 신나무실의 최시중은 컬러 TV를 선물로 받았는데, 당시 신나무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태안면사무소에 기증하였다고 한다. 황종각은 태안면사무소 면서기로 근무할 때 숙직실에 있던 그 컬러 TV를 보았다. 특별히 축구나 레슬링 같은 것을 하면 TV를 면사무소 마당에 내다 놓아서 사람들이 와서 시청할 수 있게 했다. 방송시간이 끝나면 숙직하는 직원이 TV를 들여놓았다.

1966년 존슨 미 대통령과 주민대표 태안면 신리 최시중  
(경기도청 제공)



공무원 시절 치러진 황종각 부친의 회갑연(1972년, 황종각 제공)

##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3. 태안면 서기, 경기도 서기관으로 퇴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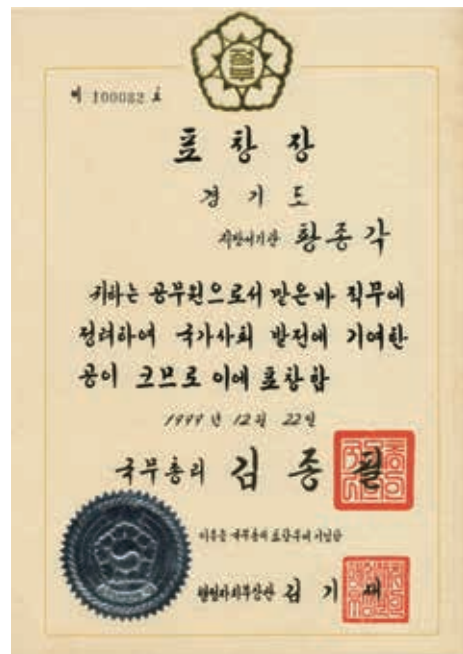
황종각은 수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인의 권유로 화성군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1971년 11월 11일자로 지방행정서기보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첫 근무지를 태안면사무소 재무계로 발령을 받고 망포리 당암에서 진안리의 면사무소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 당시 망포리에도 버스가 운행하긴 했지만 수원 시내에서 망포리 버스종점을 왕복하는 노선밖에 없었기 때문에, 버스로 통근하려면 수원 시내로 나가서 버스를 갈아타야 했다. 15리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다. 자전거가 최선의 방법이었다.

태안면 재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농지세 같은 세금 징수였다. 예전에는 건축허가 없이 그냥 집을 지었으므로 집을 지으면 재무계 직원이 줄자로 실측해서 가옥대장에 올리면 그때부터 세금을 부과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집을 찾아다니며 세금을 받는 일도 했다. 담당하는 마을은 누구네 집인지 흰하게 파악하고 있었기에 방문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당시는 직원이 사는 동네 주변 지역을 담당구역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출퇴근하면서 방문 업무를 볼 수 있었다.





화성군 재무과 근무 당시 군수 표창(황종각 제공)



지방서기관 당시 받은 표창(황종각 제공)



과천시청 근무 당시 과천시의회에서 발표하는 모습(1991년, 황종각 제공)

황종각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1971년부터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모든 공무원들이 새마을사업에 투입되었다. 공무원들은 새마을이 적힌 완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식량증산에 초점을 두는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새벽 4시에 담당 구역에 나가서 새마을 노래를 틀어 일을 시키고, 동네에 돼지와 토끼들을 먹이느라 풀이 많지 않아 수원비행장 안에 있는 풀을 베어다가 퇴비하기도 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행했지만 옛날 농촌 사람들이 농사에 대한 고정관념과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방법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는 물리력을 동원한 강력한 행정지도가 식량증산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자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다.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용어가 생소해서 일하는 데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한다. 또 공무원 생활에 후회는 없지만 젊음이 없었다. 공무원 생활을 한다고 동네 어른들이랑 많이 다녀 또래들은 접할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황종각에게 행정 업무를 문의하거나 대신 봐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특히 노인들은 공무원이면 모든 업무를 다 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황종각이 모든 부탁을 들어줘야 했다.

1973년 화성군청으로 옮겨 근무하다가 군에 입대했다. 제대 후 1978년 제1회 경기도 전 입시험 응시 제안을 받고 시험을 쳐서 경기도청으로 옮기게 되었다. 당시 시험 과목은 일

반상식과 논문이었는데, 새마을운동, 식량증산, 행정품토쇄신 등과 관련된 것이 논문 과목 문제였다. 당시 황종각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느라 시험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틈틈이 예상문제를 만들어 보면서 공부했고 합격을 하게 됐다. 이후 공무원 후배들에게도 전입시험을 권유하였고, 화성군 후배들도 도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도청이 수원에 있어서 수원시와 화성군 공무원들이 많이 응시했다.

경기도청 근무 당시 황종각은 예산과 조직을 주로 담당하고 일이 많은 부서에서 근무를 했다. 일이 바쁜 것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막중했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어서 더 열심히 일을 했다. 화성군 공무원에서 경기도청 공무원이 되자 집안 어른들이 출세했다고 좋아했다. 황종각은 그런 면에서 보람을 느꼈고 어른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성실하게 일했다.

1985년 수원 시내로 나와 살기 전까지 황종각은 버스나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 당시 수원에서 망포리로 가는 버스는 저녁 8시면 막차가 끊겼다. 그런데 도청에서 근무하면 저녁 6시 퇴근은 거의 불가능해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더 많을 정도였다.

황종각이 경기도청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 망포리가 수원시로 통합되었다. 1990년대 망포리가 수원으로 통합될 당시 망포리 인근 지역인 반월리, 황계리, 안룡리 사람들이 자신들도 수원시에 편입해 달라고 도청으로 몰려와서 시위를 했다. 시위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는 얼굴들이 있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지만 결국 편입은 되지 못했다. 또한



태장지구가 아닌 영통지구로 개발이 되고 영통구로 탄생하면서 태장이라는 명칭이 사라진 것에 대한 지역 사람들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다.

황종각의 공무원 생활은 IMF 이후 끝나게 된다. IMF 당시 경기도 조직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공무원 정원을 30% 감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황종각은 그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관으로 명예퇴직을 했다.

#### 4. 태장 100주년 한마당 큰잔치 추진위원장

공무원을 퇴직하고 생활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옛 동네 사람도 만나고 산악회도 같이 하면서 옛날에 느꼈던 정이랑 추억들을 되새겼다. 그런데 망포동이 개발되면서 방죽머리, 소문리, 태장면과 같은 옛 지명을 기억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졌다. 또 영통구에 거주하는 옛 태장면 사람들이 매년 8월 15일에 태장초등학교에서 개최했던 체육대회도 망포리와 신리가 수원시로 편입되고 나서 1995년 이후로 중단됐다. 옛 동네 사람들을 마주할 기회가 더욱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황종각은 옛 태장면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작은 행사를 개최하고자 했다. 그것이 바로 태장면 승격 100주년 행사이다.

1963년에 태장면의 매탄리, 권선리, 원천리와 안룡면 6개 리가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태장면과 안룡면이 통합되어 태안면이 신설되었고 진안리가 면소재지가 되었다. 태장면의 면소재지였던 망포리가 중심에서 변두리로 떨어지게 되었고 태장이라는 이름도 없어졌다. 망포리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쉬워했다.

황종각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수원시와 태안농협에서 1,000만 원을 지원받고 영통구 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행사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태장면 승격 100주년 행사에 대해 설명하니 모두들 동의를 하여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2015년 10월 18일 태장

태장 100주년 한마당 큰잔치  
추진위원장으로 개회사를 하는  
황종각(황종각 제공)

면 승격 100주년을 기념하는 ‘태장 100주년 기념 한마당 큰잔치’가 옛 태장초등학교인 수원 영동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황종각은 행사 추진위원장으로 기념사를 마친 후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났다고 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한 경로당에 3명씩을 초청했는데도 1,000명 정도가 잔치에 참여하였다. 다행히 부녀회와 같은 여러 단체의 도움 덕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식사 도중 탈이 나거나 체육대회 중 부상과 같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앰블런스를 행사장과 정문에 각각 배치하였는데 다행히도 큰 사고 없이 끝이 났다.

기존에 지원받은 금액과 행사 당시 받은 찬조금으로 태장 100주년 한마당 큰잔치 행사 사진과 망포리를 중심으로 한 태장면 100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집 『태장 100주년』을 제작하여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책자를 만들고도 남은 돈은 영통구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고 100주년 행사를 마무리했다.

황종각이 원하는 대로 어르신들이 옛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 조성되었고 동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즐기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행사를 계기로 2021년에 태장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행사도 개최하고 싶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어려워질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태장 100주년 한마당 큰잔치(황종각 제공)





태장 100주년 기념 사진들을 관람하는 사람들(황종각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태장 100주년 한마당 큰잔치에 참여한 옛 태장면 사람들(황종각 제공)



체육대회





## 03

# ‘망포’의 마을 일꾼, 이해창

### 1. 공부보다 노는 게 좋았던 시골 소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해창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월에 화성군 태장면 망포리 소문이의 농사짓는 가정에서 3남 2녀의 둘째로 태어났다. 소문이는 전주 이씨 덕흥대원군 제한공파 집성촌이다. 광주는 큰댁, 강원도 홍천은 작은댁이라서 광주와 홍천에서 시제를 모셨다. 경기도 광주에 있던 선산은 개발로 인해 동탄으로 이전하였다. 매년 시제를 비롯해 총회와 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집성촌이라서 예전에는 향렬을 따져 위아래를 명확히 구분했으나 도시화가 된 지금은 만나는 것만으로도 반가워한다.

전쟁 중에 이해창의 가족은 피난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를 비롯한 집안 남자 어른들은 국민병으로 나갔고, 여자들은 아이들과 집에 남았다. 다행히 마을에는 전쟁의 피해가 없었지만, 중공군이 내려와 마주치기도 하고 총탄이 오가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기 때문에 어른들은 밤이면 아이들을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소문이에서 제법 규모가 컸던 이해창의 큰집은 중공군이 들어와서 머무르다 갔는데,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이해창은 1958년 태장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태장초등학교 40회 졸업생으로 학교를 마친 후 수원의 중학교에 진학하였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서 정미소를 운영하였기에 이해창의 집은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았어도 먹고사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 당시만 해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소문이 전주 이씨 집안 사람들

김연주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

류현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





4H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망포3리 청운구락부(1973년, 이해창 제공)



군대 시절 이해창(이해창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은 대부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였다.

이해창이 중학교에 진학했던 1960년대 중반은 중학교 입시가 있던 시절이었다. 화성군에 속하지만 태장초등학교 졸업생은 중학교부터 수원시 학군으로 들어가서 수원의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다. 당시 수원시 관내 중학교는 수원중학교, 북중학교, 수성중학교, 동중학교(현 삼일중학교) 등이 있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수원중학교를 지원했고 그다음은 북중학교, 수성중학교, 동중학교 순으로 지원하는 분위기였다.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에 흥미가 없었던 이해창은 동중학교로 진학했다.

아침에 소문이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더라도 2시간 가까이 걸렸다. 버스를 타려면 방죽머리 버스 종점까지 논두렁길로 20분 정도 걸어가야 했다. 게다가 그때는 버스가 하루 3번밖에 다니지 않았다. 가끔은 아예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비나 눈이 와서 도로 사정이 안 좋거나, 공공근로사업으로 마을 구역마다 사람들이 동원되어 길을 만드는 사업을 하거나 하면 버스가 운행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자주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버스가 오지 않거나 버스를 놓쳐서 타지 못하면 그날은 학교 가지 않고 노는 날이었다. 버스를 타지 않으면 학교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집에서

수원까지 걸어가면 절대 수업시간에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만 해도 5원 하는 차비가 부담스러워 학교에 갈 때만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올 때는 뽕튀기 하나 사서 신발주머니에 넣고 먹으면서 걸어왔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는 늦게 도착해도 상관없었기 때문이다.

태장초등학교를 함께 졸업하고 수원으로 중학교에 진학한 친구들 중 지역적으로 가까운 서천리, 반월리, 망포리의 동네 또래들과 어울려 다녔다. 태장초등학교 40회 졸업 동기들과는 동네 구분 없이 모두 청년이 되어서도 모임을 가지며 친하게 지냈다.

이해창은 중학교를 마치고서 서울로 올라갔다. 5남매 가운데 가장 공부에 뜻이 없었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지만 공부가 하기 싫었던 이해창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 자식들을 가르치느라 고생하는 부모님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겠다는 핑계도 있었다. 집안 형의 소개로 종로3가에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일을 했다. 5년 정도 서울에서 일을 하며 지내다가 1972년 군에 입대했다. 이후 3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다시 망포리로 내려왔다.

지금도 다들 바 없지만, 공부 잘하는 것이 최고였던 시절에 다섯 남매 중 '가방끈이 제일 짧았던' 이해창에게 부모님은 공부에 대한 꾸지람 한번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되돌아보면 공부를 잘했  
진, 못했진 사람 인생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2. 가업을 이어받아 고향에 남다

이해창은 1975년 군에서 제대를 하고 다시 서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고향 망포리  
로 돌아오게 되었다.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일을 대신 맡아 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  
문이었다. 형은 결혼 후 서울에서 교직생활을 하고 있었고, 고향집에 있던 동생은 학생이  
라서 농사와 정미소 일을 맡아 할 수 없었다. 제대 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둘째 아들이  
적임자였다. 아직 학교에 다니는 동생들 뒷바라지도 해야 했다. 결국 이해창은 본인의 뜻  
과는 상관없이 형의 권유로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게 되었다. 아버지는 56세  
의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다. 1979년에 고모할머니의 중매로 권선동 출신 부인을 만나 결혼  
하고 가정을 꾸렸다.

소문이 이해창의 집에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일꾼이 있었다. 그 사람에게 도정하는 법  
등을 배워서 정미소를 운영하고, 집안 농사도 맡아 하고, 소도 기르면서 가장의 책임을 지  
고 집안을 이끌어 나갔다. 당시에 소문이를 비롯한 망포리 사람들은 밭작물을 가지고 남문  
시장에 가서 팔았다. 이해창의 어머니도 밭에다 채소 농사를 지어 수확하면 지동시장에 가  
지고 나가 팔았다. 버스에 보따리를 싣고 가거나 가끔 이해창이 시장까지 오토바이로 실어  
다 주거나 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보따리 없이 버스를 탈 수 있었다.

소문이는 농사를 짓는 동네라 집집마다 소 한 마리씩은 다 있었다. 이해창은 3~4마리  
의 비육우를 키웠다. 오산우시장에 가면 못 먹어서 비쩍 마른 소를 싸게 살 수 있었다. 이  
런 소를 데려와 3~4개월 잘 먹이고 기르면 살이 찌고 털이 반들반들 윤기가 나게 된다.  
이 소를 수원우시장에 값을 잘 받고 파는 것이다. 예전에는 소장수가 시골로 다니면서 소  
를 보고 거래를 했는데 소 키우는 집에서는 값이 맞으면 우시장에 나가느니 그냥 소장수  
에게 팔았다. 마을마다 중개인이 있어서 거래를 성사시켰다. 소문이에도 전주 이씨 집안 사  
람 중에 동네 중개인이 있었다. 소장수가 값을 싸게 부르면 우시장 장날 소를 끌고 나갔다.  
영화동에 있는 수원우시장까지는 일꾼이 소를 끌고 갔다. 소를 팔고 나면 가끔씩 사람들과  
어울려서 구천동으로 술을 마시러 가곤 했다.

1979년에 안성유리가 들어오면서 소문이 사람들은 소 키우던 외양간을 모두 사람 사는  
방으로 바꾸었다. 당시에 안성유리 출퇴근 버스가 서울에서 다녔기 때문에 회사 근처에 방



소문이 사람들은 소를 키워 팔아서 농가 살림에 보탬다.(심상열 제공)



이해창이 소문이 최초로 구입한 경운기(이해창 제공)  
왼쪽 건물은 이해창의 집, 오른쪽 건물은 방앗간이다.



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시멘트로 벽을 바르고 연탄보일러를 설치해서 세를 놓았다. 이해창의 큰집은 행랑채를 개조해서 7~8개의 방을 만들었다. 이해창도 외양간과 창고를 수리하여 방 4개를 만들어서 세를 놓았다. 방세는 보증금 없이 한 달에 2만~3만 원이었는데 월급날이면 꼬박꼬박 방세가 들어왔다. 세입자들은 대부분이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다.

1990년에 안성유리가 천안으로 옮기면서 안성유리에 다니던 세입자들이 빠져나갔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건설 노동자들이 세입자가 되었고 공장 가동 후에는 삼성반도체 직원들이 들어왔다. 삼성 월급날이면 인근의 가게들이 장사가 잘되었다. 2000년 전후로 소문이에 빌라들이 많이 들어섰다. 빌라를 짓기만 하면 잘 나갔다.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건물이 오래돼서 그전만 못하다.

밭농사를 하고 소를 키우면서 이해창은 아버지부터 이어 온 방앗간을 20여 년간 운영했다. 망포리 일대에서 가장 오래된 방앗간이었다. 방앗간은 봄, 가을 40일 정도 바쁘게 도정을 하고 나면 별로 일이 없었다. 이해창이 방앗간을 맡은 초기에는 수매를 많이 하지 않았고 방앗간에서 도정을 해서 미곡상에 파는 경우가 많았다. 방아를 찧으면 곡주들은 방앗간에 위탁판매를 하기도 했다. 그럴 경우 이해창은 영동시장 미곡상에 대신 내다팔았다.



이해창과 자녀들이 방앗간 마당에서 찍은 사진(1980년, 이해창 제공)



소문이 이해창의 방앗간(이해창 제공)  
방앗간 옆에 마을 안내방송용 스피커가 보인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가끔은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판매대금을 선불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소문이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 소농들이었다. 벼 타작은 못 했는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방앗간으로 찾아왔다. 이해창은 당시 어느 집이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부담 없이 선불을 해 줄 수 있었다.

망포리가 수원시에 편입되고 나서 점차 마을이 도시화되고, 사람들이 추곡수매를 많이 하다 보니 방아를 찧을 일이 없어지면서 방앗간들이 점차 줄어들었다. 곡주가 상회에 판매하는 것보다 수매하는 것이 더 낫게 되면서 생긴 변화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개인 방앗간들이 통합되기도 하고, 방앗간끼리의 경쟁을 막기 위해 방앗간협의회라는 것도 생겼다. 대개 동네마다 방앗간이 있었고 암묵적으로 그 동네가 방앗간의 영업 구역이 되었으므로 다른 동네 방앗간은 침범하지 않는 상도이가 있었다. 망포동 지역은 별터, 방죽머리, 소문이에 한 곳씩 방앗간이 있었다. 방앗간 터는 원래 이해창의 큰집 소유 땅이었다. 수매로 인해 경기도 안 좋아지고 큰집에서 방앗간 터를 팔면서 이해창은 어쩔 수 없이 방앗간을 처분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방앗간을 정리하고 농협 구판장을 운영했다.

이해창은 아버지 때부터 살던 집터에 1990년대 중반에 옛날 집을 허문 후, 위에는 본인 이 살고 아래는 세를 주는 형태의 상가주택을 지었다. 당시에 상가주택을 짓는 사람은 소





1990년대 초반 영통로90번길(이해창 제공)

문이에서 이해창밖에 없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이해창 집 앞으로 롯데·기린·금강빌라 등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상가주택을 지은 것이다. 마을 일대는 전부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에 마을의 다른 토박이들은 200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몇몇 사람이 상가주택을 지었다. 처음에는 상가를 임대하였는데 미용실을 하던 임차인이 가게 문을 닫고 잠적하는 바람에 이해창이 미용실 자리에서 공판장을 하게 되었다. 1995년 무렵의 일이다.

농협 구판장은 농협 하나로마트의 초창기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저렴한 농협 상품을 선호하였는데, 태안농협에서 주류·세제·음료수 등 공산품을 일부 받아와 팔고 나머지는 이해창이 시장에서 사입해다 팔았다. 매일 아침 권선시장에 가서 야채, 과일, 냉동생선, 건어물 등을 해 왔다. 빌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해창의 가게 아래쪽에도 외지 사람이 운영하던 화성공판장이 하나 있었다. 그 당시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정육점도 있을 만큼 파는 물건이나 규모면에서 훨씬 컸다. 전문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운영한 화성공판장이 더 잘 되기는 했지만, 이해창 부부가 운영한 가게는 영농조합 브랜드를 걸고 했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도 동네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고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나름 경쟁을 할 수 있었다. 현재 향아리보쌈 자리도 외지인이 들어와서 운영하

던 구판장이 있었다.

1987년에 벌터 송원산업 인근에 태안농협 망포분소가 개점하였는데 지하에 슈퍼마켓이 있었다. 나중에 망포지소 하나로마트로 바뀌었는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매출 감소로 폐점되었다. 현재 태안농협 하나로마트 능동점은 매출액이 전국에서 5위 안에 드는 규모로 성장하였다고 한다.

이해창 부부는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가게를 열었다. 주변에 빌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동네 손님들이 늦게까지 찾아왔다. 이렇게 6년 동안 구판장을 운영했다. 부부가 밤낮으로 가게 일을 하다 보니 부인의 건강이 나빠졌다. 그러던 중 아는 동생이 가게를 하고 싶다고 찾아와서 그에게 구판장을 넘겼다. 농협 구판장은 태안농협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었다. 2001년 농협 구판장을 그만둔 이후에는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상가 임대 수입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소문이 주택가 이해창의 상가주택



### 3. 사회생활, “반장만 안 해 봤어요.”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해창은 사회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 왔다. 군대에 가기 전 총 각 시절에는 추석이 되면 마을 청년회에서 ‘콩쿨 대회’라고 부른 노래자랑을 주최하였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였기 때문에 마을 이장이 지서에 가서 집회 허가를 받아야 개최 할 수 있었다. 사람들과 함께 무대며 마이크며 직접 설치를 하였고, 그 당시 서울에서 객지 생활을 할 때였기 때문에 대회 상품이나 사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준비하여 내려왔다. 노래자랑은 다른 마을 사람들도 와서 참여했는데 흥겨운 분위기가 격해져서 사람들끼리 싸움도 종종 일어났지만 마을 축제와 다름없었다.

이해창은 군 제대 후 고향에 정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마을 일에 적극 참여하였다. 매년 태안읍 학구단 배구대회가 열렸는데 반월리, 서천리 등 주변 마을이 모두 참가했다. 망포1리가 주로 우승을 했지만, 망포3리도 이해창이 후배들을 데리고 나가 우승한 적이 있다. 당시에 망포3리에는 배구 연습할 곳이 없었다. 매년 대회에는 참여하는데 연습할 곳이 없어 직접 이장에게 건의하였고, 젊은 사람들이 합심해 3~4일간 리어카로 흠을 퍼 나르며 수작업으로 현재 태안농협 망포지점이 있는 자리에 배구장을 만들었다. 망포3리는 태안읍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하기도 했다.

이해창은 예비군 기간 동안에는 예비군 소대장을 했고, 이후 주변의 권유로 새마을지도 자를 맡았다. 토박이들이 이장을 안 하려고 해서 외지에서 들어온 고학력 주민을 이장으로 추대하는 바람에 새마을지도자였던 이해창이 마을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새마을지도자 당시 새마을사업으로 활주로 도로변 풀을 깎으러 많이 동원되었다. 마을마다 할당 구역이 있어서 주민들이 경운기 한 대에 모여 타고서 풀을 깎으러 다녔다.

1990년대 초반 이해창은 망포3리 이장을 맡아서 1995년 망포리가 수원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마지막 이장이 되었다. 이장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마을회관을 건립한 일이다. 당시 이런저런 사정으로 망포3리는 마을회관이 없었다. 이해창은 척사대회 찬조금, 마을 상조회 기금, 당시 건축 중이던 빌라 건축업자들에게 받은 기부금 등을 합하여 마을회관을 신축하였다.

망포3리는 연례행사로 정월대보름에 옷놀이를 개최하였다. 망포3리에서만 열렸던 행사였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도 많이 놀러왔다. 수확이 끝난 밭을 평평하게 해서 옷판을 만들거나 앞마당이 큰 집이 있으면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옷놀이를 했다. 척사대회를 하면 마을에서 찬조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행사를 치르기에 충분할 정도였다.

망포리는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매탄3동 53통이 되었다. 망포리와 신리의 이장 5명은 통





장으로 직함이 변경되었다. 이해창은 3년간 53통의 통장으로 일을 보았다. 당시 수원시의 통장은 대부분 여자들이 맡고 있었다. 매탄3동도 전체 53개 통 중에서 남자 통장은 2명밖에 없었다. 통장으로 일하는 동안 화성문화제 정조대왕 행차에도 참여하였다. 통장들은 거의 모두 참여하여 행차 행렬의 일원으로 지지대고개에서 수원고등학교까지 걸었다.

농협 구판장을 하면서도 이해창은 친구들의 권유로 태장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몇 년간 봉사를 했다. 그러다 가게도 그만두고 주민자치위원 임기도 끝나다 보니 무료해지기 시작했다. 때마침 통장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해창의 이력을 보고는 통장을 권유했다. 이렇게 또 태장동에서 7년간 통장을 맡았다.

태장동 통장을 하면서도 다양한 일을 많이 했다. 민방위 통지서도 돌리고, 벽보도 붙이고, 불우이웃돕기 같은 관내 행사가 있을 때는 주민들을 독려하여 함께 참여하였다. 특히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디자인하는, 시민 주도 마을르네상스사업으로 추진한 태장국화축제를 제1회부터 5년간 진행했다. 태장동 방죽머리 르네상스협의회에서 주축이 되어 통장들과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참여하여 마을 주민이 어울리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통장을 마치고 새마을협의회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다.



상업지역으로 변한 소문이 마을 입구

#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해창이 태장동 통장을 할 당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통장 일을 하다 보면 마을 원주민들과 새롭게 들어온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다행히 마찰은 없었다. 그가 이장을 보던 1990년대 초반에도 외지인이 많이 들어왔지만 당시의 원주민의 수가 많아서 옛 태장면의 텃세가 강했다. 그러나 점차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원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아파트 주민들 특히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20년 넘게 이해창이 마을 일을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사교적 성향과 사회와 우리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해창은 본인이 직접 마을 일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고 사람들과 활발히 사회적 교류를 나누고 싶었다. 더욱이 원주민들이 다 떠나고 마을의 토박이로서 마을 일을 맡아 봐야겠다는 사명감도 있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자발적으로 마을 일에 열심히 참여했고, 사람들과 동참하여 더 나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기쁨을 맛보았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열심히 봉사한 공로를 인정해 주는 데서 보람을 느꼈다. 다만 이제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없으니 알아주고 추억을 공유할 사람이 없는 데서 오는 아쉬움이 있다.



정조대왕 능행차 행렬(1999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 04

# 농민과 함께한 태안농협 일꾼, 한광수

### 1. 벌터에 정착하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한광수는 1935년 용인군 포곡면에서 3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용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한광수는 초등학교 졸업 후 진학하지 않고 아버지 농사일을 도왔다. 농사라는 게 다 큰 어른에게도 힘든 일이다 보니 어린 한광수에게는 더욱 고되었다. 하루 종일 일을 할 때도 있었다.

한광수가 16살이 되었을 때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전쟁에 징집될 수도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의용군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콩밭에서 3개월 숨어 살았다고 한다. 전쟁을 피해 숨은 여름의 콩밭에서는 온갖 벌레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는 “왜 정보다 더 힘들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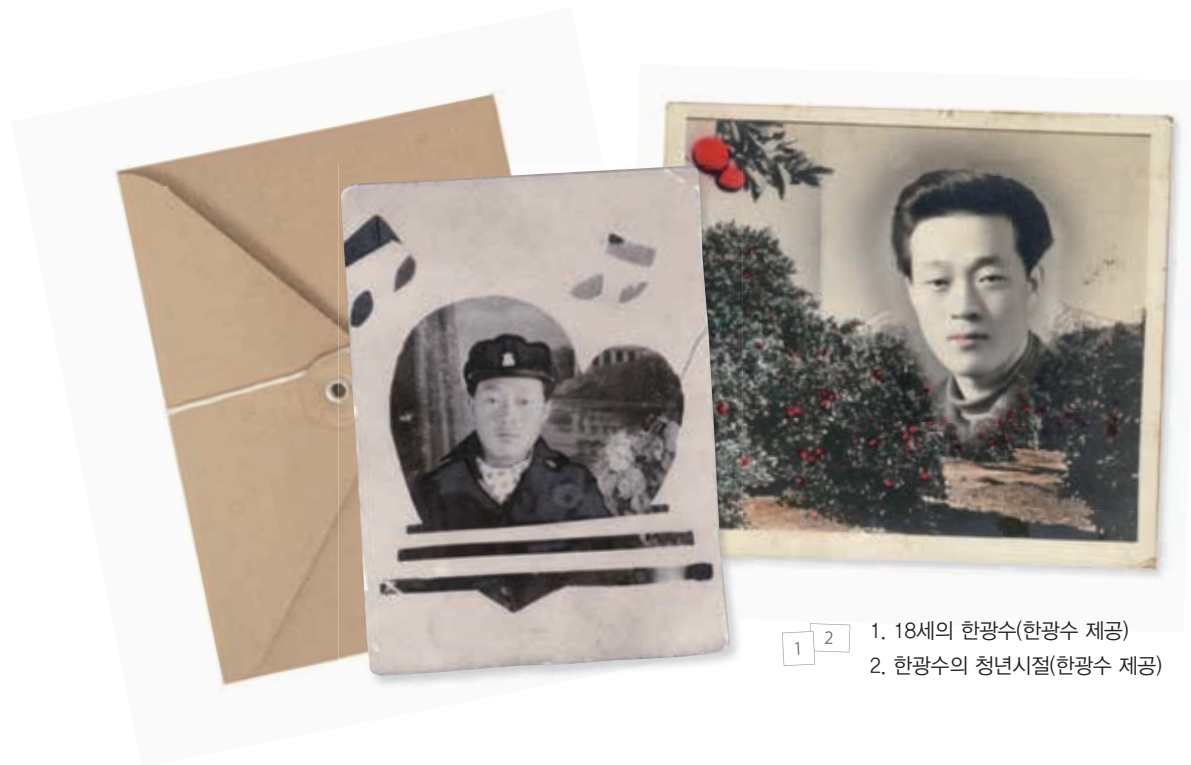
한광수가 20살 때 큰고모가 수원 부잣집 임씨네로 시집을 갔다. 고모가 수원으로 가면서 한광수의 가족도 용인에서의 집과 땅을 정리하고 수원에서 가까운 화성군 태안면 신리의 벌터로 이사를 했다. 이사는 했지만 고모네 신세를 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때부터 다시 벌터에 땅과 집을 마련하여 터를 잡았다. 한광수는 평밭이라 병역이 면제 되어 군대를 가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다.

한창 젊은 청년 시절인 20대 중반, 한광수는 폐병을 앓았다. 도립병원에 찾아갔지만 의사가 가망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한광수는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몸을 돌보았다. 일단 피우던 담배를 끊고 약국에서 지은 처방약을 먹었다

이재윤  
전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류현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





1. 18세의 한광수(한광수 제공)  
2. 한광수의 청년시절(한광수 제공)

고 한다. 몸에는 직접 주사를 놓아 가며 치료를 하였다. 아픈 몸을 스스로 보살핀 결과 1년 뒤 가까스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 병이 다 나은 후 지금의 부인을 만났다고 한다. 그래서 약간 늦은 나이인 27살에 결혼했고, 슬하에 4남매를 두었다.

농사는 한광수에게 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농사만으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동네 정미소에서 발동기 기술자로도 일했다. 한광수는 다른 곳에서도 일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따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원에서 자동차 학원을 다니고 인천에서 면허를 땀다. 자동차 학원에서 면허 시험도 준비하였지만 또 다른 수확이 있었는데, 바로 세상 공부였다. 자동차 학원에 비치되어 있던 책을 틈틈이 읽으며 정치와 경제에 관해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광수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초등학교 이후 진학하지 못했지만 이때 책을 읽고 독학해서 배운 것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에서 리더가 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1960년대 말 신리에 삼성이 들어올 때 삼성전자유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삼성전자유치위원회 회원은 약 20명이었는데 신리와 매탄리, 원천리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한광수도 여기에 참여하였다. 삼성전자 유치가 확정되면서 삼성이 땅을 매입했는데 평당 380원 정도로 당시 시세보다 2배 이상의 값을 쳐주었다고 한다. 이때 땅을 판 사람들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광수는 12마지기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10마지기

를 삼성에 팔았고, 땅 판 돈으로 건물을 사서 방을 임대했다. 나머지 2마지기에서는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다.

한광수는 셋방 17개를 두고 관리했다. 한광수네 셋방에는 근처에서 일하는 삼성 사람들이 주로 세입자로 들어왔다. 주변에 워낙 방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줄 방이 부족할 정도였다. 세입자들이 대체로 번듯한 직장인이라 방세가 밀리거나 못 내는 사람은 없었다. 셋방에 살지만 각자 바빠서 큰 교류는 딱히 없었지만 지금까지도 종종 연락이 오거나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셋방 건물의 1층에서는 한광수 부부가 구멍가게를 운영했다.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있을 건 다 있었던 가게였다. 지금의 슈퍼마켓처럼 주로 생필품을 판매했다고 한다. 하루에 80~100원을 벌 만큼 성황리에 운영되었다. 한광수가 바빠지면서 그의 부인이 농사일과 가게일, 육아까지 하며 그가 사회활동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한다.

##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벌터 논 의 모내기  
(1980년, 한광수 제공)





## 2. 이장 한광수의 마을활동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농사로 보낸 한광수는 청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마을활동에 뛰어들었다. 한광수는 1974년에 4H에 가입하면서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한광수가 소속되었던 평촌 4H구락부는 약 20명의 회원이 있었다. 별타를 평촌이라고도 했기 때문에 평촌구락부라고 하였다. 4H 회원들끼리는 서로 농사일과 집안일을 돕기도 하고 불우이웃돕기와 같은 봉사활동도 하였다. 다들 나이도 비슷하고 사이가 좋아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친목회 같은 분위기였다고 한다. 4H 활동을 하면서 젊고 일 잘하는 청년으로 입소문이 난 한광수는 1977년 3월에 신2리 이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광수가 막 이장이 되었을 때 신리의 주민들은 대체로 형편이 좋지 않았다. 끼니를 잇기 어려울 만큼 가난으로 힘든 집들도 있었다.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컸던 한광수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랄 아이들을 걱정하였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개관하면서 그곳에 마을문고를 세우고자 하였다. 마을문고를 준비할 당시에는 잡지 20권이 전부였다. 그는 먼저 간부 회원들을 중심으로 도서 수집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때까지도 주민들은 먹고살 걱정이 우선인지라 마을문고에 관하여 관심도 없었다고 한다.



신2리 경로당과 어린이도서관 개관(1980년, 한광수 제공)



신2리 이장 시절(한광수 제공)



신2리 마을회관 준공식 때 삼성전자 사장에게 감사패 전달하는 한광수(1978년, 한광수 제공)





평촌유치원 졸업식(1980년, 한광수 제공)  
원생들이 앉아 있는 의자는 신리에 들어온 송원산업(주)에서 기증한 것이다.



평촌마을문고에서 책을 빌려가는 아이들(한광수 제공)



수원검찰청 소년선도위원  
수첩(한광수 제공)  
한광수는 소년선도위원과  
보호관찰관 활동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광수는 굴하지 않고 마을에 있는 집을 한 집 한 집 방문하여 주민들을 설득하여 책을 모았고, 사비까지 털어 600권의 책을 마련하였다. 책을 갖추면서 마을 사람들이 책을 빌렸다 반납할 수 있는 도서 대출 시스템까지 도입하였다. 주민들이 다 같이 책을 읽기 시작하니 생활에 필요한 질서도 세우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문고를 만들고 약 1년 후에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을회관 건물을 세웠고 건물 2층에 본격적으로 도서관을 조성하였다. 잡지 20권으로 시작했던 마을문고는 3년 만에 2,000권이 넘는 도서가 갖추졌다. 평촌새마을문고는 1981년 제1회 경기도 새마을금고 경진대회에서 문고 운영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하였고, 독후감 부문에서는 은상을 수상하였다. 평촌마을문고는 『새마을』 1982년 1월호에 우수 새마을문고로 소개되기도 했다.

벌터 주민들은 마을회관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작업에 참여하였고 인근의 사업체들도 성금 모금에 동참하였다. 1978년 10월에 40평 2층 건물이 준공되었다. 마을회관 2층에는 마을도서관이 자리잡았고, 1층에서는 공동 구판장, 협동유아원, 방송실, 경로당, 행정 민원 상담실 등을 운영하였다.

어린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컸던 한광수는 유아원 설립도 함께 준비하였다. 1970년대 벌터에는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벌터의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려면 수원까지 나가야 했는데, 너무 멀어 다니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한광수는 화성군청을 찾아 벌터에 유아원 설립을 건의하였다. 한광수의 건의를 받아들인 화성군청의 지원 아래, 1979년에 평촌유아원이 설립되었다. 매년 약 40명의 아이들과 야유회를 가고 생일잔



치를 했던 기억은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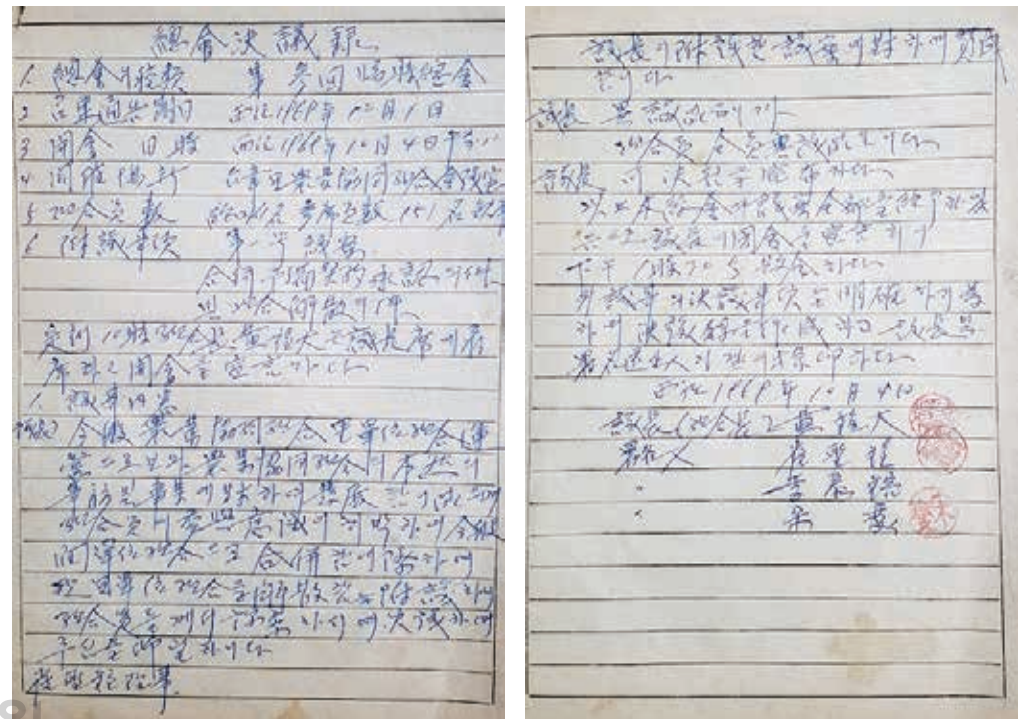
한광수는 유아원 설립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수원경찰서의 명예 경찰관을 맡았다. 수원 경찰서의 명예 경찰관이지만 화성군에서도 두 명을 뽑았는데, 여러 번의 신원조회를 거쳐 두 명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그는 수원지방경찰청에서 36명을 선발한 소년선도위원, 법무부에서 50명을 선발한 보호관찰관 활동을 10년 넘게 이어갔다. 소년선도위원과 보호관찰관으로 임명되면 6개월 정도의 경형을 받은 범죄자들을 보호관찰하며 교화시키는 일을 해야 했다. 한광수는 범죄자를 선도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고, 나중에는 보호위원 화성지역협의회 회장까지 맡았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에게 가장 큰 보람을 남긴 활동이라고 한다.

### 3. 50년 전통의 태안농업협동조합과 망포분소

태안농협은 1969년에 화성군 태안면 지역의 11개 이동조합이 합병되면서 설립된 조직이다. 태안농협의 원로 조합원 박만원의 증언에 따르면, 1955년 8월 미국의 존슨 박사가 내한하여 농촌 실정과 농협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간 곳이 바로 태안농협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화산리농협이라고 한다.

1957~1962년 태장면 소재 각 리별로 이동조합 설립이 마무리되고 지역 농민들을 위한 농업협동조합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농협중앙회는 시·군 조합에서 취급하던 영농자금 공급업무와 정책구판사업 및 공제업무 등을 모두 단위조합에 모두 이관하는 내용을 결정하였는데, 이에 1964년부터 이동조합을 대단위 조합으로 합병되어 갔고, 태안 지역 조합원들은 태안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창립발기회를 갖는다. 태안면단위농업협동조합(가칭)의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태안면 지역의 영농인들에게 이익을 도모하는 정강을 만들어 배포하고 조합원에 참여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이때 발표된 정강정책은 다음과 같다.

- 태안면 도시근교농업을 태안면 지역농업의 특수한 산업으로 발전시킨다.
- 다수의 영농회를 조직하여 농업 안정화를 도모한다.
- 영농회와 작목반조직을 활성화하여 농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다.
- 태안면 지역이동조합을 도시근교 농업부문의 전문농업협동조합으로 육성한다.
-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협동체를 목적으로 하였다.



태장리농협 해산결의 총회의사록

그리고 이러한 정강정책에 의한 마을별 이동조합을 태안면 단위조합으로 합병하고자 지역의 각 이동조합은 해산을 위한 임시총회를 1969년 10월 4일 각 조합별로 해산과 합병에 관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동조합의 해산과 합병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태장리농협 황종대 조합장은 전체 조합원 261명 중 151명이 참석한 1969년 제3차 임시총회에서 합병 예비 계약 승인의 건 및 조합 해산의 건의 의안을 상정하고 참석 조합원에게 의사를 묻고 이를 표결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병점리조합은 전체 326명 중 280명이 참석한 1969년 제1회 임시총회에서 우호인 조합장은 제1호 의안(합병 예비 계약 승인의 건 및 조합해산의 건), 제2호 의안(신설 조합 설립위원 선임의 건), 제3호 의안(출자불입액의 건), 제4호 의안(결의록 서명인선출의 건)을 발의하고 제1호 의안은 이의 없이 전원 찬성으로 의결시켰으며 제2호 의안인 신설 조합 설립위원에 우호인, 조정행, 노명호, 엄기재, 임운택, 유형묵을 선임하였다.

각 이동조합은 이동조합의 해산과 태안리농협으로의 합병에 관한 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결의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결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서명 선출인과 같이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태안면의 이동조합시대의 막이 내려지고 태안면 대단위 농업협동





태안농업협동조합 설립과정

조합이 탄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69년 10월 4일 각 이동조합의 해산과 태안단위농협으로 합병에 관한 임시총회를 마친 상태에서 1969년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각 이동조합에서 선출된 총대의원들이 농협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의실에서 태안면 대단위 합병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의 안건으로 자기자금 조성의 건, 정관 승인에 관한 건, 임원 선출의 건이 상정되었다. 총회는 화성군농협 이재구 조합장의 진행으로 총회를 주관할 임시의장으로 화산리 박승용을 선출했고 합병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박승용 임시의장은 먼저 합병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이어서 단위조합(리협동조합) 정관 승인의 통과에 앞서 조합의 명칭을 태안리농업협동조합으로, 사무실 위치는 진안리와 병점리 양리 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조합의 구역은 태안면 관내 일원으로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사 14명을 구역별 전형위원으로 선출하여 구두로 호선하고 법정 이사 4명은 이사 중에서 선임할 것을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통과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총대의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5대 태안농협 조합장 취임식(한광수 제공)  
한광수는 태안농협 제4대 조합장 직무대행(1985.10.8.~1986.3.4.)을 역임하였다.

우호인이 감사 수는 3명으로 하고 북부, 남부에서 각 1명씩 호선할 것을 동의하자 총대의원 전홍용이 재청하고 전원이 찬성하여 통과되었다. 또한 분소장의 선출은 현 이장이 분소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소 단위 합병 조합에서는 자체에서 분소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니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날 초대 조합장으로 선출된 박승용 조합장은 이어서 자기자금조성(자체자금) 방법과 양에 대한 의안을 상정하고 총대의원은 비료 구매 시 구매저축으로 한 포당 50원씩 저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어 전형위원 14명이 이사, 감사를 아래와 같이 호선 선출하였다. 법정이사에는 이종범, 이은성, 우호인, 황종대를 선출하고 운영이사에는 박종득, 전홍용, 박수형, 김종경, 임종선, 이갑수, 이종문, 박길양, 박상진, 이복남(계 10명)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법정감사에 엄익동, 백태흠을 자체감사에 김학철을 선출하였다.

한편 한광수는 태안농협 제4대 조합장 직무대행(1985년 10월 8일~1986년 3월 4일)을 수행했는데, 이때 태안농협 망포분소 설립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광수가 조합장 직무대행 당시 파출업무로 운용해 오던 망포출장소가 출장소의 성격을 벗어나 망포분소로 변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 이때 망포분소의 업무용 토지로 사용될 토지를 매입





태안농협 망포지소(태안농협 제공)  
한광수는 태안농협 조합장 직무대행 당시 망포지소 부지를 매입하였다.

하기 위해 애를 먹다가 1985년 11월 6,700만 원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다. 정말 애가 타는 시간이었다.

망포지소의 매입 토지는 한광수 후배의 소유였다. 당시 후배를 찾아가 우리 농협이 꼭 그 토지를 사야 한다는 설득과 협조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 당시 시가보다 토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었다. 또한 망포분소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신축과 관련되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까지 쓰면서 업무에 임하였다. 또한 1980년대 농협 최고의 업무는 공판이었다. 당시 화산비료창고(병점)에서 10월 10일 공판을 해야 하는데 바닥이 우천으로 수렁으로 변해 공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급하게 잡석을 사다가 수렁을 메워 공사를 실시하고 공판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조합장 직무대행을 순조롭게 마치며, 농협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 후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며 농협 일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마음을 쓰게 되었던 것이다. 망포분소 신축 시 농협의 명예 감독관으로 활동하며 무사히 준공을 맞게 되었다.

망포분소와 비료창고의 신축은 그동안 북부지역 비료창고가 폐쇄되어 북부지역 조합원들의 불편이 많아 신축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그 지역이 수원시 공업지역으로 앞으로 발전

여지가 많으므로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신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북부지역 분소 토지를 6,750만 원을 들여 분소 및 창고대지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바로 망포분소 신축 이전을 위해 1986년 9월 12일 착공식을 가졌다. 건축예정 규모는 망포분소 건물은 지하와 1층으로 각 67평이며 위치는 신2리 498번지였다. 이후 북부지역(망포리) 분소 설치에 분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감안해서 다음과 같이 변경 추진되었다.

망포분소 고정 자산 취득에 관하여 변경사유를 보면, 분소 매립대지가 농지였기 때문에 사무실을 신축할 경우 지반이 문제가 되었다. 당초계획은 지하실 12평만 계획하였으나 1층 평수인 67평만큼 전부 지하 건축해야 지반에 문제가 없게 됨으로 이러한 방안으로 건축을 해야만 되었다. 그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하려면수원시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상 도로위치가 분소대지와 차이가 있어 반지하실이 되므로 이러한 제반문제를 적절하게 조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유는 종합시설 신축에 따른 타 금융기관과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대 농민 편의시설에 역점을 두어야 함은 물론 신축건물에는 현대식 감각을 감안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부분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수용한 조합은 1987년 2월 14일 건평 134평의 망포분소를 개소하였다. 이 역시 조합이 조합원의 편리를 위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일이었다.

망포분소는 신축된 이후 예금업무를 위주로 취급해 왔으나, 1988년 1월 1일부터 상호금융대출, 정책자금대출, 자체구매사업, 계통구매사업, 위촉구매비료, 위촉구매농약, 공제업무 등 거의 모든 업무를 취급하면서 신용업무에서 경제사업까지 취급하는 규모로 업무를 확장 운영하였다. 또한 송금 및 환 취급도 가능하게 되어 분소 관할지역인 신리, 망포리, 영통리 지역의 조합원들은 분소에서 농협의 거의 모든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태안농협 50년사』, 2019, 192~202쪽; 233~236쪽 참조])

#### 4.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편리를 위해

신리와 망포리는 위치상 화성군과 수원시의 경계에 있었다. 한광수가 살던 신리의 행정구역은 화성군 태안읍에 속했다. 화성군청은 1970~1990년대 오산에 있었고 태안읍사무소는 진안에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정 업무를 보러 가는 길이 꽤나 멀었다. 심지어 버스를 타더라도 수원을 경유해서 가야 했다. 군청을 가려 해도 수원시청보다 멀었고 읍사무소를 가려고 해도 수원시 관할 동사무소보다 멀었다. 이처럼 신리와 망포리 사람들은 행정구



역만 화성군이지 생활권은 거의 수원인 경우가 많았다.

이장과 유아원장 이후에도 태안체육회장, 태장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평촌새마을금고 이사 등을 거치며 적극적인 마을활동을 하고 있던 한광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그는 반상회 때 태안읍을 수원시로 편입하는 것을 요청하자는 의견을 냈다. 한광수는 태안읍에 있는 다른 동네들도 다 수원시로 끌고 가고 싶었지만 신리와 망포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내키지 않아 했다고 한다. 아쉽지만 그는 이장들을 모아 수원시편입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신리와 망포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운동을 통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결과 1995년 신리와 망포리가 수원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올 들어 생활권이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기도 주민들의 행정구역 조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상공회의소는 화성군 태안읍 신리 등지에서 오산 시내에 있는 화성군청까지는 22km, 태안읍소재지까지 12km나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군청이나 읍사무소에 가려면 수원 시내를 경유, 버스를 갈아타야 해 시간 및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역의 150개 기업체들도 바로 이웃한 노동부 지방사무소, 세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시로의 편입을 호소하고 있다.〔『경향신문』, 1993년 5월 18일〕

신리와 망포리가 수원시에 편입된 것은 처음부터 중앙의 도시계획의 일환은 아니었다. 생활 속 불편함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원시 편입을 주장하게 만들었다. 수원시에 편입해도 외곽이긴 하지만 그래도 편입한 이후 더욱 편리해졌다고 한다. 게다가 수원이 화성보다 큰 도시이다 보니 땅값도 더 올랐다고 한다.

한광수가 이장이었던 시절에 마을문고를 세우면서 평촌새마을금고도 함께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반상회에서 의견을 모아 시작한 평촌새마을금고는 약 20년의 세월 동안 마을의 기둥이 되어 주었다. 그러다 2000년에 매원새마을금고와 합병하여 동수원새마을금고가 되었다. 동수원새마을금고는 당시 자산 327억 원에서 출발하여 2005년에는 자산 1000억 원을 달성할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동수원새마을금고 자체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합병 당시는 평촌새마을금고 사람들의 불만이 컸다고 한다. 매원새마을금고보다 평촌새마을금고의 규모가 작아서 매원 쪽으로 합병되었기 때문에 평촌 사람들에게는 거리상 새마을금고가 멀어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의 불멘소리가 한광수의 귀에도 들어왔다. 한광수는 동수원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전까지 대부분 화성군에서 일했고 고향도 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합병이 된 후 사람들의 반



평촌새마을금고 신축 이전 개소식(한광수 제공)

응이나 일처리 등이 여러모로 부담되었다고 한다. 그는 2012년에 동수원새마을금고 부이사장을 은퇴하면서 다사다난했던 사회생활을 마쳤다.

용인에서 태어나 화성에서 수원까지, 농사와 마을활동, 셋방 관리에 농협 조합원,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바쁘게 살아온 한광수는 은퇴 후에도 후임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기를 북돋는 원로가 되었다. ‘밥이 아니면 안 먹고 길이 아니면 안 간다’는 신념을 지키며 어디서든 적응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사람들을 이끌었던 한광수의 삶은 ‘열심(熱心)’ 그 자체였다.



# 망포동의 산업화와 도시개발

- 01 망포동의 산업화와 안성유리
- 02 망포동 최초의 공동주택, 망포연립과 청와아파트
- 03 망포동의 도시화와 도시개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4





## 01

# 망포동의 산업화와 안성유리

## 1. 망포동에 불어 온 산업화의 바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소위 ‘깡촌’이었다는 망포가 변화하기 시작한 건 매탄동에 들어선 삼성전자 때문이다. 1968년에 정책적으로 전자산업 육성계획이 있었고 막후에서는 삼성전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회의원 이병희의 노력과 행정에서의 공업지역 설정(건설부고시 제609호, 1969.10.15.)이 합쳐지면서 수원에 유치된다. 무엇보다 수원의 동쪽에 입지한 가장 큰 이유는 서울로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다. 강남이 개발되기 전이며 ‘마이카’도 없었던 1970년대 도로의 역할은 물류의 이동이었다. 당시 철도에 기댔던 물류수송을 염두해 두고 수원시 율전동과 입북동, 구운동에 공장 부지를 매입했던 삼성전자는 1968년 12월 21일 경부고속도로 1단계 구간인 서울-수원 개통식을 보고 철도가 아닌 자동차를 선택한다. 망포는 경부고속도로라는 거대한 흐름을 담은 축과 사람과 물류의 이동반경을 넓힐 자동차라는 근대의 발명품으로 인해 조용한 전원마을에서 도시로 나아갈 발자국을 떼게 된다.

강래선 예전에 마이카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꿈같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먹고살기도 힘들었을 때니까.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10년 안에 100억 달러 수출, 1,000달러 국민소득, 마이카 시대 달성을 말했을 때 망포리 소년의 귓가에는 마이카라는 마지막 단어가

김형아  
설날 대표







강렬하게 올랐다. 1969년 삼성전자가 매탄동에 들어왔다지만 보상을 받았던 옛 매탄리의 산드래미, 말통골 그리고 신리의 벌터 사람들이 지엽적으로 큰돈을 벌었을 뿐 1970년대 망포리 토박이들은 산업화되었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다. 여전히 일상은 농사를 지었고 시골에 불과했다.

수출 100억 달러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도권 위성도시의 내륙 공업화 추진은 1969년 6월 11일 건설부고시 제336호로 수원시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한 재정비계획을 확정한다. 용인군 수지면·기흥면·신갈지구, 화성군 태안면 일원을 공업지역 확장을 위한 수원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1973년에 그 반경이 가장 넓어지는데 망포리는 경계에 걸쳐 있고 우문리와 당암은 아슬아슬하게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1974년 서울-천안 간 국도변 연담화로 수도권 인구집중 벨트가 형성될 우려를 줄이고자 다시 도시계획구역을 축소 조정하는데, 현재의 망포동은 수원의 도시계획 구역에서 벗어나게 된다. 망포동은 수원시가 아니었고, 여러 시군의 외곽이 맞닿아 있는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아니고는 공업지역으로의 개발 확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삼성전기 텔레비전 생산 공장의 직원들(1971년, 수원박물관 제공)



1976년 삼성전자 진입로 모습  
(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삼성전기 텔레비전 생산 공장의 직원들(1971년, 수원박물관 제공)





공장과 주택이 혼재한 망포동 방죽머리(1988년, 차영란 제공)

수원, 용인, 화성이 만나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망포동은 행정구역이 최근까지도 움직인 복잡한 지역 중의 한 곳이다. 조선시대에 태춘면에 속했던 망포동은 1914년 수원군 태장면, 1949년 화성군 태장면, 1963년 화성군 태안면, 1985년 화성군 태안읍에 편제되었다가 1994~1995년 수원시로 편입된다.

망포동 토박이들의 정체성은 화성 혹은 수원이라기보다는 방죽머리에 있었던 태장면사무소와 태장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수원에서 오고가는 버스도 종점이 면사무소 근처에 있었고 ‘태장면 버스’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토박이들은 태안면으로 바뀐 행정구역 이름을 쓰지 않았고 ‘태장면 사람’이라고 말한다.

망포리 사람들이 산업화를 체감한 것은 방을 세놓는 것이었다. 시골 마을에 외지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단칸방을 이어 붙여 적게는 5가구부터 많게는 20가구에 이르기까지 세를 주는 부업을 할 수 있는 요량이 생겼다. 방죽머리는 삼성전관과 삼성코닝에 다니는 사람들이 방을 얻었고, 우문리는 안성유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를 얻었다. 당암은 마을에서 공장까지 거리가 먼 편이어서 세를 주는 집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1979년 안성유리 공장이 세워졌다.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인 한창산업, 한국코아 외에 필



삼성전자 주변의 신동 벌터마을 풍경(2000년, 수원박물관 제공)  
여유 공간마다 셋방을 들어놓은 집들이 서로 지붕을 맞닿 정도로 뽀뽀하게 모여 있다.

립스, 송원산업, 덕성화학, 태평양화학 등의 공장들은 대부분 신동과 원천동에 있었고, 망포동은 방죽머리에 조그만 도장업체 몇 곳이 모여 있었을 뿐이었다. 망포동에서 규모가 큰 공장으로는 안성유리가 유일했다.

1970년대 서울의 급속한 도시화가 초래한 과밀집을 분산하기 위한 서울 주변 수도권으로의 공장 이전 재배치 정책과 물류 이동에 유리한 전자산업의 만남이 위성도시 수원으로 삼성전자가 안착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 하지만 동수원에 산업단지가 조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은 대기업의 공장들이 정자동(선경합섬), 평동(선경직물, 금강스레트), 원천동(태평양화학), 화서동(연초제조창) 등에 분산되어 있었고 경수산업도로의 개통으로 산업도로 변인 조원동에도 한일합섬을 유치한다. 경인공업지대의 전선이면서도, 영등포·부평·부천·안양처럼 집중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몰려 있지 않고 대기업이 군데군데 입지한 형상이다.

1970~1980년대 망포동이 산업화의 특수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수원의 곳곳에



대기업과 소규모 기업들이 장안구와 팔달구에 입지했고 그 수는 월등히 높았다. 망포동의 변신은 인계동이 동수원 개발로 그 모습이 변화하기 전까지 산업화의 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

물론 삼성전자가 근접한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농사 외에 공장 취업자를 대상으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월세 소득을 올리는 등 다른 경제적 선택지가 생겨 생활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자연적인 도시화가 이루어질 만큼의 인구증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농지가 대부분인 마을은 공장에 취업하는 인원을 수용할 주택 증가가 없었으며, 공장 취업자들은 이미 생활 인프라가 갖추어진 수원 시내 가까이에 방을 얻어 매교다리에 정차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편을 택한다. 오히려 수원의 제조업체들이 사양산업으로 문을 닫거나 1990년대 중반에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공업지구로 남아 있는 망포동 주변지역이 상대적으로 산업도시라는 인상을 준다. 물론 삼성전자 주변으로 굴뚝 없는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공업지구로 남아 있다는 말이 무색하게 삼성의 생산 공장은 용인, 화성, 천안 등으로 이전하고 협력업체들과 소규모 공장들도 지방으로 이전했다. 우리가 상상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는 아파트 너머 보이는 몇몇 개의 공장들로 그 흔적만 알아볼 수 있다. 오히려 망포동의 도시화는 영통 개발이 이루어진 이후에 주택 보급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다.

## 2. 망포에 들어온 유리공장

**조사자** 우문리 옆으로 지나다니는 그 길이지?

**강래선** 그거는 대로고 노선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소로길이 30센치여. 옆으로 비껴서 계획선이 나서 새로 뚫린 길이고 완전 S자로 돼가지고 반월리부터. 세홍아파트 그 전이며. 예전에 고구마하고 수박 같은 걸 수확하잖아요. 반월리나 우문리 사람들이 차가 못 들어가. 화물차가. 차도 없고. 그래서 옛날 태장초등학교 거기들 마차가 싣고 온 거야. 거기다 놓고 큰 트럭이 오면 거기서 싣고 온 거야. 태장초등학교(현 명동중학교) 거기 옆에 쌀아 놓고 그건 거야. 면사무소 옆에 공터들 거기다 싸놓고 화물차가 와서 싣고 갔어요. 그전에 대한통운 만한 거 그건 큰 차가 있대니까. 6·25 때 쓰던 거.

6·25전쟁 때 쓰던 트럭이라는 말에 “GMC 같은 거요?”라는 조사자의 되물음에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이때가 1970년대 망포동의 풍경이다. 하나밖에 없는 비포장길에 우마차가 지나다녔고 망포리와 반월리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서만 학교도 가고 면사무소

도 이용했으며 삼성전자에 취업한 사람들도 이 길로 다녔을 것이다. 그리고 이 조그만 길 옆으로 1979년 안성유리가 들어온다(1978년 11월 착공). 자연 농지 위에 세운 안성유리는 종근당 계열사로 300명 정도 노동자가 근무하는 공장이며, 당시를 기준으로 1976년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여 300명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보는데, 인근에서 제법 눈에 띄는 큰 규모이다. 약병 및 농약병을 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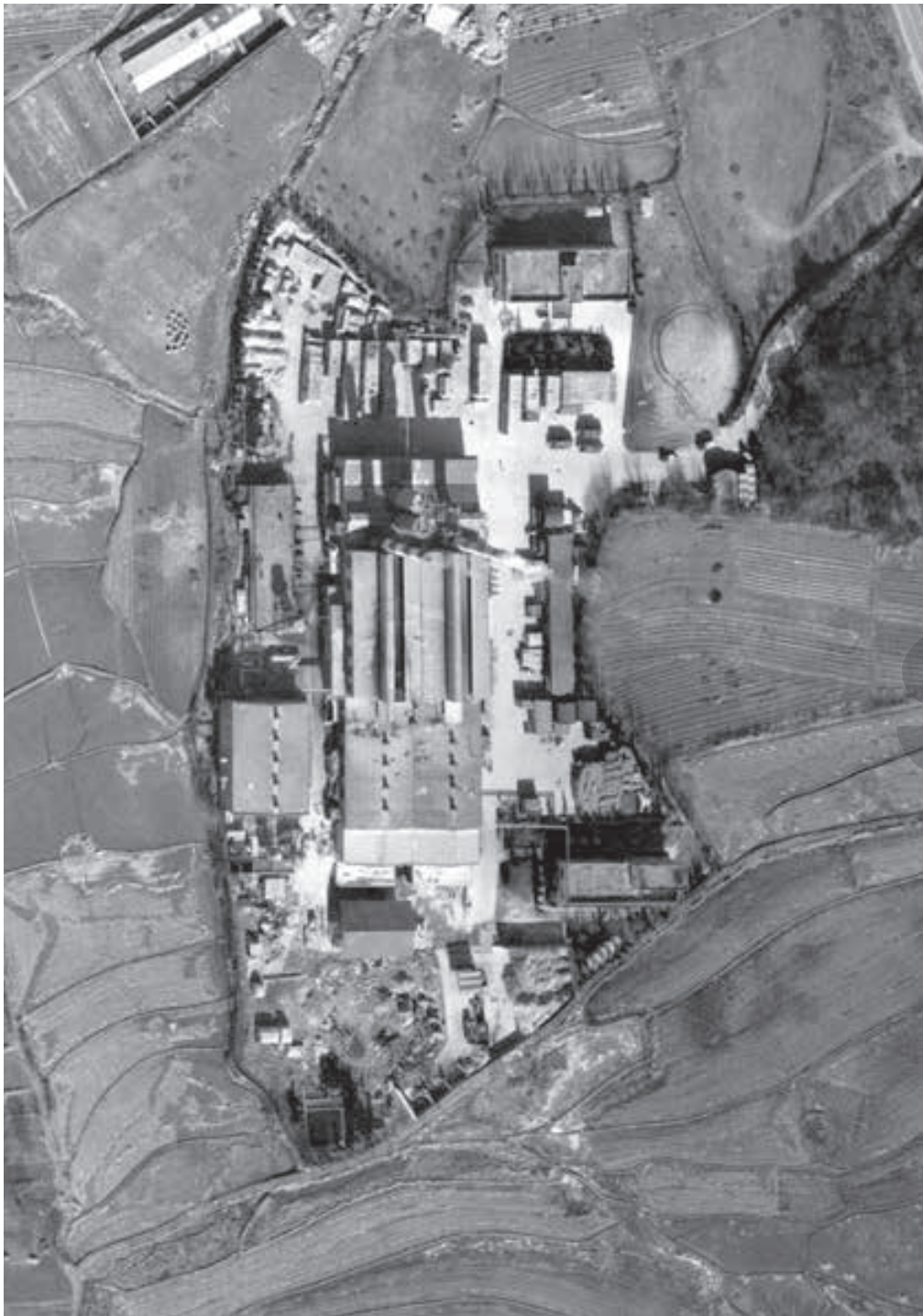
안성유리는 유리병의 수요가 올라가면서 구로에 있던 공장 외에 수원에도 새로운 공장을 준공한다. 1980년대는 음료시장의 다변화와 함께 그 섭취량은 놀랄 만큼 늘어난다. 청량음료는 1970년대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섭취량이 15배가량 늘어났다. 음료뿐만 아니라 주류, 드링크제까지 경제성장률과 비례해 비약적인 판매성장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장시간의 노동으로 피로회복 드링크제가 불티나게 팔린다. 1982년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 12분이었고, 봉제업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평균근로시간은 10시간 36분이었다. 또한 1982년 야간통행금지 해제로 24시간 노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소득증대를 위한 심야노동, 학생들의 자기계발 그리고 회사의 이윤을 위한 철야근무까지 밤을 새우는 사회로 움직였다. 1980년대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 순위에서 따르면 1~10위에 피로회복 드링크제 6종이 이름을 올렸고, 피로회복제가 매출 1, 2, 3위를 차지했다. 이중 안성유리가 제조했던 동아제약의 박카스는 의약품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제품이기도 하다. 유리병의 급격한 수요증가로 안성유리는 1982년에 수원 2공장을 증설한다. 역설적이게도 피로회복제 약병을 공급하는 안성유리는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는 제조업의 특성상 쉬는 날이 없고 3교대 근무로 철야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안성유리는 병 수요가 많았던 시기를 지나 1985년 공병보충금 반환제도 실시로 수요가



안성유리 수원공장 건설 관련 기사  
(『매일경제신문』, 1979년 5월 26일)





안성유리공업주식회사 공장 배치(1990년, 수원시청 항공사진 서비스 제공)



1980년대 안성유리 수원공장(종근당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떨어지면서 구로공장을 폐쇄하기도 하고 수원공장의 제조 라인 하나를 멈추기도 한다. 만성 공급부족으로 다시 유리병 공장을 증설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부침을 겪으면서 1990년에 천안으로 이전하기까지 망포동 사람들에게 또는 망포동에 터를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곳이었다.

안성유리가 들어오자 가장 가까운 마을인 망포3리의 우문리 마을에도 외지인이 들어왔다. “이놈의 동네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시골이었다는 외지인과, “취직하려고 시골에서 온 거지. 도시 놈들인가.”라는 토박이들의 대치는 조용했던 마을을 시끌벅적하게 깨웠다. 인터뷰한 외지인들은 모두 지방 출신으로 서울을 거쳐 수원에 오게 됐다. 공장 말고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던 터라 땅을 사서 집을 짓거나 우문리에서 사글세방을 얻어 생활하다가 인근 연립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우문리 사람들은 농사를 짓던 사람들로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입지적 여건 덕분에 전통적인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다. 기존의 세계를 유지하려는 토박이와 새롭게 진입하려는 이방인 간에 마찰이 있기 마련이고 익명성을 갖출 정도로 인구 유입이 압도적이지 않으니 몇몇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영수** 안성유리가 들어오면서 노가다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사랑방 같은 거를 얻어다가 앉으면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헌데 해다 보니까 아주 문란한 거야.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순찰을 돌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네들 앞에서 닭배 피고 술 먹고 떠들고 그래서 밤에 제재를 해줬어요. 그래서 트러블도 많이 생겼어요. 막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많이 잡아봤는데도 안 되더라고. 손해도 많이 봤어요. 참 변화하는 게 보면 발전되는 건 좋지만 시골의 송고한 예법을 잊어버리고 안 되니까 아쉽더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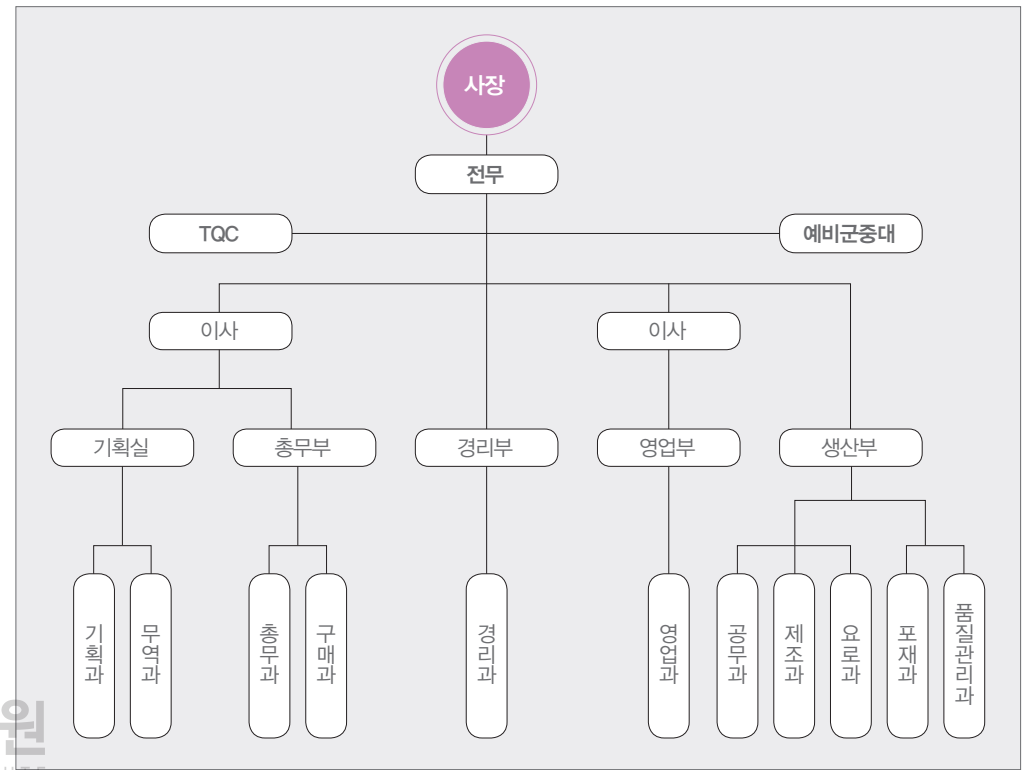
공동체의 윤리가 퇴색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으로 드러났고, 한편에서는 길을 막고 텃세를 부리는 통에 힘들었다고 말한다.

**박홍근** 80년대 이쪽에 오니까 우리 포랜데. 어찌나 텃세를 부리는지. 말도 못했어요. 어찌나 텃세를 부리는지. 껌쩍거리고 시비 걸고.

옛날 일이니 모두 웃으면서 추억으로 넘겼지만 망포동의 전통적 공동체가 조금씩 와해되기 시작하는 과정은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로 이어지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서울을 거쳐 수원으로 내려온 이방인들은 서울과의 거리만큼 산업화의 시차를 느꼈을 것이다.

최영수는 1952년생으로 망포3리 토박이로, 1984년부터 안성유리에서 일을 했다. 10마지기 정도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안성유리 일과 병행했다. 병 운반 업무를 맡아서 영업용 화물차를 몰았으며 개인사업자 신분이었다고 한다.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이 없을 때는 다른 공장의 일을 하기도 했지만 주로 안성유리 병 운반을 했고 한 달에 20일 정도 일을 하러 나갔다. 1984년부터 1990년까지 친구와 함께 영업용 트럭 2대로 꾸준히 안성유리의 일을 했다. 안성유리 소유의 트럭 5대 외에 상시 투입이 가능한 외부 트럭은 망포 사람들이 운영한 것으로 농사 외에 돈을 벌 수 있는 소득원이 새롭게 창출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장일 외에 부업으로 방을 세놓으면서 생활의 질이 나아졌다고 한다.

기실 농사만으로 가계비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웠다. 농가경제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이 중 곡가제 시행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농촌의 실질소득이 올라가고 배고픔을 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농촌의 인구 유출이 심화된 상태였다. 그리고 이마저도 1980년대에 들어서면 다시 농가 평균소득은 떨어진다. 땅의 크기가 2ha를 넘어서지 못하면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대농이 아니라면 농외소득이 필요했다. 다행이 공장에 인접한 지역이 고향인 사람들은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었고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최



1980년대 안성유리 조직도

영수는 직무의 특성상 컨베이어벨트에 묶여 있지 않아서 약간의 시간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었다. 이에 반해 공장이 없는 지역 출신 청년들은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달려들어 갔다. 그리고 1970년대에 서울이 과밀화되면서 기존에 있던 공장들이 서울 인근 위성도시로 이전하게 되고 수원은 위성도시의 역할을 수행했다.

### 3. 안성유리 산업 현장

박홍근은 1947년생으로 전남 여수 출신이며 안성유리에 스카우트되면서 1979년 말에 수원으로 온다. 서울 영등포에 있었던 현대유리에서 7~8년을 일한 경력자로 생산 관리직 주임을 맡았다. 이장호는 1943년생으로 경남 김해 출신이며 구로에 있는 종근당 계열사에서 일하던 중 수원 안성유리에 지원해서 오게 된다. 이장호도 생산 관리직이며 대리를 맡았다. 두 사람 모두 안성유리가 수원에서 첫 가동할 때 함께 했던 직원들이다. 생산 관리



업무는 기계가 멈추지 않고 24시간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생산직 직원들의 자리가 비워지지 않게 관리하고 근무일지를 쓰는 역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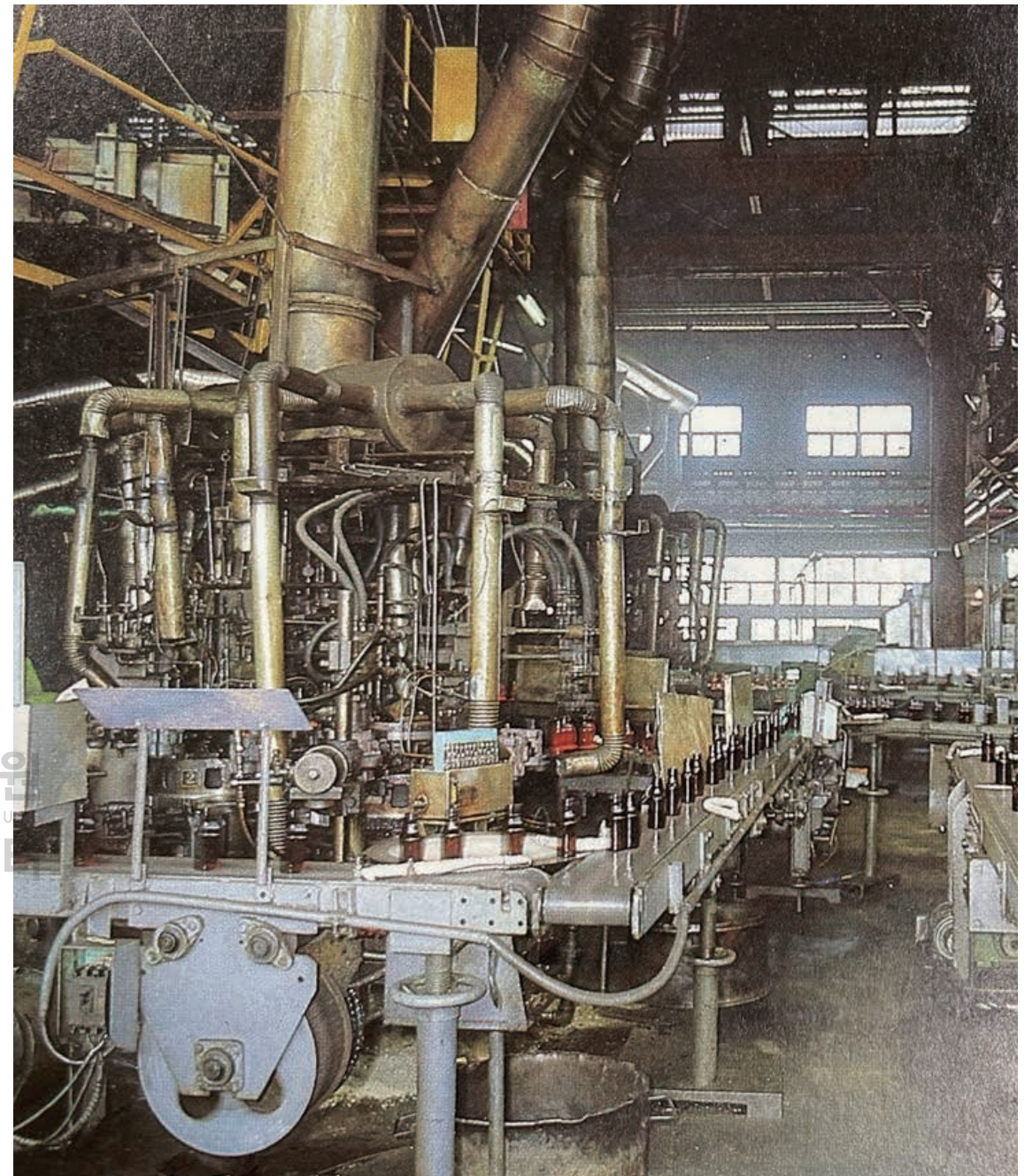
3교대로 돌아가는 특성상 3개의 반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 반마다 대리과 주임이 있다. 이들의 역할은 기계와 같은 리듬을 쉼 없이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리과 주임은 생산직과 똑같이 3교대 출근을 했고 생산 팀에서 직급이 가장 높은 과장 한 명만 주간근무를 할 수 있었다. 한 반의 최종 생산책임을 졌던 이장호는 “하루 생산량 숫자가 딱 나와 있었다.”고 하며 부품을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1인당 할당량 같은 건 없었다고 말했다. 기계가 고장만 나지 않으면 늘 비슷한 생산량을 찍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박홍근은 제품의 특성상 일의 공정에 따라 성별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박홍근** 생산하게 되면 기계가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저 위에서 1,600도 1,700도에서 유리병이 가위로 착착착착 잘라져서 떨어지니까 여자라도 건강해도 할 수가 없어요. 검사과에만 여자가 있었죠.

연마와 냉각의 과정을 거치는 공정 자체가 힘이 드는지라 남자가 생산을 맡고 여자는 불량품을 걸러내는 검사과에서만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포장과 차에 싣는 운반 또한 남자가 맡았다. 생산부서와 제품 포장은 병의 무게를 감당할 완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비는 남자들이 더 많은 구조이다. 컨베이어벨트 앞에서 하는 직무는 숙련도가 필요해 외지인이 맡았다고 하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포장과는 인근에 사는 토박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꾸준히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매여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숙련도가 필요 없는 일을 부업처럼 하며 자유롭게 들고 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기업 간의 임금을 비교하기 위해 잔업 또는 철야와 주말 특근을 물어보자 의외의 답변이 왔다. 잔업의 개념이, 다음 교대로 올 사람이 안 왔을 때 그 시간을 채워 주는 것인지 따로 더 일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라인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면 병의 생산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일 비슷한 수량을 생산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가 고장나지 않게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사람 또한 기계가 되어 돌아가야 한다. 전자산업이나 봉제업은 더 많은 수량을 만들 수 있는 조건 때문에 평균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임금체제로, 기본급을 낮게 잡고 잔업수당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컨베이어벨트와 똑같은 시간 간격을 보내야 되는 안성유리는 교대자의 부재로 인한 잔업이 아니라면 매일매일 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하면 됐다. 따라서 쉬는 날은 없었다. 쉬는 날이



안성유리 생산시설(종근당, 『종근당 50년사』, 1992)

필요하다면 미리 월차를 내는데 공식적인 월차라기보다는 미리 공장에 양해를 구하고 쉬는 것에 가까웠다. 주말에 근무할 사람은 따로 뽑지 않았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정해진 생산량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할 뿐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과 이장호는 생산직 노동자의 이직률은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다. 노동자들





안성유리 노동자(종근당, 『종근당 50년사』, 1992)

에게 공장에서의 고단함은 대동소이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의 공장이 있다면 이직한 사례가 많았다. 1980년 제조업의 월 이직률은 5.6%로, 한국과 가장 비슷한 대만의 3.6%보다도 높았다. 한국은 철야근무와 주말 특근이 당연시되면서 피로회복제와 각성제가 일상화됐지만 그에 반해 낮은 임금을 받았다. 또한 공장이 몰려 있다는 요인이 노동자 간 정보를 얻기 더 유용했을 것이다. 안성유리는 노동 강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지 않았다는 질문에 각각 다르게 답한다.

평균적인 근속기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생산직 직원들은 자주 바뀌었다. 이에 반해 다른 관리자는 이직률이 높지 않다고 회상했다.

그때 시절에는 대우 따지고 땀깡 부리고 할 시국이 아니었어. 직장이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직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만 있으면 이전 춘 시골까지 와서 구한 거야. 이전 시골에 문화적인 거나 그런 것이 뒤지고 있는데도 불과하고 직장이 있으니까 온 거야.

두 관리자는 이직률에 대해 다르게 기억했다. 한쪽은 사실을, 한쪽은 생각이 앞선 해석으로 어느 정도의 진실도 담겨 있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에는 단기근속 노동자의 비율이 높았다. 옮길 만한 곳이 많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았다기보다는, 주변 사람의 소개를 통해 더 나은 작업환경과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곳을 찾아다닌 것이다. 환경이 열악해도 늘 일할 사람은 있었고 노동자들은 더 좋은 회사를 찾았다.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는 3저 호황 이후의 일이다. 대기업의 생산직 노동자들의 이직률은 1980년대 중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에 반해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중소기업은 근속연수가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도 생산직의 이직률은 낮아지지 않는다. 미숙련 노동자의 부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의 청년층 유입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 미숙련에서 숙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교육이 존재하지 않았다. 안성유리의 경우도 이직률은 일정 수준을 유지했고 나이 든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망포동 토박이들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삼성전자에 입사했고 중소기업 생산직은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여성이 결혼하면 계속 회사를 다니기 힘들었던 데 반해, 안성유리는 결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 4. 1980년대 노동 현장의 변화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났던 1987년은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전두환 정권이 정치적 개방화 계획을 선언하자마자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3,000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8월 중순에는 하루에 100건 이상의 노동쟁의가 일어날 정도였다.

전국의 사업장에 순식간에 번진 노사분규는 수원의 사업장에서도 일어난다. 망포동 부근의 산업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무노조 원칙의 강경함과 전자산업의 특징이 노동쟁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대기업 협력업체에 노동쟁의를 일으켜 삼성전자의 컨베이어벨트를 멈추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신동에 있는 한국코아에서 일어난 노동쟁의로 생산이 중단된 지 3일째 되던 날, 삼성전자와 금성사의 생산라인이 멈추게 된다. 한국코아의 재가동을 위해서 상공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중재하기까지 했다.

이에 반해 망포동에 있는 안성유리는 조용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비슷한 수량을 생산했고 노동자들도 큰 동요가 없었다. 안성유리에 노조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안성유리에도 1980년대 중반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유야무야되며 사라졌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그동안 국가의 산업화를 위한 희생은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맞서 기업들은 노동조합 결성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열악했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임금을 올리는 등 사원복지를 개선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다행히 경제호황이 이를 뒷받침했다. 안성유리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 함께 동참하기 전부터 무노조 원칙을 고수했다.

전부 현장에 있는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이니까 다 통하잖아. 남문에 사고출 추겨 가는 그룹, 홍익불림장, 수원역 앞에 있어. 불림 치려 가는 그룹, 소방서 앞에 행정고시학원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러 가는 그룹. 파트로 나뉘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개졌어. 성공을 못했어. 내가 그룹을 형성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일만 끝나면 거기에 도취가 돼 갖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장한 씨한테는 일 등 공신이야. 자기가 원하는 거 해 준 거야. 회사에서 지원도 해 준 거지. 난 불림도 애버리지 185 치고 행정고시학원에서 자격증도 따고 내가 정년퇴직하고 부동산 공인중개업을 했는데 20년째야. 사회적인





창립 제19주년 기념식(종근당, 『종근당 50년사』, 1992)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체 내에서 깨끗하게 정리됐지. 한 2~3년? 몇 년 안 됐어. 노동조합 위원장 하  
는 논문 퇴직자 모임에 나와. 원래 창립을 하게 되면 연맹에서 지원을 해 줘. 코치를 하는데 강성이 되  
기 전에 사라진 거야.

안성유리는 미래를 선취한 것처럼 단합을 위한 회식을 지원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지원으  
로 묘수를 낸다. 노조를 와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자기 계발부터 여가까지 직원들을 만족  
시킴으로써 1987년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또한 노동조합이 뭉치기 위해서는 장기간  
근속을 하면서 노동자 간의 동질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높은 이직률은 그 기반을 형성하기  
힘들다. 안성유리 노동조합은 2~3년 존속하고 사라진다.

대기업 주도의 1987년 체제를 바라본다면 노동자 계급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1980  
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노동자 안에서도 계급 분화가 많이 진행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  
업의 임금 차이뿐만 아니라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도 심했다. 정규직 중졸은 고졸의 1/3에  
불과했으며 고졸과 대졸의 임금 차는 2배 이상 높았다. 노동자들은 노동계급의 정체성보  
다는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가족의 누군가가 희  
생해서 학력을 높이고자 했다. 공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유 또한 노동자들은 못 배



안성유리 수원공장 전경(종근당, 『종근당 50년사』, 1992)

운 것에서 찾았다. 교육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남아 있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만이 개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1987년 체제 이후에 더욱더 벌어진다.

1987년 체제를 지나 대기업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황은 다르게 급변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3저 호황 전후의 심각한 생산 노동력 부족은 IMF를 맞이하기 전까지  
계속된다. 대기업은 기업정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평균 2~3%의 노동 부족률을  
유지한다. 이러한 노력이 노동조합운동의 단결력 강화로 이어지고 노동자 대투쟁의 기반  
이 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직률은 높고 노  
동자 대투쟁 이후의 대폭적인 노동조건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열악한 고용 노동 조건  
은 근속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기업별로 뭉칠 만한 기반에 있지 않다.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가면 그만이다.

안성유리 역시 1980년대를 지나 1991년대에 이르면 인력난이 심하다는 기사가 나온다.  
수원의 안성유리는 1980년대 건립된 반자동 시설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구인난의  
심화로 인해 화장품·약품 병 등의 소량 생상품목의 전문 생산 전환을 꾀한다. 또 다른 노력  
으로 종근당과 안성유리의 지분 투자로 종성유리라는 자동화된 시설을 지방에 따로 건립





안성유리가 인력난으로 인해 소량 생산품목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기사  
 (『매일경제신문』, 1991년 6월 10일)

함으로써 인력난을 타개한다. 안성유리는 망포동의 수원공장을 매각하고 1998년에 천안으로 이전하였다. 300명에 달했던 직원 수는 자동화 설비를 통해 120명으로 축소되었다.

## 5. 기회의 차이

약진의 1970년대를 지나 1980년대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빠른 계급 분화가 있었다. 특히 학력과 기술 습득에 따른 격차는 더 벌어진다.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1970년대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횡적 이동이 빈번했고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시기에 기술을 익혔거나 상급 학교를 진학한 사람들이 1980년대에 들어서서 관리직에

안착할 수 있었다. 물론 남성 노동자에 한한다. 1980년대가 되면 교육을 받은 새로운 세대가 진입하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한층 좁아진다. 그에 반해 여전히 기업들은 비숙련 노동자의 수요가 절실했고 농촌 가계소득이 도시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면서 많은 인력을 도시로 끌어들이었다. 그리고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노동시장은 이중화되었고 비숙련 생산직 노동자는 비슷한 업무를 전전하는 구조였다. 생산 관리자와 일반 생산직의 임금 격차는 2배에 이르고 일반 생산직에서 기술을 습득한 경력직의 이동은 힘들어진다.

안성유리의 생산 관리직이었던 박홍근은 유리 제조 경력을 쌓은 후 안성유리로 회사를 옮겼고 1980년 첫 월급이 25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포장과에서 근무했던 고희환은 1980년대 중반쯤에 받았던 월급이 6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다. 고희환은 박홍근과 달리 기억이 정확치 않다고 한 점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평균 액수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틀릴 수 있지만 제품 포장이라는 미숙련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적은 금액이라는 기억의 의미는 맞을 것이다.

고희환은 1948년생이며 강원도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과 성남을 거쳐 지인의 소개로 수원에 오게 된다. 한때 서울에서 재단 기술을 배워 보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었다. 가족과 함께 성남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고희환은 대형 타이어 공장에서도 일하고 일용직으로도 일하게 된다. 하지만 동생의 사업실패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고희환 부부는 수원으로 이주하였다. 별터에 사글세방을 얻은 후 기반을 잡기 위해 4~5년은 막노동을 하며 힘들게 돈을 벌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망포연립을 샀고 안성유리에 취직한다. 포장과에서 일한 고희환은 동료의 제안으로 노동조합 설립에 참여하게 된다. 그 당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특별하진 않아서 생산직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조합원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노조 설립을 하는 과정 중에 조합원끼리 갈등이 있었고 고희환은 3년 6개월 만에 그만둔다.

**고희환** 동네에 아는 사람 있어서 같이 갔지. 여기 나와 가지고 송원산업에 가니까 안 받아줘. 노조 했다고. 그대 가지고 태광전기 들어간 거지. 거기는 상관없다고.

신동에 있는 송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규모라면 방죽머리에 있던 태광전기는 직원 30명 가량이 있던 소기업이다. 노조 가입 이력이 문제되었다는 것은 근방의 중소기업 간 리스트 공유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술직 경력자가 아니었던 고희환은 태광전기에 잡부로 들어가지만 도금을 했던 직원의 퇴사로 도금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온정주의



적인 사장 덕분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태광전기는 전봇대에 필요한 금속 자재를 손 도금하는 회사였다. 당시 주변의 도금업체들은 전부 전기 도금을 했다고 한다. 1시간 씩 교대로 도금통 안에 쇳물을 넣고 직접 금속 자재를 아연 도금했다. 쇳물이 될까 봐 겁나게 뒤로 물러나기를 반복하는 꽤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다고 말한다. 고희환은 태광전기에서 12년 동안 일하고 55세에 정년퇴직하게 된다.

안성유리에 적을 두었던 4명의 노동자는 안성유리를 나온 후 각각 다른 길을 걸었다. 고희환은 태광전기에서 은퇴한 후 건설 노동자로 지방을 돌아다녔다. 박홍근은 안성유리에서 대리로 승진한 후 얼마 안 있어 천안의 다른 유리공장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1988년에 직장을 옮긴다. 은퇴 후에는 아파트 관리 일을 하고 있다. 이장호는 안성유리 수원공장이 이전할 때까지 남았으며 과장으로 56세에 은퇴한다. 회사를 다닐 때 따 놓았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20년째 중개사 일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영수는 1990년까지 안성유리 운반 일을 한 후 남문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했고 현재는 종친회 사무실에 있다.

1940~1950년대 초반에 출생한 이들 4명은 안성유리에서 맡았던 직무가 서로 달랐기에 기억하는 부분이 달랐다. 토박이나 외지인이냐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을 띤다. 물론 4명만으로 대표성을 말할 수는 없고 각기 가진 개인의 능력도 다를 것이다. 하지만 선택할 기회의 폭은 다르게 보인다. 토박이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안성유리가 지역에 들어온 덕분에 일자리가 생겼지만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임대업이라는 부업도 영위하며 굳이 임금 노동에 매달리지 않아도 됐다. 오히려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최영수는 임금 노동자 개념이 아닌 자영업자의 신분으로 안성유리에서 운송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소득의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고향을 떠나 낯선 타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임금 노동에 속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른 자영업으로의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다. 반대로 지방에서 올라온 외지인들은 임금 노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닫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리직이라고 해도 중소기업 관리자의 임금 상승은 한정되어 있고 직업의 이동이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1940년대생 노동자들에게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는 개념은 익숙하지 않고 힘들게 마련한 부동산이 노후를 지탱하고 있다.

이제 1980년대 산업화를 치열하게 일구었던 노동자들은 늙어 버렸고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다. 그들에게 망포동은 기회였고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한 토박이의 말대로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을 보여 주는 하나의 예시가 고스란히 녹아 있으며 그 성장의 과정에 그들이 있었다.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망포동의 도시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어떤 이는 변화의 과정이 반가울 것이고 어떤 이는 도시화에 섞이기보다는 소외를 느낄 수도 있다. 변해 가는 망포동에서 그들만이 치열했던 노동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기억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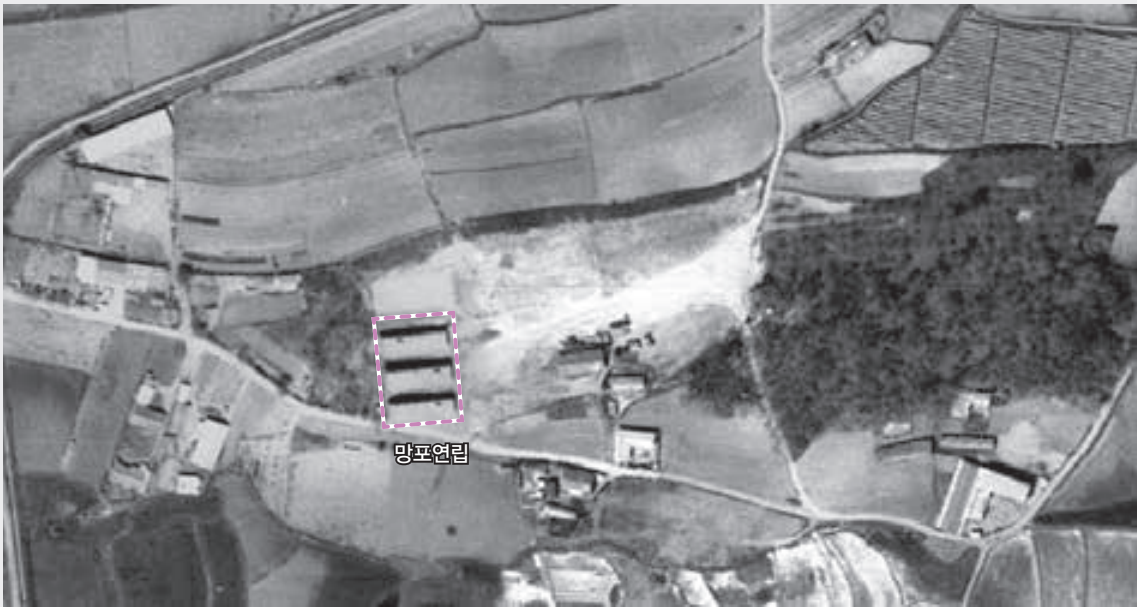


## 망포동 최초의 공동주택, 망포연립과 청와아파트

권선동 수원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시작된 고층 아파트 단지의 행렬은 덕영대로를 사이에 두고 망포역을 지나 경희대학교 인근까지 이어진다. 곡반정교를 지나는 덕영대로 왼편에는 카페거리로 이름을 알린 신동을 포함하여 상가 건물들도 띄엄띄엄 자리하고 있는 반면, 오른편은 길가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위시하여 그 안쪽까지 그야말로 아파트 단지가 숲을 이루고 있다. 힐스테이트영통, 망포역쌍용마을, 그대가프리미어, 망포마을현대아이파크 등 이들 브랜드 아파트들이 규모와 높이를 한껏 뽐내고 있는 아파트 숲 사이에 30여 년 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연립과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 이름하여 망포연립과 청와아파트이다.

1982년 준공된 망포연립은 망포동 최초의 공동주택으로 분양 당시에는 24세대였으나 가게로 사용하던 곳을 개조하여 살림집으로 사용하면서 현재는 25세대가 살고 있다. 청와아파트는 2000년대 이후부터 지어지고 있는 고층 아파트들에 비하며 아파트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아담한 5층짜리 4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인데,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1988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한 망포동 최초의 아파트로 현재 25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1987년 망포연립



1993년 청와아파트 옆에 들어선 세흥빌라와 세흥아파트

**SRI** 수원시정연구원  
S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90년 망포연립과 청와아파트



2004년 망포연립과 청와아파트에 주변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



## 1. 안성유리 사택 같았던 망포연립

인천 월미도에서 1948년에 태어난 고희환은 부모님을 따라 강원도, 경기도 등지에서 살다가 수원으로 이주해서는 평동, 화성군 태안읍 신리 신나무실·벌터 등으로 옮겨 다녔다. 그러다가 300만 원에 망포연립을 구입한 고희환은 35년째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고희환이 구입한 집은 자기 땅에 연립을 지어서 분양한 건축업자가 살던 곳이다. 건축업자가 망포동 사람이었다고 기억하는데, 기억이 확실한지는 모르겠다고 한다. 1982년에 준공된 망포연립은 초기에는 난방을 연탄으로 했다. 방 2개에 욕실과 주방 겸 거실, 베란다가 있는 구조였는데, 나중에 연탄아궁이가 있던 곳을 방으로 개조해서 방이 3개가 되었다.

망포연립의 초기 입주자는 거의 이사 나가고 없다. 고희환이 가장 오랫동안 살고 있는 초기 입주자이다. 총 3개 동으로 지어진 망포연립은 한 동에 8가구가 살도록 지어졌는데, 가동은 나중에 아홉 가구가 되었다. 지하에 가게가 있던 곳을 집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입주자들은 대부분 인근 안성유리에 근무하던 사람이었고 모두 외지인이었다. 그래서 망포연립은 안성유리 사택 같은 분위기였다.

고희환은 당시 안성유리에 생산직 직원이 1,000명 이상 근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1일 2교대로 근무했고, 12시간을 일하고 다시 잔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안성유리가 천안으로 이전할 때 따라서 이주한 근무자들도 있고, 일을 그만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당시 안성유리의 기본급은 5만~6만 원 선이었다. 개중에는 부인과 아이들을 망포연립에 남기고



1991년 세워진 세흥아파트

본인만 이사하거나 자동차로 출퇴근한 사람도 있었다.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도 있기는 했다. 하여튼 당시 망포연립 거주자들은 대부분 기혼자들이었다. 고희환도 안성유리에서 3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방죽머리 쪽에 있는 도금공장으로 이직해서 10여 년을 일했다.

청와아파트가 생기면서 망포연립에서 청와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도 좀 있었다. 초기 입주자들은 단합이 잘 되고 분위기가 좋았다. 요즘은 나이 든 사람들이 망포연립으로 많이 들어온다. 망포연립이나 청와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청와아파트가 들어오기 전까지 동네의 가게는 망포연립 지하에 있던 가게가 유일했고, 안성유리 근처에 가게가 하나 더 있었다. 방죽머리 쪽으로 가야 가게들이 좀 있었다. 인근의 동진·태성·청안빌라는 1990년대 초반에 순차적으로 준공되었고, 세흥아파트와 세흥빌라도 이들과 같은 시기에 건축되었는데 세흥빌라 터는 도로 부지이다.

청와아파트 입주 초기에 청와아파트, 세흥아파트, 망포연립 거주자들의 친목모임인 청세동우회가 조직되었는데, 당시 30명 정도가 가입했다. 망포연립과 청와아파트가 함께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현재는 8명 정도가 남아 있다. 초반에는 부부 동반으로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모였다. 그런데 부부 동반 여행을 다녀와서 서로 간의 오해가 생겨 이혼하는 일



세 동으로 이루어진 망포연립



이 있는 후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고희환이 망포연립에 이사 왔을 당시에는 연립 앞에 집이 한 채 있었고, 가까이 양계장과 젖소 농장이 있었을 뿐 그밖에는 건물이 없었다. 망포동이 화성시에 속해 있어서 행정업무를 보려면 병점에 있는 읍사무소를 이용했는데, 수원시로 편입되고 나니 동사무소가 가까워져서 좋았다. 망포연립은 입주한 지 40년이 되었어도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는데 2019년에 망포연립과 청와아파트 일대가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재건축사업 관련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래서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집을 내놓은 사람은 없다. 최근에 청와아파트 17평이 2억 원 선에서 거래되었다고 한다. 이전에는 1억 4,000만~1억 5,000만 원 선이었다.

## 2. 청와아파트에 산다는 자부심

차영란은 1985년에 결혼해서 매탄3동 구매탄주공아파트에서 4년 가까이 살다가 1988년 10월에 청와아파트에 입주했다. 차영란이 청와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은 12년. 2000년에 늘푸른벽산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했지만 지금도 청와아파트 시절 친했던 어르신들이며 선배님, 아들 친구의 엄마들과 연락하며 지낸다. 차영란은 슬하에 아들을 둘 두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좀 아팠다. 매탄동보다 더 공기 좋고 자연친화적인 곳을 찾아야 했다. 남편이 삼성전자 근처 공업사에서 일하고 있던 때라 망포리 쪽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 봤다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청와아파트 입주를 결정했다.

1988년에 준공된 청와아파트는 당시에는 화성군 태안읍 망포리에 속했다. 화성군에서 최초로 지은 시범아파트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고 지금도 짙다. 그때는 수원 시내에서 청와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망포리 버스 종점에서 동네 골목을 타고 내려와서는 논 사이에 난 길을 가로질러야 했다. 버스가 드물어서 돈이 들더라도 택시를 타는 게 훨씬 수월했다. 차영란은 남편 덕에 회사 차를 자주 타고 다녔지만, 입주 한참 후 까지도 포장 안 된 붉은 흙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정도로 청와아파트는 많이 외진 곳에 있었다. 청와아파트 앞쪽으로는 배 발이, 용인 서천리 쪽으로는 목장이 있었다. 근처에 양계장이 있어서 계란을 사다 먹기도 했다.

청와아파트 일대가 다 동산이라 좀 무섭기도 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소문이 났던 시절이라 더 그랬다. 살인범이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들을 노린다는 소문이 돌던 그



청와아파트 입주 무렵의 차영란과 아이들  
(1988년, 차영란 제공)

1990년대 초반 청와아파트의 겨울 풍경(차영란 제공)

때, 요즘에야 서점이 가까이 있고, 인터넷으로도 책을 사 줄 수 있지만 그전에는 아이들 책을 방문판매로 구입했는데, 책을 팔려고 문을 두드렸던 판매원들이 빨간색 옷을 입은 차영란을 보고 놀라기도 했다. 아무튼 그럴 정도로 입주 초창기 청와아파트는 불편하기도, 무섭기도 했던 곳이었다.

2000년 6월에 망포동에서 최초의 고층 아파트인 늘푸른벽산아파트가 생겼고, 2001년 12월에 LG1차아파트가, 다음으로 쌍용아파트가 2002년 4월에 들어섰다. 차영란은 처음 망포동에 왔을 때는 동네가 지금처럼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살기가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너무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교통부터 난리가 아니다. 아침이면 일대가 교통 때문에 전쟁을 치른다.

청와아파트는 인근의 매탄동 삼성에 근무하는 젊은 직원 가족들이 많이 입주를 했다. 차영란의 큰아이가 1985년생인데, 청와아파트 사는 큰아이 친구의 부모들 가운데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신랑이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고 물으면 다들 삼성에 다닌다고 했다. 지금이야 좋아졌지만 당시 망포리 일대는 농사를 짓는 시골이었고 단독주택밖에 없었는데, 구조상 생활이 편리한 아파트가 들어서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다. 큰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냈을 때, 1학년 어느 반은 반 전체가 다 청와아파트 아이들이라고 할 정도로 또래 아이들이 많았다.



지금이야 망포동에서 가장 낡은 아파트가 돼 버렸지만, 그땐 매달 고정적 수입이 들어 오는 청와아파트 사람들이 일대에서 제일 잘 산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농사를 짓는 토박이 들은 청와아파트 사람들을 부러워했다고 한다. 그런데 청와아파트 사는 젊은 엄마들 일부가 그런 토박이들을 낮추어보기도 했다. 조금 이기적이기도 했고, 토박이들이 당시에는 별 얘기를 안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발전이 되면서는 ‘쥐뿔도 없던 것들이 잘난 척했다.’고 내색하기도 했다. 청와아파트 학부모들의 태장초등학교 치맛바람도 대단했었는데, 학생들을 내 자식처럼 여기고 예뻐해 주는 선생님도 많았던 반면 존지를 바라는 선생님들도 있어서 누구 아빠는 어디를 다닌다며 은근한 압력을 넣기도 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기가 어려웠다. 내 자식이 우선인 젊은 엄마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면도 있다.

그래도 젊은 엄마들이 있어서 재밌는 일이 많았다. 그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몇 원짜리 부품을 조립해서 한 달에 몇 만 원 정도 버는 부업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 집에서 내일은 저 집에서 모여 작업을 했다. 모이는 집에서 밥도 같이 해 먹고, 돈을 받는 날에는 다 함께 맛있는 것을 사 먹기도 했다. 부업한 돈을 모아서 전화기며 살림살이들도 장만하였다. 삼성전자와 거기에 딸린 하청업체가 많아서 그런지 그땐 하려고만 하면 그런 부업거리가 정말로 많았다. 부업을 할 때는 마음 맞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였는데, 차영란과 함께 하던 엄마들은 10명 정도가 모였다. 부업을 해서 번 돈으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이 키우는 문제에 대해 의견도 공유하면서 참 재밌게 지냈다. 청와아파트 입주 후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동 대표들도 생겼다. 아파트 내부 문제로 의견이 갈릴 때는 좀 시끄럽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깐씩 그랬을 뿐이고 대체로 잘 지낸 편이다.

차영란은 청와아파트 상가에서 분식점을 운영한 적이 있다. 상가 미용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미용실을 다시 반으로 갈라서 세 놓은 곳에 분식점을 하러 들어간 것이다. 요즘 식으로 숭인숍(shop in shop)인 셈이다. 분식점은 차영란이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다. 동네

언니가 먼저 청와아파트 상가에서 분식점을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소개를 시켜줬다. 그렇게 한동안 떡볶이며 김밥 등을 팔더니 어느 날 장사를 안 하겠다기에 차영란이 그걸 이어받은 것이다. 큰아이가 3학년 때였던 듯하다. 컵에 떡볶이를 넣어서 팔고 핫도그와 김밥 등을 팔았는데, 아이들 코 묻은 돈이 나름 쓸쓸했다. 아파트 안에는 부업을 하는 엄마들이 있는가 하면,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 놓고 놀러도 가고 운동도 다니고 자기 생활을 찾는 엄마들도 많았다. 그런 엄마들이 외출하면서 나중에 돈을 줄테니 아이들에게 밥이며 간식을 챙겨 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몇 년을 너무 재밌게 장사했다. 집에 들어가서 돈을 세다 보면 동전이라도 부업하고는 댈 게 아니었다.

분식점을 할 당시에 앞쪽에 새마을금고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새마을금고에서 매일 점포들을 순회하면서 적금을 넣어 주는 것이 있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차영란은 그때 하루 7천 원짜리 적금을 찍었던 기억이 있다. 청약예금도 그때 들었고, 보험회사에 적금도 그때 들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분식점을 접었다. 1994년 즈음으로 기억하는데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누가 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유증이 심해지니까 남편이 장사를 그만두라고 했다. 장사를 그만둔 후 새마을부녀회 일을 시작하면서 봉사활동이며 동사무소 일을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차영란은 본격적으로 동네 언니들이며 어르신들을 만나고 다녔다.



### 3. 소소하게 좋았던 지난 시절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분리수거가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와 섞어 버리는 것은 물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도 마구 버렸는데, 종량제와 분리수거가 실시되면서 당시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날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쓰레기를 잘못 버리거나 불법 투기한 집을 적발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몇 집이 단속에 걸렸는데, 적발하고 보니까 평소에 마을을 위해서 활동도 많이 하던, 분리수거를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할 사람이 적발된 것이었다. 지금도 그분을 만나면 가끔 그때 얘기를 한다.

그렇게 지내다가 청와아파트 근처에 다른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술렁거리기도 했다. 그래도 살던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았다. 여전히 청와아파트에는 분양받아서 입주한 사람이 제법 있다. 동사무소 일을 보면서 다니다 보면 아직도 당시 살던 어르신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지금도 만나면 그분들이 차영란을 보고 아직도 ‘애기 엄마’라고 부르며 엄청 반가워하신다고 한다. 그 옛날 음료수 한 병 사두고 노인정에 가면 반가워하시듯 여전히 그렇다. 차영란은 청와아파트에서 살며 활동하던 그때를 잊을 수 없다고 한다.

청와아파트에 살면서는 소소하게 좋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차영란은 기억한다. 특별히 나쁜 일은 없었다. 특이할 만한 게 있다면 어느 동에 휘파람 소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조금 힘들게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시절만 해도 지금처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상태가 심각해져서 방송국에서도 촬영해 가고 시설에도 다녀왔다고 한다. 그래도 청와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해하고 살았다.

또 기억나는 게 있다면, 그 시절에는 다들 젊어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온 날이면 이 집 저 집 부부싸움 하던 집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랬던 집들 중에 아직도 거주하는 집이 있다. 엄마들이 아이들 혼내는 소리도 자주 들렸고, 엄마들 사이에도 이따금 싸움이 나기도 했다. 그 시절의 혼한 풍경이었다. 그래도 그 시절에는 다시 만나서 어울리고 했다. 한 번 불화가 생겼다고 다시 안 보고, 원수가 되고 그러지 않았다. 투닥거리고 부딪치면서도 풀고 다시 만나 재밌게 지내고 그랬다. 같은 시기에 첫애를 학교에 입학시킨 집들이 많았다. 특히 큰며느리들이 큰아이를 학교에 보낸 경우도 많아서 ‘맡며느리게’라는 모임을 만들어 모이곤 했는데, 지금도 그 모임이 있다.

그리고 당시에는 학구 단위 체육대회를 많이 했었다. 마을별로 마을잔치처럼 체육대회도 하고, 용인 서천리에서 미꾸라지탕을 끓이면 이쪽 망포동에서는 고기를 굽고 하면서 잔

치를 했다. 학구 단위 체육대회는 망포동이 화성군에 속하던 시절, 태장초등학교·안용초등학교·병점초등학교 등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모여서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했던 것을 말한다. 망포동이 수원시에 편입되고도 한참 동안 망포동은 설움을 많이 받았다. 무슨 행사를 해도 한참 동안 다른 동네를 다 소개하고 나서 끝자락에 잠깐 망포동을 언급하고 말았고, 무슨 여행을 가도 망포동은 맨 끝 버스를 주고, 자리도 맨 끝자리가 망포동 자리였다. 늘 더부살이 느낌. 그게 이 동네 살면서 유일하게 서운하고 서러웠던 점이였다.

그래도 청와아파트에 살았던 게 참 좋았다. 시절이 그래서 좋았던 걸까, 청와아파트에 살아서 좋았던 걸까를 생각해 보면 둘 다인 것 같다.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누가 사는지 알아도 마주치면 인사를 잘 안 하거나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남편 직장이 삼성인 젊은 엄마들도 많이 살았지만 소 키우는 목장을 하던 토박이도 청와아파트에 들어와 산 적이 있다. 그분은 차영란 아들이 소풍이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청와아파트 풍경







청와아파트 단지 내 알림판



세흥아파트 마당에서 바라본 청와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변

도 간다고 하면 꼭 얼마라도 아이 손에 쥐어주면서 맛있는 걸 사먹으라고 했다. 망포동이 시골이었기에 그런 인심이 남아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차영란의 형편이 어려워졌을 시기에 그 아들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듣고도 못 찾아갔다. 지금도 동네에서 그분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그때 못 간 게 지금도 마음에 걸린다.

태장마루도서관 옆으로 곧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원이 조성될 예정인데 거기가 예전에는 누에를 기르는 잠종장도 있었고 종자관리소도 있었다. 차영란이 분식집을 할 당시 잠종장에 근무하던 한 주민은 출퇴근길에 회사 공터에 심어 기른 오이며 상추 같은 것을 팔 때마다 분식집에 갖다 주었다. 옛날 어르신들은 뭐가 생기면 누구라도 주려고 했고 서로 나눠 먹으려고 했다. 지금은 마주쳐도 인사도 잘 안 한다. 내가 먼저 인사를 해도 부담스러워하면서 안 받아줄 때면 무안해진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누구를 만나도 먼저 인사하기가 망설여진다. 괜히 먼저 인사를 해서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부침개라도 부치면 가지고 나와서 나눠 먹고 이 집 저 집 같이 아이들하고 눈에 나가서 메뚜기도 잡고 하면서 지냈다.

세흥아파트 자리는 밤밭이었다. 버스에서 내리면 야산에 밤나무들이 많아서 자잘한 밤을 많이 주워먹었다. 옆에 도토리나무도 있었다. 현재 동수원교회가 들어선 데에 도토리나무며 밤나무들이 많이 있었다. 망포동 새마을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차영란은 봉사활동을 한 지가 20년이 넘는데,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겠지만 현재와 같이 사람들과 어울려 건강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청와아파트에 들어와 살았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한다. 같이 애들을 학교에 보냈던 엄마들 중 일부는 아직도 많이 만나고, 부녀회 일도 같이 한다. 어찌다 보니 아직도 지하수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도 하고 평수도 작아서 누군가에게는 새로 지어진 고층 아파트들의 위세에 치인 낡고 오래된 퇴물 아파트 취급을 받을지 몰라도 청와아파트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청와아파트 주민들 중에는 재개발이 되기를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는 사람들도 물론 있다. 그런데 청와아파트를 재개발하려고 했으면 망포역마을쌍용아파트가 들어올 때 같이 했어야 했다고들 한다. 당시 청와아파트 주민들 몇도 재개발대책위원회에 쫓아다니기도 했다. 그런데 그때는 청와아파트 사람들이 재개발을 반대했다고 한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런 덕분에 지난 시절의 아련함과 정겨움이 아직 청와아파트 남아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지난 후에는 후회할 일이 되고, 지금 후회하는 일이 나중에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어느 편이 더 낫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지금 청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견디고 있지만 또 누가 아는가. 어떤 다른 좋은 일이 생길지.





망포동 공동주택가 사람들

#### 4. 아직도 지하수를 쓰는 청와아파트

황찬옥은 1968년 신동에서 태어나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뒤에 결혼을 일찍 하고 21살에 천안에 내려가 1년을 살고는 다시 신동으로 왔다. 1998년에는 청와아파트에서 세입자로 1년, 1999년부터는 망포연립에서 3년 거주하다가 2002년에 청와아파트에 입주해사는 지금까지 살고 있다. 몇 년 전에 도색은 했지만 청와아파트는 워낙 탄탄하게 지어진 아파트라서 지어질 때의 붉은 벽돌 그대로, 1988년이나 지금이나 외형상으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아직도 깔끔하다.

황찬옥은 신동에 살 때부터 장사를 했는데, 청와아파트에 와서도 장사를 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청와아파트에 왔는데, 지금은 동수원자이2차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청와아파트 앞쪽도 죄다 밭이었고, 주변은 허허벌판이었다. 앞쪽이 확 트였던 청와아파트는 햇빛이 참 잘 들어왔는데, 5층밖에 안 되는 청와아파트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서는 아무래도 햇빛이 덜 들어온다. 아무튼 이곳에 제일 먼저 생긴 것은 망포연립이고, 그 다음이 청와아파트이다. 이후로 세흥아파트와 세흥빌라가 1~2년 사이로 차례로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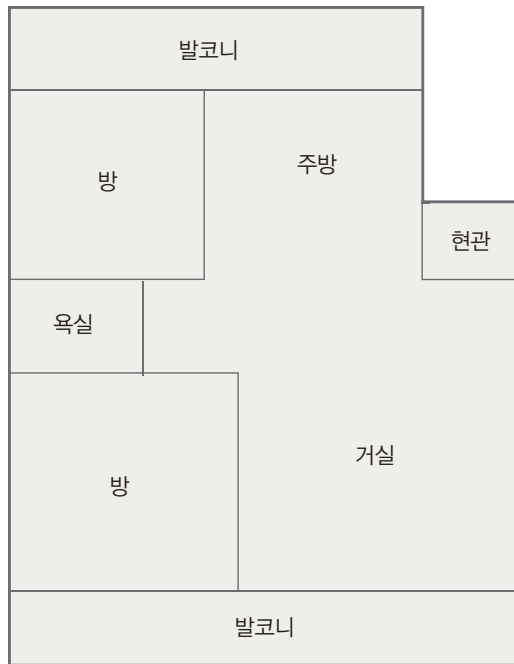
지금 신동에 있는 영동중학교는 원래는 태장초등학교였다. 태장초등학교는 2005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했는데, 그전만 해도 거기가 다 논이었다. 그러니까 현재의 영동중학교 맞은편 벽적골 8단지 두산·우성·한신아파트가 논이었다는 얘기이다. 신동에서 태장초등학교로 올라오다 보면 우측으로는 포도밭 같은 것도 있는 야트막한 산이었다. 그런데 이쪽이 외곽이기는 했는데, 외곽 치고는 인구가 많았다. 예전 신동에는 슬레이트집들이 많았는데, 집 한 채에 많은 가구가 함께 살았다. 황찬옥의 친정만 해도 한 집에 9가구가 살았다. 한 가구당 방이 하나에 부엌이 하나였다. 주변에 삼성 SDI며 한국코아, 덕성화학, 한창산업 같은 공장들이 많았다. 가구 수가 많으니 아이들도 많았다. 황찬옥이 첫아이를 낳은 해가 1987년인데 그때까지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운동의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

황찬옥은 수원여자중학교 34회 졸업생이다. 중학생 시절, 40분 간격으로 동탄에서 오는 버스를 타고 북문까지 간 다음에는 걸어서 학교까지 갔는데, 이 일대 길은 다 비포장이었다. 남문에서 망포동으로 들어오는 버스는 2개 노선이 있었다. 12번 버스는 방죽머리가 종점이었고, 동탄까지 가는 43번 버스도 있었다. 남문에서 불일 보고 들어올 때, 버스를 놓치면 1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버스는 항상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만원이었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던 비포장 황톳길은 수원시 편입



청와아파트 주민들





청와아파트 22평 평면도

후 얼마 후에 포장도로로 바뀌었다.

망포동과 신동은 1995년 수원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화성군 태안읍 망포리와 신리였다. 그래서 그전에는 행정 업무를 보려면 읍사무소가 있는 병점으로 가야 했다. 새마을운동 때문에 아침이면 집집마다 한 명씩은 빗자루 들고 나와 청소를 하던 시절에는 동네에 누가 사는지 알았다. 청와아파트만 해도 단지 안에 사는 사람들 얼굴을 아는데, 요즘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기나 할까 싶다.

황찬옥은 신동에서 과일장사 2년에 분식집을 4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는 아이 학교 보내고 아침 8시 반이면 집을 나가서 밤 11시, 12시에 집에 와서 옆집

에 누가 사는지 몰랐다. 직장에 다녔던 남편이 오히려 이웃들을 알고 지냈다. 청와아파트로 와서는 아파트 근처에서 장사를 해서 그나마 이웃들을 알고 지냈다. 집을 사서 이사 오던 2002년 당시 청와아파트 매매가는 5,700만 원이었다. 주변 빌라는 지금도 싸지만 그때는 더쌌다. 1,000만~2,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황찬옥이 처음 청와아파트에서 전세를 살 때는 1,300만 원에 살았다. 1998년에는 청와아파트의 매매가가 3,000만 원 정도였다. 인근 벽적골두산아파트의 분양가가 7,000만~8,000만 원 정도였다. 청와아파트는 삼원주택에서 지은 것으로 평수가 좀 작다. 17평, 21평, 22평이다. 22평은 방 3개에 화장실 하나인데, 베란다가 많이 작아서 빨래 널기가 좀 불편하다. 분양 당시 가동과 나동은 임대 분양이었고, 다동과 라동은 일반 분양이었다. 가동과 나동이 17평, 다동이 22평, 라동은 1~8라인은 21평, 9~12라인은 22평인데 21평과 22평은 구조가 약간 다르다. 1993년에 임대를 분양전환 했고, 분양가는 1,500만 원이었다.

현재 청와아파트에는 독거노인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폐지를 주우며 혼자 살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노인, 춥다고 싱크대며 화장실을 신문지와 스티로폼으로 덮어 놓은 사람, 술 마시면 몇 시간이고 휘파람을 부는 사람 등. 황찬옥은 부녀회장을 하다가 현재 통장을 맡고 있는데, 통장 일을 한 지는 5년이지만 가까운 신동이 황찬옥의 고향이다 보니



망포연립, 청와아파트, 망포역마을쌍용아파트



다 아는 사람이다. 선배의 엄마, 선배와 후배. 그래서 말고 있는 통이 아닌데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으면 일을 해결해 주기도 한다. 그래도 이웃들은 휘파람 소리 때문에 불편했음에도 어르신들의 휘파람 소리가 많이 약해지자 건강이 나빠진 게 아닌가 걱정도 했다.

2000년대 초반 망포역마을쌍용아파트 앞쪽이 논이었던 때가 있었다. 2019년 수원시 발표에 따르면, 청와아파트 일대가 재건축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되어서 2024년부터 안전진단을 받는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청와아파트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4개 동 250세대인 청와아파트 부지가 좀 작은 편이라는 점이다. 현재 청와아파트 바로 앞쪽에 원룸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전에 그곳은 밭이었다. 밭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원룸 건물이 두 동 들어오면서 개발할 땅이 좁아져 버려 수익성이 떨어지고 말았다. 용적률을 높이면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조율할 사항들이 많다. 그래도 이곳이 입지는 좋다. 지하철역과 가깝다. 망포역까지 걸어서 5분이면 충분하다.

청와아파트는 아직도 지하수를 쓰고 있다. 지하 300m까지 관정을 파서 나온 지하수를 약수라고 인근에서 물을 얻으러 오던 때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수질검사를 하면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해서 약품을 넣어서 사용한다. 정수기도 지하수용 정수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수도물용보다 비용이 더 비싸다. 황찬옥은 정수기를 사용하다가 요즘은 그냥 생수를 사서 먹고 있다.

예전에는 청와아파트에서도 남문시장까지 장을 보러 다녔다. 그러나 이제는 주변에 대형 마트들이 많이 생겨서 시장에 갈 일이 별로 없다. 어쩌다가 시장에 가려면 날을 잡아서 가야 한다. 편의점도 셀 수 없이 많다. 예전에는 청와아파트 상가 1층은 물론 지하에도 슈퍼마켓이 있었다. 1층 슈퍼마켓은 식료품점에 가까웠다. 야채, 쌀, 소금 등을 팔았고 반찬도 직접 만들어서 팔았다. 상가 지하에는 슈퍼마켓 말고 교회도 있었는데 이제는 10년 남짓 비어 있다. 주변에 큰 마트들이 생기면서 장사가 안 되니 나가 버렸다.

## 5. 개발이 되어도 걱정, 안 되어도 걱정

2000년대 초반부터 청와아파트 주변에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섰다. 그전에는 논 사이에 경운기 한 대가 지나갈 정도였던 길도 넓은 도로가 되었다. 청와아파트가 오래되었다고는 해도 사실 참 좋다. 이웃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활동도 같이 하고 그런다. 그런데 개발이 되고 나면 정말 낯설어질 것 같다. 개발되면 생활의 편의성은 좋아지겠지만 인간적인 교류는 거의 사라질 것 같다. 지금은 낮이면 청와아파트와 세흥빌라 주부들이 두루두루 나와서



도시정비구역 지정

서로 말동무도 하고 있다가 대여섯 시면 집으로 돌아가신다.

망포연립은 3개동에 총 24세대가 거주하는 작은 연립이지만 가장 부자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 재개발이 되면 망포연립은 2층밖에 안 되니까 나눠 가질 땅이 5층인 청와아파트보다 훨씬 넓다는 의미이다. 아무튼 망포연립과 청와아파트가 개발될 때 바로 옆에 붙은 세흥빌라와 세흥아파트까지 같이 개발이 되면 좋을 텐데, 그쪽은 지어진 시기가 달라서 재개발 연한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 동네를 가서 보면 왜 세흥 쪽까지 포함하여 재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세흥 쪽은 더 늦게 지어졌어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더 낡아 보인다. 보기에만 그렇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얹혀 있다. 세흥아파트와 세흥빌라를 재건축에 함께 묶으려면 기존의 도로도 처리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망포연립 주변의 태성빌라, 동진빌라, 청안빌라도 재건축정비예정지구에 포함되었는데 그쪽은 땅에 비해 가구 수가 너무 많아서 가구당 지분이 6평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기존 거주자들이 내야 할 불입금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고 한다. 망포연립은 가구당 지분이 15평, 청와아파트는 12평 정도이다. 그래도 재개발을 할 때 같이 해야 기존의 오래된 빌라나 아파트들이 흉물 취급을 받지 않을 텐데 어찌될지 모르겠다. 세흥 쪽까지 묶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 재건축조합을 결성해야 사업을 추진하기가 수월하다. 부지가 넓어져서 자기 부담금 액수가 경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을 맡아서 추진할 사람이 없다.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인 청와아파트 일대(김승일 제공)

옛날에는 주택 몇 채 외에는 논밭이었던 이곳이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을까.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이다. 새 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돈이 있어야 거기에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다. 망포역마을쌍용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청와아파트도 개발구역에 수용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던 모양이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 청와아파트 주민들이 30평대 아파트로 분양받기를 원했는데 건설업체가 수익성 때문에 청와아파트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당시에 조율을 잘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다. 지금도 재개발이 되면 평당 2,000만 원이 넘을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싶다. 노년층은 현

재 청와아파트 상태에 만족하고 사는데, 젊은 사람들 처지는 또 그게 아니다. 다양한 세대, 다양한 형편의 사람들의 다양한 욕망이 얹혀 있으니 이걸 풀기가 쉽지 않은 노릇이다.

수원시에서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놓아 주려고 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려면 각 집마다 30만 원의 분담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물값 100원에도 예민한 주민들이 있다. 지금은 상수도를 놓으려면 30만 원의 분담금으로는 어림도 없다. 게다가 지금 쓰고 있는 지하수는 많이 써야 요금이 한 달에 4,000~5,000원, 적게 쓰는 가구는 1,000원 내외인데, 상수도를 놓으면 이곳에는 계량기를 따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가구원 1인당 8,0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4인 가구라면 3만 2,000원이니 수입이 없는 노년층 가구에게는 이것도 큰 부담이다. 그래서 노인들은 지하수도 괜찮다고 한다.

청와아파트에 살면서 개발이 되겠지, 되겠지 하면서 살다가 결국 팔고 나간 사람들이 많다. 현재 세입자의 비율이 전체의 70%가량 된다. 자가 거주자들은 오래전부터 그냥 쪽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현재 청와아파트 관리비는 월 4만~5만 원이다. 17평은 4만 원대, 20평대는 5만 원대. 관리비가 정말 싸다.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은 별도이고, 지하수 요금이 포함된 비용이 그 정도이다. 노인 가구는 난방도 잘 안 하고 물도 가스도 적게 사용하는 편이다. 그래도 노년의 거주자들은 집에서 고구마·감자·옥수수 등을 써서 가지고 나와 나눠 먹고, 오후에는 모여서 마늘도 까고 고구마 줄기도 벗기고 콩 껍질도 까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무렵 집으로 들어간다. 가끔은 한 집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기도 한다.

젊은 거주자 입장에서는 개발도 개발이지만 지하수 문제만이라도 해결이 되기를 원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청와아파트는 정말 짹짹하게 지어져서 좁은 것만 빼면 살기에 나쁘지 않다. 주민회의 때마다 수도 문제가 거론되지만, 공사를 하려면 땅을 다 파내야 하고 공사하는 동안의 불편함을 견뎌야 하니 노인들이 동의를 안 한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청와아파트의 지하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건축 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재건축이 되면 노인들은 어디로 가나. 그것도 또 걱정이다. 황찬옥은 예전에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짜리, 부엌에 수도가 없는 집에서도 살아 봤는데 지금은 안방에 화장실이 딸린 집에 살고 싶다고 한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어디까지일지. 그래도 황찬옥은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있다.





## 03

# 망포동의 도시화와 도시개발

### 1. 망포리에서 망포동까지

망포동은 수원시 영통구의 법정동이다. 행정동으로 망포1동과 망포2동 그리고 영통2동 등에서 관할한다. 인구는 2021년 6월 기준 망포1동이 3만 1,274명, 망포2동이 2만 7,961명 도합 6만 명에 가까운 대규모 거주 지역이다. 망포동은 수원의 최남단 지역으로 수원 구시가지와 동탄신도시 사이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영통지구가 있다. 또한 서쪽을 제외하고 북쪽의 매탄동, 동쪽의 용인 서농동, 남쪽의 화성 동탄에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어 망포동을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망포동은 화성시 태안면 소속 망포리로 존속해 오다 1995년 4월 20일자로 수원으로 편입되어 법정동 망포동이 되었다. 당시 망포동의 관할은 행정동인 매탄3동이 맡았다. 이후 인구 증가 등으로 2003년 2월 10일자로 분동하여 행정동 태장동이 되었다.<sup>1</sup> 2017년에는 태장동이 망포1동과 망포2동으로 분동되면서 명칭도 변경되었다.

망포리가 망포동이 되는 과정은 곧 한국의 근대화, 도시화 과정을 의미한다. 다른 여타 지역들처럼 망포리도 근대화의 격랑에 휩싸이면서 도시공간으로 새롭게 재편된다. 한국의 근대화가 시작된 일제시기 내내 망포리는 서너 건의 강도·자살 사건 등으로만 언론에 오르내릴 뿐이었다. 처음으로 망포리가 개발 바람을 타게 된 것은 1970년대 산업화 여파에 노출되면서였다.

망포동 근대화와 개발의 먼 기원은 경부선이다. 일제시기 개통된 경부선은 망포동의 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유상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



쪽을 관통하며 근대적 교통의 상징이 된다. 그러나 경부선 하나로 망포동 지역이 곧바로 근대화의 물결에 휩싸이지는 않았다. 기차는 정기적으로 통과할 뿐 망포동의 현실을 뒤바꾸지는 못했다. 망포동이 소속된 수원은 경부선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경부선을 통해 서울과 직결되고 농업시험장, 농림학교 등이 집중적으로 들어서면서 수원의 도시화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원 외곽 남쪽에 위치한 망포동은 그 효과를 직접적으로 느끼기에는 너무 멀었다. 조선 정조 대 성곽 도시로 출발한 수원이 화성의 성곽을 넘어 근대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있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팽창은 결정적 조건이었다. 한국의 도시화를 결정지은 산업화 과정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인구는 1980년대 초반 800만 명 선을 넘을 때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그 이후 완만한 증가로 돌아서 1,000만 명대에서 고착된다. 즉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중반은 서울 인구 증가의 마지막 시기였으며 그 이후로는 서울 대신 수도권 지역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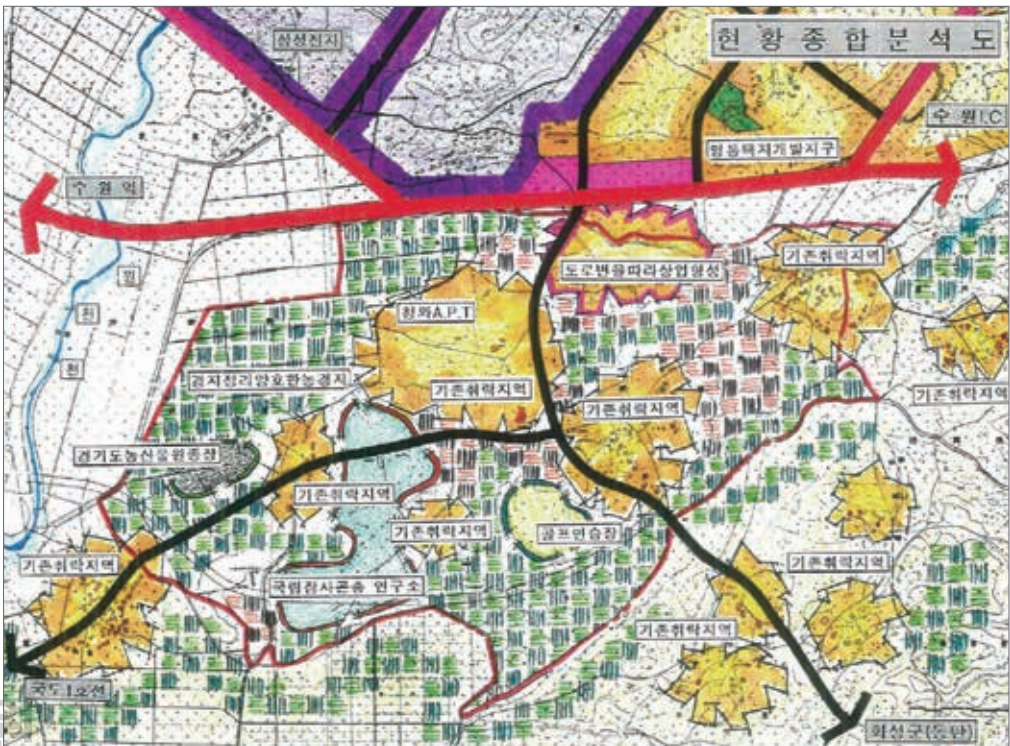
표 1 1960년대 이후 수원시 인구 변화

| 연도    | 1960   | 1970    | 1980    | 1990    | 2000    | 2010      | 2020      |
|-------|--------|---------|---------|---------|---------|-----------|-----------|
| 인구(명) | 90,806 | 170,518 | 310,757 | 644,968 | 946,704 | 1,104,681 | 1,192,000 |

출처 : 『수원시 통계연보』.

인구 증가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명백한 지표이다.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원의 인구 변화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과 그대로 겹쳐진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인구 증가가 눈에 띄는데, 2000년 초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 그 이후로는 증가세가 크게 꺾인다. 서울의 인구가 1980년대 이후 증가세가 둔화된 것과 수원의 인구 급팽창이 연결되는 대목을 통해 서울의 비대화와 수도권 위성도시의 확대가 밀접히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수원의 도시화와 인구 증가에 빼놓을 수 없는 영향을 미친 것 중에 경부고속도로가 있다. 수원 동쪽을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는 경부선 철도와 함께 수원을 전국과 연결시키는 핵심 교통망을 이룬다. 전국 교통망의 중핵을 이루는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가 좌우로 관통하면서 수원은 서울의 핵심 위성 도시가 된다. 휴전선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서울은 남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서울이 중앙이 되고 나머지 모든 곳이 지방과 시골이 되는 과정 속에 수원은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이 된 셈이다. 경부선이든 경부고속도로든 지방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수원을 통과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서울에서도 지방을 가기 위해서는 수원을 거치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중반 망포리 현황도(국가기록원 제공)

서울의 중심성과 영향력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전국의 인적·물적 자원이 서울로 집중되면서 수원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었고 그 과정이 곧 수원의 발전 과정이었다. 망포동은 수원의 팽창 과정이 주변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 준다. 마치 서울의 팽창이 수원을 자극해 개발시킨 것처럼 수원의 확장은 망포리를 망포동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도시화가 진척되고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화성에 속해 있던 망포리는 수원으로 편입된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결정적 계기가 삼성전자 입주이다. 1970년대 초부터 1999년까지 삼성전자가 입주하여 망포동을 둘러싸게 되면서 도시화와 개발은 불가피해졌다. 삼성은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산요, NEC 등과 합작하여 뒤늦게 전자산업에 뛰어들었다. 초창기 삼성전자는 일본 전자산업을 거의 그대로 벤치마킹했다.

창업주 이병철은 40만 평 규모에 달하는 도쿄 인근 산요전자 공장을 둘러보고 서울 인근 수원에 41만 평 규모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서울은 물론 지방과도 쉽게 연결되는 교통 여건에 값싼 가격의 토지를 찾던 삼성이 주목한 곳이 곧 현재 수원의 매탄동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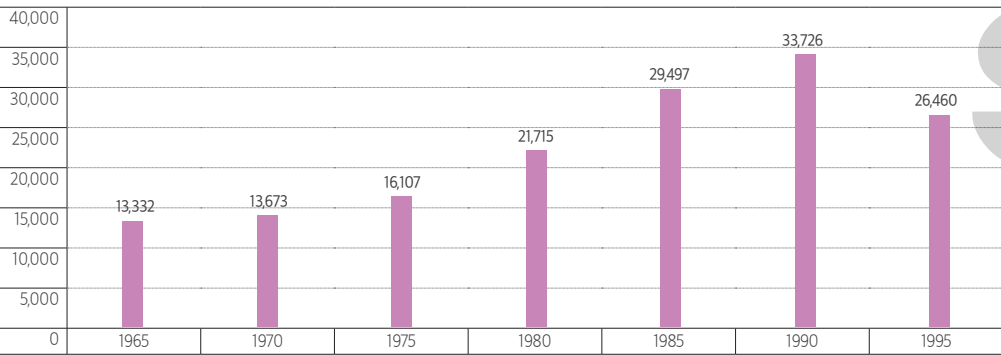
성디지털시티 지역이다. 산요가 그랬던 것처럼 삼성도 수도 인근에 대규모 전자산업 단지를 조성하고자 했고 그 지역이 곧 망포동의 바로 북쪽이 된 것이다.

확실히 삼성전자 입주는 망포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것을 1차적으로 반영한 것인 인구 변화이다. 망포리 차원의 인구 통계는 없지만 망포리가 포함된 화성군 태안면(읍)의 인구 변화를 보면 1970년부터 서서히 증가 추세로 들어섬을 알 수 있다. 1965~1970년 5년간 거의 변화가 없던 인구수가 이후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 특히 1975년부터 증가 추세가 가팔라진다.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 1995년 화성에서 수원으로 소속이 바뀌게 된다.

표 2 태안면(읍) 인구 변화

| 연도    | 1965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
| 인구(명) | 13,332 | 13,673 | 16,107 | 21,715 | 29,497 | 33,726 | 26,460 |

출처 : 『화성시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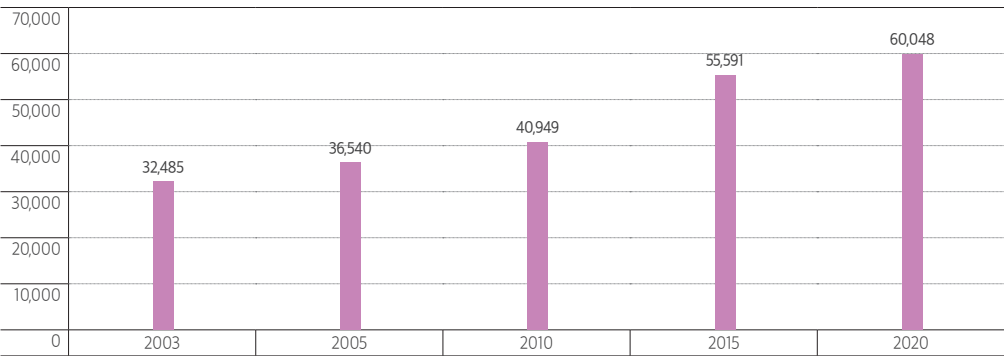
망포리가 수원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태안읍은 상당한 인구 감소를 보인다. 7,000명 이상의 인구 감소는 당시 망포리의 인구 규모를 추정케 해준다<표 2>. 수원으로 편입되면서 망포리는 수원의 도시계획 대상 지역이 된다. 대체적으로 수원의 도시 성장 과정은 1960년대는 도시 성장의 기틀 형성, 1970년대는 인구의 도시 집중과 고밀화 현상, 1980년대는 인구 분산과 주택지 확산의 단계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sup>2</sup> 이렇게 서울 팽창에 따른 수도권 정비 필요성의 증대는 수원의 팽창 과정을 직접적으로 규정한다. 21세기 들어 수원의 확대는 더욱 놀랍게 진행된다. 광고와 영통지구에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20세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도시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수원 도심부는 공동화 현상을 빚게 된다.

표 3 망포동의 인구 변화

| 연도    | 2003   | 2005   | 2010   | 2015   | 2020   |        |
|-------|--------|--------|--------|--------|--------|--------|
|       |        |        |        |        | 망포1동   | 망포2동   |
| 인구(명) | 32,485 | 36,540 | 40,949 | 55,591 | 31,693 | 28,355 |

출처 : 『수원시 통계연보』.

비고 : 2015년까지는 행정동 태장동의 인구임.



망포동은 이러한 수원 지역 신도시 개발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었다. 삼성전자 입주 효과에 영통·광교신도시의 본격 개발이 더해지면서 누가 보더라도 망포동 지역의 개발은 불문가지였다. 그것이 인구 증가로 반영되는 것은 당연했다. 21세기 들어 급속도의 증가세를 보이던 인구는 2010~2015년에 무려 1만 5,000명가량 폭증했다. 결국 2017년 망포1·2동으로 행정동이 분동될 정도로 인구 증가는 폭발적이었다<표 3>. 요컨대 망포리는 삼성전 자라는 글로벌한 대기업 입주와 그 뒤를 이은 급속한 신도시 개발로 인해 상전벽해를 넘어설 정도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이는 한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세기를 건너뛰면서 농촌 마을을 변모시킨 대표적 사례가 된다.

## 2. 망포동 도시개발의 배경과 방향

1970년대 삼성전자가 들어서면서 망포동은 행정구역상 화성이었지만 사실상 수원 생활권으로 편입된다. 그 결과 행정구역 재편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초창기 망포동은 삼성전자의 배후지 역할에 머물렀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조건이었던 망포동은 값싼 비용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었기에 가난한 공장 직원들의 생활터전이 되었다. 1990년대까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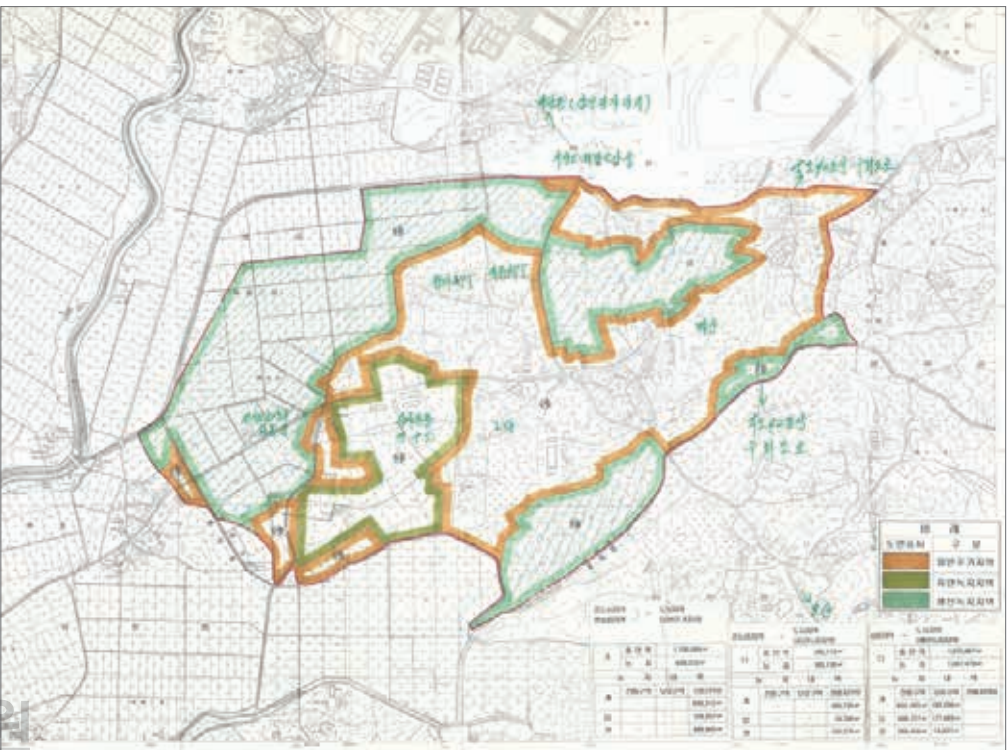
망포동은 아파트는 거의 없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주거지역이었다. 삼성전자 입주 이후에도 상당 기간 망포리의 개발 조짐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1970년 매탄동 삼성전자의 개발 요소들은 수원시로 향했다. 당시까지 망포동은 화성군에 속한 상태였고 행정구역상 수원시에 속한 삼성전자의 개발 요소가 수원으로 향하는 것은 여러모로 자연스러웠다.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원이 우선적이었지 화성군 변두리인 망포동으로의 확장은 곤란했다고 보인다. 기흥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망포동과 멀리 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중간에 신갈저수지도 있어 망포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기흥사업장은 경부고속도로를 인접하고 있어 서울과 직결되는 곳이었기에 굳이 망포동을 바라볼 이유가 없었다.

대규모 공장이 입주하여 파생시키는 개발 요소는 일단 인구밀집에 따른 도시화가 선차적이다. 이어 이들을 주요 소비층으로 하는 주변 상업지역의 형성이 뒤따른다. 그런데 삼성전자 직원들의 거주지는 이미 형성되어 있던 시가지를 우선적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다. 아무런 도시 기반시설이 없고 시골에 가까운 망포동이 선택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물론 주변에 도시공간이 전혀 없다면 사정이 달라지겠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수원을 염두에 두고 공장 건설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업시설 역시 기존에 형성된 것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망포동은 삼성전자의 개발 요소를 흡수할 여건이 준비되지 못했다.

망포동에 아파트가 처음 들어선 것은 1988년 입주한 청와아파트였다. 250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16·17·19평형이었다. 그 다음에 들어선 것은 1991년 입주한 세흥아파트로 96세대에 19·20평형 두 가지였다. 규모도 크지 않았고 모두 20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2000년도에 가서야 대규모 단지형 아파트가 등장했고 크기도 51평의 대형이 포함되게 된다. 요컨대 1990년대까지 망포동은 삼성전자의 값싼 배후 주거지역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망포동의 도시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영통지구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수원의 인구 증가는 새로운 신도시 개발을 불러왔고 영통지구는 대표적인 1990년대 신도시 지역이 되었다. 1995년 영통지구 분양이 개시되면서 망포동 개발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 드디어 1998년 수원시는 망포동과 신동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을 입안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총 2,349km<sup>2</sup>의 면적을 대상으로 국토이용계획상 용도변경을 통해 2006년까지 2만 7,500명의 인구를 포괄하는 주거지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표 4>.



수원도시계획구역확장(\*수원시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 협의, 1998, 국가기록원 제공)

표 4 수원시 국토이용계획 용도변경 (단위: km<sup>2</sup>)

| 구분 | 변경 전  |       |       |       | 변경 후  |       |       | 비고 |
|----|-------|-------|-------|-------|-------|-------|-------|----|
|    | 계     | 준도시지역 | 농림지역  | 준농림지역 | 계     | 주거지역  | 녹지지역  |    |
| 면적 | 2,349 | 0,158 | 1,075 | 1,116 | 2,349 | 1,107 | 1,242 |    |

출처 : 「수원시도시계획구역확장을위한국토이용계획변경(안)」(국가기록원 소장)

위 계획에 따르면 토지 용도변경의 핵심은 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즉 농촌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시 지목을 보면 밭이 38.4%로 제일 많았고 논이 그다음으로 35.6%였다. 그 외 대지 7.1%, 임야 6.8% 등이었다.<sup>3</sup> 계획에 따르면 인구 규모는 1997년 7,211명에서 2001년 1만 3,070명, 2006년 2만 7,5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수원시는 1998년 8월 관계 기관에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면서 중합의견을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먼저 개발계획이 미수립되어 주택, 공장, 상가 등이 무질서하게 개발되어 있는 상태를 지적했다. 이어 인근 영통 택지개발로 빠르게 시가



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도시 기반시설, 공공시설이 미흡하여 도시환경 악화가 예상됨을 지적했다.<sup>4</sup> 계획서는 당시 망포동 지역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지방도 343호선 및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개발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신규 개발지역으로 인근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국립 잠종장, 경기도 농산물 원종장을 비롯하여 삼성전관 기숙사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숙박, 상가, 음식점 등이 입지. 경지 정리된 농경지와 함께 준농림지역에는 전원주택이 건축되고 있음. 북측 지역은 삼성전자 등의 공업지역과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와 접하고 남으로는 태안읍과 경계. 북측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농지로 연계 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동측 인근에 경희대 수원캠퍼스 위치. 대부분 구릉지로 개발 여건은 대체로 양호.<sup>5</sup>

한마디로 당시 수원시의 입장은 망포동에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발 바람을 타고 각종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계획적인 도시 개발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당시 계획은 영통과 연계하여 수원시 외곽의 저밀도 양호한 주거단지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그래서 양호한 농경지 및 수림대 등은 최대한 보존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주거지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이 주거용지 60% 중 단독주택이 30.3%, 공동주택이 29.7%로 책정되었다. 또한 도로가 무려 30%로 책정되었는데, 보행자 전용도로까지 포함된 것이었다. 그 외 학교가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1개교 등으로 4.7%의 비율이었다. 다만 경관녹지 등은 3.5%로 소규모였다.<sup>6</sup>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경기도와 수원시는 망포동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구역 변경을 추진했다. 1999년 5월 27일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준농림지역인 신동과 망포동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의결했다.<sup>7</sup> 그러나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되면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망포동은 개발과 난개발 사이에 행정 당국의 개입이 강화될 정도로 개발 열기가 뜨거운 지역이 된 것이다.

망포동 개발은 단지 망포동만의 개발이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 화성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된다. 이른바 동탄신도시 개발의 출발이었다. 망포동은 물론 주변 지역 대부분이 개발 열기에 휩싸이게 되면서 망포동의 개발은 비가역적 현실이 되어 갔다. 2000년 당시 정부와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화성지역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계획의 대강은 화성군 태안을 반월·병점·능리, 동탄면 석우·반송·오산·청계·영천리 일대 274만 평에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 중반 영통지구 개발과 함께 진행된 덕영대로 건설 공사(최호운 제공)

당시 건교부는 이 지역을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벤처산업단지와 연구단지를 갖춘 자립형 신도시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총 6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아파트와 단독주택 4만 가구를 건립하고 12만 명을 수용하는 계획이었다. 건교부 계획에 따르면 2001년 상반기 중 화성 태안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 승인, 택지 분양 등을 거쳐 2003년께 착공과 함께 분양에 돌입한다. 2005~2006년에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도로 등 기반시설까지 포함한 완공은 2008년 이후로 계획되었다.

당시 개발거점지역은 화성 중부지역. 수원 영통지구, 망포동, 곡반정지구 등과 가까운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었는데, 그만큼 망포동이 중요한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망포동은 타지역 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타지역 개발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발 가능성이 상승한 셈이었다. 이렇게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동쪽에는 분당·판교신도시와 용인이, 서쪽에는 수원과 화성이 대규모 주거단지로 자리잡게 되어 수도권 동남부권역이 거대한 주거단지로 재편되는 형국이었다.<sup>8</sup>







표 5 망포동 아파트 현황

| 아파트명            | 세대수   | 준공일        | 평형                 |
|-----------------|-------|------------|--------------------|
| 청와아파트           | 250   | 1988-12-31 | 16, 17, 19         |
| 세홍아파트           | 96    | 1991-02-00 | 19, 20             |
| 망포늘푸른벽산         | 1,380 | 2000-06-30 | 24, 33, 44, 51     |
| 동수원자이1차         | 1,829 | 2001-12-05 | 35, 40, 48, 55     |
| 망포역마을쌍용         | 531   | 2002-04-27 | 35, 48             |
| 망포마을현대아이파크1차    | 554   | 2002-06-28 | 32, 33, 38, 43     |
| 동수원자이2차         | 816   | 2002-07-24 | 35, 45, 50, 55     |
| 망포마을벽산e빌리지      | 344   | 2002-07-25 | 29, 32, 43         |
| 망포마을현대아이파크2차    | 489   | 2002-10-31 | 34, 39, 50, 61     |
| LG동수원자이3단지      | 924   | 2003-06-27 | 30, 35, 43         |
| 동수원쌍용스윗닷홈3차     | 287   | 2004-09-24 | 23                 |
| 영통마젤란21(2단지)    | 159   | 2004-11-11 | 31                 |
| 동수원쌍용스윗닷홈2차     | 274   | 2004-11-29 | 25, 33             |
| 극동의푸른별          | 134   | 2005-07-27 | 32                 |
| 방죽마을영통뜨란채       | 699   | 2005-09-21 | 33                 |
| 일신건영휴먼빌         | 105   | 2006-07-14 | 31                 |
| 영통마젤란21(1단지)    | 108   | 2006-11-29 | 31                 |
| 망포삼정라츠          | 185   | 2008-09-01 | 34                 |
| 임광그대가센트럴파크(2단지) | 270   | 2010-08-01 | 43, 48, 54         |
| 센트럴하이츠          | 549   | 2010-07-09 | 41, 42, 49, 50, 55 |
| 임광그대가프리미어(1단지)  | 602   | 2010-08-03 | 40, 52             |
| 한양수자인에듀파크       | 530   | 2013-12-00 | 33, 39, 45         |
| 영통SK뷰           | 710   | 2016-02-00 | 25, 33             |
| e편한세상영통2차(1단지)  | 392   | 2016-12-00 | 24, 28             |
| e편한세상영통2차(2단지)  | 270   | 2016-12-00 | 24, 28             |
| 힐스테이트영통         | 2,140 | 2017-08-00 | 26, 29             |
| 영통아이파크캐슬(2단지)   | 1,162 | 2019-01-00 | 23, 24, 30, 33     |
| 영통아이파크캐슬(1단지)   | 1,783 | 2019-03-00 | 24, 30             |

이것이 동탄신도시 개발의 출발이었고 망포동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개발 열기를 가속 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2년 선거를 통해 집권한 노무현 정권하에서 아 파트 가격이 폭등 수준으로 급상승하면서 개발 열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2000년대 들 어 망포동은 중앙 일간지 아파트 분양 기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단골로 등장할 정도로 중

요한 지역이 되었다. 분양 소식은 물론 아파트 거래 시세도 자세하게 소개되어 망포동이 수도권외의 중요한 아파트 단지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당시 망포동 아파트 분양 관련 기사를 보자. 기사에 따르면 망포동은 경부고속도로 수원 나들목까지 차량으로 10분이면 닿을 수 있기에 서울 강남권, 분당으로 접근성이 좋다는 점 이 부각되었다. 단지 부근에 잠실과 강남을 오가는 고급 좌석버스 노선이 자리 잡고 있다 는 소개도 곁들였다. 또한 수원 영통지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에 영통지구 내 갤러리아 백화점, 삼성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 유통점 이용이 수월하며 동수원 신시가지 부근이어서 수영장, 영화관, 공원시설도 가깝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희대, 아주대, 경기대, 강남 대 등 대학교 통학도 어렵지 않아 대학생 대상 임대도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소개되었다. 특히 분양가가 1억 2,300만 원으로 인근 영통지구 분양가보다 1,000만~1,500만 원가량 저렴하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sup>9</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망포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본격 개발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2000년대 들어서이다. 그 출발은 1997년에 분양하여 2000년 입주한 벽산건설의 늘푸른아 파트였다. 1,38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였고 24평형 319가구, 33평형 562가구, 44평형 268 가구, 51평형 191가구, 75평형 40가구 등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분양가는 335~385만 원 수준이었다.<sup>10</sup> 이후 입주 기준으로 2005과 2007~2009년, 2011~2012년, 2014~2015년, 2018년,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새 아파트가 준공되었다. 입주일 기준으로 망포동 아파 트 확대 과정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3. 망포동 개발의 특성과 문제점

2000년대 초반 망포동에는 여전히 농업시설이 존재하는 등 개발 효과가 전면화되지는 않았다. 종자시험연구소의 시험재배장이 있었는데 하면 농촌진흥청 잠사곤충부의 뽕밭 4 만 평이 남아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지가는 상승할 대로 상승한 상황이었다. 뽕밭은 당 시 시세로 1,000억 원에 달해 서둔동 서울대 농대 부지와 맞교환이 추진되기도 할 정도였 다.<sup>11</sup> 이 계획은 그대로 추진되어 망포동 부지는 수원시에 1,000억 원에 매각된다. 두 토지 는 2배 이상의 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맞교환이 가능할 정도로 망포동의 토지 가격이 급 상승했음을 잘 보여준다.

아파트 역시 비슷했다. 2003년 수원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무려 23.7%에 달해 전국 최고를 달성했다. 이는 경기도 평균 상승률 10.1%의 2배를 넘는 놀라운 속도였다. 망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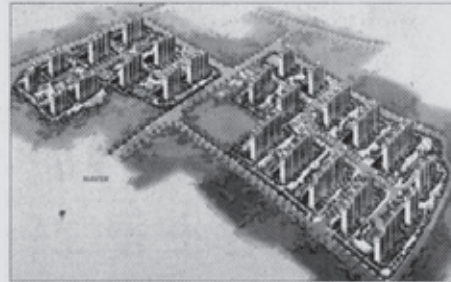


# 초대형 단지 '사통팔달 아파트'

## 동수원 LG빌리지

LG건설은 오는 8일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에 짓는 「동수원 LG빌리지」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 단지는 24개동에 35~63평형 2,677가구가 건설되는 대규모 단지. 이번에 1,829가구가 먼저 분양된다. 분양가는 평당 3백90만~4백40만원. 수원의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영통지구 남쪽에 인접해 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수원IC가 가까워 서울 강남 및 분당 수지로의 출입이 쉽고 영통지구 및 권선지구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 청·수원역 등 수원 중심지까지 자동차로 10여분이면 갈 수 있다. 앞으로 영통~수지간 도로가 신설되고 전철 분당선이 연결되면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24개동 모두를 정남향으로 배치해 채광 및 조광권을 확보했다. 안전을 위해 지상주차율을 23% 이하로 낮췄으며 아파트 전면에는 주차장을 없앴다. 단지 안에는 설날·대보름·추석 등 전통 명절을 테마로 한 공원을 곳곳에 꾸민다.



## 35~63평형 1차분 1,829가구 단지내 명절테마공원 조성

지역난방을 도입해 개별난방보다 비용을 30% 정도 줄일 수 있으며 전 평형에 안목치수를 적용했다. 3개동은 1층을 없앤 필로티 설계로 단지 내부의 개방감을 높였다. 현관에서 거실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계했으며 거실에는 천연 체리나무 온돌마루를 까는 등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꾸몄다. (0331)238-5757

동수원LG빌리지 분양 관련 기사(『경향신문』, 1999년 7월 2일)

LG빌리지1차아파트는 모든 평형에서 5,000만 원 이상 올랐다고 한다.<sup>12</sup> 결국 2005년 7월 망포동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그럼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았다. 2007년 망포동 아파트 신규 분양가는 평당 1,500만 원을 넘어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올 정도였다. 이는 주변 시세보다 무려 200만~300만 원이 비싼 가격이었다.<sup>13</sup>

그런데 2008년에는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2008년 10월 셋째 주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의 경우 0.38%가 하락했고 수원은 0.36% 하락했다. 특히 공급 물량이 많은 망포동은 강한 하락세를 보였다고 보도되었다.<sup>14</sup> 아파트가 주거용 사용가치보다 투기용 교환가치에 가깝게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이었다. 또한 지방의 아파트가 세계 경제의 변동과 직결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했다. 물론 1997~1998년 외환위기가 그 영향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이기는 했지만 당시까지 망포동은 본격적인 아파트 건설이 없었기에 간접적 영향만 받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2008년은 망포동의 아파트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 상황이었기에 영향의 정도가 달랐다. 이



동수원LG빌리지1차아파트 건설 공사(2000년, 수원박물관 제공)

에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들은 다양한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중도금 60%를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가 하면 발코니 확장비 지원은 물론 심지어 웃돈 4,000만 원을 보장하는 대책까지 나타났다.<sup>15</sup>

그러나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사람들의 뇌리에 깊숙하게 박혀 있을 정도로 한국의 아파트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최근 이 열기가 다시 한 번 망포동에 그대로 전달되었다. 2020년 수원시의 집값은 한 달여 만에 수억 원씩 올랐다. 건축한 지 20년이 넘는 낡은 아파트는 물론이고 새 아파트의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새 아파트는 10억 원이 넘는 집들이 속출했다. 특히 영통구는 2.95% 급등했는데,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제외한 아파트만 놓고 보면 영통구의 상승률은 3.15%에 달한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대장주 아파트로 분류되던 광고 중흥S-클래스의 매물은 종적을 감춘 지 오래였다. 2019년 8월, 전용면적 109㎡가 15억 원에 거래된 이후 전세와 월세 매물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앤힐스테이트(전용면적 84㎡ 기준)는





2019년에 입주한 영통아이파크캐슬아파트(김승일 제공)

우문리 일대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단지(김승일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2억 원대였다. 2019년 9월만 하더라도 9억 원대에 거래됐지만, 3개월 새 3억 원이 넘게 뛰었다. 광고푸르지오월드마크, 광고오드카운티, e편한세상광고, 래미안광고 등 전용면적 84㎡ 이상은 거래가가 모두 10억 원을 넘겼다.

망포동 일대도 마찬가지였다. 새 아파트들의 집값이 올라가면서 비교적 신축인 아파트들의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이미 전용면적 84㎡기준으로 힐스테이트영통은 8억 원을 넘었고, 영통아이파크캐슬2단지는 7억 5,000만 원에 팔렸다. 시장에는 매물이 들어간 지 오래였다.<sup>16</sup> 개발 이래 망포동의 아파트 가격은 몇 차례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폭등이란 말에 어울릴 정도로 급상승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가격대가 현실화되었다. 30평 아파트 한 채가 10억 원을 훌쩍 넘어버리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개발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망포동의 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3년에는 개발에 따라 망포동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망포동에 수원 출신의 유명 축구 선수 박지성의 이름을 딴 도로 개설이 계획되어 2005년 완공되었다.<sup>17</sup> 2010년에는 박지성 유소년축구센터가 개관되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망포동이 새로운 주거지로 떠오

르면서 지역 유지들이 거주하는 상황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용서 전 수원시장이 2010년경 망포동으로 이주한 것이다.<sup>18</sup>

개발 후 지역 유지들이 입주하는 등 망포동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발은 숨은 문제들의 ‘개발’이기도 했다. 개발의 문제점은 단지 아파트 가격의 등락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주민 간 갈등도 노정되었다. 1999년 12월 망포동 빌라 거주민들이 벽산건설의 아파트 공사에 대해 일조권 침해, 지반 침하 우려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벽산건설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수원시의 중재를 요청하는 등 갈등 해소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sup>19</sup>

개발 과정의 부정과 비리도 노출되었다. 2001년 3월에는 당시 심재덕 수원시장이 망포동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인허가 관련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sup>20</sup> 결국 심 시장은 뇌물 2억 원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되어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심 시장은 2003년에 대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망포동의 개발 열기가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또한 2004년에는 망포동의 땅 사기 사건이 발각되기도 했다. 거래가 없었던 토지를 대상으로 각종 서류를 위조해 담보대출을 받아 챙기는 이 사기



사건은 망포동의 땅값이 폭등했기에 가능한 범죄였다.<sup>21</sup>

단기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집중 건설되면서 이미 2001년 무렵에는 교통대란이 발생했다. 20분이면 갈 거리가 한 시간 넘게 걸리는 등 망포동의 교통지옥은 중앙 일간지에 기사화될 정도로 심각했다.<sup>22</sup> 수원시 도시계획과는 1996년 망포동 일대 신영통지역에 대해 건축제한고시를 하지 않고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했다. 이 때문에 망포동 일대는 도로망이나 기반시설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여 개 아파트 업체들이 사업계획을 냈고 건축과는 특별한 제재 근거가 없다며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줬다.<sup>23</sup>

교통문제는 여러 도로가 개설되고 2012년에는 지하철 분당선 망포역이 개통되면서 어느 정도 개선되기는 했다. 그러나 수도권지역 대부분이 그렇듯이 망포동의 급속한 인구 증가는 교통망 정비를 뛰어넘는다. 영통, 광교, 동탄 등의 신도시가 밀집한 이 지역의 교통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곤란한 상황이다.

교육도 문제였다. 2002년 한 언론사는 망포동의 교육문제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000년부터 5,000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입주한 수원시 망포동 일대. 길 건너에 있는 영통지구와 의 인접성을 내세워 건설사들이 너도 나도 아파트를 분양했지만 학생들에겐 지옥이다. 대부분의 단지가 입주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중학교는 아직도 공사 중이다. 1년 넘게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다. 마구잡이 개발의 후유증이었다.<sup>24</sup>

2009년에는 고압선 첩탈이 큰 문제가 되었다. 특히 망포동에 들어선 대선초등학교가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학부모들은 고압 첩탈의 이전 대신 지중화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 등교 거부까지 이어졌다.<sup>25</sup> 애초 난개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개발이 추진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망포동의 개발은 난개발을 막지 못했다. 부동산 거품이야 한국 경제 전반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지만 망포동의 난개발은 개발 주체들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망포동에는 아파트 단지만 들어선 것이 아니다. 경제위기 이후 급속하게 늘어난 고시원이 이곳에도 대량 건설되었다. 2012년에는 망포동 고시원촌이 충분한 주차 공간 없이 건축되어 상습적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음이 보도되었다.<sup>26</sup> 2000년대 이후 고시원은 대표적인 저소득층 주거공간이다. 망포동의 고시원촌은 삼성디지털시티 인근에 자리잡았다고 하는데, 글로벌 기업 인근에 고시원이 대거 등장한 것은 21세기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을 수 없다.

망포동의 난개발과 불균형 문제는 수원시의 골칫거리 중 하나가 된다. 수원시가 2014년



도시정비구역(망포1지구) 지정이 확정된 망포연립과 청와아파트 일대

작성한 「2030수원도시기본계획」을 보면 1단계인 2011~2015년에 망포동은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가 주된 목표로 설정되었다. 2016~2020년 제2단계에서 망포동은 남부권역 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이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 개발과 관리 유도가 주요 목표였다. 즉 망포동은 여전히 개발 불균형에 따른 문제가 노정되고 있었다.

2010년대 중반이 되면 망포동은 본격적인 재개발지구가 된다. 2015년 작성된 망포5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주민동의율 67.31%로 사업이 시행되었다.<sup>27</sup> 당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대상 토지 소유주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였기에 가까스로 그 비율을 충족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지구계획 대상 지역은 망포동 609-7번지 일대 토지 6만㎡에 아파트와 근린시설 및 공원, 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계획은 647가구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그 외 공원과 각종 근린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포함되었다.<sup>28</sup> 이 지역은 망포동 중에서도 가장 남쪽지대로 화성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었기에 망포동의 마지막 개발지구라고 할 수 있었다.

2019년 작성된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망포1지구 청와아파트가 재





망포글빛도서관과 글빛누리공원(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건축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이미 망포동도 재개발이 필요할 정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노후화 현상이 심각해진 것이다. 노후화와 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은 흔히 재개발로 불리는 방식이 동원된다. 한국의 도시 개발 역사는 하나의 순환을 통과하고 있다. 이는 농경지나 임야를 개발해 도시 주거지역이나 산업시설을 건설한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나 재개발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몇 세대를 경과하면서 개발보다 재개발이 더 중요한 국면이 나타난 것이다.

현재 망포동은 개발이 하나의 순환을 끝내면서 어느 정도 도시 주거지역의 형태를 갖춘 상황으로 보인다. 수많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핵심 시설이고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들어서 있다. 주거와 교육 시설이 기본을 이룬다고 하겠다. 이외에 주요 시설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망포공원, 태장공원, 박지성공원(실버공원), 망포글빛누리공원, 망포체육공원, 잠원종합체육공원, 방죽공원 등이 있다. 문화 시설로 망포글빛도서관, 지혜샘도서관 등이 있다. 특히 공원이 많은 것이 특징적인데, 환경문제가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망포동의 주거 공간적 특성이 뚜렷하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기존 연구를 보더라도

고학력, 청년 1인 가구 등에서 망포동이 주요한 지역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청년 1인 가구는 수원역, 성균관대, 아주대, 삼성전자 주변, 영통지구 등이 꼽히는데 망포동이 특정되지는 않는다. 이외 저소득층, 노후 주택, 노인 1인 가구, 외국인 등 어느 항목에서도 망포동이 특정되지 않았다.<sup>29</sup> 즉 망포동은 전형적인 도시 중산층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었으며 최근의 재개발은 그것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하겠다.

부동산 폭등을 비롯해 교통문제, 사회 양극화 등 망포동 역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도시 문제를 안고 있다. 개발에 이은 재개발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다. 언제나 그렇듯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망포동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방죽이 필요할 것이다.

- 註
- |                                                                  |                                                           |
|------------------------------------------------------------------|-----------------------------------------------------------|
| 1.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권, 2014, 259쪽.                             | 16. 『한국경제』, 2020년 2월 9일.                                  |
| 2. 박재용, 「통계자료를 이용한 공간적 변동파악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14집 제1호, 2001 참조. | 17. 이 도로는 수원시와 화성시의 자존심 대결 끝에 '동탄지성로'로 이름이 바뀐다.           |
| 3. 수원시, 「수원시국토이용계획변경(신동-망포동) 개발 및 보전계획서(안)」, 1998, 23쪽.          | 18. 『뉴시스』, 2011년 2월 28일.                                  |
| 4. 수원시, 「의견서」(수원(신동-망포동)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청), 1998.         | 19. 『연합뉴스』, 1999년 12월 15일.                                |
| 5. 수원시, 「수원시국토이용계획변경(신동-망포동) 개발 및 보전계획서(안)」, 1998, 21~22쪽.       | 20. 『동아일보』, 2001년 3월 9일.                                  |
| 6. 수원시, 「수원시국토이용계획변경(신동-망포동) 개발 및 보전계획서(안)」, 1998, 24~27쪽.       | 21. 『노컷뉴스』, 2004년 12월 12일.                                |
| 7. 『연합뉴스』, 1999년 5월 27일.                                         | 22. 『국민일보』, 2001년 5월 22일.                                 |
| 8. 『매일경제』, 2000년 12월 31일.                                        | 23. 『오마이뉴스』, 2002년 9월 17일.                                |
| 9. 『매일경제』, 2002년 9월 4일.                                          | 24. 『매일경제』, 2003년 2월 24일.                                 |
| 10. 『연합뉴스』, 1997년 8월 7일.                                         | 25. 『뉴시스』, 2009년 4월 30일.                                  |
| 11. 『파이낸셜뉴스』, 2003년 7월 17일.                                      | 26. 『뉴시스』, 2012년 7월 27일.                                  |
| 12. 『연합뉴스』, 2003년 10월 8일.                                        | 27. 수원시, 『수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망포 5지구단위 계획) 결정』, 2015, 130쪽. |
| 13. 『내일신문』, 2007년 12월 18일.                                       | 28. 수원시, 『수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망포 5지구단위 계획) 결정』, 79쪽.        |
| 14. 『뉴시스』, 2008년 10월 18일.                                        | 29. 이성호, 「수원시 주거분화 특성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019, 49~62쪽.         |
| 15. 『파이낸셜뉴스』, 2009년 9월 20일.                                      |                                                           |



# ‘망포신도시’의 형성과 문화

- 01 망포동의 주거지 성격과 위상
- 02 망포동 아파트의 운영과 문화
- 03 망포동의 지역공동체 활동
- 04 망포동 상권의 형성과 변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01

# 망포동의 주거지 성격과 위상

### 1. 아파트 중심의 신형 주거지, 망포동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망포동은 인구 120만 명의 대도시 수원의 남동쪽 외곽에 위치한 법정동이다. 행정동을 기준으로 보면 망포1동과 망포2동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영통2동에 속하는 망포역 북서쪽의 방죽머리 역시 망포동에 해당하지만, 주로 각종 사업체와 원룸 및 소규모 빌라로 이루어져 있음을 고려하면 이 지역이 현재 망포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인구 3만 1,748명(1만 919세대)<sup>1</sup>의 망포1동과 인구 2만 8,393명(9,550세대)의 망포2동이라는 2개의 행정동이 실질적인 망포동의 인문지리적 경관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북쪽으로 덕영대로, 서쪽으로 원천리천을 두고 남쪽의 화성시, 그리고 동쪽의 용인시와 맞닿아 있는 망포동은 28개의 아파트 단지(2020년 11월 기준)가 밀집한 대규모 주거지이기도 하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이 지역 일대는 2000년대 들어 급격히 개발이 진행되면서 크고 작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렇게 아파트 중심으로 지역의 공간적 특성이 재편되며 망포동은 수원시를 넘어 경기 남부권의 신형 인기 주거지역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망포동은 특히 중산층이 선호하는 주거지로 부상했는데, 이런 특성은 수원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은 세대당 인구수에서도 확인된다. 2020년 현재 세대당 인구수를 보면 망포1동의 경우 2.9명, 망포2동은 3.0명으로 수원시 전체 평균인 2.3명보다 크게 높은 편이다. 애초에 아파트라

정현목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교수



는 주거공간 자체가 한국사회에서 자리잡는 과정에서 부부와 아이로 이루어진 3~4인 가구를 아파트 거주 의 기본 단위로 삼았음을 감안할 때,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이처럼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당 인구수가 증가한 사실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00년대 이후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망포동이 지닌 주거지로서의 특징과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흥 주거지로서 망포동이 갖는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짚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의 모습만 보아서는 고층 아파트가 이루는 높은 스카이라인이 망포동의 인상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아파트촌(村)’으로서 망포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젊은 동네’이기 때문이다. 망포동이 현재의 아파트 중심 주거지로 탄생하기 이전부터 이 지역은 나름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장소였다.

## 2. 망포동의 변천사 : 농경지에서 아파트촌으로

망포동에 오래 전부터 살아온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이곳이 예전에는 완전 시골이었다.” 혹은 “예전에는 여기 전부 논밭이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며 새로 유입된 주민들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이 지역이 농경지 위주였던 과거에 대한 토박이 주민들의 기억은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런 사실은 수원시청이 제공하는 연도별 항공사진 서비스를 활용한 비교에서도 실제로 확인된다.

2000년과 2020년 망포동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 사이에 놓인 정확히 20년이라는 시간 차이는 이 지역의 물리적 경관을 극명하게 대조시킨다. 남동쪽에 위치한 망포동 최초의 대단지 아파트인 늘푸른벽산아파트(현재는 ‘영통벽산블루밍아파트’)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논밭인 2000년에 비해, 2020년의 망포동은 꽤 많은 아파트 단지가 뻗뻗이 들어서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주민들의 구술에서도 확인된다. 수원에서 39년, 그리고 망포동에서 25년을 살아온 유순모는 그 변화를 생생히 기억한다.

**유순모** 여기 망포동이 1995년도에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이 됐어요, 95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가 청와아파트밖에 없었어요, 청와아파트. 그러다가 늘푸른벽산아파트가 입주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LG1차(현재는 ‘동수원자이차’)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로 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20년 동안에 아파트 단지가 다 생긴 거죠.

1988년 망포동에 처음 지어진 아파트인 청와아파트(4개 동, 250세대)가 들어서고 얼마 뒤인 1991년 세홍아파트(1개 동, 96세대)가 지어진 뒤에도 10년 가까이 이 지역에는 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게다가 두 아파트 모두 작은 규모라서 망포동 일대의 경관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러다 2000년 망포동 최초의 대단지 아파트인 영통벽산블루밍아파트(19개 동, 1,380세대)가 건립되고 바로 이어 동수원자이1차아파트(14개 동, 1,829세대)가 들어서며 본격적인 아파트 건설 붐이 이 지역에도 들이닥친 것이었다. 그리고 불과 20년 사이에 무려 20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어 지금의 아파트촌 중심의 망포동이 형성된 셈이다.

그 이전,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개발이 가속화되기 이전 1990년대까지 이 지역의 역사는 조금 더 복잡하다. 망포동이 수원과 화성 간 경계에 위치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행정구역의 변화가 잦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2</sup>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은 본래 수원부 태촌면에 속한 곳으로, 1899년 발간된 『수원군읍지』에 ‘망포동(望浦洞)’이란 명칭이 나타난다. 지금의 망포동 한자 표기인 ‘網浦洞’과는 첫 글자가 다른데, 당시의 단순한 오기(誤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명의 변천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망포’라는 이름이 조선 중엽 이 지역에 방죽이 있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하는데,<sup>3</sup> 물이 드나드는 곳 가장자리를 가리키는 ‘포(網)’ 자 앞에 어떤 글자가 붙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한자 표기대로 ‘그물 망(網)’ 자를 앞에 붙이면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음’을 의미하는 ‘망포(網浦)’라는 명사를 뜻하지만, 1899년의 기록대로 ‘바람 망(望)’ 자를 붙이게 되면 다른 해석이 가능해진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동리명칭 및 구역변경 때, 이 지역은 방죽머리를 중심으로 주변의 당암(堂岩), 우문(牛門)을 합하여 ‘망포리’라 명명되어 수원군 태장면 관할 하에 들어간다.<sup>4</sup> 해방 이후 1949년 8월 수원을 지역이 수원시로 승격되었을 때 망포리는 수원이 아니라 화성군 태장면으로 편제되었다. 다시 1963년 1월 화성군의 태장면과 안룡면 일부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되고 나머지 지역이 통합되어 태안면(台安面)이라 고쳐 부르게 되는데, 이때 지금의 망포동 지역은 화성군 태안면에 속하게 된다.

이후 1994년 12월 26일 이곳의 일부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되고, 이듬해인 1995년 4월 20일 화성군 태안을 망포리의 일부가 추가로 편입되면서 팔달구 망포동이 법정동으로 신설(수원시 조례 제1953호)된다. 1995년 수원시로 편입된 이후 신동과 함께 망포동은 행정동인 매탄3동의 관할에 있다가, 2003년 2월 10일 신설·분동된 행정동인 태장동의 관할에 놓이게 된다. 새로 행정동이 분동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지역에 그만큼 행정 수요가 증가했음을 뜻한다. 여기에는 앞서 다룬 것처럼 2000년대 들어 대단지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한 망포





1995년



2000년

논밭의 비율이 높던 망포동(국토지리정보원 제공)



2014년



2020년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변화하는 망포동(국토지리정보원 제공)

RI 수원시정연  
SUWON RESEARCH  
수원학연구

동의 변화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2000년 늘푸른벽산아파트를 필두로 2002년 말까지 이 지역에는 2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전체 8개 단지, 총 5,943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되었다. 이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며 기존의 매탄3동으로는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졌던 것이다. 이후 더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며 이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자 결국 2017년 12월 26일 신동 지역의 행정 관할이 영통2동으로 넘어갔고, 2019년 4월 15일에는 기존의 태장동 대신 망포1동과 망포2동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행정동으로 분동되기에 이르렀다.<sup>5</sup>

망포동 일대에서 진행된 아파트 단지 중심의 도시개발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재의 아파트 숲 사이에 옛 지명으로 남아 있는 ‘우문리(牛門里)’에 대해 간단히 다루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14년 ‘망포리’라는 지명이 붙을 때 방죽머리와 함께 포함된 지역이 바로 우문리였다. 태장사거리에서 동쪽의 먹자골목 방향으로 들어오면 곧바로 황소 모양의 조형물을 볼 수 있는데, 이 조형물이 세워진 배경에도 지역의 역사가 깃들여 있다.





태장사거리 우문리 입구에 설치된 소 조형물

**유순모** 여기 오거리 가다 보면 소 조형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 3년 전(2017년)에 이걸 추진해서 동네에서 참여 예산 받고, 그 다음에 수원시에서, 명동구에서 예산을 받아 갖고 한 5천 5백 들여서 건립해 놓은 거예요. 5천 5백만 원.

**유순모**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전주 이씨가 3백 년 전에 여기에 집성촌을 이룬 거예요. 망포3리 우문리에서. 그러니까 망포리, 2리, 3리 있었고 신리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최씨들이 많이 살았고, 망포3리는 황씨들. 그리고 여기 망포3리는 3백 년 전에 전주 이씨들이 집성촌을 이뤄서 살아온 거죠. (...) 그리고 그게 우문리라고 하고. 한글로 소문리라고 하고 한자로 우문리(牛門里)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도로가 옛날에는, 지금은 사라져 버렸지만 지금은 그 길이에요. 저기 뭐 동탄이라든가 화성 오산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에요). 예전에 우시장이 수원 남문에 있었어요. 거기로 소를 끌고 와서 사고파는 문이라고 그래서 우문이라고 한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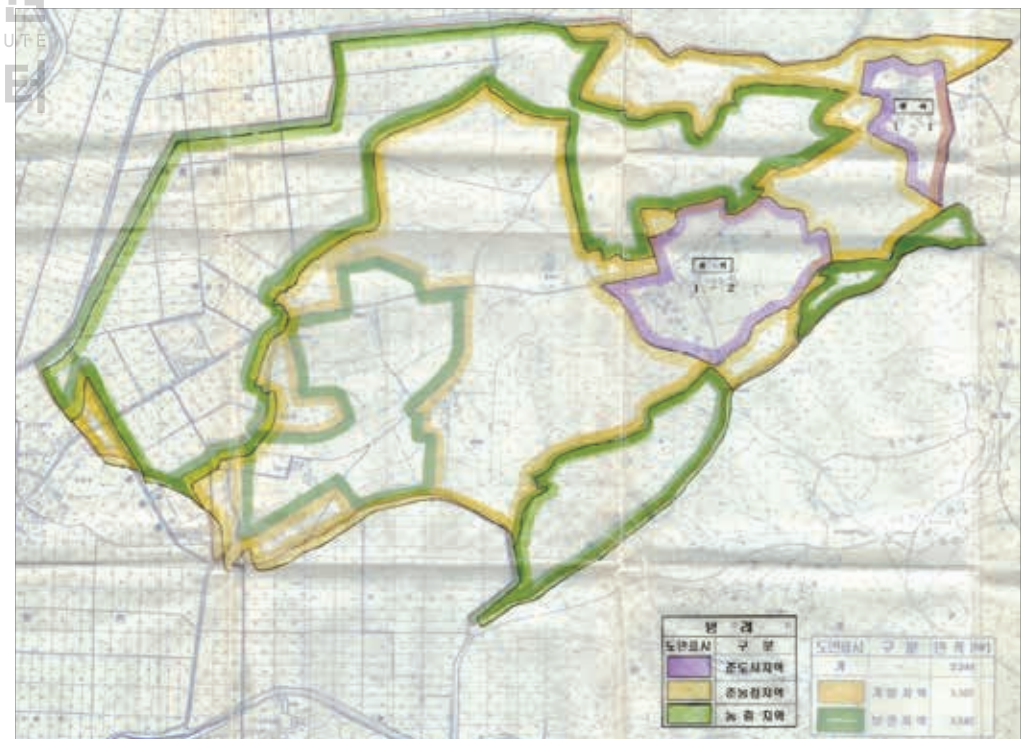
**유순모** 소 우(牛)자, 문 문(門)자 써 가지고 소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라고 해서. 동네 위에서 보면은 황소가 누워 있는 형태예요, 마을이 이렇게. 그래서 소가 그대로 안쪽으로 갈싸고 있다구. 그래서 우문리라는 데가 이름 붙은 거죠.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 사례는 2000년대 이후 망포동이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로 바뀐 뒤에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둔 주민들의 자생적 활동이 활발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러한 망포동 주민들의 지역 활동에 대해서는 제5부의 이어지는 장들(「망포동 아파트의 운영과 문화」, 「망포동의 지역공동체 활동」)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 3. 아파트 단지 중심의 도시개발

망포동의 도시개발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수원시 전반의 당시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들어 수원시는 주변 지자체로부터 인접한 지역들을 편입하여 활발한 개발사업을 펼치며 시가지를 확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준도시,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구역에 해당 지역을 포함시켜 관리하는 정책 수립이 이루어졌다. 당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수원시에 편입된 망포동과 신동 지역 역시 난개발 조



망포동 개발 및 보전계획도(『국토이용계획변경 : 수원시 도시계획구역확장』, 1998, 국가기록원 제공)



짐을 보이던 차에 토지 용도변경을 통한 체계적 관리 대상에 놓이게 되었다.

「망포동 개발 및 보전계획도」를 보면 1998년 당시 망포동 일대에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고, 소규모의 ‘준도시지역’(보라색 테두리)을 제외하면 ‘준농림지역’(노란색 테두리) 및 ‘농림지역’(녹색 테두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계획안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이 지역을 모두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기존의 농림지역은 보전지역(1,242km<sup>2</sup>)으로, 그 외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개발지역(1,107km<sup>2</sup>)으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양호한 농경지 및 수림대(樹林帶)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북동쪽의 영통택지개발지구와 연계된 저밀도의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이 지역의 전원 분위기를 살려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고자 했던 당시의 계획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개발지역으로 설정된 구역에 영통벽산블루밍(이전 ‘늘푸른벽산’)과 동수원자이1차(이전 ‘LG1차’), 쌍용스윗닷홈1차(이전 ‘쌍용아파트’) 등이 들어서며 인구가 급

증하자 이 지역을 향한 개발압력이 더욱 거세지게 된 것이다. 결국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기존에 설정된 보전지역 역시 아파트 건설을 중심으로 한 개발 대상지로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수원시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망포동 일대의 미개발 지역을 각각 망포1~5지구로 명명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나섰다.

2010년 준공된 망포그대가센트럴파크(망포1지구)를 필두로 진행된 망포동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발은 이전의 농림지역을 빠르게 아파트 단지로 채워나갔다. 2010년 이후 10년 사이에 망포1지구와 2지구, 3지구, 4지구 등지에 총 8,408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되었다. 2020년 현재, 망포동에서 가장 최근에 건립된 영통아이파크캐슬아파트가 들어서며 망포4지구는 부분적으로 입주가 완료되었고 일부는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망포동 최남단에 위치한 망포5지구와 화성시와의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의해 새로 수원시로 편입된 지역인 망포6지구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며, 망포2동 행정복지센터 남단의 국립잠종지 부지(중전부동산 망포지구) 역시 아파트 단지 중심의 개발을 앞두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아파트 건설로  
주거지역이 확장되는 망포동(최호운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02년 늘푸른벽산아파트 일대  
(수원박물관 제공)







망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표 1 망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2020년 11월 기준)

| 연번 | 구역명               | 위치              | 면적(m <sup>2</sup>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1  | 망포동지구<br>(마젤란APT) | 망포동 509-2번지 일원  | 9,206.2             | 2004.11.22. | 수원시 고시 제2004-239호 |
| 2  | 망포1지구             | 망포동 358번지 일원    | 294,900             | 2006.08.21. | 경기도 고시 제2006-154호 |
| 3  | 망포2지구             | 망포동 476-5번지 일원  | 50,172              | 2006.08.21. | 경기도 고시 제2006-154호 |
| 4  | 망포3지구             | 망포동 46-3번지 일원   | 216,956             | 2013.10.18. | 수원시 고시 제2013-300호 |
| 5  | 망포4지구             | 망포동 66-9번지 일원   | 563,320             | 2016.11.03. | 수원시 고시 제2016-317호 |
| 6  | 망포5지구             | 망포동 609-7번지 일원  | 60,063              | 2017.02.08. | 수원시 고시 제2017-27호  |
| 7  | 중전부동산<br>망포지구     | 망포동 234번지 일원    | 219,836             | 2017.02.20. | 수원시 고시 제2017-35호  |
| 8  | 망포6지구             | 망포동 770-46번지 일원 | 116,399             | 2020.11.30. | 수원시 고시 제2020-431호 |

망포동 지역이 신혼 주거지로 인기가 급부상한 배경에는 2012년 12월 개통된 분당선 기흥-망포 연장 구간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 이 구간은 서울 왕십리에서 용인 기흥까지 운행 중이던 분당선을 연장한 것으로, 해당 구간이 개통되며 수원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게 되었다.<sup>6</sup> 망포동 북단에 위치한 망포역은 행정구역 상으로는 망포동 경계 바깥에 놓이며 영통동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망포동 일원의 아파트 단지들과 지하철 분당선을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덕분에 매맞춰 역 주변에 들어서기 시작한 망포 1~4지구의 아파트 단지들의 인기도 덩달아 부상할 수 있었다.

#### 4. 영통과의 관계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된 주거지로서 망포동이 지니는 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북쪽에 인접한 영통지구와의 관계를 짚어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로 개발된 주거지구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의 문제이다. 부동산 가치가 지배하는 한국의 아파트 시장에서 특정 지역을 어떤 이름으로 명명하여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는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변에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 이름을 얻은 주거지역이 위치해 있다면 그 지역과 어떤 형태로 연계할 것인가는 무시할 수 없는 과제가 된다. 망포동의 경우 그 대상이 바로 영통지구였다.

영통지구는 수원시 동남부에 위치한 대규모 주택단지로, 1988년 발표된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에 따라 1기 신도시(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가 건설되기 시작한 이후 수도권 지역의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가로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 중 하나이다.<sup>7</sup> 인구 10만 명을 수용하는 2만 6천여 호의 주택공급으로 계획된 영통지구는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하나로 2011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광교신도시 개발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수원에서 실시된 가장 대규모의 택지조성 사업이었다.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영통지구는 한동안 수원의 대표적인 중산층 주거지이자 ‘젊은 부촌(富村)’으로 여겨져 왔다.

‘망포’라는 이름이 부동산 시장에 각인되기 전에 망포동 일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며 각 건설사와 시행사는 자연스럽게 ‘영통’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표 2>의 망포동 아파트 현황을 보면 아파트 이름에 ‘영통’이 붙은 단지가 12개나 됨을 알 수 있다.



표 2 망포동의 아파트 현황(2020년 11월 기준)

| 연번 | 아파트명          | 세대수   | 동수 | 지번 주소 | 준공연월    | 비고    |
|----|---------------|-------|----|-------|---------|-------|
| 1  | 청와아파트         | 250   | 4  | 291   | 1988.12 |       |
| 2  | 세흥아파트         | 96    | 1  | 298-2 | 1991.02 |       |
| 3  | 영통벽산블루밍       | 1,380 | 19 | 488   | 2000.11 |       |
| 4  | 동수원자이1차       | 1,829 | 14 | 686   | 2001.12 |       |
| 5  | 망포역마을쌍용스윗닷홈1차 | 531   | 8  | 691   | 2002.04 |       |
| 6  | 망포마을현대아이파크1차  | 554   | 9  | 693   | 2002.06 |       |
| 7  | 동수원자이2차       | 816   | 9  | 690   | 2002.07 |       |
| 8  | 망포마을벽산E빌리지    | 344   | 5  | 696   | 2002.07 |       |
| 9  | 망포마을 현대아이파크2차 | 489   | 5  | 686   | 2002.10 |       |
| 10 | 동수원자이3차       | 924   | 7  | 698   | 2003.06 |       |
| 11 | 동수원쌍용스윗닷홈3차   | 287   | 3  | 700   | 2004.09 |       |
| 12 | 동수원쌍용스윗닷홈2차   | 274   | 4  | 702   | 2004.11 |       |
| 13 | 망포극동스타클래스     | 134   | 2  | 704   | 2005.07 |       |
| 14 | 영통뜨란채 10단지    | 699   | 6  | 707   | 2005.09 |       |
| 15 | 망포동휴먼빌        | 105   | 2  | 716   | 2006.07 |       |
| 16 | 영통마젤란21 1단지   | 108   | 1  | 509-1 | 2006.11 | 망포동지구 |
| 17 | 영통마젤란21 2단지   | 159   | 4  | 509-2 | 2006.11 | 망포동지구 |
| 18 | 망포삼정라츠        | 185   | 2  | 717   | 2008.09 |       |
| 19 | 망포그대가센터럴파크    | 270   | 4  | 722   | 2010.01 | 망포1지구 |
| 20 | 신영통센터럴하이츠블랙   | 549   | 9  | 718   | 2010.07 | 망포1지구 |
| 21 | 망포그대가프리미어     | 602   | 10 | 720   | 2010.08 | 망포1지구 |
| 22 | 영통한양수자인에듀파크   | 530   | 8  | 723   | 2013.12 | 망포1지구 |
| 23 | 영통SK뷰         | 710   | 8  | 725   | 2016.02 | 망포2지구 |
| 24 | 영통e편한세상2차 1단지 | 392   | 5  | 726   | 2016.12 | 망포2지구 |
| 25 | 영통e편한세상2차 2단지 | 270   | 5  | 727   | 2016.12 | 망포2지구 |
| 26 | 힐스테이트영통       | 2,140 | 21 | 728   | 2017.08 | 망포3지구 |
| 27 | 영통아이파크캐슬 2단지  | 1,162 | 10 | 760   | 2019.01 | 망포4지구 |
| 28 | 영통아이파크캐슬 1단지  | 1,783 | 16 | 766   | 2019.03 | 망포4지구 |

최근 지어진 아파트 단지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한데, 망포2지구에 건설된 영통SK뷰나 영통e편한세상2차, 망포3지구의 힐스테이트영통, 망포4지구의 영통아이파크캐슬 등이 모두 거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망포동 주민이자 수원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인 최중영은 아래와 같은 에피소드를 들려주기도 했다.



영통지구에 속하는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통 10단지’로 이름붙인 방죽마을영통뜨란채아파트

**최중영** 영통동에 보면 풍림아이원이 있어요. 대선초등학교 쪽. 거기가 원래 망포동이었는데, 영통동으로 그 게 편입이 되고 나서 아파트 값이 하루아침에 오천만 원이 뛰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바로 남쪽에) 또 관채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뜨란채는 이름을 영통 10단지로 했어요. (...) 풍림아이원이 먼저 영통으로 가 고 뜨란채가 나중에 들어오면서 자기들도 영통 가려고. 그래서 거기 이름을 영통 10단지로 한 거죠. 그런데 영통은 원래 9단지까지만밖에 없어요. 거기 아파트 가 보시면 영통 10단지라고 써 났어요. 그러니까 동은 101동, 2동을 1002동, 이절게.

2005년 9월 준공된 영통뜨란채아파트는 망포동 북동쪽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2020년 현재 행정구역이 영통동과 접해 있다. 영통로200번길을 사이에 두고 바로 북쪽에 위치한 영통풍림아이원3차아파트는 예전의 당암리(당암마을)로 불리던 지역에 위치한 단지인데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행정적으로도 망포동에 속해 있었다. 그러다 이 단지가 영통동으로 편입되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망포동에 그대로 남은 뜨란채아파트도 영통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통뜨란채 10단지’를 정식 이름으로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1998년 개발이 완료된 영통지구는 1단지에서 9단지까지만을 범위로 하며, 이는 영통택지개발지구 1~9단지만을 ‘영통’으로 인식하는 실제 시민들의 명확한 경계 인식에서도 확인된다.<sup>8</sup> 따라서 영통뜨란채 ‘10단지’의 사례는 망포동이 영통지구의 기존 위상과 갖는 미묘







하면서도 아이러니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하지만 영통지구가 개발된 지 이미 20년이 넘었고, 동수원 일대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대체지이자 경쟁지로 광교신도시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며 영통의 위상과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진 것도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영통과의 연계 시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처음부터 망포라는 이미지가 시장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영통과는 다른 독립적인 주거지로서 망포동의 이미지와 위상이 더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축 아파트 공급을 중심으로 망포동 일대의 경관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시장 평가가 교착 상태에 이른 영통지구와의 차별화에 나서는 게 망포동의 아파트 단지 입장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망포동 일대에 공급되는 아파트 상당수에 ‘영통’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 지역을 영통이 아니라 망포동이나 망포지구라고 구분해 다른 지역으로 받아들이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sup>9</sup> 망포동 개발 초기만 하더라도 이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아예 영통3동<sup>10</sup>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적도 있으나, 이제는 영통과 구분되는 망포동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주거지로서 망포동 자체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근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 5. 교통 좋고 살기 좋은 망포동

망포동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생활의 이점으로 이 지역의 교통과 주거 환경이 좋다는 점을 꼽는다. 기존의 편리한 버스 노선에 더하여 2012년 분당선 연장 개통 이후에는 지하철을 통한 서울로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남동쪽에 위치한 화성(동탄)과 용인(기흥)의 삼성전자 사업장과 도로로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입지 역시 망포동이 지닌 교통 이점으로 강조된다. 이는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되는데, 먼저 최종영의 구술을 살펴보자.

**최종영** (화성이랑 기흥 삼성전자 직원들이 이용하느) 셔틀버스가 망포역에서 출발해요. 아침에 우리 출근할 때 보면 줄을 주욱 서 있어요. 버스 계속 들어오고, 몇 대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7시부터 한 8시까지 정도? (버스들이) 그렇게 쭉 서 있다가 막 밀려 나갈 때가 있어요. 같은 데서 무전을 받는 건지, 뭐를 받는 건지 있다가 한꺼번에 나가고는 그래요. 그래서 열차가 와서 내렸나? 이걸고. 그제 다 삼성반도체 버스라, 화성이고 용인이고 다 거기서 다니는 거예요.

**조사자** 화성이나 용인 쪽으로 가는 소속 직원들은 망포역 앞에서 태우는 이유가 있나요?

**최종영**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하철 타고 와서, 화성 (삼성)반도체나 기흥 반도체 나가려면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시외)버스가 잘 없으니까 셔틀버스로 움직이는 거죠.

**조사자** 다른 역보다 망포역을 통해서, 망포역에서 모아서 나가는군요.

**최종영** 네, 거기서 바로 나가니까요. 망포역에서 쭉 내려가면 동탄이에요.

망포동과 동탄 사이에 위치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2000년대 후반 개발된 2기 신도시인 동탄신도시가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를 끌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이는 바로 인근에 자리한 직장(삼성전자와 협력업체)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베드타운이자 가족성을 갖춘 도시로 동탄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하지만 동탄신도시의 경우 서울과의 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반면에 망포동의 경우 서울이나 수원의 다른 지역과의 교통 연계가 잘 되어 있으면서 신축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장점을 지닌 지역인 것이다.

삼성전자와의 교통 연계가 좋다는 점 외에도 망포동이 지닌 생활 측면에서의 이점도 있다. 이에 대해 망포동에서 20년 가까이 부동산을 운영해 온 설동석은 이렇게 말한다.

망포역 1번 출구 앞의  
통근버스 정류장(최인경 제공)





**설동석** 여기(망포동)가 삼성 위주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 계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공기가 좋고 위치도 좋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살기 괜찮죠. (...) 학교도 괜찮고, 생활 시설들이 주위 근처에 다 인접해 있어요. 영통 같은 경우는 버스 타고 나가야 은행도 갈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이 여기(망포역 부근) 있잖아요. 그런 장점들이 있죠.

오랫동안 농경지로 있었고 관내에 산업시설이 없는 덕분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공기가 좋다는 점은 이 지역의 장점 중 하나이다. 또한 풍부한 버스 노선과 함께, 도보로 오갈 수 있는 갖가지 생활 편의시설이 주변에 인접해 있다는 것 역시 망포동이 가진 주거지로서의 이점이다. 이는 인접한 영통지구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부각된다.

**설동석** (망포동이) 훨씬 영통보다 나은 거 같아요. 어떤 면에서 낫냐면, 영통은 하다못해 은행을 가려면 중심 상가로 가야 되고 벽적골로 와야 되고. 벽적골에도 상가가, 은행도 몇 개 없어요. 중소기업, 우체

국, 농협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걸어서 5분 거리 내에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다 있어요. 병원이 한 13개 정도가 있고, 한의원까지 다 하면 한 15개가 있고. 치과, 내과, 산부인과, 걸어서 5분 거리 내에, 차로 5분이 아니라. 학원이랑 학교도 중학교, 초등학교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통을 나갈 일이 없어요. 먹자골목, 술 한 잔 먹으러 가자 하면 여기 음식골목도 다 있고. 굳이 영통에 나갈 일이 없을 거 같아요. 영통에 나가려면 버스 대신 차 타고 나가야 되는데, 굳이...

이처럼 하나의 생활공간으로서 높은 자족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연령대가 높은 주민들만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지역 자체의 역사와 별개로 아파트촌으로서 망포동은 매우 ‘젊은 동네’이고, 2000년대 이후 이곳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이들은 나이가 이제 20대(2020년 기준)에 불과하다. 동수원자이3차(예전의 ‘LG3차’) 아파트에서 살며 망포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정현빈은 현재 거주하는 영통과의 비교를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교육, 여가, 교통 등의 생활편의성이 좋은  
태장사거리(최인경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망포동 중심상권인 망포역사거리  
(최인경 제공)





**조사자** 영통 쪽이랑 망포 쪽이랑 살면서 느낌이 어때요? 다른 점이랄든지.

**정현빈** 일단 살아온 시기가 너무 달라서 이걸 비교를 한다는 게 맞는 건가 모르겠는데. 망포동 같은 경우엔 학원가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그리고 태장마루도서관(도 있어요). 그러다보니 여기서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영통에서는 전부 아파트단지, 전부 학교다 보니까 영통 쪽에서 살 때는 완전 영통 중심 상가로 빠져 나가 놀거나 다시 수원역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나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영통은 완전 생활만 한 느낌이고, 망포동에 살 때는 망포동에서 살고 놀고까지 다 한 느낌이에요.

정현빈의 구술에 등장하는 “완전 생활만 한 느낌”이란 영통 자체에서 여가활동을 즐기거나 소비활동을 하진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망포동에서는 학원가와 독서실, 도서관 등을 오가며 여러 범주의 활동을 같은 동네 안에서 영위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망포동에 젊은이들이 시간을 보낼만한 다양한 공간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교통 편의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은 망포동의 생활여건 자체가 훌륭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 6. 나가며 : 망포동의 현재와 미래

지난 20년 사이에 망포동은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역으로 거듭나며 수원 남동부를 대표하는 신흥 인기 주거지로 부상했다. 2003년 2월 10일, 매탄3동에서 분동(分洞)되며 독립된 행정구역으로서 출발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은 인구 6만이 넘는 인구 밀집지로 변모했다.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망포지구)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2025년경에는 망포동의 인구가 7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sup>11</sup>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며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자 2019년 4월 15일, 기존의 행정동인 태장동이 새로 망포1동과 망포2동으로 분동되기에 이르렀다. 남북으로 뻗은 영통로와 동서의 태장로를 기준으로 동쪽의 망포1동과 서쪽의 망포2동으로 나뉜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태장동 주민센터는 망포2동 행정복지센터로 활용되었지만, 아직 망포1동의 경우는 적합한 행정복지센터를 구하지 못한 상태이다. 당초 수원시는 망포공원 내에 약 2,000㎡ 규모의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다소 난관을 겪고 있다. 현재는 임시로 망포동 484번지 소재의 요양병원 내 1개 층을 청사로 활용 중이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식 청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구가 모여들고 주거지로서 망포동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이 지역의 부동산 가

격 역시 상승세를 보여 왔다. 2020년 2월 기준 망포동의 1년간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27.14%(1,109만 원 → 1,410만 원)로 같은 기간 수원시 전체 평균인 14.48%의 두 배에 육박했고, 인접한 영통동의 5.92%에 비해서는 무려 4배 가까이 높았다.<sup>12</sup> 물론 이 같은 가격 상승이 모든 주민에게 반가운 소식만은 아닐 터이다. 주택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인지 몰라도, 자기 집을 갖지 못해 전세 등 임대주택을 전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파트 가격 상승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한국사회 전반의 사회적 이슈인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로부터 망포동 역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한편 망포동 일대에서 아파트 단지 중심의 개발이 진행되며 기존의 지역 역사를 보존하는 작업이 점차 어려워진 현실을 아쉬워하는 주민들도 있다. 망포동의 자생적인 지역축제인 ‘태장 국화전시회’에 9년째 관여하는 한편, 태장르네상스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인 유순모는 사라진 국립잠종장과 관련한 상황을 아쉬워했다.

**유순모**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아쉬운 게, 여기 잠종장 부지가 있었던 자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1964년도인가 여기 뽕밭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게 올해 부로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원시에다가 누에와 관련된 박물관을 건립해 달라 했는데 그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자료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줄 수는 있다고 했는데, 건립 단계에서 그게 무마되고 말았어요. 대신에 이제 여기 체육공원이 8천 평으로 들어서거든요. 저기 망포2동 주민센터 앞으로 해서 8천 평이 공원으로 들어서요. 그 안에 실내 체육관이 건립이 돼서 그나마라도 주민들이 지역을 안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3만 3천 몇 세대가 아파트로 입주하거든요.

**조사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기 잠종장 관련해서 박물관이나 그런 게 들어오는 것보다 아파트 들어오는 게 아쉽다는. 아파트보다 사실은 잠종장이나 이런 역사적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누에박물관이 들어오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군요.

**유순모** 누에박물관은 부지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망포2동 주민커뮤니티센터)은 종자관이 있었던 건물이에요. 요거는 수원시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들테면 박물관 건립을) 여기서 해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만 해도 이게 천이백 평이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새로 건립을 해 달란 건 아닌데, 지역의 역사가 있던 곳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참 아쉬운 거죠. 여기가 도농복합 도시잖아요. 수원 중에 마지막 농지가 있는 땅이었죠, 망포동이. 근데 이제 농지가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이제. 이게 사라지고 이제 망포5지구까지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그러면 농지가 없어지는 거죠.

향후 망포동에서 남은 부지가 모두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이 지역은 명실





개발이 진행 중인 망포동 잠종장 부지(김승일 제공)

공히 ‘망포신도시’라 부르기에 부족하지 않은 공간이 될 것이다. 지역 대부분을 논밭이 차지하고 있던 20여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해당 지역이 기존에 갖고 있던 역사적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망포동의 경우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잠종장이 자리해 있었던 지역이라는 사실이 그에 해당한다. 앞으로 망포동 일대는 수도권의 여타 많은 신도시가 그래온 것처럼 지나간 과거를 잊고 아파트 단지들이라는 외관을 두른 채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애착을 갖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민들이 있는 한 망포동이라는 공간의 현재적 의미는 계속해서 발굴되고 기록되어 나갈 터이다.

지금까지 주거지로서 망포동이 지닌 성격과 위상을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제5부의 다른 글에서는 아파트 단지 중심의 주거지로 변모한 망포동을 세 가지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자

한다. 먼저 지난 20년 동안 망포동을 채워 온 아파트 단지 자체에 초점을 맞춰 주민들의 생활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 그물처럼 얽힌 망포동의 지역공동체 활동이 지닌 의미를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신도시가 건설되며 새롭게 형성되고 변화한 망포동 상권의 특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크고 작은 아파트 단지들과 더불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망포동의 활기찬 현재 모습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註

1. 인구와 세대수는 2020년 10월 기준(『통계로 보는 수원』, <http://stat.suwon.go.kr>).
2. 행정구역 변천에 관한 이하 내용은 『2009년 태장동 일반현황』을 참조하였다.
3. '방죽머리'라는 지명 역시 여기서 유래했다.
4. 수원시청 홈페이지 「수원지명유래」 참조.
5. 이로 인해 '태장'이라는 지명이 사라지게 된 사실에 대해 원주민들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6. 수원시정연구원, 『100만 도시 성장기 : 수원의 오늘을 만든 7가지 장면』, 2019, 187쪽.
7. 수원시정연구원, 『100만 도시 성장기 : 수원의 오늘을 만든 7가지 장면』, 2019, 167쪽.
8. 이성호, 『수원 내 주거공간 계층화의 사회공간적 특성 연구 : 영통, 광교 지역을 중심으로』, 2019, 55쪽.
9. 이성호, 『수원 내 주거공간 계층화의 사회공간적 특성 연구 : 영통, 광교 지역을 중심으로』, 2019, 77쪽.
10. 법정동인 영통동 내에 현재 위치한 영통3동은 2017년 12월 신설된 행정동이다. 따라서 이 주장이 나온 시기에는 영통3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11. 「새로운 역사 쓰는 영통구 망포동… 내달 15일 분동」, 『e수원뉴스』, 2019년 4월 6일.
12. 「수원 신흥주거타운 망포지구, 수요자 물리는 이유」, 『매일경제』, 2020년 4월 1일.





## 망포동 아파트의 운영과 문화

### 1. 망포동 아파트 단지의 과거와 현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망포동은 지난 20년간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거듭해 왔다. 지금과 같이 망포동이 수원시 영통구 내에서도 눈에 띄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자리 잡는 데는, 인근 상가 및 교통 시설의 변화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망포역에서 남쪽으로 뻗어나간 영통로를 타고 망포마을을 가로질러 내려가다 보면, 20년 전과 지금의 망포동이 거쳐 온 변화가 곳곳에 드러난다. 망포동에는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즈음인 1990년대 후반에서 202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기를 달리하여 형성되어 온 상가와 아파트, 그리고 거리들이 겹겹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망포동에서 오래 살아온 주민들은 인근의 땅이 원래 거의 논밭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망포동에서 자라 지금은 20대로 성장한 청년들도, 어린 시절에는 풀이 난 공터에서 즐겨 놀곤 했다고 한다. 망포동에서 20년 동안 살아온 송민영(가명)은 쌍용아파트에 입주했던 2000년대 초반의 망포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송민영 영동이, 거기가 다 산이었으니까 그쪽으로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비포장도 아니고 완전히 산. 그걸 다 토목공사 하고 지은 거니까 새로운 신도시였죠. 논밭이 겨우 있었어. 그것도 좁은 이차선 길. 그리고 여기 태장초등학교, 옛날의. 지금 명동중학교 자리 그쪽으로 해서 남문으로 나가고 했던 길이었는데 그때는 여기 청와아파트밖에 없었어. 청와 팔십몇 년 도에 90년도에 청와아파트라 해

황의진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석사과정 수료





순차적으로 개발된 망포2동 전경(김승일 제공)

서 생기고 이쪽은 거의 논밭? ... (내가) 86년도에 올라왔으니까, 삼성반도체 있으니까 남문 나가는 쪽으로 해서 가게나 아니면 저기 신갈 쪽으로 해서 가게나 그런 식이었지.

주민들은 동탄지성로 쪽 역시 전부 논이었으며, 망포역에서 동탄 가는 길(영통로) 양쪽에만 상가가 조금 있었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파트가 영통로를 중심으로 점차 들어서기 시작했다. 1988년에 청와아파트, 1991년에 세흥아파트가 세워진 데 이어 늘푸른벽산아파트(지금의 영통벽산블루밍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 것이 2000년이었다. 늘푸른벽산아파트 다음으로 현대아파트와 LG빌리지(현 동수원자이)가 지어지고, 2010년 후반에 들면서는 망포역 부근에 힐스테이트와 같은 고층 아파트들도 들어섰다.

망포동에서 오래 살아온 주민들은 여러 아파트 단지가 다소 빼곡하게 들어선 망포동의 모습을 생경하게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다른 지역에서 망포동으로 들어온 새로운 주민들도 많다. 망포동에서 부동산을 20년 가까이 운영해 온 설동석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이후 망포동에 아파트들이 차츰 들어서고 분양을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청와아파트와 세흥아파트는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층이 낮고 단지가 작아 많은 주민을 수용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늘푸른벽산아파트가 2000년에 입주를 시작하고 이후에도 망포동 내에 아파트 단지가 여럿 형성되면서 다

른 지역에서도 거주지를 찾는 이들이 망포로 차츰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망포동은 수원시 영통구 내에서도 눈에 띄는 주거 밀집지역이다. 망포동에는 오래된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가 함께 들어서 있듯이, 오래 전부터 토박이로 살아온 주민들과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 망포동에 자리를 잡은 이주민들이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다. 특히 지하철이 연결되면서 망포역이 개설된 이후로 이곳에 오가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졌다. 망포동은 아직도 변화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앞으로 더 많은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생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2020년 시점에 이르러, 지난 20년 동안 망포동이 겪어 온 역사와 주민들의 생활을 엮어 살펴보고자 한다.

## 2. 망포동의 아파트와 주민들

망포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부터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망포동 주민으로 살아온 주민들이 있다. 특히 태장동으로 불리던 2000년대 초반에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아파트에 거주해 온 주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랜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망포보다 태장이라는 이름이 더욱 익숙하고, 계속해서 바뀌어 가는 망포동의 경관이 아쉽기도 하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망포동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망포동은 주민들에게 더욱 정겨운 동네가 되었다.

### 1) 쌍용아파트의 주민 구성과 활동

영통구 남부가 수원에서 새로 떠오르는 핵심 지역으로 변화하리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태장동, 즉 지금의 망포동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여럿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지어진 아파트 가운데는 시간이 흐르면서 모습과 이름은 약간씩 바뀌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아파트들이 많다. 1990년대 후반에 지어진 늘푸른벽산아파트(현 영통벽산블루밍아파트)에 이어, 2000년대 초반에 건설된 LG빌리지(현 동수원자이 1·2·3차 아파트)와 쌍용아파트(현 망포역마을쌍용아파트), 동수원현대아파트(현 현대아이파크 1·2차)가 그러하다. 이들은 20년이 다 되어 가도록 망포동을 지키고 있다. 마찬가지로 20년 전 아파트들이 지어질 때쯤 입주한 이래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주민들도 있다.

최중영도 그러한 사람들 중 하나이다. 그는 망포동에 쌍용1차아파트(현 망포역마을쌍용아파트)가 지어진 직후인 2002년에 입주했으며 지금도 같은 집에 살고 있다. 쌍용아파트





망포동 쌍용1차아파트 일대(김승일 제공)





쌍용1차아파트 단지 배치도

는 총 8개 동, 531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쌍용1차아파트는 망포역과도 가까운 편이고, 이후 지어진 방죽공원을 북쪽으로 두고 있는 좋은 입지의 아파트 단지이다. 최중영은 기다랗게 늘어선 모양이라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단지처럼 보였던 쌍용1차아파트(이하 ‘쌍용아파트’)의 첫인상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최중영은 쌍용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의 동 대표로 활동하다가, 2006년부터는 태장동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동 대표를 줄곧 하던 최중영이 다른 아파트와도 교류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이렇듯 망포동 지역 활동을 계속하면서부터였다. 그는 쌍용아파트에서 활동하면서 인근의 다른 아파트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고 한다. 이윽고 최중영이 동사무소에서 동 대표 단체 회의를 열자 여러 아파트 단지의 동 대표들이 한곳에 모일 수 있게 되었다. 망포동 내 아파트마다 돌아가면서 회의를 열어 보자는 제안에 모인 동 대표들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지만, 곧 동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단체 회의에 즐겁게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단체 회의는 전부 나와서 만나 서로 인사도 하고 소개하는 자리로 시작하였다. 여럿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 현안에 관해서도 논의하면서, 동 대표 단체 회의는 점차 망포동 아파트의 현황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운영 조언을 얻는 자리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망포동의 단체 동 대표 회의가 자리 잡는 데는 당시 지역 활동에 활발히 개입하던 최중영 개인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2000년대 이후 망포동 내에서 점차 생겨나던 아파트 단지 여러 곳과 교류하고, 단지를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했던 초기 동 대표들의 바람을 담은 자리이기도 하다. 망포동에 위치한 여러 아파

트의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쉽게 풀리지 않는 현안들에 대해서도 단체 회의에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거나 유용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단체 동 대표 회의에서는 단지 내부에서 상생할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도 했다. 최중영이 제안한 관리소 직원들의 인건비 문제도 그 중 하나였다. 그는 큰 아파트에 비해 작은 아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최중영** 제가 그 당시에 좀 주도를 했던 부분은, 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큰 아파트는 이게 되는데, 작은 아파트는 신경을 적게 썼어. 저는 주장한 게 뭐냐면, 거기 같이 인하는 그 분들이, 큰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소고기 먹고 작은 아파트 산다고 해서 돼지 구워 먹는 건 없다. 그리고 그 쌀을 사려 갈 때 큰 아파트 사는 경비한테는 쌀을 만 원에 받고 작은 아파트 경비한테는 7천 원에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관리소 직원이나 직원들은 똑같은 수준의 임금 체계를 맞춰 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길 했는데 한 쪽에선 호응이 굉장히 좋은 반면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싫어하시지(웃음).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게 아니라 맞춰 가야 되는.

아파트 내부의 상생은 비단 주민들뿐 아니라, 단지에서 근무하는 관리소 직원들이나 외부 도우미들까지 포괄하는 화두이다. 특히 단지 내의 치안과 살림을 맡아 하는 관리소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주민들 간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문제이다. 이에 대한 최중영의 제안은 비록 회원들 모두에게서 호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아파트 단지 내부의 상생이 ‘하루 아침에 될 게 아니라 맞춰 가야 되는 것’이라는 다짐은 지금도 의미가 크다.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요즘에는 더욱 그러하다.

최중영과 시기는 다르지만, 송민영도 쌍용아파트의 동 대표로 몇 년째 활동하고 있다. 송민영은 쌍용아파트의 완공과 함께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다. 원래 다른 지역에서 살던 송민영은 결혼과 동시에 수원으로 이사 와 생활하였다. 그는 영통구의 다른 지역에서 신혼을 보내며 자녀들을 낳고, 원래 살던 집이 점차 비좁아지자 비교적 공간이 넉넉한 쌍용아파트로 이사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다. 송민영이 가족과 함께 쌍용아파트에서 산 지는 벌써 스무 해가 다 되어 간다. 첫째가 초등학교에 다니기도 전에 입주했지만, 지금은 두 자녀 모두 20대 청년으로 성장했다.

주부인 송민영은 아파트 운영에 관심이 많기는 했지만, 본인이 동 대표를 맡게 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고 한다. 망포동 이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부녀회에 들어갔던 적도 있었지만 쌍용아파트에는 부녀회가 잠깐 있었다가 없어졌으므로 송민영은 자연스레 입주자대표협의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원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잠깐 참여하면서 방문투표를 받고 아파트 내부에 공지하는 일을 했지만, 이후 동 대표를 역임하게 되면서 선거 때





망포지구 개발 전 동탄지성로에서 바라본 쌍용1차아파트 일대 야경(김기서 제공)



1 2

1. 태장동 주민 시장과 대화(2004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 태장동 경로잔치(2007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만 활동하지 않고 달마다 모이는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당시 쌍용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던 누군가가 빈자리를 채워 달라며 송민영에게 도움을 청했고, 몇 년 동안 열심히 돕다 보니 다시 동 대표로 추천을 받았다. 이처럼 ‘엉겁결에 갔다가’ 동 대표에 당선된 송민영은 2016년부터 2020년인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송민영은 매달 열리는 쌍용아파트의 동 대표 회의에서 회원들과 함께 아파트 내부의 살림과 현안을 논의한다. 단지 내 회계와 살림을 맡은 관리소의 업무 내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살피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감사는 일 년에 네 번 정도 집중적으로 하지만, 아파트에서 지내며 필요하다 느낀 제안이나 건의사항은 회의 때마다 얘기한다.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관리소와 소통하게끔 하는 데 동 대표가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 번은 동 대표를 하면서 송민영이 건의한 내용이 채택된 적도 있다. 그는 해가 지면 가로등이 있어도 아파트가 어두운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아파트가 좀 더 환해 보이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동 대표 회의에서 건의한 송민영의 의견이 채택되어, 간단한 공사를 거쳐 쌍용아파트 입구에는 동 호수를 표시한 LED등이 달리게 되었다. 아파트 입구가 이전보다 확 돋보이게 된 것 같아 송민영은 기분이 뿌듯했다. 같은 집에 사는 딸도 외출하고 들어올 때 동 입구가 반짝인다고 좋아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송민영은 아파트 운영에 참여하면서 이루어낸 성과들이 작은 변화라 해도, 여기에 긍정적인 반응이 뒤따르면 동 대표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한편으로 송민영은 동 대표를 하면서, 생각보다 아파트에는 일이 굉장히 많고 또 복잡하다는 데 놀랐다고 한다. 이전에는 동 대표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미처 알지 못했는데, 막상 참여해 보니 보통 머리 아픈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살림을 오랫동안 해 온 관리실 직원들에게도 존경심도 들었다. 이렇듯 단지 내의 살림은 아파트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관심 어린 의견과 피드백 역시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최근에는 잘 활동하지 않지만, 과거 2000년대까지만 해도 쌍용아파트에도 부녀회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즈음의 부녀회를 아직 기억하는 주민도 있다. 예컨대 최중영은 예전 쌍용아파트의 동 대표를 하면서 부녀회와 연계하여 이런저런 활동을 꾸리곤 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부녀회는 단지에서 알뜰시장을 운영하고 복날이 되면 삼계탕을 해서 노인정에 전달하는가 하면, 5월 어버이날에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유회를 가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2000년대 중반에 동 대표를 하던 시절에, 최중영도 여비를 내며 야유회에 동행했던 즐거운 기억을 갖고 있다.

이처럼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쌍용아파트 내 부녀회의 규모가 상당했으며, 아파트입주



자대표협의회의와 만나 종종 소통의 자리를 갖곤 했다고 한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그랬듯이 부녀회의 자금원은 주로 알뜰시장에서의 수익이었다고 한다. 망포동 아파트 내에 각각 형성된 여러 부녀회들은 아파트 안에서 알뜰시장을 열고 운영하면서 다른 행사를 도모하고, 내부 결속도 다져 온 것이다.

쌍용아파트에 오래 거주해 온 송민영 역시 아이들을 키우며 알뜰시장을 찾곤 했다고 회상한다. 송민영은 망포동에 이사하기 전부터 유모차에 자녀를 태우고 망포동 아파트의 알뜰시장을 여럿 찾곤 했다. 어디서 장이 열리는지 보고, 아이 유치원에서 만난 엄마들과 함께 유모차를 끌고 “오만 장을 다 돌아다녔다.”는 것이다. 송민영은 친분을 쌓은 다른 엄마들과 함께 “이쪽 아파트에 서면 이쪽에 가고, 저쪽 아파트에 서면 저쪽에 가던” 것이 아이를 키우면서 유일한 낙일 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망포동 아파트 단지들에서 열리는 야시장이나 알뜰시장은 점차 그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사실 알뜰시장과 같은 자리는 어느 정도 이윤을 내지 않으면 유지하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단지 내에서 야시장이나 알뜰시장을 열면 자질구레하게 처리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야시장이 열리고 나면 깨끗이 청소해야 하고, 사람들이 여럿 모이게 되므로 신경 쓸 일도 많다. 과거 단지 내 시장을 즐겨 찾던 송민영도 앞으로 알뜰시장이 점차 없어질 것 같다고 본다. 지금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어머니들도 직장에 주로 다니고, 시장보다는 마트 배달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찾는 사람이 적어져 이윤이 나지 않으니 외부 상인들도 활발하게 들어오지 않았고, 이윤이 적어지니 알뜰시장을 운영할 부녀회도 규모가 작아져 원래 열리던 알뜰시장이 없어진 경우도 많다. 최중영도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시장은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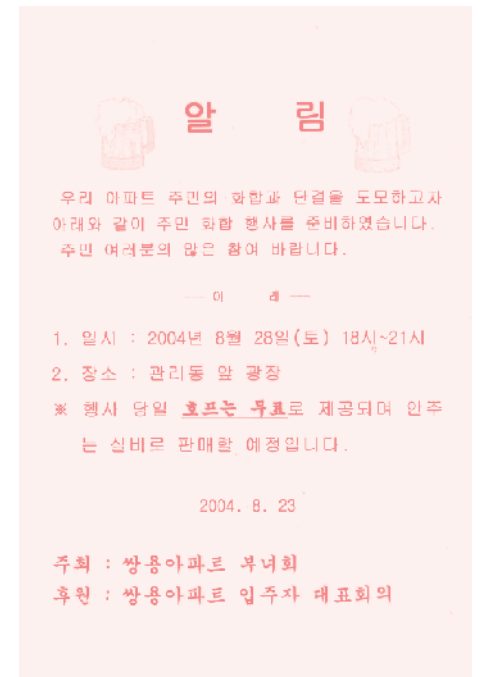
**조사자** (벽적골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마다 장 서는 거마다 다 특색이 있어서 가 보는 재미가 있다고 하셔거든요.

**최중영** 그게 뭐냐면, 아파트마다 상인협의회가, 대표가 다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파트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는 월요일이다, 그걸 우리 아파트는 화요일이다. 이 정하면서 돌더라고요. 그걸 주민들이 다 아는 건데, 이게 타산이 없는 거야. 팔리질 않는 거야. 그 상인협회에 내가 장사를 하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내고 들어가야 하는데, 내고 들어가도 수익이 없으니까 이제 빠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형성이 안 돼서 한 아파트 외에는 거의 못 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명동 벽적골 아파트는 하더라고요.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해서 한 번 가 봤어. 그, 찜빕 사격. 안홍찜빕같이 생긴 게, 싸고 맛있어서. 내가 이제 둘레길을 좋아하거든, 산도 좋아하고. 그거 찜 가지고 가면은, 간식거리 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시장)은 거의 볼 수가 없어.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단지 내 알뜰시장이 점차 작아지고 자연스레 부녀회 활동에도 제한이 생겼다고 한다. 결국 다른 많은 아파트들처럼, 쌍용아파트의 부녀회도 2010년대를 지나면서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쌍용아파트에서는 아니지만, 알뜰시장은 지금도 다른 몇몇 아파트에서 소규모로나마 운영되고 있다. 망포동에서는 또 다른 대단지 아파트인 동수원자이1차아파트에서 열리는 알뜰시장이 그러한 사례이다. 동수원자이1차아파트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야시장을 이따금씩 찾아 즐기는 망포동 주민들은 여전히 많다. 큰 아파트고 장소도 넓은 동수원자이1차아파트의 야시장을 찾아 어른들은 “상추도 먹고 소주도 먹고”, 아이들은 미니 바이킹을 타며 소소한 재미를 찾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때 쌍용아파트 단지 내에서 열리던 소소한 행사들도 있었다. 쌍용아파트에서 호프축제가 열린 것도 2000년대 중반쯤이었다. 알뜰시장을 운영해 오면서 부녀회에 모인 돈으로, 입주자대표협의회와 부녀회가 아파트 안에서 주민 간 친목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동 대표를 맡고 있던 최중영은 부녀회와 함께 계획을 꾸리고 관리소 직원들의 도움을 얻어 첫 번째 호프축제를 열었다. 맥주를 공짜로 제공하고 부침개를 팔자 주민들이 열렬히 호응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와 아파트 잔디밭에 돛자리를 펴고, 서로 한 잔씩 권하며 안면을 트면서 즐거워하는 주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았다. 소음을 고려하여 아파트 단지에서는 10시에 축제를 마감하였지만, 알음알음 모여 이야기하던 주민들이 인근의 생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겨 만남을 이어갈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처음에는 호프축제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던 호프집 상인들도 뜻밖의 손님들을 맞아 반가워했다고 한다.

**최중영** 하루는 그래요. “최장님, 저희 호프축제 하면 어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맥주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줘도 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아, 우리 알뜰시장에서 돈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런데 대신 안주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주를 어떻게 파냐고 했



쌍용1차아파트 호프축제 안내장(최중영 제공)



더니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침개를 해서, 빈대떡이죠, 그렇게 해서 팔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맥주만 공짜지 돛자리고 병이고 컵이고 다 들고 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돛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오는 족족 장소를 정해서 앉아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어,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해볼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녀회에서 하자는 대로, 그냥 저 관리소 직원들한테 도와줘 보자 해서, 했는데 생각 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이후 호프축제는 5년간 지속되며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올 정도로 차츰 규모가 커졌다. 만남의 장이 없을 때야 몰랐지만, 이웃 간 교류하는 재미를 느끼고 나니 주민들 역시 호프축제와 같은 소소한 이벤트를 반겼던 것이다. 호프축제가 끝나고 나서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간단히 고개 숙여 인사만 하던 이웃들이 서로 교류하는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을 보고, 최중영은 ‘아, 이거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역시 지금은 없어졌지만, 2000년대 중반에는 한동안 망포동 아파트들 간에 체육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아파트 동 대표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열면서 결속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망포동 아파트 단지별 체육대회라 이름을 붙이고, 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협의회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행사를 주관했던 것이다. 최중영은 예전에 체육대회를 열면 노인회의 어르신들이 특히 반기곤 했다고 회상한다. 오랜만의 대회 구경은 말할 것도 없고, 차려진 음식에 더해 상품들이 오가는 즐거운 자리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지 내 행사들은 2010년을 거치면서 규모가 축소되거나 없어지곤 했다. 다른 아파트들이 그렇듯이, 망포동에 오래 붙박여 살지 않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거주 기간이 비교적 짧아지면서 주민들이 한곳에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기란 점차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2020년 이후 쌍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협의회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역시 쌍용아파트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COVID-19의 확산으로 사람들 여럿이 모이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입주자대표협의회 회원들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모여 이야기 나누기 곤란해졌는데, 이에 대해 송민영은 “요즘 벌어지는 비극”이라며 아쉬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외롭지 않게 마음 맞는 주민들과 교류하고, 살고 있는 집에 정을 붙이게끔 만들 자리는 여전히 필요하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쌍용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의 고민 역시 이러한 지점과 맞닿아 있다.

## 2) 망포동의 역사와 함께한 동수원자이아파트

망포역에서 남쪽을 가로질러 뻗어 있는 대로인 영통로의 양쪽에는 여러 상가와 은행, 공

원, 학교, 아파트 단지까지 줄지어 위치하고 있다. 영통로는 차들이 끊임없이 오가면서 출퇴근 시간에는 종종 막히기도 하는 아스팔트 6차선 도로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지금은 망포마을의 중심 집결지라 할 만한 영통로 부근에도 2000년대 초반에는 상가도 그리 많지 않았으며, 아파트도 아직 지어지기 전이었으므로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풍경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망포역 남측을 보면 여러 아파트 단지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부터 시기를 달리해 세워진 아파트 단지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망포동을 채우고 있다. 망포역에서 가까운 곳부터 보면 벽적골 롯데캐슬이나 힐스테이트와 같이 새로 지어진 티가 나는 신축 아파트들이 눈에 띈다. 그러나 영통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보다 오래된 아파트들이 여럿 위치해 있다. 이 중에는 망포동에서 2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 온 아파트들이 있으며, 동수원자이아파트 역시 그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1·2·3차로 이루어져 있는 망포동수원자이아파트는 2001년 1차 단지를 시작으로 입주를 개시하였다. 이어 2002년에 2차가, 2003년에 3차가 차례로 입주를 개시하여 망포동에서도 상당한 규모를 지닌 아파트로 자리를 잡았다. 1차가 1,829세대에 2차가 816세대, 3차가 924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거주자 수용 면에서도 눈에 띄는 대단지 아파트이다.

설동석은 영통에 살다가, 2010년대 초반에 동수원자이 3차로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직장이 망포동에 있던 탓에 이곳으로 이사 오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지금에야 망포역에도 고층 아파트들이 새로 많이 지어졌지만, 2000년대 중반 즈음에 동수원자이아파트는 망포역에서 단연 눈에 띄는 아파트였다. 지금은 동수원자이아파트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당시는 LG빌리지는라는 이름을 하고 있었다. 설동석은 그 즈음의 LG빌리지가 당시 ‘수원에서 있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였다고 기억한다.

**설동석** 초기에는 여기가 수원에서는 있는 사람들만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대형 평수예요. 정남향으로 뻗고. 대단지에서 정남향으로 뻗고 중대형 평수는 수원에서 여기밖에 없었어요. 여기 말고 저기 광교 쪽에도 60평대가 있어요. 그것도 엘지빌리지는 시내에서 너무 저쪽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서쪽으로 떨어져 있고, 여기는 남서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수원으로. 동수원 중에서는 배치나 세대 수나 이런 것도 보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여기 왔어요. 택시 타고 오면은 ‘동수원 자이 간다’고 하면 ‘아, 부자 동네 사네요’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의 동수원자이아파트, 즉 예전의 LG빌리지는 당시 전문직이나 ‘사장님들’이 많이 살곤 했던 아파트였다. 2000년대 초반의 망포동은 인근이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었고, LG빌리지를 비롯해 이때 지어지기 시작한 망포동 아파트들은 인기가 높았다. 지금에야 2010년 후반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들에 비해 인기가 다소 낮아졌지만, 이곳의 주민들은 “여전히 살기 좋은 곳”이라며 입을 모아 말했다.

동수원자이1차아파트로 2000년에 이사하여 17년을 내리 살았던 유순모 역시 같은 의견이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유순모는 몇 년까지도 살았던 동수원자이아파트





동수원자이1차아파트 산책용 인도



동수원자이1차아파트 단지 내부

를 좋은 집으로 기억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우수 아파트로 동수원자이아파트가 2009년 선정된 것도 유순모의 자랑거리이다. 당시는 유순모가 동수원자이아파트의 입주 자대표회장을 지냈을 때이기도 하다. 수상 이력이 소문난 덕분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동수원자이아파트로 많이 전학 왔다고도 한다. 수상 비결이 무엇이나 묻자 유순모는 단지 내 환경이 깨끗한 데다, 아파트가 워낙 튼튼하게 지어진 덕분도 있다고 말한다. 인테리어를 할 때 아파트 벽이 드릴로도 쉽게 뚫어지지 않아서 옷돈을 얹어 주어야 할 정도라며 그는 동수원자이아파트의 견고함을 자랑스러워 했다.

망포동에서 비교적 단지 수가 많고 규모가 큰 데다,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 온 덕분에 동수원자이아파트에서는 여느 아파트에서 보기 어려운 풍경들도 눈에 띈다. 예컨대 동수원자이아파트에서는 다른 아파트들과 달리 아직도 단지 내 시장이 선다.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장이 서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구경 을 정도이다. 주민들은 망포동에서는 물론, 영통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크게 서는 알뜰장터는 없다며 동수원자이아파트의 정기 시장을 자랑스러워 한다. 마찬가지로 단지 내 시장을 운영하는 부녀회, 그리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인회 활동도 동수원자이아파트에서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노인정을 수리하고 에스컬레이터를 놓기도 했다. 비록 단지 내 활동의 규모가 2000년대 초중반 때에 비해서는 축소된 것은 망포동의 다른 아파트들과 마찬가지로, 동수원자이아파트에서는 아직도 단지 내 활동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영통로 동수원자이3차아파트 정문 주변 상가







일조권과 조망권 보장을 요구하는 동수원자이1차아파트 주민들의 쌍용2차아파트 신축 반대(2002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망포동 동수원자이1차아파트 앞뜰시장

이렇듯 단지 내 행사가 활발한 한편, 동수원자이아파트는 워낙 대단지라 의견을 수렴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아파트가 지어진 지 20년이 다 되어 가면서 점차 노후되는 일도 주민들 사이에 문제가 되었다. 아파트가 애초에 튼튼하게 지어진 덕분에 거주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수도관이나 전기 시설을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게 되면서 서로 이견이 발생하곤 했다는 것이다. “큰 아파트 중에는 조용히 있는 단지가 별로 없다.”는 한 주민의 푸념처럼, 이는 동수원자이아파트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실 이는 세대 수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들에서 흔히 보이는 풍경이기도 하며, 단지가 점차 낙후되어 가면서 주민들이 자연스레 마주하는 고민이기도 하다. 이는 아파트를 운영해 오며 오래간 쌓아 온 경험을 토대로, 주민 간 소통을 활발히 이끌어 내어 해결해 가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한편 망포동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는 2000년대에 입주해 10년을 넘게 지내 온 이들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 아파트촌에 가까운 지금의 망포동 풍경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더 많다. 2000년대 초반부터 망포동을 채워 나가기 시작한 아파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름도 바꾸고, 도색도 달리 하며 변화해 왔다. 그러나 오랫동안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 망포동의 주민들은 아직도 LG아파트나 늘푸른벽산아파트와 같은 예전의 이름을 더 친숙하게 느낀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거나 한때 거주했던 주민들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동수원자이아파트 전경(김승일 제공)

망포동에 위치한 이들 아파트를 정감 있는 보금자리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망포동 아파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라서 지금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들도 많다. 그 중 한 명인 정현빈은 동수원자이, 당시 LG3차아파트에서 살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다니던 초등학교가 집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오고가기가 무척 편했다고 한다. 가끔 심심풀이 삼아 쉬는 시간에 담을 넘어서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을 먹기도 한 것도 초등학교 시절의 즐거운 기억이다. 고등학교 때는 변화가로 이사를 갔는데, 먹자골목과 붙어 있는 집에 살면서 망포동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한다. 망포동에는 아파트가 많기는 하지만 오밀조밀하여 답답하게 지어진 느낌은 없고, 해가 저도 시끄러운 것

없이 아늑한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정현빈에게 망포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던 푸근한 곳으로 남아 있다. 망포동의 아파트도 유년 시절을 함께한 정감 어린 장소이다.

유순모 역시 불가피한 이유로 지금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만, 오랜 시간 가족과 함께 살던 동수원자이아파트에 지금도 특별한 애정을 지니고 있다.

**유순모** 나는 LG아파트(동수원자이아파트) 살다가 딴 데 살면 못 살 거 같애. 여긴 전부 다 낯향이잖아. 그러니까 해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들어. (...) 이제 우리 딸이 대학교 1학년인데 대학교 졸업 마



치면 올라온다는 거예요. 3년만 더 공부하구. 그때 가서 어머니가 정당하시고 그러면 또(이사를 갈 수도).  
근데 나는 딴 아파트, 뭐 광고구 동탄이구 그냥 와서 살라고 해도 싫더라고. 지금 광고가 잘 댔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다 광고 가서 살고 싶다는 거야. 근데 조용한 데가 좋아.

유순모나 정현빈처럼 지금은 망포동을 떠나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 이들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한때 거주하며 2000년대를 보냈던 망포동 아파트는 아직도 집과 같은 곳으로 기억된다. 자녀들을 키우며 신혼을 보냈거나, 유년 시절을 거치며 친구들을 만났던 기억은 오래되었지만 정감 있는 아파트라는 장소와 얽혀 있다.

동수원자이아파트 역시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장소가 되었다. 망포동에 살고 있거나 오랫동안 거주해 온 주민들, 또는 망포동을 거쳐 간 이들에게 동수원자이아파트는 생애의 한 부분을 함께한 장소로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이곳을 터전으로 삼은 주민들은 변화를 거듭해 오며 달라지는 망포동의 풍경을 기억한다. 이처럼 망포동의 역사는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의 생애와 맞물리는 기억으로 남았다.

### 3. 달라지는 망포동 생활

유순모는 1995년부터 2020년인 지금까지 망포동에 살고 있으며 아파트 동 대표까지 지낸 이력이 있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외지인으로 인식한다. 망포동에서 나고 자란 배우자와 달리 토박이가 아닌 탓이다. 다만 유순모는 처갓집이 있는 망포동으로 이사한 뒤, 마을르 네상스사업을 비롯하여 이곳의 지역 활동에 여럿 참여하면서 망포동에 애정을 지니게 된 경우이다. 이처럼 망포동 주민들 가운데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토박이보다 훨씬 많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인 내부 개발이 진행되면서, 망포동이 수원 안에서도 손에 꼽히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인근의 공업 단지가 마련된 데 이어 상가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망포동에 유동인구가 많아진 것도 눈에 띄는 변화였다.

특히 2012년에 지하철 노선이 이어지면서 망포역과 영통역이 지어진 것은 큰 변화였다.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한층 편해졌고, 망포역 부근에 상가나 식당들도 여럿 들어섰다. 또한 주민들은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망포동 바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망포역이 지어지기 시작하여 개통할 때까지의 시기를 기억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이소정(가명)도 그 중 한 명이다.



망포역사거리(최인경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소정은 2020년 현재 20대 중반으로, 일곱 살 때 부모님과 영통에서 망포동으로 이사 와서 이제껏 살고 있다. 이소정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걸어 통학하면서 동네를 속속들이 익히게 됐다. 망포중학교 건너편의 먹자골목, 태장로의 학원가, 또는 망포어린이공원에서 방죽 공원을 지나가 학교에 가는 길은 어린 이소정에게 작은 즐거움이었다. 태장초등학교는 2005년에 이전하여 현재 망포동의 가운데에 위치하지만, 당시만 해도 지금의 망포역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소정은 학교 전방의 대로를 건너는 대신 한적한 지하로를 통해 등교하곤 했다. 망포역이 생기면서 이 지하로는 역의 입구로 바뀌어 말끔히 정비되었다고 한다.

이소정은 예전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버스를 타거나 친구들과 걸어서 영통중심상가에 놀러 갔다 오곤 했다. 그러다 망포역이 개통한 이후인 고등학생 시절에는 놀러 가는 환경이 수원역으로 넓어졌고, 성인이 된 지금은 같은 지하철 노선을 타고 나가 인계동에서 친구들을 만나곤 한다. 부모님은 집에서 가까운 망포역 근처 먹자골목을 선호하시지만, 이소정은 좀 더 변화한 곳에서 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최근에는 COVID-19 바이러스 유행으로 나가지가 쉽지 않아졌지만, 망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좋다. 망포동, 특히 망포마을 안쪽으로는 친구들과 놀러 갈 곳이 마땅히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이소정과 같은 20대 청년들은 망포역을 즐겨 이용한다. 이들에게 망포동은 하루 일과가 끝나고 쉴 수 있는 집과 같은 인상이 강하다. 망포동은 영통의 상가 밀집





태장마루도서관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지역이나 인계동과 달리 변화한 느낌은 없지만, 대신 아파트 단지들과 생활 시설이 자리 잡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라 느껴지기 때문이다. 망포역 남쪽의 망포마을 안에는 상가도 많지만, 학교와 학원,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들이 함께 자리 잡고 있어 이러한 인상을 더욱 짙게 주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계동과 같은 변화한 느낌은 없지만, 망포동 내에도 주민들이 애용하는 생활 시설이 많다. 망포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마을 내부의 공용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9년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2011년에 개관한 태장마루도서관도 그 중 하나이다. 태장마루도서관은 망포동 잠원초등학교 앞에 위치해 있다. 망포동에 지역 도서관이 생기면서, 당시 중학생이었던 정현빈과 정혜빈은 친구들과 도서관에서 주로 어울리게 되었다.

**정현빈** 사실 중학교 3학년이 공부할 많이 해야 되거나 그럴 시기는 아니었는데. 고등학교가 다 인문계 평준화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도서관이 생기다 보니까 가서 공부를 하려는 애들도 있었고, 그냥 거기 가서 논 게 큰 것 같아요.

**정혜빈** 아지트인 거죠. ... 공부는 공부인데, 그냥 그때는 카페나 그런 것도 성행하지 않았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학생은 공부, 공부하면 도서관, 독서실. 그래서 도서관이랑 독서실을.



망포고등학교졸업식(2018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태장마루도서관 자료열람실(2011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정현빈 (친구들끼리) 태장마루에서 만나, “태마도(태장마루도서관의 약어)에서 만나” 이렇게 했어요.  
“태마도에서 만나” 이라고.

정혜빈 인종의 커뮤니티센터였던 거죠.

이처럼 정현빈과 정혜빈은 마땅한 놀거리가 없던 중학생 시절, 태장마루도서관을 친구들과 모이는 ‘커뮤니티센터’로 찾곤 했다. ‘태마도’와 같은 문화시설의 건립은 당시 망포동 내에서 늘어 가던 상가 못지않게 반가운 일이었다. 2000년을 거치며 망포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많아지면서, 이와 함께 주민 편의시설들이 함께 갖추어졌다. 2020년 현재는 망포2동주민센터 근처에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원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동수원자이아파트나 쌍용아파트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는 주민들은, 주변에 계속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을 목격해 왔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와는 주거시설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원래 있던 아파트들에 사는 주민들은 이사 갈 생각이 없더라도, 신축 아파트와의 비교에서 새삼 사소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신축 아파트는 도색되는 모양도 좀 더 세련됐고, 지하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사실도 기존 아파트들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쉬움은 오래된 주거 지역과 신축 아파트가 함께 자리 잡고 있는 망포동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망포동에는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연립주택이나 빌라 건물들도 남아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 이곳에 월세를 내어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낙후된 시설 때문에 불편을 겪기도 하며, 이는 망포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인 태장동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최종영에 따르면, 당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영통3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낙후된 집을 고쳐 주는 봉사활동을 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회원들 중에 아파트 관리소장들, 특히 미장과 도배를 배운 이들이 있어 가능했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망포동 내부의 낙후된 다세대 주택들을 무상으로 고쳐 주곤 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봉사활동은 망포동의 미담으로 남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봉사활동을 전개할 당시에, 수리가 끝나면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다른 세입자를 받는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망포동 내 주거의 질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데는, 주민들의 봉사활동뿐 아니라 제도적인 개입이 무엇보다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월세나 전세를 얻어 생활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집주인의 성실한 시설 점검, 그리고 이를 의무화할 제도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기



1999년 준공된 늘푸른백산아파트 상가



2010년 준공된 임광그대가센터럴아파트 앞 상가



때문이다. 특히 망포동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낙후되어 가는 주거시설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망포동이 점차 개발되면서 사라지는 풍경들에 아쉬움을 느끼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옛날 망포동 지역에 있었던 뽕나무밭도 이 가운데 하나이다. 유순모는 1960년대에 있었던 잠종장 부지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수원시에 누에박물관을 건립해 달라며 건의한 적 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지역은 망포2동주민센터인데, 누에박물관 대신에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체육공원이 세워진다고 한다. 체육공원 또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망을 반영한 시설이지만, 유순모는 건립이 말끔히 완료된다면 망포동의 과거 역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리라는 생각이 들어 못내 아쉽다. 잠종장은 물론, 망포동에서 흔했던 농지도 모두 사라지는 상황에서 작게라도 망포동의 역사적 과거를 둘러볼 자리가 마련된다면 좋겠다는 희망이다.

4. “망포동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주민들은 영통과 같은 주변 집결 지역과 비교하여 조용하고 환경이 좋은 망포동에 편안함을 느낀다. 영통로에 상가들이 많이 들어서고 지금과 같은 큰 도로가 되기 이전에는 더욱 그랬다. 설동석은 망포동에 눈발이 많았던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겨울이 되면 망포동의 공기가 워낙 맑고 찻기 때문에 주차해 놓은 차에 서리가 잔뜩 끼곤 했다고 회상한다. 지금에야 건물이 훨씬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인근의 중심 집결지보다는 깨끗하다는 것이다. 망포동의 깨끗한 환경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 온 주민들의 주된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한편 망포동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높은 생활 편의성을 지역의 장점으로 꼽기도 한다. 특히 망포동 내부에 여러 곳 들어선 동네 마트들은 주민들이 애용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아파트 주변에 바로 접해 있는 상가가 많지 않더라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자리잡은 동네 마트가 금방 눈에 띈다. 주민들은 인근에 마트가 열 곳이 넘는다며, 필요할 때마다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 갈 수 있다고 만족스러워 했다.

주민들이 또 하나 마음에 들어 하는 점은 망포동 안팎의 편리한 교통이다. 망포동 내에서는 굳이 차를 몰지 않더라도 마을버스가 자주 오가므로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고, 버스정류장도 곳곳에 있어 이동이 수월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탄이나 병점으로 가는 길도 버스를 타고 바로 이동할 수 있다. 2010년대 초반에 망포동의

로 이사 온 설동석 역시 이 때문에 망포동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설동석** 저는 교통 좋고, 교통 좋다는 걸 이해를 할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버스 노선이, 이 노선이 걸어서 5분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25개 노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생활 시설들이 주위 다 근처에 인접해 있다는 거.

전에 살던 지역은 중심상가가 떨어져 있어 불편했는데, 망포동 아파트에 살다 보니 걸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설동석은 이러한 편의성 덕분에 굳이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의 중심상가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만족스러워 했다.

또한 2012년에 지하철이 연결되면서, 주민들은 수원역 쪽이나 서울로 나갈 때도 망포역에서 금방 전철을 타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수인분당선이 생기면서 오가는 사람이





더욱 많아져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편리하다. 이따금씩 수원역이나 인계동에서 친구들을 만나곤 하는 이소정은 특히 지하철을 애용한다. 집이 망포역에서 멀지 않고, 망포 역에서는 인계동까지 5분, 수원역까지 10분밖에 걸리지 않아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순모 역시 이러한 점을 들어 망포동을 ‘교통의 요지’라고 자랑스럽게 표현하였다.

**유순모** 나는 망포동이 (좋아요), 딱 데 가서 살기가 싫어. 그리고 여기가 전철이랑든가, KTX랑든가 SRT랑든가. SRT 따라 동탄으로 한 10분이면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망포역, 수원역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가서 저희 KTX 탈 수 있고, 또 교통이 경부선, 서해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다 한 갈래에 다 있잖아요. 교통의 요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시내보다는 차라리 이런 데가 한적하고 좋고, 아직까진 오염이 덜 됐다니깐요(웃음).

이처럼 망포역에서 이어진 지하철을 타거나, 망포동과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외부로 통근하는 주민들에게도 망포동의 편리한 교통은 특히 만족스러운 지점이다.

그런데 이처럼 외부와 연결이 잘 되어 있는데도 주민들은 망포동 안쪽에 있으면 아늑한 분위기가 든다고 한다. ‘사통팔달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망포동에는 수원 내의 다른 변화가 또는 서울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복잡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수원 영통구의 끝자락에 주거 밀집지역으로 자리 잡은 망포동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망포동은 지난 20년간 안팎으로 거듭된 변화를 겪어 왔지만,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던 초기의 상황을 벗고 이제는 아늑하고 편안한 장소로 안착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덕에, 망포동은 여러 사람이 짧게 거쳐 가는 일시적인 공간이 아닌 삶의 터전다운 인상을 주게 되었다.

이 외에도 망포동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망포동에 애정을 지니게 되었다. 그 중 한 명인 송민영 역시 남편과 딸 하나, 아들 하나와 함께 쌍용1차아파트에서 거의 20년째 살고 있다. 처음 쌍용아파트에 입주할 때만 해도, 송민영은 같은 곳에서 이렇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분양받을 때만 해도 쌍용1차아파트는 망포동 일대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였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도 속속 들어섰다. 자연스럽게 원래 살던 곳과 새로운 아파트가 비교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송민영은 지금 살고 있는 쌍용아파트가 좋고, 다른 쪽으로 이사 갈 생각도 전혀 없다고 말한다. 망포동에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재미들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쌍용아파트 단지 내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 온 나무들이 계절 따라 옷을 바꿔 입는 걸 보는 것

도 그 중 하나이다. 나무들에 잎이 풍성해지거나 낙엽이 내리고, 감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집 창을 통해 내려다보는 것은 송민영에게 소소한 즐거움이다.

한편 송민영이 망포동에 애정을 갖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지역 활동에 꾸준히 참여한 덕이 컸다. 아파트 안에서 한동안 동 대표를 하고, 녹색어머니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애착이 생긴 것이다. 그는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망포동의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두 자녀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차례로 마치고 나니 총 8년 동안 녹색어머니로 활동한 셈이다.

송민영은 녹색어머니회에 참여한 지 얼마 안 되어 금방 재미를 붙였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받고, 결국에는 녹색어머니회장까지 맡게 되었다고 한다. 회장이 되고 나서는 녹색어머니회 연합회가 연계해 오던 망포동 남부경찰서에 출근하다시피 했다. 경찰서에서 안내를 받은 다음, 망포동에 있는 초등학교 여러 곳의 등하굣길 안전을 살피는 것이 주요 업무였기 때문이다. 녹색어머니회 제복을 입고 활동하는 것이 송민영에게는 큰 기쁨이었다고 한다. 그는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호루라기를 불어 교통정리를 하고, 그날 업무가 끝나고 태장초등학교 안에 있는 녹색어머니회 쉼터에서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보람을 느꼈다. 회원들끼리는 아이들 이야기, 동네 학원 이야기를 하기도 좋았다. 송민영은 이제 자녀들이 다 커 버려 더 이상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방죽공원에서 바라본  
쌍용1차아파트(최인경 제공)







태장동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진행된 국화 가꾸기(2014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국화축제를 즐기는 사람들(2020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녹색어머니회에 있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할 정도로 활동에 재미를 붙였다.

송민영과 같이 지역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주민들 가운데는 망포동의 곳곳을 관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다. 한때 방죽공원의 건립에 간여했던 최중영도 그렇다. 망포역 앞에는 방죽공원이 있어 인근 주민들은 여기서 산책을 즐기곤 한다. 공원 자리는 예전에 농지가 있던 곳인데, 최중영이 동 대표를 하던 2000년대 중반에 시의원들을 만나 공원을 지어 달라고 건의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지금은 걷기에도 좋고, 아이들이 뛰다 넘어져도 안전한 공원으로 주민들이 즐겨 찾는다. 근처 임광그대가아파트와 힐스테이트가 2010년 이후에 들어오면서, 공원에 나와 운동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졌다. 어린이들은 부모님 손을 잡고 나와 물놀이를 하고, 사람들은 아침저녁으로 나와 걷기 대회라도 하는 양 운동하는 풍경을 보고 최중영은 보람을 느낀다.

한편 지금의 망포동에서는 녹색어머니회와 같은 단체들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지만, 여전히 지역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주민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망포2동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태장동 국화농원 역시 주민 간에 이루어지는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다. 이곳은 2012년부터 시작된 태장동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는데, 이곳에서 태장국화축제를 비롯한 마을 행사가 진행되어 주민들 사이에서 상호교류의 장소로 기능하기도 했다. 당시 행사를 꾸렸던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돈독한 이웃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망포동 주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망포동은 과거 개발이 거듭 진행되던 공간을 거쳐,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서 푸근한 분위기를 띠는 장소로 자리 잡았다. 망포동에서는 아직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망포동에도 정을 붙이고 관심 어린 시선을 두는 주민들이 더욱 많아졌다. 이들은 망포동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한편 새로워질 미래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지금은 망포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20대 청년들도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망포로 돌아와 살고 싶다고 말한다. 정현빈 역시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유년기 시절을 보낸 망포에 강한 애착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망포동을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내내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중에 새로운 가족을 꾸린다면 망포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한다. 돌아올 수 있는 고향처럼, 망포동은 주민들에게 보금자리 같은 곳으로 남아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망포동의 지역공동체 활동

### 1. 그물처럼 얹혀 함께 살아가는 법 : 망포동 아파트 모임들

망포동(網浦洞). 수원시 영통구 최남단에 위치한 인구 약 6만 명의 미니 신도시. ‘망포동’이라는 몽글몽글한 이름 속에는 ‘그물’이 들어 있다. 문득 고개를 올려다보면 하늘을 뒤덮을 듯, 거리를 걷고 있으면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은 아파트 대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이곳, 아파트들 사이에 있으면 괜히 혼자가 된 것만 같은 쓸쓸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지역 개발 붐과 함께 덧붙은 ‘신도시’라는 명칭은 어쩐지 차갑고 딱딱하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서 “신도시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표현에서 도시 속의 파편화된 혹은 분자화된 외로운 개인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대로변 한가운데 서 있는 어떤 이방인의 느낌에 불과하다. ‘그물 망(網)’, 이 한 글자에서 오는 기운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망포동 지역의 공동체는 긴밀하게 얹혀 그물망을 이루고 있다. ‘망포신도시’라고는 하지만 이미 이곳도 대단지 아파트 첫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지역이다. 즉 지역 주민들의 망포동 지역에 대한 애착과 사랑 또한 그만큼의 세월과 함께 흘러왔으며, 그 세월 동안 그물망처럼 성기면서도 긴밀하게 서로 관계를 맺어 왔다는 것이다.

2000년 7월 늘푸른벽산아파트의 입주를 기점으로 하여 망포동 일대에는 1~2년 간격으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신축과 입주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전 세대의 과반 이상이 입주를 완료하는 시점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고 협의체를 구성





쌍용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한 아파트 단체들  
(최인경 제공)



수원시에서 발행한 아파트관리 안내집  
(2005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부차량의 무단출입을 통제하는 늘푸른벽산아파트



망포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방역마스크 기부(2020년, 영통포토뱅크 제공)

하여 관리사무소와 더불어 자신들이 속한 아파트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망포동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아 입주가 어느 정도 완료된 아파트들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조직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망포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를 아우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의의 구성에 이르게 되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의 모임은 처음에 동사무소에서 공간을 빌려 회의를 했다고 한다. 공공기관에서 아파트 대표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망포신도시 지역 형성 초기에 아파트 대표들로 하여금 나름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아파트마다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회의를 주최하게 되었는데, 이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과 주민자치 팀장 등 행정기관 관계자들도 동석하게 하여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의 현안 및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장을 이끌어 나갔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단지에 입주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부녀회가 결성되어 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의와 더불어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안팎으로 일어나는 사안을 관리하고 아파트 살림살이를 운영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아파트별로 운영되는 알뜰시장과 관리비 관리 네트워크이다.

10년 이상 활성화되었던 알뜰시장은 각 아파트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아파트 공동체의 자금력을 제고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 결속력을 가져다주었다.



지금이야 대형마트나 온라인 유통업체의 식재료 배송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 장터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민들의 살림을 채워 주고 주민들 간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중요한 장소로 기능해 왔다. 일반적으로 서울을 비롯하여 오래된 도시와 지역 내에는 그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장터들이 주민들의 곁에 함께하고 있다.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논과 밭이 즐비하던 망포동 지역에 신축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고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장터’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아파트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부녀회의 첫 번째 역할은 알뜰시장 운영권을 갖는 것이었다. 부녀회를 중심으로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졌던 알뜰시장은 최근 들어 대형마트 활성화, 장터의 전문 업체 참여, 부녀회의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아파트별 관리비 비교 및 검토 작업도 아파트 부녀회들에게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각자 자신의 아파트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아파트별 부녀회들이 한데 모여 관리비를 검토했다는 것이다. 망포동 지역 아파트 부녀회들은 어느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비가 나오는지, 고정비용은 얼마인지, 입주민 대비 그 비용의 정도가 어떠한지 비교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자칫 아파트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높은 담과 도어락이 설치된 출입문 내부에 갇혀 있을 것 같은 게이트드 커뮤니티의 이미지를 벗어 버리고 망포동 아파트 부녀회들은 함께 사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아냈다. 2000년대 초중반 하나 둘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쌓아 온 아파트 운영 및 관리 네트워크의 경험과 그 인연으로 지금도 그들은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하며 관계를 이어 나가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5년가량 이어져 왔던 쌍용1차아파트 호프축제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체와 부녀회가 연대하여 알뜰시장 수익을 기반으로 개최했던 아파트 공동체 행사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부녀회장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알뜰시장 수익이 있으니 그것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맥주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 대신 안주는 부녀회에서 이것저것 마련하여 만들어 팔고, 맥주를 마실 사람들은 주최 측이 정해 준 장소에 본인들이 가져온 돗자리와 컵 등을 가져와서 맥주와 안주를 가져다가 먹고 마시게 했다. 부녀회장의 아이디어에 따라 관리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쌍용1차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가 주최한 호프 축제는 소음이나 문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밤 10시까지만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냉매 관리나 맥주 따르는 기술이 부족해 거품만 나오기도 하고 마련한 맥주를 반 이상 버리기도 했지만 차츰 요령이 쌓이면서 신선한 맥주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당시 동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밤 10시까지만 하는 행사라고 해서 입주민들이 잘 따라와 줄지 걱정되었





는데, “우리 10시에 마무리합니다, 불 끄니다.”라고 하니 순순히 모두들 자리를 정리하고 축제를 마무리하는 데 협력해 주었다고 한다. 쌍용1차 호프축제는 두 번째 개최할 때부터 주변 아파트에서도 소문이 나 다른 지역 아파트 주민들도 오기 시작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첫 해에 소소하게 부침개 정도로만 준비했던 안주는 닭강정, 족발 등 다양한 메뉴로 늘어났고 그만큼 수익도 증대시킬 수 있었다. 한편 입대의 회장의 아이디어로 아파트 경비나 청소 등 관련 업체들을 초대해 맥주를 공짜로 즐기러 오는 대신 고생하는 부녀회의 아파트 살림살이를 위한 기부를 얼마 정도씩 받기도 했다. 이처럼 입주자대표협의회와 부녀회, 관리사무소 등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호프축제의 큰 성과는 아파트 주민들 간의 유대감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최중영** 재미난 게 이웃 간에 그런 걸 처음 느낀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그냥 고개만 숙여 인사하는 정도일까, 말도 별로 안 해봤는데. 뒷자리까지 펴놓고 축제 자리에 있다 보니 한 잔 들어가고 하면서 친해지는 거죠. “직업이 뭐냐.” 그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다, 이거 마음만들기랑 연결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주변 상권과 충돌하는 갈등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쌍용1차 호프축제의 경우도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었다.

**최중영** 호프축제 한다고 공지했는데 축제 전날 아파트 앞 생맥주집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가게 망한다고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일 년에 하주다.” 하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설득했어요. 그리고 축제 다음날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고맙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음료수까지 사서 관리소로 온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사람들이 술을 먹다가 (10시에 마감해버려서) 시원찮아졌잖아요. (그 생맥주집에) 다 가는 거예요, 그대가지고 그 집에서 대박이 난 거지.

쌍용1차아파트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호프축제를 했다면 LG1차(현재는 자이1차)아파트와 같은 대단지의 경우 부녀회에서 야시장을 주최하기도 했다. 이렇게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은 그 아파트만의 것으로 남지 않는다. ‘어느 아파트에서 야시장 한다더라’ 하고 다른 아파트 부녀회에서 ‘품앗이’를 가기도 한다. 아파트 야시장 ‘품앗이’ 네트워크는 단순히 야시장 수익을 올려주는 데 있지 않았다. 같이 어울려 술도 마시고 안주도 팔아 주며 분위기를 띄우기도 하고, 서로 대접받았다고 다음 아파트 야시장에 또 찾아가기도 하면서 서로 얼굴 마주하고 만남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이 아파트 야시장

네트워크의 특징인 것이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의 경우 망포동 아파트 단지별 체육대회와 같은 행사를 열어 아파트 대표들 간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들은 체육대회 장소에 지역 노인들을 초대하여 술상을 보드리며 대회도 관람하고 경품 추첨 등 함께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아파트 체육대회를 단순히 입주자 대표들만이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갖가지 행사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도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 현장으로 만들었다.

## 2. 남는 건 사람이다 : 태장국화축제

망포동이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 1914년 태춘면과 장주면이 통합되면서 ‘태장면’이 만들어졌고 태장면 관할 하에 망포리와 우문리를 합쳐 ‘망포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시대에 따른 통합 또는 분리의 지역적 범주 변화와 함께 이 지역은 2003년에는 태장동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가 2019년 다시 망포1동과 망포2동으로 행정명칭이 변하게 된다. 망포신도시 지역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지역 주민들에게 ‘태장동’과 ‘망포리’라는 이름이 주는 정체성과 그들의 애정, 그리고 최근의 지역 명칭 변화가 주는 아쉬움은 여전히 깊게 남아 있다. 특히 ‘태장’이라는 이름에 대한 애착은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국화축제의 이름에서도 엿볼 수 있다.

### 1) 태장국화축제의 시작

2020년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태장 국화전시회’는 수원시 내에서도 내로라하는 명실상부한 지역 국화축제로서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올해는 COVID-19 확산으로 인해 부대 행사를 모두 제외하고 국화 전시 및 판매만으로 하고 있기에 ‘국화전시회’라는 명칭이 붙었으나, 8회차까지도 ‘태장국화축제’라는 이름 아래 국화 전시·판매와 더불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10월 처음 개최된 태장국화축제는 민관협력 성격의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출발했다. 태장국화축제의 기반이 되었던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2010년 6월 민선 5기 염태영 시장(현 민선 7기)이 새로이 취임하면서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사실 그 전부터 급격한 개발과 도시화로 인한 인간 소외 및 공동체 와해 등의 문제를 심각





2013년 태장르네상스협의회가 주최하는 태장국화축제(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하게 인지하고 있던 수원시는 마을 공동체의 복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2010년 민선 5기 출범을 계기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수원시 핵심 정책으로 결정하고 조례 제정 및 전담 부서 조직,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전과는 차이가 있다.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르네상스 센터장을 비롯, 민간단체와 주민들의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조직적이고 강력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011년 마을르네상스 포럼에서 이재준 당시 제2부시장은 수원시 마을르네상스를 “주민이 스스로 도시를 문화와 복지,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마을 공동체 시민운동”으로 규정했다. 또한 ‘수원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에서도 마을르네상스란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을 스스로 (...)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로 보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삶의 공간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이 사업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마을르네상스의 실질적인 정책 수단은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최고 심의·자문기구인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와 행정 지원을 위한 ‘마을만들기추진단’ 및 ‘행정지원협의체’, ‘공무원 서포터즈’, 행정과 주민 사이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르네상스센터’, ‘마을계획



2012년 수원시 마을만들기헌장 선포식(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사, 마지막으로 최종 사업 집행 주체이며 동단위의 주민자치 조직으로서 ‘마을만들기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태장동 방죽머리르네상스’(현 태장르네상스협의회)는 ‘마을만들기협의회’ 조직으로, 앞서 쌍용아파트 호프축제를 열어본 경험을 통해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게 된 최중영 현 수원문화원 사무국장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2011년 고(故) 이근호 당시 마을르네상스 센터장과 그 부인으로부터 4주간 마을만들기사업 교육을 받으며 마을 공동체 사업을 준비했다고 한다. 당시 정책 사업 초기인지라 어떤 경험이나 가이드라인, 예산 지원 없이 시작했어야 했고, 태장르네상스협의회 또한 ‘모일 수 있는 사람들’로 부라 부라 꾸려진 측면이 있다. 일반 주민들은 생업에 종사하거나 정책사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참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태장동 마을르네상스의 경우에도 통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등 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으면서도 지역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이들이 앞서 형성했던 공동체 네트워크를 발동하여 힘을 합쳤다.

국화축제를 공모사업으로 생각해 낸 것 또한 우연에 가까운 일이었다. 당시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이가 국화에 관심을 가지고 여주의 농업대학에서 국화 재배 기술을 배운 적이 있어 국화가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고, 모두가 ‘괜찮겠



다.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지원하고 뛰어들었다. 태장국화축제의 시작은 소소하고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올해로 9년차,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과 부녀회장들 간의 만남과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꾸준히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며 어렵게 국화를 키우고 지역 행사를 개최해 가며, 자체적으로 축제를 이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망포동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태장’이라는 이름을 쉽게 놓지 않는 것처럼 마을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놓지 않고 이어 나가는 힘은 태장국화축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다.

## 2) 태장국화축제를 만드는 과정

태장국화축제가 수원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의 지원을 받은 것은 1회부터 4회까지였으며, 그 이후 5회부터 현재 9회차에 이르기까지 태장르네상스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조달하여 운영 중이다. 이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1회당 2년 이상 지원하지 않으며 동일 사업이 2회 이상 지정되지 않게끔 규정하여 공모사업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정 시스템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태장국화축제는 초반에 수원시의 예산 지원을 받으며 민관협력 사업으로 기초를 다진 후 그 경험을 토대로 오로지 주민들만의 힘으로 진정한 ‘마을르네상스’를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화 재배 기술이 있는 회원의 아이디어로 국화축제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이를 준비해 본 이들은 국화가 결코 재배하기 쉬운 작물이 아님을 거듭 강조한다.

**최중영** 그런데 국화가 힘든어요. 진딧물이 많은 거죠.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귀찮잖아요. 국화꽃이 한 송이 피어서 소쩍새가 그렇게 울어댔나 보다, 라는 게, 그건 좋은 표현인데, 진딧물이 엄청 많아요.

**한수옥** 바닥부터 시작했거든요,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진짜 모종 요만한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요만한 것부터 4월부터 모종을 시작하긴 하는데, 일단 그것부터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국화는 어떤 큰 그릴이든 딱 모종부터 시작해요. 한 송이부터 시작해요. 예를 들어보면 국화가 장식된 코끼리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만들어 봤잖아요. 그것도 한 송이부터 시작해요. 한 송이가 계속 이제 층을 따지면서 넓혀가는 건데, 그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4월 이전부터 시작하는 거죠.

국화축제의 준비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2월부터 시작된다. 우선 가을철 내 전시되었던 작품들과 시든 국화들을 해체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 이후 따뜻한 바람과 꽃샘추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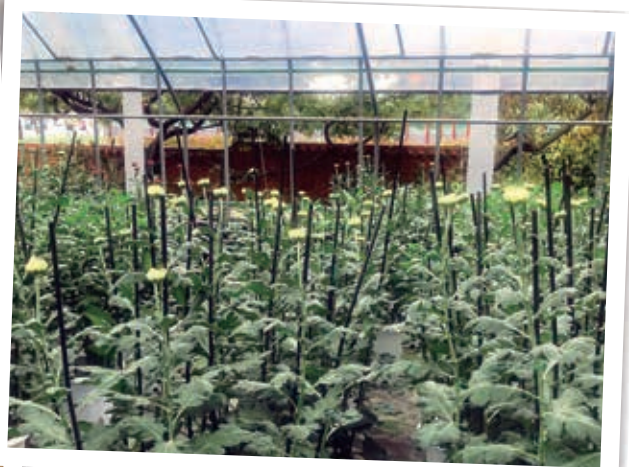


국화전시회에 참가한 태장동마을만들기추진협의회(2015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번갈아오는 3월에는 국화를 심기 적합한 용토 및 화분 준비 작업을 하며 어떤 작품을 할 것인지 구상하고 4월부터 작업을 본격 시작하게 된다. 여름철 더운 날에도 당번을 정해 번갈아 가며 퇴비를 직접 만들었고, 나무뿌리의 일부를 이용하는 목부작 재료를 구하기 위해 함께 산에 오르는 날도 있었다. 커다란 꽃 딱 한 송이를 피워내는 대작을 키우는 경우 그 한 송이를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날도 많았다고 한다.

**한수옥** 고생도 많이 했지만 고생한 만큼 즐거웠어. (...) 그 때 퇴비도 다 만들었거든요, 재료 사다가, 싸다고. 땅콩껍질 이젠거 사다가 섞어서, 퇴비를 만들었어요. 원래 사다 쓰면 편하긴 한데, 비싸요. 그래서 남자 회원들이 다 삽질해서 막 섞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방효를 시키는 거야. 방효시켜 쌓아놓고. 그건 인들도 많이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으로 했어. 일일이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 꽃 하나 부러지면, 어휴~우리 손가락 부러지는 것 같았다고. 너무 정성들여 했기 때문에, 부러뜨릴까봐. 한 송이만 키우는 큰 거, 대작은...(국화는) 송이가 나뉘져 있어요. 그 송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애들 다 쳐내거든요. 그래서 하나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지. 그대가지고 부러뜨리면, 한 며칠 이쑤시개 꽃고 테이프 반감 가며 이렇게 막 붙여 있어요, 며칠만 참아라... 너무 야리야리하기 때문에. 그거 꺾어질까 봐, 내가 참 자식을 그대 정성들여 키웠으면(웃음).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했지 그때는, 진짜 자식보다도 더 애지중지.





국화축제에 출품할 대작과 목부작

마을만들기 사업을 기획하고 국화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르네상스협의회 회원들이 모두 같이 참여하고 진행하면서 뽄뽄 뽄치는 모습은 다른 지역들의 부러움을 샀다고 한다. 당시 마을만들기협의회장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태장동을 보니 우리는 망했어, 망했어.”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태장르네상스협의회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유대감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국화축제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르네상스협의회라는 주민자치조직의 경험과 조직력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국화축제를 시작했으나 개인의 리더십에 의존했던 매탄동과 달리 태장동에서는 국화축제를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르네상스협회의 조직력, 즉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한 예로 ‘칠공삼공 모임’은 국화축제가 사업 초반 자리를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최중영** 그 당시에 국화축제 하면서 만나서 도와줬던 여자분들 일곱 분이 있어요, 그래서 칠공주인데. 그분들과 당시 동장, 구청 팀장, (나) 이렇게 낱자 셋이 있어요. 칠공삼공 모임이라고. (...) 여기 매달려서 인해준다는 게 항상 고마웠어요. 저는 직장인이니 나와서 일하고, 상 차리면 거기 가서 마이크만 잡고 생색만 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맙게도 얘기해준 게 뭐냐면, 회장님은 바깥일만 하셔도 된다, 내부 일은 우리가 하는 거다, 라고. 그 조화가 참 좋았죠.

태장국화축제가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에 당선되기 전부터 태장르네상스협의회는 사업 준비를 위한 자금 마련에 힘썼다. 수원문화원 사무국장인 최중영은 이때 주민자치회장이자 르네상스협의회장으로서 사업을 공모하고 이끄는 입장에서 종잣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태장동 지역 단체장들의 십시일반과 주민자치회장의 쾌척으로 이루어진 340여만 원은 이후 시의 지원을 받기 전까지 국화 재배 교육 및 국화 모종과 시설 마련 등에 쓰이는 기반이 되었으며, 여기에 마을만들기사업 지원금으로 수원시에서 제공한 5천만 원을 포함하여 국화축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태장국화축제를 준비하는 이들이 단순히 시의 지원을 수동적으로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축제 초창기부터 지역 리더들의 사비를 털어 종자돈을 마련한 것은 그만큼 지역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국화 재배를 제안했던 이범용의 개인 농장에서 작업을 시작한 국화축제는 1회의 경우 현 망포2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크기의 장소에 전시되는 수준으로 작은 규모였다고 한다. 국화 재배를 처음 해 보는 협의회의 시행착오와 경험 부족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욕

##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14년 태장르네상스협의회 회원들  
(수원시청 포토뱅크 제공)







태장국화전시회가 열리는 망포2동 커뮤니티센터

심 부리지 않고 처음에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3회차부터 행정기관의 협력을 얻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체험 부스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6회차부터 지역 커뮤니티센터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더 넓은 공간에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1회부터 6회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및 수원시농업연구소 등 전문적인 이들이 참여하는 행궁동 국화전시회에도 꾸준히 출품하여 태장동 지역의 국화축제 수준을 알리고 규모와 내용 면에서 다양하게 변주를 주고자 노력했다.

비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축제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과 국화 재배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1회부터 5회까지는 망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화를 전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대로변 맞은편에 위치한 망포2동 커뮤니티센터 광장에서 국화축제를 진행하게 되었다. 태장국화축제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국화를 전시하고 축제를 열 수 있는 공간을 적은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 태장르네상스협의회 회장 유순모는 태장국화축제가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던 이유로 망포신도시가 아직 도농복합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유순모** 망포동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좋은 점이 많은 게, 여기는 원래 도농복합도시, 도시 속의 농촌 마을이 예요. 수원시에서도 농촌과 도시가 접목된 동네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다른 동네에는 없어요. 그나마 우린 행복한 동네야, 이런 장소가 없어요. (망포2동 커뮤니티센터를 가리키며) 수원시에서 여기를 무상으로 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용하고 문고강 자원봉사센터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은 공간을 국화축제에 쓸 테니까 하우스랑 시설 좀 해달라고 해서.

물론 축제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이 모두 수월하지는 않았다. 마을만들기 사업 진행 초반에 국화 전시만이 아니라 마을을 전체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싶었으나 중단되기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자연스럽게 비어 있던 공간이 채워져 국화축제의 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되기도 했다. 특히 축제 장소만이 아니라 그 전에 국화를 재배하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작업 공간 마련이 시급했던 르네상스협의회는 망포동 내에서 국화를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기를 바랐다. 현재 망포동 커뮤니티센터 부지 내 세워져 있는 비닐하우스는 태장르네상스협의회 of 적극적인 행동력이 빛을 발한 결과물 중 하나이다. 2017년 지자체 주민세 인상 이후 환급금이 다시 동별로 교부된 적이 있는데 환급금의 일부가 국화 재배 비닐하우스를 짓는 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뜻밖의 수입 이전에 커뮤니티센터 부지에 비닐하우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1년 이상 꾸준히 제기했던 협의회 회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비닐하우스 설치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미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이 종료되어 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이었으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원시장 및 관계자들과 쌓은 신뢰관계를 통해 국화 재배 장소가 어디에 왜 필요한지 르네상스협의회 회원들은 꾸준히 어필했다.

**한수옥** 어쨌든 사유지를 계속 쓸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커뮤니티센터에 비닐하우스를 해달라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국화를 여기서 재배합니다. 처음에 시장님은 안 된다고 하시지 당연히. 돈도 없고. 공간도 우리 공간이 아니고. 그런데 거의 1년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볼 때마다 계속, 언제 해 주실 거예요. 시장님 오실 때마다. 언제 해 주실 거예요? 기다리다가 눈 빠지겠다고. 편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6년 차부터 저희가 거기(커뮤니티센터)에서 했으니까.

### 3) 태장국화축제가 가져다주는 이야기와 의미

국화축제에서 국화 전시 및 판매가 지역 대표 어른들이 1년간 흘린 땀과 수고를 보여주





2020년 태장국화전시회 홍보물



2020년 태장국화전시회의 다양한 국화 토피어리



2020년 태장국화전시회의 국화 화분들



2020년 태장국화전시회 준비



는 자리라면, 어린이들의 그림 그리기 대회는 국화축제에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부모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잠원초등학교, 태장초등학교, 대선초등학교 각 학교당 선작순 30명을 지원받아 열린 그림 그리기 행사의 아이디어도 처음 시행했을 때는 교실에서 그림만 그리던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딱딱하게 교실 안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건, ‘우리가 이런 것을 했다.’는 보여주기식 명분에 불과할 뿐이며 어린이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수동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회, 3회 축제가 반복되면서부터는 직접 국화를 보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진행했다. 장소는 태장동주민센터 앞마당일 때도 있고 태장도서관 마당이 될 때도 있었다. 이후 6회 차부터는 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그림을 공모 받아 전시하는 것으로 그림 그리기 대회 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한수옥** 낱자를 딱 정해서 뜻자리 가지고 와서, 동생 데려와도 되고, 부모도 같이 와도 되고. 간식 먹으면서 자유롭게 그리자 해서 한번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국화가 전시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든, 상상으로 그리든, 현장에서 한 거죠. 되게 좋더라고. 소풍 온 것 같은 느낌 있죠. 부모들도 와서 간식 먹어가며, 엄마들은 모여서 수다 떨고, 애들은 그림 그리고,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실물을 볼 수 있고, 자연을 느끼면서 해야지 같아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태장국화축제에 전시된 다양한 국화들은 수원시청을 비롯하여 각 구청, 수원시 산하기관의 협조 아래 판매되고 있다. 이 수익금을 가지고 내년 국화축제를 다시 준비하게 되는데, 국화 재배 과정에서 재료비가 많이 들지만 외부 지원은 일절 없는 것이 현실이며, 회원들과 주민들의 봉사에 힘입어 국화 판매 수익금을 주축으로 자생적으로 국화를 키워낸 결과 현재 수원시의 대표적인 지역 국화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화축제를 준비하는 태장르네상스협의회 구성원들과 주민들은 축제를 위한 노동력인 동시에 소중한 인연일 수밖에 없다.

‘태장’이라는 이름을 고수하며 지역 고유의 축제라는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의 대부분이 망포·태장 지역에서 25년 이상 거주한 토박이들이기도 하지만 한 수옥처럼 2000년대 신축 아파트 입주와 더불어 유입된 이주민들도 함께 어우러져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축제의 역사가 이어지고 축제 준비 및 진행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민-관 인적 네트워크 축적에 따라 자금 융통 및 작업 및 전시 공간 측면은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비용이나 공간과 같이 시간과 경험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인력’이



2017년 수원농생명과학고 국화전시회에 국화 작품을 협찬한 태장르네상스협의회 회원들(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다. 망포신도시 지역이 비록 20년 이상의 토박이들과 신규 이주민들이 조화를 이루며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워 나가고 있지만, 도시 특유의 개인의 소외나 공동체 경험 부재, 관계 맺음을 두려워하는 현대인의 특징을 외면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태장국화축제를 비롯해 지역 공동체의 경험이 있는 이들이 내다보는 마을 공동체의 전망은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유순모** 봉사단체가 다 똑같아요. 계속 그 인원이 고정적으로 할 수는 없죠. 자꾸 이게 바뀌어야 돼요. 오래 계셨던 분들도 개인 사정으로 (활동을 그만두시기도 하지만) (...) 어쨌든 자꾸 로테이션이 되어야 (공동체) 지속이 되지, 그 사람이 평생 하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다가도 그만두고 또 새로운 분들이 원해서 들어와 같이 봉사해 나가는 거지. 영원한 말뚝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 흐름이 지속되는 거죠. 너튼 국화축제 영원히 너희들만 해라, 나가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인원이 많으면 많은수록 좋다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웬만큼 국화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시니까.

핵심 인원들이 협의회를 지키는 가운데, 앞으로도 아파트입주자 대표나 각종 지역 단체들이 유지되는 한 지금 당장 새로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는 여유가 느껴졌다. 그것을 유순모 회장은 ‘순리’라고 표현했다.





태장동 간판(2014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국화축제 초창기에 참여했던 한수옥은 2006년도에 이 지역으로 이사 온 후 적응하는 과정을 떠올리며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더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오히려 더운 여름날 비닐하우스 안에서 국화 작업을 하고 산을 오르는 등의 힘든 경험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생겨나면서 구성원 간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다고 한다.

**한수옥** 저희가 국화를 어떻게 잘하고, 멋있게 해서 작품을 멋있게 빼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하나의 소통의 장소나 만남의 장소가 되고. 지금까지도 그 관계들이 꾸준히 이어져 오니까. 결국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일이 남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남는 거잖아요. 그건 부분에서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남는 것 같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저도 인정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든 기존의 인연들이 믿고 따라주고, 무조건 믿고 보는 그런 관계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한편 현재 국화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현 태장르네상스협의회 회장인 유순모는 국화축제를 통해 행복과 기쁨, 그리고 자긍심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비록 국화 작품들이 대단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있어 함께 작업하고 경험을 나누는 가운데 “여기가 이렇게 푸근하니까 다른 데 가기 싫다.”며 순리에 따르며 사람들과 함께 계속 국화축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유순모** 얻게 된 것, 행복함이나 즐거움이죠. 우리가 일체 수입이나 이득을 위해 이것 하는 게 아니니까. 태장동에서 이런 걸 한다는 공지를 갖는 거예요, 그게 다 보상이 되는 거야. 오늘도 진짜, (국화) 전시를 해놓았지만, 우리가 이 작업을 2월부터 시작해서 여기 주민들이 관람하고 아, 국화 이쁘게 잘 피었다, 해주시는 그게 보상이 돼요. 태장국화축제는 이미 수원시에서 완전히 자리매김한 거라, 중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이어가면서 코로나라든지 하는 현 상황에 공감대를 가지고, 이것 지속해 나갈 예정이에요.

### 3. 배운 것을 나눈다 : 동수원자이3차아파트 ‘수다쟁이들의 체험공예’ 클래스

망포동의 태장국화축제의 경험을 이어받아 개별 아파트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발전시킨 경우도 있다. 동수원자이3차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수옥은 초창기 태장르네상스협의회에 있으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서 국화축제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수원시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2018년부터 현재까지 체험공예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공예 클래스 또한 기존의 국화축제를 함께 준비했던 사람들을 비롯하여 신규 회원들을 영입함으로써 협의회를 꾸려 이들이 직접 강사로 뛰며 재능 기부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동수원자이3차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운영부에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금을 주고 있다. 여기에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금은 재료 준비 및 장소 대여에 함께 사용된다. 또한 수강료 중 50%는 수강생 본인 부담으로 하여 아파트 주민이 원하는 수업과 협의회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수업을 매칭하여 주최하고 있다. 클래스는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작동한다. 실질적인 공예 클래스 진행 공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지하에 마련된 회의실로, 공예 클래스는 이 공간을 터전으로 하여 안정적으로 진행된다.

#### 1) COVID-19 시대에 우리가 소통하는 법

제9회 태장국화축제의 경우 커뮤니티센터에 진입하기 전부터 발열 체크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국화를 감상하는 것뿐, 기존의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전면 취소되고 그 규모가 축소되는 아픔을 경험했다. 이는 비단 태장국화축제의 일만은 아니다. 동수원자이3차아파트의 수다쟁이 체험공예 클래스는 COVID-19 상황을 맞이해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아파트 주민들의 소통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동수원자이3차아파트 '수다쟁이들의 체험공예' 수업



동수원자이3차아파트  
'수다쟁이들의 체험공예' 작품

기능하고 있었다.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던 시기에도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들은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원들과 수강생들에게 의견을 구했을 때 이들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대답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항상 하던 발열 체크, 손 소독제 구비는 물론 아파트에서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클래스 진행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주의를 최대한 기울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주일에 1~2회 진행되는 손바느질이나 자수, 뜨개질 수업이 별 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얼마나 더 멋지고 좋은 공예 작품을 만드느니보다 집안에 갇혀 있지 않고 이웃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에 함께 있고 싶어 클래스에 참여하는 것 같아 보였다.

수업한 결과물은 개인적으로 가져가기도 하지만 전시회를 열기도 한다. 보통 근처 행정복지센터의 공간을 빌려서 열고, 강의가 열리는 회의실은 지하에 위치해 있는 탓에 주민들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알뜰장터가 열릴 때 근처에 작품을 전시하고 클래스를 홍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아이디어는 과거 국화축제 때 어린이 그림 전시회의 경험을 토대로 나온 것이기도 하다. 사실 현수막이나 공고문보다도 실제 만들어진 작품을 직접 볼 때 사람들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기 마련이다. 아파트 지하의 조그만 공간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공예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알리는 차원에서 알뜰장의 작품 전시 부스는 꼭 필요한 홍보 수단이 된다.

## 2)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와 공동체 경험 훈련

앞서 국화축제와 관련해서도 엿보였던 공동체를 함께 꾸려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험은 동수원자이3차아파트 수다쟁이 체험공예 수업을 진행할 때 구성원들 간 관계의 방향과 방식을 달리하게 하는 기초가 되었다.

**한수옥** 이제 조금 다르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예전에는 주로 인솔했는데, 지금은 회원들이 돌아가며 하게끔 유도해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좀 가르치고, 제가 중심은 잡아주지만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거기서 두각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키워서 다시 이렇게 공동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제가 잡고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이 또 마을만들기 르네상스에서 바라는 점도 아니구요.





동수원자이3차아파트 '수다쟁이들의 체험공예' 뜨개질 수업

한편 최근 관계 맺기에 소극적이거나 육아 혹은 직장 근무 등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성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은 회원들에 대한 관계 형성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한수옥은 현재 수강생 연령대는 주로 40대에서 60~70대까지 다양하지만 보통 젊은 엄마들은 잘 없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서 육아를 전담하는 현실 속에서 아이가 어리면 참여를 잘 하지 않게 되는 현실을 그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 주된 참여자들은 자녀가 대학생 성인이 된 50대 전후반의 여성들로 이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런 현실과 별개로, 한수옥이 30대 이던 시절과 달리 최근에는 앞장서서 공동체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있더라도 주저하는 모습이 보여서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그는 말한다. 그렇기에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끄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재능 있는 사람을 발굴하여 리더십을 키우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한수옥의 목표이다.

이처럼 관계 맺기에 소극적인 사람들에게는 공동체 활동에 있어 낮은 업무를 맡기거나 부담을 주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 한수옥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 국화축제의 경험이 현재 동수원자이3차아파트의 공동체 활동의 주춧돌이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체험공예 클래스 사업을 지원할 때도 혼자서 새벽 3시까지 실행계획서를 작성했다며 웃었다.

**한수옥** 모든 험한 일은 제가 한다고 그래요. 참여만 잘 하라고, 참여만. 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해 주고 호응해 주고. 이것만 해주면 된다고. 회원들은 그것만 하면 돼. 모든 서류적인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래서 참여율은 높아요, 항상.

회원들에게 '참여'만을 강조하는 이유는 일반 회원들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부담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 아예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행정 처리 및 서류 작업을 본인이 도맡는 대신 회원들에게 참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고 평소에 강조해 왔다. 덕분에 높은 참여율을 자랑하는 동수원자이3차아파트 체험공예 클래스 현장에 와 본 수원시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 담당자도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줄은 몰랐다고 놀라워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체험공예 클래스에는 10명 이상 오기 때문에 원활한 수업 진행과 최근의 COVID-19 상황을 고려해 수강생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두 파트로 나누어 요일별로 수업을 진행된다.

동수원자이3차아파트 체험공예 클래스 사업을 이끌어어나가는 회원들은 수강생인 동시에 서로를 가르쳐주는 강사의 역할을 자임하기도 한다. 여기에 수원시 마을만들기 심화 교육과 주민자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에는 회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모두가 갈 필요는 없으나 두세 명 정도는 꼭 나와 같이 가야 한다."고 부탁하여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모두가 사업 교육을 통한 역량 증진의 기회를 맞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아쉬운 것은 올해 COVID-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지자체에서 집행하던 마을만들기 사업은 물론 그 외의 다양한 주민자치 교육 프로그램들이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동수원자이3차아파트의 체험공예 클래스는 '서로서로 강사가 되어 주는' 만능 회원들과 수강생 이웃들의 작은 교류가 이루어지는 쉼터로 남아있다. 국화축제 사업의 경험과 그때의 인간관계를 재산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한수옥의 경우처럼 대단지 아파트의 대표들이 모여 시작된 긍정적인 공동체의 경험과 인간관계라는 씨앗은 다시 개별 아파트로 흩어져 뿌리를 내리고 공동체를 키워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4. 망포동 그물망의 또 다른 시작, 청년씨앗 공동체

망포동 지역은 도농복합체형 신도시로 개발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았고, 대를 이어 살아오는 지역 토박이들과 신축 아파트 입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입된 이주민들이 어우러져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며 도시화에서 비롯되는 인간 소외현상이나 인간관계 와해와





영통 청년씨앗 추진단 로고

같은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방지하거나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한 태장국화축제는 ‘태장동’과 ‘망포리’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유지되어 이제는 수원시에서도 장수하는 지역 축제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동체 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처음 망포신도시 신축 아파트에 온 이주민들과 동네 토박이들이 자신들이 사는 곳과 주민 자치 활동을 통해 맺은 끈끈한 인연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의 적극적인 호응을 불러왔

다. 망포신도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망포신도시는 그 이름 그대로 그물망처럼 성기면서도 촘촘하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기반을 다지고 경험을 쌓아 이제는 안정적으로 축제를 꾸려 나가고 있으며, 사업의 경험을 얻은 이들은 다시 자신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하는 삶이 주는 기쁨, 충만한 감정, 그리고 인연을 선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공동체 활동을 이어 나가는 이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연령대 주민들이며, 이들은 소수일지라도 새로운 사람이 오고 오래된 사람은 나갈 것이라는 인간관계의 ‘순리’를 믿으면서도 한편으로 젊은이들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려 하지 않고 부담을 느끼는 세대에 대해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 글의 마지막은 이러한 우려에 대한 작은 희망의 단서로 ‘영통구 청년씨앗단’이라는 이름으로, 망포동 출신 젊은이들이 주축을 이루는 청년 단체를 소개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2018년 발대식을 올린 청년씨앗단은 영통구청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모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제안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연계 활동을 펼치면서 경험을 쌓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단장 한준영의 말에 따르면 청년 관련 커뮤니티는 수원시 4개 구에 모두 있었으나 현재 2개 구는 커뮤니티가 사라졌고, 어떤 곳은 사회복지무요원으로 채워진 이름만 청년 커뮤니티인 곳도 있지만 현재 영통구의 청년씨앗단만이 유일하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며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 멤버 모집 시에도 수원시에 적응 두고 있다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도록 외연을 확장했지만, 씨앗단 창설 초기 멤버는 한준영 단장을 비롯한 망포동 지역 출신들이며 지금도

이 친구들과 한준영 단장이 주축이 되어 단체가 유지되고 있다.

청년씨앗단의 창설은 크게 두 가지 경향을 내포한다. 먼저 청년들이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공동체를 형성하기보다는, 청년 문제(취업, 실업, 인간관계 소외 등)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행정기관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해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둘째로 지역의 외연이 확장되는 경향이다. 기존의 지역 공동체는 행정구역이나 지리적 경계를 중심으로 좁고 폐쇄적으로 형성되었다. 태장동과 망포리를 기억하는 주민들이 국화축제에서 ‘태장’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행정구역 명칭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정체성의 중심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있어 망포의 그물망은 말 그대로 ‘망포’ 안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SNS를 활발히 활용하며 외부 지역과 해외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들의 경우 ‘정주’하는 것에 대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들에게 어린 시절을 공유하는 친구들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어린 시절의 지역 경계를 허물고 그물망을 확장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여기에 공동체 활동 자체에 소극적인 청년들의 경향은 구성원 확장을 위해 지역 경계를 동(洞)단위가 아닌 구(區)단위로 설정해야 했던 이유가 될 수 있다.

청년씨앗단은 청년 취업 부담 완화를 위한 ‘청사진(청년이여 사진을 찍어라)’ 정책을 제시하여 관내 기업들과 함께 하는 청년UP 클라우드 행사 진행, 청년바람지대를 방문하여 세대공감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여 단원 간 유대감과 친목 쌓기, 수원 내 기업과 시설 탐방, 기업 탐방 및 한·중 청년 기업 간담회 참석, 수원시 정책박람회 참석 등 짧은 기간에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현재의 청년씨앗단은 크게 세 가지 한계점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모든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이기도 한 COVID-19의 확산 상황이다. 이는 관 주도적으로 형성된 청년 공동체에서 청년들이 갖는 위치의 취약성 및 청년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씨앗단의 구체적인 행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둘째로 정부와 지자체의 ‘표면적인’ 청년정책 운영 방식이다. 앞서 수원시의 3개 구에서 만들었던 청년 커뮤니티가 붕괴되거나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 청년정책의 대부분은 형식적이고 일회성인 경우가 많다. 구성원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도 있겠으나, 한국 사회의 연령 및 사회적 지위에 따른 엄격한 서열 구조 아래에서 청년들은 관 주도의 일회성 정책에 대해 항의하기조차 어렵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는 태장르네상스협의회 회원들처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며 사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 또한 공동체 유지의 한계점으로 다





2019년 수원시 정책박람회의 영통구 청년씨앗단 부스

가온다. 청년씨앗단에서 기획 단계를 넘어 실제로 실시된 사업 중 많은 경우가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그 한계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한 줄 경력도 안 되는 경우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단장의 자조적인 평가 그대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은 ‘청년’이라고 뭉뚱그려 일컬어지는 공동체보다 ‘개인의 생존’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도움이 되는 일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청년들의 현실은 ‘보여주기’식 청년정책이나 잦은 로테이션으로 전문적 역량 축적이 어려운 공직 구조와 맞물려 있어, 청년들은 ‘공동체 형성과 유지’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준영 단장은 영통 청년씨앗단 역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몰 사업에 속해 있어 폐지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청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한국 사회와 거대한 구조적 모순 속에서 과연 젊은이들의 공동체는 가능한가 하는 회의가 들 수도 있다. 태장국화축제를 비롯하여 망포동 지역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이들의 우려는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망포동 지역 청년들의 약 2년간의 짧은 도약은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준영 단장의 경우 망포동 지역 또는 영통구와 수원시에 이런저런 정책



영통 청년씨앗단 수원시 청년바람지대 방문(한준영 제공)

제안을 활발하게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청년씨앗단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청년씨앗단은 수원시 정책박람회에서 영통구 지역 부스를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하는 등의 참여를 한 경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역 공동체에 대한 고민은 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우선으로, 가능성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충분한 지원, 삶의 조건을 고려한 평가 시스템 마련 등 공동체 활동을 해 보고자 하는 청년들의 도전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지역 공동체의 그물망을 건강하게 지켜 나가는 노력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망포동 상권의 형성과 변화

### 1. 망포동 상권의 형성

2014년경 필자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망포역 주변을 처음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다. 당시 망포역 바로 옆에 생긴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점심이 지난 시간에도 넓은 매장에 사람이 앉아 있는 테이블이 얼마 되지 않았다. 카페가 입점한 상가는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티가 많이 났고, 신설된 역 주변에 감도는 신선하면서도 삭막한 분위기가 흘렀다. 버스들도 드문드문 지나가고, 길 건너 삼성디지털프라자가 눈에 띄는 정도였다. 그로부터 6년이 흐른 2020년 현재, 망포역 주변은 몇 년 전 분위기에 ‘수많은 점’들이 더해졌다.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며, 빈 공간 없이 사이사이가 뻥뻥하게 채워진 풍경이다.

망포동 상권은 이 지역이 ‘망포동’으로서 변화하는 공간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졌다. 행정구역상 망포동은 본래 ‘태장동’이었으며, 2019년 4월 15일 망포1동과 망포2동으로 분리되었다. 오래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는 ‘망포동’이라는 이름은 행정구역으로 기입하는 것이며, 아직 ‘태장동’으로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논밭이 대부분이었던 땅에 2000년대 초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2012년 12월 망포역의 탄생과 역 주변 상권의 형성으로 현재의 모습에 이르는 광경은,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상전벽시(桑田碧市)’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단계별 개발방향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망포동 일원은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망포역 일원의 자동차 정류장 이전계획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연계하여 부족한 상업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망포동 남부 일원 남부권역의 여건 변화와 공공기관 이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 개발과 관리를 유도한다고 하였다. 망포역 2번 출구 바로 앞 공영주차장은 본래 버스차고지인 영통 회차장이 위치해 있던 자리였는데, 신영통(현 망포동·신동 일대)이 개발되고 남부차고지가 신설된 후 순차적으로 이동되었다. 현재는 이 부지를 중심으로 망포역 복합센터가 건립 추진 중에 있다. 신영통 일대의 도시개발로 인해 교통이 편리해지고 이용객 수가 증가하면서 망포동과 망포역 상권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1) ‘논과 밭’이던 시절

망포동에 거주하거나, 삶의 터전으로 지내온 사람들에게 망포동과 망포역 상권의 과거와 현재를 묻는 과정에서 구술자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반응은 “여기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주변 도로와 경계하며 있고, 주변 공원과 어우러져 아늑한 분위기까지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반응은 더욱 놀랍다.

7살 때부터 망포동에 살면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20대 한준영은 망포동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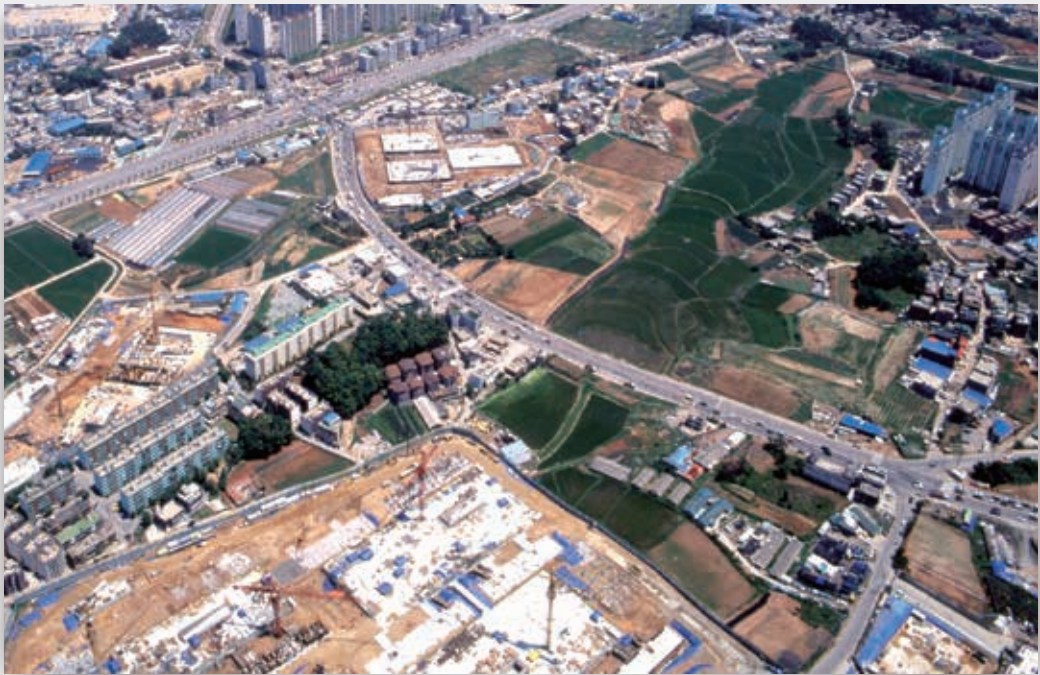
**한준영** 네, 지금도 거기 살죠. 아, 이제 태장 공원으로 바뀐 데 있잖아요. 공원 같은 데. 거기가 원래 다 논이었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 저는 엄청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주력 단지 옆에 한양수자인 그쪽이 원래 거기도 논밭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쪽 벽산 후문 쪽 밑에 그쪽에 건물 들어가 있잖아요. 상가. 지금도 이제 주차장으로 쓰고 살짝 공터같이 있는 데 버스정류장 앞에.

**조사자** 아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용 주차장.

**한준영** 네. 거기까지 논이었어요. 거의 밭, 논이 합쳐져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거기 논밭 빠져가지고. (웃음) 가방을 잡고 논에 가다가 한번 빠져가지고 집에 가서 막 얼마한테 혼나고.

망포역 대로변 안경점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유은희(가명)도 수원에 쫓 거주하며 영통으로 직장을 다니며 변화를 몸소 체감한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는 이 일대가 ‘시골’이던 때를 금방 떠올렸다.

**유은희** 옛날에는 망포동 다 시골이었잖아. 지금 망포역 지나서 아파트, 다 밭이었어요. 타조농장 있고,



2000년 태장사거리 일대(최호운 제공)



망포동 동네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태장사거리(2021년, 최인경 제공)



타조농장 있었어요, 저 밑에. 옛날에 여기가 화성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지금은 수원에 편입되었지만요. 더 내려가면 신동이고.

**조사자** 지금 트레이더스 있는 쪽이요?

**유은희** 트레이더스 더 지나서. 트레이더스하고 그 주변이 다 논밭. 타조 키우던 거 다 기억하는데. 거기 아이파크캐슬도 입주한 지 이제 2년 됐나? (...) 여기 근무하기 전에 영통 중심가에서 근무했을 때, 2001년부터 다녔으니까, 지나가면서 다 봤지.

망포역 부근에는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온 골목들을 중심으로 ‘동네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다. 바로 옆이지만 벽적골 아파트 단지나 망포역 일대는 망포동이 아닌 ‘영통동’ 관할이라는 점에서 모호함이 있으나 망포역 상권에 포함된다. 개발 초기 아파트 단지에 입주 후 망포동에 약 20년간 거주하며 마을의 형성과 고락을 함께한 최중영도 태장동 시절부터 망포동과 그 주변을 둘러싼 개발의 흐름 속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관여해 왔고 느끼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최중영** 그때는 태장동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정동으로는 망포동인데 행정적으로는 태장동이니까 태장이라는 명칭 때문에. 그게 좀 아까워요, 태장이라는 명칭이 참 오래된 명칭인데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차이 때문에 법정동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 제가 동대표 일하면서, 협의회 일 같이 하면서 (시의원에게) 여기 앞에 공원을 안 세우면은, 당신은 앞으로 위원 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들, 웃으면서. 그분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업자들은, 망포역사가 지어진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앞쪽으로 짓고 싶지 뒤쪽으로 짓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공사라도 우리는 안 된다. 대신 그 분이 좀 도와 준 거죠. 그게 지금 앞에, 도로 옆에 상가 부지 공사하고 있는데 들어오나 봐요. 거기까지는 제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상업부지. 먹고 살아야지(웃음).

## 2) 벽적골 주변 먹자골목과 대로변 상가들

망포역 뒤편에 위치한 벽적골 아파트 단지 앞부터 왼쪽으로 쪽 이어지는 먹자골목은 망포역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다. 망포역 출구 왼쪽 끝을 건너면 맥도날드가 보이는데, 그 골목길로 쪽 들어서면 근처 삼성전자의 하청업체들이 위치해 있으며, 더 들어갈수록 주거 구역인 원룸이나 빌라가 형성되어 있다. 사실 이곳은 영통2동과의 경계로, 바로 위쪽에 영통중학교와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가 붙어 있어 행정구역상으로 쉽게 구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주변 풍경을 통해 이 지역이 망포동 개발 오래 전부터 존재했음을 느낄 수 있다. 현재도 삼성전자와 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나 근방의 대학생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이 골목은 가게들이나 미용실, 편의점이 떨어져 있으며 인적이 적어 비교적 조용한 편이다.

학창시절 쪽 망포동에서 거주하였고 현재는 영통에 거주하지만 약속 장소나 가족모임으로 여전히 망포를 자주 찾고 있는 정혜빈은 이 일대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다.

**정혜빈** 저도 학생 때 그쪽이나 이쪽이나 뭐가 먹으려고 하면 별로 먹을 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쪽은 주로 제육장사 하는 식당이 많아요. 저는 그나마 양갈비랑 맥주 마시러 갔어요. (...) 김밥 집도 없었는데 지금은 벽적골 사거리 쪽에 생기고.

그리고 덕영대로 옆에 세워진 상가건물들 중에는 어느새 22년이 된 곳도 있다. 상권이 활성화된 것은 2004년경부터 건물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한 이후이다. 당시에는 음식점 위주였으나 현재는 음식점과 학원, 은행과 카페 등이 입점해 있다. 유은희는 이 대로변 상권의 직장인이자 이용객이기도 하다.

**유은희** 원래 이쪽이 다 먹자골목이었거든요? 식당밖에 없었고, 안경원은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조사자** 그걸 원래 이쪽에 식사하러 자주 오시나요?

**유은희** 아니요, 잘 안 가요. 처음에만 몇 번 가보고. (...)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랐는데.

**조사자** 그걸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자주 가실까요?

**유은희** 이 근처 사시는 분들은 앞쪽보다는 뒷골목을 많이 다니시죠. (...) 저는, 가끔 점심특선으로 나오는 메뉴 먹거나 아니면 요 옆 부대찌개는 맛있게 먹으러 가요. 그리고 손님 오면 설렁탕집으로 데려가기도 하고요.

### 3) 삼성전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망포

현재 망포역 북서쪽 방향에 위치한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 수원사업장은 망포동 일대 상권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 대단지가 지속적으로 건설된 후 망포로 이주한 주민들 중 삼성 직원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앞의 구술에서도 참고하듯, 벽적골 근처는 직장인들의 회식 장소로 먹자골목이 형성되었으나 다양한 곳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많

고, 타 상권들이 형성되면서 이용객이 분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은희** 아주 옛날부터, 삼성전자가 광주나 천안에 내려가기 전부터, 영통이 생기기 전에는 “삼성전자 월급날은 수원시내가 정신없다”구. 월급날이 17일이었던가 언제였던가. 17일만 되면 그렇게. 그때는 남문이 정말 정신없었지. (...) 그때는 쓸쓸현상이 있었지만, 요즘은 영통이나 광고나 다양하게 가니까.

**정혜빈** 친구들 부모님이 삼성이었던 경우가 한 60%쯤 될걸요. 삼성 아니면 여기 안 돌아갈 것 같아요. (...) 초기에는 이제 망포동이 가족 단위로 거주하고 학군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 단위의 식당 같은 게 이제 많았어요. 그리고 태장사거리 안쪽 골목(우문리)에 있는 빌라에서. 거기들 이제 직원들 단체 숙소처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회식하는 경우도 있고.

망포동 일대에는 자연스럽게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이용하는 식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보통 학원가가 많고 교육열이 집중된 지역 하면 ‘영통 학원가와 아파트 주변’을 떠올리기 쉬운데, 삼성 가족들,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이 많았다는 점은 망포동에도 학군이 형성되고 높은 교육열을 지니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2. 망포역의 등장, ‘망포권역’으로서의 발전

망포역의 등장은 망포동 일대의 현재를 있게 한 핵심이다. 망포역 주변은 일 평균 유동량이 9,203명으로 수원지역 내에서는 1만 1,991명인 수원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유동량을 자랑한다. 그뿐 아니라 벽적골 아파트, 신나무실 아파트 및 원룸단지과 함께 삼성디지털시티를 배후수요로 하고 있어 상가 입지로는 최적의 장소<sup>2</sup>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제 망포역 주변은 수원시내에서 수원시청과 영통역 다음으로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는 상권이며, 매출 건수로는 수원버스터미널 다음으로 많고, 수원시 주요 7개 상권 중에서는 매출 건수 1위(2017년 하반기 기준, 261건)를 기록하는<sup>3</sup> 지역이 되었다.

망포동 일대 아파트의 개발과 더불어, 지하철 분당선 개통 후인 2012년 말~2013년을 기점으로 망포역 상권이 본격적으로 발달하였다. 망포역 상권의 업종 비율은 건강, 문화, 생활, 식품, 기타, 업종 등 업종별 비율이 고르게 분포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식품업종, 2007년 이후에는 생활업종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였다.<sup>4</sup>

현재 망포역 4번 출구부터 이어지는 신동 방향에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유니클로, 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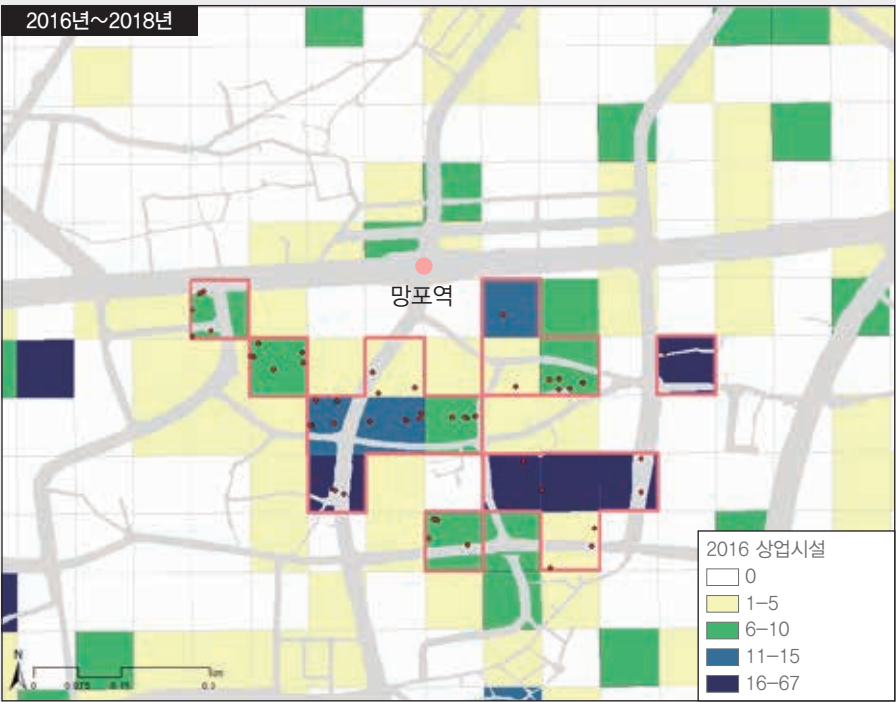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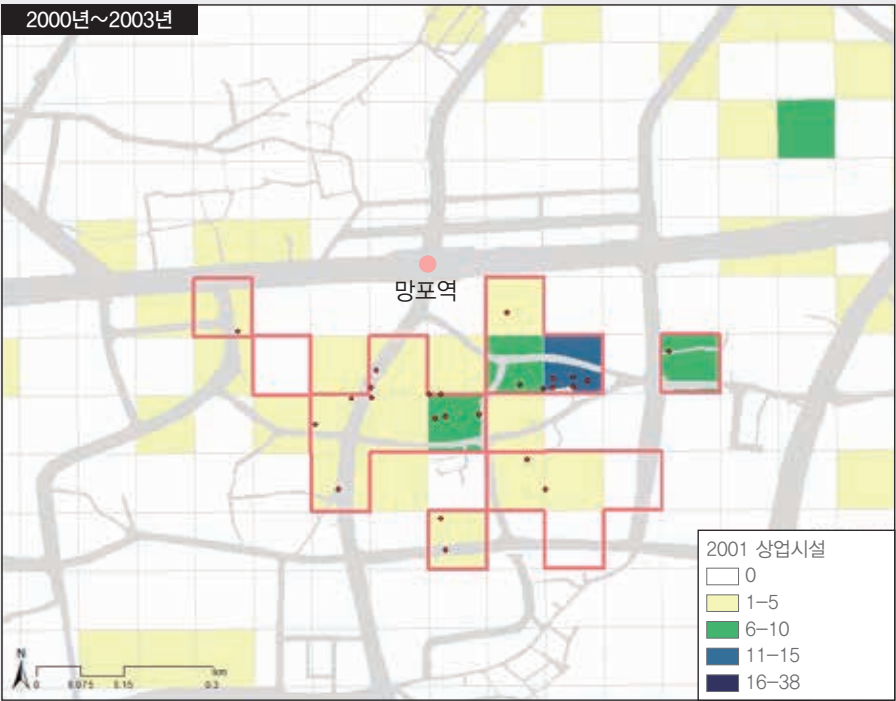
망포역사거리(김승일 제공)

마트가 있고 길 건너 신동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2014년 개점)가 있다. 트레이더스의 공략 대상은 신동과 망포동 일대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 단지인데, 현재 완공된 힐스테이트나 아이파크캐슬은 다른 상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었으며 당시 관계자는 이 아파트들이 위치한 지역은 소득 수준이 높은 30~40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입주해 있어 상권이 젊은 편이라고 보기도 하였다.<sup>5</sup>

1) 교통의 요지, 망포역

망포역에서는 수원 어느 방면으로나 갈 수 있다. 수원역과 망포역 사이는 버스와 지하철 노선이 비슷하여 해당 구간 지하철 이용률이 높다. 버스는 영통 방면, 수원버스터미널과 수원역 방면, 동탄신도시 방향 노선이 가장 많다. 서울 방면은 사당, 잠실행 광역버스가 있으며, 인천공항행 버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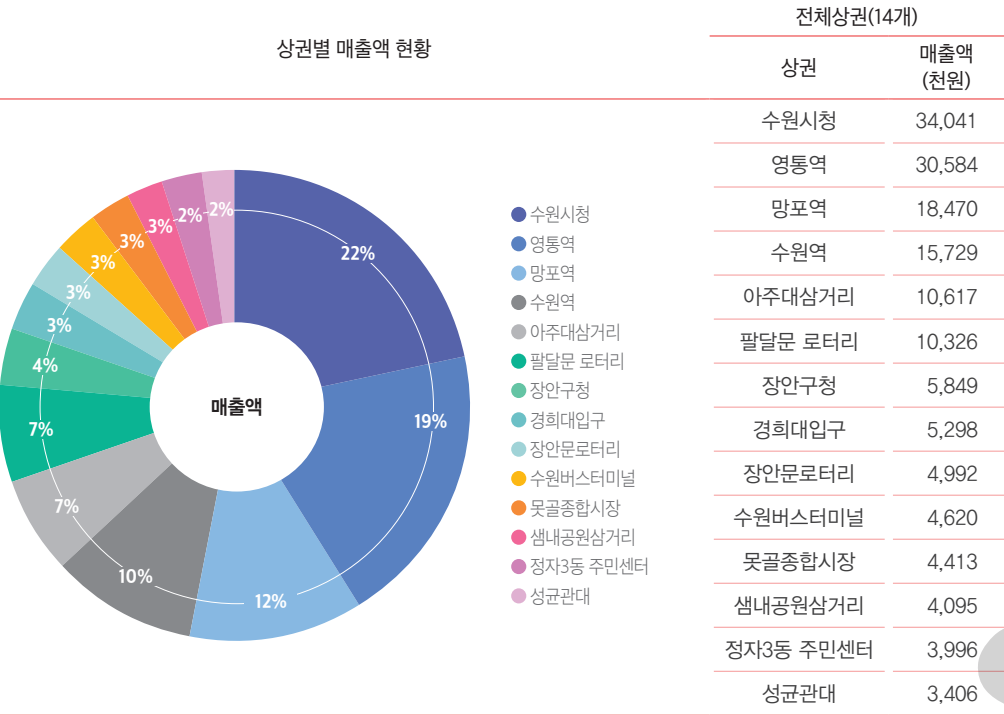
**한준영** 음, 망포역 생긴 뒤로 그 교통이 그쪽으로 집중이 된 게 있거든요. 동탄 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여기



망포역 상권의 변화  
(김도영, 『2000년 이후 수원시 도시공간과 주요상권의 변화양상』, 2019, 71쪽.)



수원시 상권별 매출액 현황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김도영, 「2000년 이후 수원시 도시공간과 주요상권의 변화양상」, 수원시정연구원, 2019, 30쪽)

가. 그래서 망포역에서 내려서 버스타고 동탄 가거나 반월리 가거나 병점까지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버스도 많이 늘어났고. 당암지하차도 가기 전에 거기도 원래 버스 없었어요. 영통으로 빠져나가는 게 하나 만들어지고.

정혜빈 역이 생기고 나서 삼성이랑 더 가까워졌고. 이제 회식이나 이전 것들도, 이제 망포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술집이나 유흥 상권도 조금 더 발전하기 시작했죠. (...) 그 부근에 이제 동네 사람들도 많이 오기도 하고.

최중영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용인 반도체나 화성 반도체나 기흥 반도체 나가는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그게 버스가 없으니까 셔틀로 움직이는 거지. (...) 그래서 아마 상권이 더 활발해지지 않았나. (...) 망포역 주변에 영통 8단지, 벽적골 상가까지. 거기다가 엠파이어 원, 투에 그 사람들까지 가 세를 하나까. 아, 이게 지하철 개통에 따라서 상권이 이렇게 튼터지는구나.

망포역 근방에서 ‘역세권’으로서의 상권이 발달함과 동시에, 망포를 경유하는 교통량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유동인구를 증가시켰다. 그와 함께 복합상가 등이 유치되고 상권이 더욱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2) 높아진 상권 편의성, 그러나 부족한 주차공간

망포동 일대 상권의 변화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한곳에 위치하게 된다는 편의성도 가져왔다. 우체국 등 관공서, 은행이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 식당들이 있다는 점,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작은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그러한 특성을 더한다. 망포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업을 한 만큼 지역정보에 밝은 설동석은 영통에 거주하다가 몇 년 전부터 망포로 이사한 후 긍정적으로 느끼는 점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설동석 (망포가) 영통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영통은 은행을 갈려면 중심상가로 가야 되고 벽적골로 와야 되고. 벽적골에는 상가가 별로, 은행도 몇 개 없어요. 근데 여기는, 걸어서 5분 거리 내에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다 있어요. 병원이 한 열세 개 정도가 있고, 한의원까지 다 하면 한 열다섯 개가 있고. 치과, 내과, 산부인과, 걸어서 오 분 거리 내에. 차로 오 분이 아니냐. 학원 학교도 좌측에 중학교, 우측에 초등학교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통을 나갈 일이 없어요. 병원 학원 아니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먹자골목, 술 한 잔 먹으러 가자 하면은 여기 음식골목도 다 있고.

상권이 다양해지고 편리해지는 반면, 그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도 생겼다. 바로 협소한 주차공간이다. 주차공간의 필요성은 주민들, 주변 상인들과 망포를 찾는 소비자들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특히 덕영대로 앞 상가들, 태장사거리 골목상권은 주차공간이 불과 4~5대, 또는 그 이하이거나 없는 경우도 많다.

한준영 사실 주차 문제만 없었으면 골목 식당들 더 커졌을 텐데. 그 앞에 다섯 대밖에 못 대요.  
정혜빈 태장사거리에서 밥 먹고 회식하기 힘든 이유도 주차 문제 때문인 거 같네요. 차를 댈 곳이 없으니까.  
조사자 부지가 따로 있을까요? 주차장 같은.  
한준영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망포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가 확정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센터 지으면 서 주차장을 어떻게 좀 확보를 할 것이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확정은 아니고. 그걸 어떻게 구축할 건지가





망포역 2번 출구 방향 공영주차장



디지털엠피어(최인경 제공)

문재인 상태 같아요. 거기 땅 문제가 해결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포기한 걸로 든었긴 했는데. 개인적인 바깥으로선 동사무소 새로 지을 때 지하주차장을 하나 파는 건 어떨까. 그래서 해서 상권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게.

**유은희** 이 주변도 많이 바뀔 거예요. 요 앞에도 차들 주차된 곳. 수원시에서 주차장 관례해서 무언가 할 예정이라고. 원래는 주차장이 아니었고 차고지였잖아요. 일단은 이 동네가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저기 공영주차장. 디지털엠피어 옆에. 꽤 넓은 부지예요.

**조사자** 공영주차장을 옮기는 건가요?

**유은희** 새로 만들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환승주차장 같은 것이 필요하죠. (...) 손님들. 방문하신 손님들이 주차를 하시는 건데. 수원뿐만 아니라 어디나. 주차 때문에 어려워하시지. 도시가 생기기 전부터 건물들이 몰려서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아무래도. (...) 역은 나중에 들어온 거니까 그에 맞춰서 뭔가 해 줘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니 이용하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 3) 망포역 주변 대형 상가건물

망포역 1번 출구 옆 디지털엠피어는 2006년 준공된 주상복합 상가와 오피스텔로, A~E동과 오피스텔 건물로 구된 대규모 빌딩이다. 초반에는 스포츠 의류매장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음식점, 병원, 협동조합 매장 등으로 비교적 다양해졌다.

**유은희** 그리고 이 길 건너 디지털엠피어 1층에 있는 것들... 원래는 다 스포츠 의류매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조사자** 주변에 스포츠 센터가 있어서 그런 것이었나요?

**유은희** 그런 아니고, 지을 때 그런 조건이 있었나 봐요. 이제는 규제를 풀어놓은 거죠. 업종 자체를 자율로 하도록. (...) 아직 몇몇 매장은 남아 있죠. 나이키나 K2 같은.





골든스퀘어(최인경 제공)



망포역과 연결되는 골든스퀘어 지하충(최인경 제공)

골든스퀘어는 2012년경 준공되어 망포역의 신설과 함께 성장한 복합상가이며, 망포역 3번 출구와 연결되어 있다. 복합상가답게 음식점, 서점, 카페, 베이커리, 병원, 은행 등 다양한 업종을 갖추고 있다. 망포역 이용객과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또 삼성반도체로 향하는 셔틀버스가 모두 골든스퀘어 앞에 서면서 그와 관련된 이용층이 증가했다. 이제 골든스퀘어는 망포역의 핵심 상권으로서 망포역 주민들 뿐 아니라 직장인들이 퇴근 후 많이 밀집하는 곳이 되었다. 수원 시내, 동탄, 용인 거주 지인들과의 접선 장소로서도 용이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최중영** 그 상가. 망포역 앞에 크게 들어와 있는 거. 그 상가가 생기기 전에는 거기 조그맣게 옷가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상가가 생겼는데, 골든스퀘어!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저쪽 나가는 길 있었어요, 삼성반도체 쪽으로 나가는 곳. 그쪽으로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고, 삼성반도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서는 거 같아요. 화성 반도체 그 버스가 거기서 돌아가요.



판타지움(최인경 제공)

망포역 8번 출구 근방에 위치한 판타지움은, 2016년에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의하며 문을 열었다. 패밀리레스토랑, 한우전문점, 라멘 등의 다양한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카페가 입점해 있다. 또한 마트와 생활용품점, SPA 의류매장, 그리고 실내 롤러스케이트장과 익스트림놀이터, 볼링장 등이 모두 한 건물에 있다. 덕분에 가족 모임, 주부들의 사교와 쇼핑, 젊은이들의 여가공간으로 급부상한 곳이다.

**한준영** 망포역에서 만날 때는 누가 전철을 타고 온다든지, 하면. 그쪽에 감비집도 있고. 그 건너편에 자연별곡이랑 애슐리 그런 거 들어오면서 그리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정혜빈** 판타지움!

**한준영** 네, 거기 사람 엄청 많이 와요. 진짜. 주말에 1층에.

**정혜빈** 1층에 뚜레쥬랑 스타벅스 러저브.



4) 우리 지금 만나, 망포에서

이제 ‘어디든지 통할 수 있는’ 망포가 주는 위치가 주는 키워드는 ‘만남’이 되었다. 학창 시절을 망포에서 보낸 20대들은, 망포역 근방이든, 기존에 망포에 살았으나 영통구 다른 동네, 동탄 등으로 뿔뿔이 흩어진 친구들을 불러 모으기에 망포만한 곳이 없다고 여긴다. 그리고 망포역 부근뿐 아니라 기존 망포동 상권 또한 학군과 아파트 주변이라는 점에 힘입어 꾸준히 이어져 올 수 있었다.

**정혜빈** 그렇게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그 친구들이 원래 있던 동네 친구들이랑 놀려면 원래 있던 토박이 친구들이랑 놀려면 망포동을 가야되고 망포역을 가야되는 거예요.

**한준영** 그리고 동탄 가는 버스들은 다 여길 지나가고. 쓸 수 밖에 없어요.

**조사자** 동탄에서 만나지는 않아요?

**한준영** 저희가 동탄가는 게 비용이 더 들어요. 교통이 불편해서.

**정혜빈** 맞아요. 동탄이 아직 교통이 불편해요.

동네 맛집과 카페들

영통구청 홈페이지에서 ‘우리동네 맛집지도’를 정보란을 클릭하면 ‘망포권역’이 뜬다. 이제 수원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상권인 만큼 망포권역이라는 이름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복합상가에 있는 프랜차이즈 정도, 동네 오래된 식당 몇 군데 정도가 아닐까 생각했었던 것은 큰 오해였다. 큰 건물들에 가려져 눈에 띄지 않았을 뿐, 생각보다 맛집들과 카페들이 망포 구석구석에서 ‘자라난’ 듯했다. 유명 아이돌이 찾는다는 곱창집도, ‘시그니처’가 유명하고 매출이 높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빵집도 있다. ‘카페거리’나 ‘먹자골목’이라고 명명되지 않은 평범한 골목임에도 ‘여기에 이런 곳이?’라는 느낌을 주는 곳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망포’는 나름대로의 공간적인 매력을 지닌 장소인 것이다.

**정혜빈** 카페는 데ighb 데 꽤 있어요. 공부하기 좋고 아늑한 분위기면 자주 찾아요. 일본풍의 이국적인 카페도 책 읽기 괜찮아요. (...) 자리는 협소한데 디저트가 ‘미쳤다’는 곳도 있고요. 브런치가 유명한 곳도.

공부하는 환경, 엄마들이 먼저 알고 모인다

카페가 자연스럽게 많아진 것은 오전과 낮 시간에 카페를 이용하는 주요 이용층이 엄마들이라는 점과도 연결된다. 망포동 학교 근처, 아파트 근처에는 유흥 상권이 거의 없다. 주



언제나처럼 따뜻한 한끼

- 1 망포감자국
- 2 빨강짜꾸미
- 3 마성의짜글이

가볍게 즐기는 행복

- 4 지단김밥
- 5 불스떡볶이
- 6 치킨싸롱

인생은 어차피 고기서 고기다

- 7 육카페
- 8 영포화로

- 9 훈이네 구이
- 10 불타는안창살
- 11 아부지하면돼지
- 12 일일양
- 13 청산애물흐르고 다
- 14 곱창촌
- 15 벽적곱창소곱창
- 16 제주올래화로
- 17 이가네 소한마리
- 18 옛시골 구들짬뽕소곱창
- 19 보름달한우정육점식당
- 20 블루핀튜나
- 21 이담양꼬치양갈비

- 23 동가네
- 24 여시막향
- 24 양씨부엌
- 25 궁돈보쌈
- 26 고반식당 수원영통구청점
- 27 고향술단지 삼겹살 겹살 요리
- 28 구이구이 쪽갈비

특별한 음식이 끌리는 날

- 29 전뱅이
- 30 Ringo(고)
- 31 비스트로 랑랑
- 32 갯벌 조개구이

- 33 엄지민물매운탕
- 34 벌교추어탕
- 35 신교동찜뽕

커피 한잔 할까?

- 36 카페 내려티브
- 37 박대훈의 커피작업실
- 38 커피밀
- 39 러블리앤
- 40 nearbycoffee
- 41 아미더치커피
- 41 쉼브론
- 42 러블리앤

- 43 카페 크레마
- 44 커피앤드
- 45 커피정류장
- 46 카페 마노 수원점

달콤한 디저트, 달콤한 하루

- 47 두리두리
- 48 서른책방
- 49 차차노아니
- 50 선데이즈
- 51 브레드트리
- 52 브라운섬





판타지움 상가

거 중심의 공간답게 생활과 밀접한 상권들 가운데 학원과 독서실이 많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동네가 망포동이다.

- 한준영 근데 저의 애들도 있으니까 학교도 많고. 한때는 독서실 붐이 일어가지고. 독서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 정려빈 한 동네에 거의 다섯 개가 육박해서. 진짜 많았죠. 스카이.
- 한준영 스카이, 뭐 아이비, 청운.
- 정려빈 딱 우리 세대랑 같이 몰락은 거 같아요. 지역 자체가.
- 한준영 근데 이제 독서실도 없어지기 시작해서. 스터디카페로 이제 변화하기 시작해서.
- 정려빈 학원도 되게 많았어요.

도시개발로 인해 이주한 사람들의 목표는 비슷한 듯싶다. 특히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엄마들의 끊임없는 관심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이다. 30~40대 젊은 엄마들은 이런 일들에 적극적인 만남의 장을 원하고, 그 수요에 상권도 응답했다.

- 정려빈 아파트들이 생겨나면서 아기들이 갑자기 또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망포역에 키즈카페 막 이런 것도 들어오고. 뭐 사람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 같아요.



학원이 밀집한 태장사거리 상가(최인경 제공)





판타지움 1층 카페 내부

**한준영** 확실히 젊은 도시이긴 해요. 수원시 인구 통계표를 봐도 명동이 가장 젊은 층이 많거든요. 2030. 그래서 명동구 슬로건이 젊은 명동이란 게 있어요. 그만큼 명동구가 광고, 명동, 망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합치면 진짜 젊은 층이 많아요.

####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찾는 곳

망포동 일대의 다양한 상권 형성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망포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망포 이외의 생활권과 행동반경이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권들의 발달에 영향을 받고 있다. 수원 내, 타지역 젊은이들은 망포가 가진 입지조건에 매력을 느끼고 계속 모이고 있다. 당암어린이공원 부근에서 3년째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서준일(가명)은 바로 그 중 한 명이다.

**조사자** 어떻게 이쪽에 열게 되셨어요?

**서준일** 이쪽 상권이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봤어요. 연령층이 젊은 층이 있다 보니까.

**조사자** 망포역 근방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해서 젊은 층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서준일** 옆에 바버샵 사장님, 그분도 행궁동에서 (잘 하시다가) 이쪽으로 옮기셨는데 얼마 전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기는 문화공간을 소비할 수 있는 분들, 교육에 관심이 많은 40대 주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모임이나 행사를 즐기실 수 있는 수준이 형성이 되어 갔다고 봤어요. (...) 그러다 보면 젊은 층들도 유입이 많이 될 거라고 봤어요. 주변 상권들도 괜찮은 곳이 많았고요. 맞은편 가게도 그렇고 (...) 와 보니 괜찮아요. 제 예상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 저는 컨셉을 확실하게 한 것이, 상권 분석에도 오히려 어긋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원 전역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 3. 기존 상권의 변화, 새로운 골목의 형성

#### 1) 태장사거리 옆 우문리 : 오랫동안 지켜 온 ‘골목’

신규섭(가명)은 우문리 골목에서 2002년부터 보쌈집을 운영해 왔다. 그는 망포에 식당을 연 이래로 지금까지도 단골손님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사연, 방송에 출연하게 된 계기,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오픈하게 된 것, 망포에 정착한 후 현재 가게의 모습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풀어 놓았다.

**신규섭** 이 동네가 처음에는, 내가 여기들 딱 차린 때 있던 가게가 이 앞에 횡집 자리에 함바집 같은 갈비집이 하나 있었고, 우리 가게 옆에 갈자탕 집 조금밖에 하나 있었고, 건강원이 있죠. 그리고 저기에 치킨집 하나 있어. 그게 가게가 다였어요. 교회 하나 달랑 있고. (...) 제육때도 우리 집에서 먹고 나서 나가야 호프집이며 치킨집이며 사값이 차는 거야. 그렇게 술집이 하나씩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지. 옛날에는 아무 것도 없었어.

아무 것도 없었던 시절을 지나 우문리 골목은 삼성 직원들의 회식 장소로 활용되던 때가 있었지만, 주변 지역이 개발되며 직장인 회식 장소도 반도체근방 식당이나 망포역 부근으로 옮겨갔다. 골목을 오가는 발길은 뜸해지고, 골목상권이 발달하기는 어렵겠다는 우려가 있었을 것이다. 잠시 주춤했던 우문리 골목은 조금씩 외부와 같은 변화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젊은 방문객들이 다시 찾으며 가까운 곳에 모일 수 있는 곳이 되어 갔다. 대부분 가족 단위로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 20대 중반의 정혜빈과 한준영은 그곳에 가면 오래된 단골로서 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 주변의 변화에 발맞추어 동네 젊은 연령층도 찾기 편한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한준영** 사실 향아리보살 뒤쪽으로는 고깃집도 있고 호프집이나 족발집도 있는데. 그게 원래 없었어요. 생





태장사거리 방면의 우문리 골목상권



태장사거리 근처 망포동 골목상권

긴 지 한 근 5년 되었을 거예요.

**조사자** 거기를 좀 젊은 사람도 가는 추세예요?

**한준영** 네, 젊은 저희 또래들이 먹을 만한 곳도 어느 정도 있고 포차도 있고 맥주집도 있고. 망포역 가기는 귀찮고 멀고. 여기 다 있으니까 멀리 나갈 필요는 없죠.

**정혜빈** 근데 이제 우리가 스무 살이 되고 나서부터 거길 이용하는 연령층이 좀 더 낮아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래는 약간 아저씨들만 가는? 그런데 저희들도 술을 마실 수 있고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됐고. 그래서 약간 상권(이동층)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 망포동 상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지켜 온 사람들의 생각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맴돌았다. 어려운 질문에 신규섭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대답했다.

**신규섭** 우리가 망포동에서 장사를, 사람들이 오래하고 잘 살려면 더불어 사는 거 최고인 거 같아요. 나만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더불어. 너도 나도 잘 되는. 동네 주민들 다 잘 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앞으로 망포동의 미래가 있고 그렇지. 나 잘났네. 너 잘났네. 가게 세는 평평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상생을 못 하면, 안돼요. 어디든 그렇지만.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골목이 지금처럼만이라도 먹고 살려면 같이 돕고 나아가는 게 최고 나을 거 같아요.

## 2) 추억을 떠올리며 모이는 공간으로

망포중학교를 낀 사거리의 정확한 명칭은 ‘태장사거리’이지만 근처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에게는 행정구역상의 명칭보다는 부르기 편하고 익숙한 명칭으로 인식되어 있다. 지금도 하교 시간이 되면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학생들이 가득하다.

**한준영** 태장사거리가 맞는지 망포사거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엘지사거리라 하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엘지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망포사거리, 망사라고 하거든요.(웃음) “망사 앞에서 봐.” 하면서요.

한준영과 정혜빈은 망포 상권 분석 전문가라고 해도 될 만큼 학창 시절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망포동 곳곳에 대해 꿰고 있다. 이들과의 대화는 인터뷰답지 않게 물 흐르듯



즐거웠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격한 공감의 이어지던 가운데, ‘닭똥집’에 관한 추억 하나가 소환되기도 했다.

**정혜빈** 우리 동네에 유명한 닭똥집 집이 있어요. 한때 SNS까지 올라와서 붙이셨어요.

**한준영** 진짜 맛있어요. 근데 주인도 바뀌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조사자** 아, 왜 바뀌셨을까?

**한준영** 아마 파셨겠죠(웃음).

**정혜빈** 많이 버셨을 거예요.

**조사자** (웃음) 고등학교 때부터 닭똥집을?

**정혜빈** 아니 근데 유행이었어요. 그거 먹으려 명통 친구들도 올 정도로.

**한준영** 거의 ‘행복한집’(가명) 모르면 왜 모르냐며 간접으로.

**정혜빈** 망포동 사람 아니다.

**한준영** 맞아 맞아. 그 정도 치킨 집 갈 때 “행복한 갈래?”라고 하니깐. 그게 입에 붙었어요. “오늘 행복한?”

망포동은 지하철역 주변을 제외하고는 학교와 아파트, 주택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성인의 삶을 시작한 이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의 그 장소’가 되어 갈 것이다. 이 지역의 상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을 공유하게 만들고, 무언가 사라졌다면 아쉬워하게 할 곳이다.

3)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발돋움

한 자리에서 가게를 오랫동안 지키는 데에는 그 곳을 꾸준히 방문하는 ‘단골손님’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그 손님들을 한데 끌어모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제 망포동 일대의 카페들은 단순히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공간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도 자리 잡았다. 태장사거리 근방의 한 갤러리 카페는 7년째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장 박혜원은 사진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모이고, 지나가다 카페를 방문한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넓은 카페 공간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시작하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문화 활동 커뮤니티가 지속되었다고 한다.

**박혜원** 한 달에 한 팀씩 사진이나 그림을 전시하는데, 2025년까지 전시예약이 다 차 있어요.

**조사자** (놀람) 정말요? 혹시 또 다른 모임이나 수업은 무엇이 있어요?



갤러리카페 내부에 전시된 그림



갤러리카페 전시 일정 알림





망포동의 북카페

**박혜원** 캔든, 캘리그라피, 리스 수업 있고. 기타 강습도 있는데 그거는 영업 전후에 장소를 빌려서 사용하 시는 거예요. 강습이 끝난 후에 커피나 피자를 드시기도 하니 매출로 이어지기도 하죠.

**조사자** 사장님께서 어떤 수업을 하시나요?

**박혜원** 저는 커피교실이죠. 규모는 기초반이 4명 정도, 중급반이 10명 이상이기는 한데. 지금은 코로나 때 문에 못 하고 있어요. 이 시국에 운명이 쉽지는 않죠. 그래도 즐겨워요. 사람들도 만나고.

‘커뮤니티’로서의 카페의 역할은 문화활동뿐만이 아니다. 망포동의 높은 교육열은 아침 부터 엄마들을 카페로 모이게 한다. 박혜원은 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서 항상 듣는 이야 기라고 했다.



북카페 내부

왼쪽은 음료와 디저트를 만들고 작가나 독서 관련 행사를 소개하는 공간이고, 오른쪽은 문구류와 주인이 직접 선정한 책을 진열해 둔 공간이다.

##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박혜원** 여기는 데일리 카페라 주부들이 아이들 유치원·학교 보내고 정보공유하는 곳이에요. 아침부터 모여서 교육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이 근처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 학업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꽂은 픽워요.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때 어떤 콘텐츠가 있다면 그 확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여러 책방들을 가 본 경험을 가지고 북카페를 경영하는 서준일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카페’와 결합하고, ‘서점’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지 않으려 경영에 신경을 쓴다. 그는 손님들이 책을 꼭 사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책과 ‘함께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어떻게 커 뮤니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지켜보았다. 그 공간을 통해 손님과 주인은 지속 적으로 교류하며 관계를 쌓아 나가고,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손님은 새로운 꿈을 꾸고 실행 하게 되기도 한다.

**서준일** 신동 카페거리에 오픈한 책방이 있는데, 저희 필사모임 멤버시거든요.

**조사자** 제가 찾던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웃음) 여기에서는 어떤 모임을 하세요?

**서준일** 필사모임하고, 독서모임. 이 두가지가 가장 크고요. 오인 파스텔, 미술심리, MBTI모임도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코로나 (방역단계) 격상되고 나서 못 모이고 있어요. (...) 저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모임을 주도하는 분들은 전문가분들이세요. 거의 저희 손님으로 오셨다가. (...) 대화하는 걸 좋아해야 책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바라는 게 있어요. 일반 카페 사장님 하고는 얘기 나눌 생각은 없는데, 책방 사장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왜 이 공간을 이렇게 꾸몄을까, 그런 것들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저도 다른 책방에 가서 이 공간을 어떻게 차리셨는지 자연스럽게 묻고 들어요.

책방과 카페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북카페는 인테리어와 공간 배치, 소품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서준일은 자신의 경영 철학 중 하나로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의도도 밝히며, 앞으로도 이곳을 통해서 망포 책방들, 많은 지역 책방들이 더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서준일** 여기를 들어오면서 나갈 때까지 이야기를 곳곳에 숨겨놨어요. 저 스투키[식물]도 그렇죠. 사람들이 저거 키우는 거 어떠냐고 묻기도 하고, (친해질 목적으로) 말도 걸게 되고,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된다면 저는 좋아요.

#### 4. ‘흥망성쇠(興亡盛衰)’와 ‘전도유망(前途有望)’ 사이에서

망포동 상권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망포를 바라보는 것은 부담 반, 호기심 반이 충돌하는 과정이었다. ‘역전’의 동네와 같은 망포를 거쳐 간 사람들은 매우 많다. 망포 일대 경제활동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들은 도시의 형성과 함께 등장하였고, 성장했다. 그리고 망포의 점진적이면서도 180도 달라진 변화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것들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격세지감을 느끼고, ‘아, 진작에 땅 좀 사놓을 걸’이라는 후회를 하기도 한다.

망포동 상권은 마치 ‘뉴트로 셀럽’과도 같다. 40~50대에게는 지금 가장 편리한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젊은 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20대 젊은 층에게는 그동안 누군가에게서 들으며 간접적으로만 경험해 왔던 것들을 직접 향유하게 됨과 동시에 그런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렇지만 사실상 모든 상권이 웃음 짓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여전히 망포동 골목상권과 상가 부지에는 모두가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상인들이

편히 영업하고 인근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주차공간의 확보는 절실하다. 식당에 가더라도 주차가 어려워 주위만 돌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중주차에 걸려 범칙금을 물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은 망포동과 망포역 상권이 가진 한계점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추진 중인 망포복합센터(환승주차장) 건립의 경우 민간 개발로 변경이 추진되며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sup>6</sup>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못하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개발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전과 다르게 식당을 이용하는 벵타이 부대나 주민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회식 문화가 줄어들어 상권이 위축되는 것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sup>7</sup>는 언급은, 누군가 웃게 되면 누군가는 울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도시가 개발되고 형성되는 과정은 대체로 급격하고도 일방적인데, 우리가 사는 어디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렵다는 것은 경제와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는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환기시킨다.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시대에, 상권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거리, 북적거리지 않는 식당들, 포장만 가능할 뿐 앉아서 쉬었다 갈 수 없었던 모든 카페들. 상권(商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때, 그것이 사람들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것이 된다고 볼 때, 그동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와 그 방식이 비슷했으며, 서로가 의존해왔던 것임을 느낀다. 그리고 나의 바로 옆, 주변의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이 결코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그것들을 하루 빨리 다시 경험하는 활기찬 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 註

1. 김도영, 「2000년 이후 수원시 도시공간과 주요상권의 변화양상」, 2019, 수원시정연구원, 22쪽.
2. 「망포역 역세권에 들어서는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영통” 눈길」, 『디지털타임스』, 2018년 1월 5일.
3. 김도영, 「2000년 이후 수원시 도시공간과 주요상권의 변화양상」, 2019, 29쪽.
4. 김도영, 「2000년 이후 수원시 도시공간과 주요상권의 변화양상」, 2019, 수원시정연구원, 55쪽.
5. 수원시, 『100만 도시 성장기 - 스토리북』, 2019, 188~189쪽.
6. 「망포역세권 복합개발 ‘땅장사’ 논란」, 『중부일보』, 2020년 11월 24일
7. 「이희승 의원, 수원 망포, 영통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은?」, 『KFM 경기방송-유패한 시사 소영선입니다』, 2019년 6월 19일.



## 집필

|     |                         |
|-----|-------------------------|
| 강신혜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
| 김연주 |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          |
| 김현미 | 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
| 김현미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
| 김형아 | 설날 대표                   |
| 류현지 |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          |
| 손승호 |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
| 유선영 | 이천문화원 이천학연구소 연구원        |
| 유승희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 졸업        |
| 윤유석 | (사)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책임연구원     |
| 이윤재 | 수원박물관 연구원               |
| 이재윤 | 전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 이진희 | 시인                      |
| 정현목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교수       |
| 한동민 |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
| 홍현영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
| 황병주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 황의진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석사과정 수료  |

## 기획·편집

|     |               |
|-----|---------------|
| 김현미 | 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
|-----|---------------|



— 수원시 마을지 시리즈 17 —

# 망포동

태장면의 중심지에서  
수원 신읍 주거지로

발행일 : 2021년 12월 30일

발행처 :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인·박물관  휴먼시티 수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으로 126

(전화 031-220-8058, 팩스 031-220-8060)

<http://www.suwon.re.kr>

제작 및 인쇄 : 경인 M&B(전화 031-231-5522~7)

발간등록번호 : 11-B552980-000016-01

ISBN : 979-11-6819-043-6 94300

ISBN : 979-11-6819-042-9 (세트)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